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The Year of Jeju Folk Culture 2007

제주어와 제주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제주어와 제주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The Year of Jeju Folk Culture 2007

제주어와 제주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

제주어와 제주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

엮은이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발행처 도서출판 누리
인 쇄 디자인누리
등 록 제134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055-11번지
전 화 064-702-3572
팩 스 064-702-3573
발 행 2007년 10월
ISBN 978-89-957047-6-9 03700

비매품

본 책은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기념으로 2007년 10월 11일,12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자료들 엮어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발간사

제주민속문화의 해에 제주민속과 제주어의 보존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대회와 민속문화 현장체험행사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제주민속과 제주어에 깊은 관심을 기울려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민속은 섬이라는 특수한지역과 환경속에서 제주인들이 수천년을 대이어살아오면서 창조해낸 삶의 양식입니다. 또 한 제주어는 이러한 민속을 엮어내고 전승시켜온 의사소통의 수단인 동시에 제주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과 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제주도민들이 생활 주변에는 통과의례와 생산기술, 의.식.주와 민간신앙, 세시풍속과 구비전승등 풍부한 민속과 제주어들의 연연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제주를 「민속문화의 고향」, 「언어의 보물창고」라 부르면서 활발한 조사연구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산업화와 정보화시대를 거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주민속과 제주어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소멸되는 양상을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음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제주민속과 제주어가 가장 제주적인 재산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도 손색이없는 문화적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과 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이 올해를 제주민속문화의 해로 정하고 민속조사와 각종행사를 다양하고 펼치고 있는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민속문화 보존 전승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어의 보존 전승방안에 대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제주어 축제를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으며, 제주어 사전 편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어 보존 전승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여 제주어 연구소를 설치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주도정은 이번의 학술대회를 통하여 좋은 방안들이 제시되면 이를 시책화하고 앞으로도 제주민속과 제주어보존 전승사업에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시책개발에 힘써 나갈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귀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관계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리면서, 내실 있는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사 **김 태 환**

발간사

제주 국제학술회는 "2007 제주 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결실을 맺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조사사업을 비롯하여 행사, 교육, 전시, 조사보고서 발간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외 학자들을 모시고 제주 민속 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주 국제학술대회의 주제인 "제주어와 제주 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은 제주 민속문화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대화 및 관광화는 제주의 고유한 많은 민속들을 변화시켰으며 지금 제주어와 제주 민속의 보존 방안을 논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주 국제학술대회는 1부 주제로 "제주어와 세계 지역어", 2부 주제로 "제주 민속과 섬문화"로 진행이 됩니다. 1부 주제인 제주어와 세계 지역어는 현재 소멸되어 가고 있는 제주어의 위치를 확인하고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의 언어학자 및 소수 민족 언어 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였으며 국립국어원장을 비롯한 국내의 전문가들 또한 모셨습니다.

세계의 언어가 7,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 2주에 1개꼴로 언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라지고 있는 언어가 힘없는 소수민족의 언어도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내의 소수 언어도 다수의 언어에 눌려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언어는 표현수단의 하나로써 민속 문화를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의 사라짐은 곧 그 지역 주민의 정체성의 상실을 말합니다.

제주어는 제주도민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중세 국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즉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그 소멸의 속도가 빠릅니다. 제주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의 문화 자산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유럽,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소수 지역어 및 소수 민족어 보존 방안들을 귀담아 들어 제주어를 보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는 섬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독특한 문화를 존속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많은 학자들이 제주의 민속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물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도 많은 민속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 장을 빌어 제주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참여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좌장, 사회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0월 11일

국립민속박물관장 **신 광 섭**

제주 국제 학술대회 진행표

■ 1일째(10월 11일)

	시 간	주 제	발표자(토론자)	비 고
등록	12:00~13:00			
개회	13:00~13:05	발간사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회 이문현
	13:05~13:10	발간사	신광섭 국립민속박물관장	
	13:10~13:20	축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표	13:20~13:50	절멸 위기 언어의 보존 방안	이상규(국립국어원장)	사회 오창명
	13:50~14:20	세계문화의 흐름과 소수 언어의 보존 방향	다니엘 뉘젤(독일)	
	14:20~14:50	중국 정부의 윤남성 소수민족 언어 보존 방향	허리펑(중국)	
	14:50~15:00	휴식		
	15:00~15:30	오끼나와 지역어와 민속 보존 방안	하기하라(일본)	
	15:30~16:00	베트남 소수민족 언어의 상황과 정책	리 토안 탕(베트남)	
	16:00~16:10	휴식		
	16:10~16:40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도	강영봉(제주대)	
	16:40~17:10	제주어의 세계적 가치 발굴 추진 전략 유네스코 무형유산 사업 중심	김귀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7:10~17:20	휴식		
종합토론	17:20~18:00	종합토론 좌장 : 이태영(전북대)		
만찬	18:00~			

■ 2일째(10월 12일)

	시 간	주 제	발표자(토론자)	비 고
등록	09:00~10:00			
개회	10:00~10:10	축사	제주도	사회 정광중
발표 및 토론	10:10~10:40	제주민속문화의 해 조사 개요 및 특성	강권용(국립민속박물관)	
	10:40~11:15	제주민속연구 현황과 과제(미래)	고부자(단국대)	
	11:15~11:45	제주 정신문화의 본(本)이 되는 무속신화	문무병(제주 전통문화연구소)	
	11:45~12:00	토론	현승환(제주대)	
	12:00~13:30	점심		
	13:30~14:00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 사회 변화와 제주 방언의 변화	강정희(한남대)	
	14:00~14:15	토론	정승철(서울대)	
	14:15~14:45	제주도 구비문학의 전승 변이적 특성	좌혜경(해녀박물관)	
	14:45~15:00	토론	양영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전문위원회)	
	15:00~15:10	휴식		
	15:10~15:40	牝牛(암소) 와 牡牛(수소)	고광민(제주대)	
	15:40~15:55	토론	김재호(안동대)	
	15:55~16:10	휴식 및 종합토론 준비		
종합토론	16:10~17:30	종합토론 좌장 : 전경수(서울대)		
만찬	17:30~	폐회		

Contents

제1부 제주어와 세계 지역어

이상규 (국립국어원장) –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 방안 • 7

Daniel Nuetzel (Universitaet Regensburg) – LANGUAGE DEATH • 19
다니엘 뉘에철 (녹일) – 세계분화의 흐름과 소수 언어의 보존 방향 • 37

和麗峰 –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thnic Languages and Scripts in Yunnan • 53
허리펑 (중국) – 중국 정부의 운남성 소수민족 언어 보존 방향 • 67

萩原左人(琉球大學 准教授) – 沖地域における民俗の保存について • 79
하기와라 사히토 (萩原左人, 류큐대 준교수) – 오끼나와 지역어와 민속 보존 방안 • 93

Ly Toan Thang (Institute of Linguistics, Hanoi –Vietnam)
– The situation and policy on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 109
리토안탕 (어학연구소, 베트남 하노이) – 베트남 소수민족 언어의 상황과 정책 • 127

강영봉 (제주대학교) –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도 • 143

김귀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 제주어의 세계적 가치 발굴 추진 전략 • 165

제2부 제주 민속과 섬문화

강권용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 제주민속문화의 해 조사 개요 및 특성 • 177

고부자 (단국대학교) – 제주민속연구 현황과 과제(미래) • 187

문무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 제주 정신문화의 본(本)이 되는 무속신화 • 213

강정희 (한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 사회 변화와 제주 방언의 변화 • 219

좌혜경 (해녀박물관) – 제주도 구비문학의 전승 변이적 특성 • 237

고광민 (제주대학교) – 牝牛 와 牡牛 • 257



제1부
제주어와 세계지역어

- 이상규 (국립국어원장) –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 방안
- Daniel Nuetzel (Universitaet Regensburg) – LANGUAGE DEATH
  다니엘 뉘에철 (녹임) – 세계분화의 흐름과 소수 언어의 보존 방향
- 和麗峰 –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thnic Languages and Scripts in Yunnan
  허리펑 (중국) – 중국 정부의 운남성 소수민족 언어 보존 방향
- 萩原左人(琉球大學 准教授) – 沖地域における民俗の保存について
  하기와라 사히토 (萩原左人, 류큐대 준교수) – 오끼나와 지역어와 민속 보존 방안
- Ly Toan Thang (Institute of Linguistics, Hanoi –Vietnam)
  – The situation and policy on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리토안탕 (어학연구소, 베트남 하노이) – 베트남 소수민족 언어의 상황과 정책
- 강영봉 (제주대학교) –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도
- 김귀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분화팀장) – 제주어의 세계적 가치 발굴 추진 전략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 방안

이 상 규 (국립국어원장)

절멸 위기 언어의 보존 방안

이상규(국립국어원장)

1. 언어 식민주의를 넘어서서

21세기에는 최소한 세계 언어의 절반 정도가 소멸해 버릴 수 있다고 한다. 무슨 일 때문에 이 다양한 목소리가 침묵하게 된 걸까? 지난 세기 서방 유럽의 몇몇 국가 언어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에 살던 수많던 원주민들의 언어를 포식(glottophagie)하였다. 언어의 식민지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계화라는 이름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부족들에 이르기까지 영어가 지배할 기운이 보인다. 이미 영어 그 자체가 엄청나게 다양한 변이형을 가진 변종이나 혼종의 영어로 둔갑하여, 지난 세기에 무서운 속도로 죽어간 원주민들의 텅 빈 언어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특히 지난 세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의 많은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부족들이 서구 유럽의 열강으로부터 그들이 살아왔던 거주지와 문화 체계와 언어를 약탈당했다. 독립 말리에서 소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가 10여 개의 아프리카 원주민 언어를 지배하고 있으며, 튀니지에서는 프랑스어가 아랍어, 몰타어, 이탈리아어를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식민 지배자의 언어는 피지배자의 언어를 지배하고 위축시킨다.

식민주의 언어 때문에 가장 상처받은 나라인 필리핀의 예를 들어 보자. 필리핀의 국민 작가인 프란시스코 시오닐 호세는 장편 소설『에르미따』의 서문에서 미국 작가 제임스 펠로즈의 말을 인용하여 오늘날의 필리핀의 불행은 '손상된 문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필리핀의 '손상된 문화'의 속성을 호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한 젊은 작가가 저에게 타갈로그, 일로카노, 비사야 어로 글을 쓰는 작가들과 한 무리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어로 글을 쓰며 예술가인 체하는 작가들, 그 일부는 대학에 몸담고 재외의 최신 문학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그들 중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그러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일본, 미국으로 이어진 오랜 식민지 시기 필리핀의 언어 혼란이 바로 그들의 문화의 손상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말이다. 최근 필리핀의 경우 그들 민족어의 하나인 타갈로그어가 공용어인 영어의 위세에 눌려 중류계층에서는 타갈로그 영어와 같은 혼종의 영어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에 소외된 하위 계층의 사람

들은 타갈로그어밖에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원주민의 언어는 지구에서 한 번 없어지면 대체가 불가능한 천연자원과도 같은 것이다. 언어의 다양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우리가 끌어와 쓸 수 있는 지적 기반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인류의 환경 적응력은 현저히 감소된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언어와 방언이 두려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소멸해 가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이런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50여 년 전 아프리카의 콩고, 알제리, 차드가 처했던 식민 상황에서 프랑스어의 언어적 억압과 현재 세계화의 물결로 밀려드는 영어의 언어적 억압과는 다르다. 대규모의 중심 언어인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말레이시아어, 포르투갈어 등이 오늘에 와서는 영어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 지난 세기에 비해 21세기는 언어적 억압을 받는 사람이 기하급수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물론 그 지배 방식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지구 상에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이들은 문화적 식민주의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식민주의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가장 큰 무기가 문화 폭탄이다. 특히 언어 제국주의는 언어의 침탈뿐만 아니라 호명의 수단인 이름, 그들의 역사나 문화유산, 그들의 결속력, 그들의 지적 능력과 그들이 자신에게 가진 믿음마저도 무력화시킨다. 각양각색인 아프리카 부족들이 피할 수 없는 분열적 상황에 몰려 있다.

세계적인 언어의 식민지화와 그 이후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변방의 원주민들의 언어를 포식해 온 언어 신식민주의의 증거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케냐의 작가 응구기 와 시옹오는 원주민의 언어인 키쿠유어로 글을 쓴다는 이유로 투옥을 당했으며, 우비크 족의 대량 학살을 통해 우비크어가 절멸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다. 특히 지난 2백년 동안 언어의 소멸을 초래하는 과정이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언어의 소멸은 다양한 생물 종의 소멸 위협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당면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생물 종의 다양성이 무너지면 지구의 위기를 예견할 수 있듯이 언어 다양성의 소멸 현상도 인류의 지적 문명의 재앙이자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이나 부족의 언어를 조직적으로 멸시하고 짓밟는 언어 식민지화에 대한 일말의 문제점도 의식하지 않았던 언어학자들은 이제 지난 시대를 한 번쯤 되돌아 보아야 한다.

2. 변두리 언어의 소멸

지배 언어가 피지배 언어를 포식하는 언어 식민주의와 마찬가지로 나라 안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도시 언어(표준어)가 변두리 언어(방언)를 포식하는 곧 도시 언어가 지배 언어로, 변두리 언어가 피지배 언어의 관계로 대응된다. 나라 안에서도 어떤 일부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이론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언어 지배의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시엥 방언이 프랑스의 중심 언어가 되었듯이 중앙 집권화한 왕국의 중심 언어인 시엥 방언 이외는 모두 '방언'의 속성으로 규정된다. 만일 루이 14세가 나뮈르에 거주하였다면 프랑스 전역에 나뮈르의 발론어가 프랑스 표준어가 되었을 것이지만 우연하게도 프랑스 시엥 방언이 프랑스의 여러 방언 가운데 으뜸가는 방언 즉 프랑스 표준어가 되었다.

일제의 지배 방식으로서 '국어'와 '민족'이라는 이념이 필요했듯이 민족주의자들은 저항을 위해 '국어'와 '민족'이라는 이념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식민주의적 방식으로 표준어의 설계와 그 당위성을 재배자와 피지배자가 함께 공유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화의 환영으로 경성(京城)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가 성립되었고 다른 모든 방언은 경성 표준어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표준어의 방언 포식이 시작된 것이다.

모든 부족이나 민족의 언어나 방언은 그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언어나 방언은 그들 부족이나 민족의 삶의 지혜와 생존 전략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면서 느낀 감정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으며, 그들의 언어와 관련해서 사회적 결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값진 자산이다. 국어와 방언은 모두 고유한 어휘, 문법, 그리고 음운 체계를 가지므로 국어와 방언 사이에는 국어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어와 방언이 차이가 있다면 '지위 획득'이라는 면에서 국어가 방언보다 존중된다. 국어가 규범적인 언어인 표준어와 일치한다는 편견은 방언이 국어가 아니라는 오해를 낳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어'는 '국가어'이다. 표준어가 국가어인 '한국어'와 문화어가 국가어인 '조선어'를 합치면 민족 단위의 하나의 '국어'가 될 수 있다. 민족어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국가어'를 합쳐야만 진정한 하나의 통일된 '국어'라는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다.

국어가 방언에 미치는 언어 폭력과 포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일부 학자들은 국어는 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방언들의 총합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어의 특질은 개별 방언들이 갖는 공통적 특질로 구성된다는 대단히 목가적인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을 가진 방언학자들은 방언들 사이의 관계를 진지하게 역사적으로 얽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오히려 언어 식민화와 언어 포식을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일종의 지적 테러리즘에 가담하고 있는 꼴이 아

닐까? 지난 세기는 제국의 정치, 자본 중심의 대도시로부터 파장을 일으키는 문화에서 산출된 '비즈니스 문명' 의 시대였다. 지난 세기는 특히 문화의 소통 방식의 본질인 언어의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다종의 언어가 절멸되거나 급속히 파괴된 시기였다. 범위를 좁혀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수천 년 동안 개인과 개인이 쌓아 올린 일종의 언어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방언이 표준어라는 힘 있는 언어로부터 지배당하게 됨으로써 급속한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변두리 언어의 소멸은 변두리 사람들이 살아오던 과거로부터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꼴이다.

현재 한반도는 모국어를 관리하는 정부가 두 개 있다는 현실은 우리들의 모국어를 항시 반쪽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다시 폭력의 수준으로 우리들에게 노정시키고 있다. 김형수(2006)는 "남과 북에서 서로 대결 의지를 높여 온 위정자들이 반공 정책과 반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한 결과 억압에 의한 언어의 자살 현상도 극심했다."[1]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심에 자리한 표준어와 문화어 그리고 변방에 자리한 방언들과 죽어가는 방언들 간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멸종으로 치닫는 생태계의 현상과 같이 죽어가는 강물, 물고기, 새들, 사라져 가는 나무와 들풀처럼 변두리의 방언도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소수 언어인 방언의 미학을 되살려 내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자본주의 '비즈니스 문명' 의 유통 질서의 세계를 거꾸로 되돌려, 버려진 것, 변두리의 것, 소외된 것들에 대해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조선조 500여 년을 한자와 한문 사용자가 기득권을 행세했듯이 광복 후 미군정 치하에서부터 영어 능력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열쇠가 된 것이다. 20세기를 건너면서 영어 공용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지방 정부 곳곳에서는 영어 마을을 건립하고 있다. 과거 어느 시대에도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전 세계를 지키는 '세계 경찰' 의 역할을 맡았던 적은 없었다. 햄버거와 코카콜라로 상징되는 단일 문명의 위협이 인류의 코앞에 다가선 이 엄청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9세기 서구 유럽의 산업화에 이어 20세기에 확대된 시장 경제와 세계화의 질서는 철저하게 다양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고유어는 다 증발해 버리고 한자어와 외국어로 뒤범벅이 되어 앙상하게 여위어 가는 모국어가 영어에 다시 휘둘리고 있다.

어떤 발전이든 그 발전은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오직 다양성이 보장될 때만이 진보적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단일화하고 획일화해 나가려고 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우리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 한 언어는 한 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립하는 선결 조건이다. 빌려 온 외국 언어에 어떻게 우리의 고유한 삶과 경험의 무게를 온전히 잘 실어 낼

1) 김형수, 「변두리가 중심을 구원할 것이다 - 한국 문학이 아시아 연대를 꿈꾸는 이유」, 『ASIA』, VOl 1. NO.3, 2006, pp. 16-17.

수 있을까?

3. 제주도의 어문 생활과 제주어 보존

제주 방언 역시 서울 표준어 중심의 학교 교육이 강화되고 또 방송 매체가 다양화하면서 급격하게 절멸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방언은 본토말과 사뭇 달라서 서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조선조까지는 본토와 제주도의 공식적인 관계는 한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주도 사람들이 본토말을 어느 정도 익혀서 활용했던지 확실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제주도에서 제주도말과 본토말, 한문과 국문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전면적으로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주도민의 어문 생활에 관한 논의는 조동일 교수가《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서울대학교출판부, 2003)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탐라국에서 중국이나 백제와 신라 사이에 사신이 왕래했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으며 고려 때에 고조기(高兆基)가 탐라인으로서는 최초로 문과에 급제해 중앙정계로 진출했다. 그후 조선 전기에 이르면 향교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배우고, 현지에서 향시(鄕試)를 실시하기까지 했다. 제주향교의 교수 김양필(金良弼)이 지은 〈명륜당판상시〉(明倫堂板上詩)가 전한다. 1702년(숙종 28)에 제주목사가 되어 간 이형상(李衡祥)은 현지 사정을 다각도로 기술한 〈남환박물〉(南宦博物)에서 시부(詩賦)를 하는 유생들이 있어도 수준이 낮아 부끄럽다고 하면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 13인의 이름을 들었다. 조선 숙종 때의 국학자이자 실학의 선구자였던 병와 이형상(1653-1733)이 남긴『탐라순력도』에도 삼읍의 문묘(文廟, 향교)를 수리하고 이름난 학자들을 골라 삼읍 향교의 훈장으로 삼아 지방 유생과 자제들에게 유학교육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 1702년(숙종 28) 윤6월 17일에 이형상 목사 자신이 시험관이 되어 시행한 시험장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시험장은 관덕정이다. 승보시는 본래 성균관 유생들에게 치러진 소과(小科)의 초시(初試)에 해당하는 시험인데, 지방에서는 개성, 제주, 수원에서 시행되었다. 제주의 경우 1639년(인조17) 심연(沈演)목사가 조정에 건의해 허락을 받고 실시했는데, 고시관 3원(員 : 9품 이상의 관료에게 붙이는 칭호)이 매년 2명을 뽑아서 소과 복시(覆試)의 응시자격을 주었다. 장한철(張漢喆)은 향시에 장원하고 1770년(영조 46) 회시에 응시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한 내력을 〈표해록〉(漂海錄)에다 기술했으나, 시문집은 알려지지 않았다.

19세기말 김협(金浹, 1829-1894)은 전라도 나주 사람인데 1876년(고종 13)에 제주도로 이주해 향교의 교수 노릇도 하면서 지은 시를 제자들이 모아 〈노귤시집〉(老橘詩集)을 마련했다. 또 제주도 태

생인 신홍석(愼鴻錫, 1850-1920)은 서당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쓴 시를 제자들이 모아 〈화암시집〉(禾菴詩集)을 엮었다.

제주도 방언은 본토와 다르다고 여러 풍토기에서 말했다.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에서는 시골사람들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고, "官人及在城中者 往往難澁 與湖南之士一般"라고 했다. 관가에 근무하는 아전이나 성내 거주가 가운데 이따금 난삽하기는 하지만 호남의 보통 사람들 정도로 표준어와 가까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 사람을 통역으로 삼아 지방민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또 이형상(李衡祥)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 "악(岳)이라 칭한다.(방언에 岳을 오름이라 칭한다.),큰 숲은(방언으로 큰 숲을 곶이라고 한다.), 도근천(都近川, 방언이 난삽하여 朝貢을 일컬어 도근이라고 한다."라는 기록에 '오름, 곶, 도근(朝貢)'과 같은 제주도 방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제주도에서는 역학(譯學) 교육을 했다. 1672년(현종 13년)에 총명한 사람 수십 인을 선발해 〈〈노걸대〉〉(老乞大), 〈〈첩해신어〉〉(捷解新語) 등을 가르쳤다고 했다. 역학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국문을 알아야 했을 것이다. 1687년(숙종 13년)에는 제주 사람 고상영(高尙永)이 안남(安南)에 포착했다가 5년만에 돌아와서, 그 사람을 선생으로 삼아 안남어를 가르치는 역학을 두게 되었다고 했다. 안남어 역관은 서울에는 없고 제주에만 있었다.

책을 읽혀 훈민을 하는 일도 본토에서와 같이 했다. 1693년(숙종 19년)에는 목수 이기하(李基夏) 〈경민편〉(警民篇)을 지어서 가르쳤다고 했다. 그 책이 널리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언해본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 뒤에 다시 제주목사 양헌수(梁憲洙)가 1864년(고종 원년)에 〈훈민편〉(訓民篇)을 한문으로 짓고 국문으로 옮겼다. 한문본에는 구결을 달았고, 국문본에는 한자가 하나도 없다. 둘 다 그 나름대로의 독자가 있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국문문학이 이루어진 증거는 표해한 경험을 국문가사로 쓴 〈표해가〉(漂海歌)의 작자를 작품의 서두에서 무과에 급제한 제주 사람 이방익(李邦翼, 1757- ?)이라고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배를 타고 본토로 향하다가 풍랑을 만나 중국에 이르러 여러 곳을 돌아보고 만주를 거쳐 귀국한 다음 임금을 만나고 벼슬을 얻은 내용이다.

제주도 사람이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고 표현이 뛰어나다. 가사의 요건을 잘 갖추고 겪은 바를 술회하는 내용을 풍부하게 갖추었다. 벼슬을 하면서 본토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런 능력을 키웠을 수 있다. 그런데 벼슬하는 영광을 연장시켜 본토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제주도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본토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일본어를 국어로 하고 교육의 공용어로 삼았다. 조선어는 부차적인 교과목으로 하다가 없앴으므로 제대로 공부하기 어려웠다. 제주도 사람들

이 일본어를 잘 하고, 일본에 많이 건너간 것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1945년 광복후에 표준한국어를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이 구두어에서 살아 있다.[2] 제주도 방언을 작품 창작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소설의 경우에는 대화에서, 시는 작품 전편에서 쓴다. 현기영(62)의 〈순이삼촌〉과 〈바람 타는 섬〉 〈변방에 우짖는 새〉(후에 배우 이정재와 심은하가 출연한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로 제작됨)는 제주에 대해 무지했던 기자를 4·3항쟁의 아픈 역사와 해녀들의 항일투쟁,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노비 출신 혁명가 이재수의 몸부림과 만나게 해줬다. 〈지상에 숟가락 하나〉는 위의 책들과는 또 다른 감흥의 제주를 만나게 했다. 학살의 체험과 그로 인한 정신분열의 나날들 속에서도 아름답기만 했던 섬소년들의 유년을 읽고 있노라면 현기영이 뛰어 놀던 1950년대 제주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코발트빛 하늘이 손에 잡힐 것만 같았다. 김광협의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김종두의 〈〈사는 게 뭣 산디〉〉 같은 것들이 좋은 예이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경우에도 어문생활의 실상과 변천 과정을 밝히는 것은 소중한 연구 과제이다. 방언의 언어학적 특징만 조사하지 말고, 사용 실태와 자세도 밝혀야 한다. 방언으로 이루어지는 문학 창작이 있는지도 힘써 살펴야 한다.

4. 제주 방언의 보존 절차

방언 자료의 보존은 자료기지를 만들과 또 그것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도를 그려서 방언의 분포를 효율적으로 전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어지도 제작 방식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언어지도 제작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방언형을 상징부호 지도로 제작하거나 또는 음성자료를 첨부한 음성언어지도, 그리고 GIS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리정보를 방언분화와 관련지어 나타내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3] 한편으로는 지도에 하천이나, 산맥 등 다양한 지리적 조건을 표시한 위에 언어 분포를 묘사하는 3차원 지형도 형식의 언어지도도 활용되고 있다.[4] 뿐만 아니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언어지도 묘사 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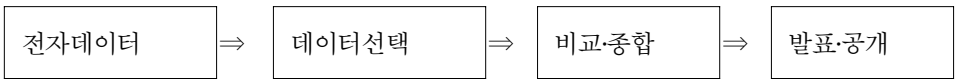
2)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 사투리를 들으면 친근감을 느낀다" 는 사람이 83.0퍼센트이고, "어릴 때 쓰던 사투리를 지금도 쓴다" 는 사람이 71.4퍼센트이다.

3) 언어정보학의 발달로 음성 자료의 데이터화와 검색을 위해 음성 코퍼스 구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음성 자료의 코퍼스 구축과 음성 언어지도는 별개의 특징을 갖고 있다.

4) John Ambrose(1980), 〈Micro-scale language mapping:An experiment in Wales and Brittany〉 Discussion Papers in Geolinguistics 2. North Staffordshire Polytechnic Dept. 참조

식은 3차원 이상의 세계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합성한다든지 미래와 과거의 시공간을 시뮬레이션하여 가상의 언어지리적 환경을 연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음성 자료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전사 자료와 함께 연결하여 언어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될 것이다.

우선 언어지도 제작단계와 단계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 언어지도 제작 단계를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 단계 전자 데이터 정리 단계 : 주로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는 문자나 음성 정보인데 이것을 책자 형식으로 출판하기도 하지만 언어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 데이터로 가공해야 한다.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를 텍스트 파일(.txt), 음성파일(.wave), 화상 파일(.pdf) 등 전자 데이터로 가공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자메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나가이 : 2006)

제 2 단계 데이터 선정 단계 : 언어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를 소팅(sorting)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이다. 지도 형식은 자료의 (1) 신·고형식에 따라 '최근자료(recent material)', '옛날자료(old material)'로 구분한다. 독일의 Wenker의 자료를 디지털로 구축한 DiWA(WWW.diwa.info./main.asp)((Digitaler Wenker-Atlas (DiWA))와 영국의 CLAE와 같은 것이 옛날 자료를 디지털로 구축한 사례이다. DiWA는 Wenker가 조사 당시의 설문지와 전사형과 음성형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다차원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지도를 중복해서 구현하여 언어 경계나 등어선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제 3 단계 비교·종합 단계 :

(1) 다차원언어정보시스템, (2) corpora, (3) 복수 언어 자료의 통합 방식에 따라 대조지도(contrast map), GIS를 활용한 언어지도 겹쳐보기, 후쿠시마 교수가 제작한 GAJ와 같은 세대 차이 비교 언어지도, 멀티미디어 정보와 연계한 DiWA, 언어측정법(Dialectometry)을 활용한 언어지도 등이 있다.

제 4 단계 발표·공개 단계 : 언어지도와 자료를 발표 또는 공개의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1) 책으로 자료 및 지도를 출판하는 방식, (2) DVD, CD롬,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 (3) 멀티미디어 정보와의 통합 또는 연계 방식, (4) 시민참가(휴대폰 활용), (5) 개인정보 공유

언어지도 자료 정보의 공개와 공유 및 자료의 통합화 과정과 관련된 문제로 개별국가 내부, 국가와

국가 간의 공유와 소통, 언어와 언어 간의 공유와 소통의 방식으로 발전될 것이다. 유럽언어지도 제작, 동아시아 언어지도 제작과 그 특징 등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

5. 마무리

절멸 위기의 언어인 제주 방언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이 가담한 보존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미 제주도민이 한 마음으로 제주어를 살려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족의 언어에서 학교의 언어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언어의 지속 보존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중언어 교육의 목표로 사회교육 현장에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제주어를 제주 관광 상품으로 연결함으로써 그 생명을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절멸 위기의 언어인 제주어의 보존을 위해서는 시민활동가의 협력뿐만 아니라 관공기관의 협조와 출향 기업인들의 재정적 협조를 통한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 기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축적된 단계에서 유네스코에 언어유산으로 등재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은, 『우주의 사투리』, 민음사, 2007.

다니엘 네틀 · 수잔 로메인, 김정화 옮김,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 (그 많던 언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이제이북스, 2003.

루이 쟝 칼베, 김병욱 옮김, 『언어와 식민주의』, 유로서적, 2004.

리디아리우, 민정기 옮김, 『언어횡단적 실천』, 소명출판사, 2006.

안도현, 『안도현의 노트에 베끼고 싶은 시』, 이가서, 200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구의 언어, 문화, 생물 다양성 이해하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3.

응구기 와 씨옹오, 백혜경 옮김, 『마음의 탈식민지화』, 수밀원, 2004.

이상규, 『위반의 주술, 시와 방언』, 경북대학교출판부, 2005.

이상규, 『언어지도의 미래』, 한국문화사, 2006.

이연숙 · 고영진 · 조태린,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주강현, 『돌살, 신이 내린 황금그물』, 들녘, 2006.

질 들뢰즈,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자본주의와 분열증』, 새물결, 2001.

에드워드 홀, 최효선 역, 『침묵의 언어』, 한길사, 1999.

페롱, 『불한사전』, 교회사연구회, 1869.

프란츠 M. 부케티츠, 두행숙 옮김, 『멸종 사라진 것들-종과 민족 그리고 언어』, 들녘, 2005.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사, 2005.

Hobsbawm, E,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1990. (홉스봄,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1994.)

Hughes, M, *Nationalism and Society : Germany 1800-1945,* 1988. (휴스, 강철구 옮김, 『독일 민족주의 1800-1945』, 명경, 1995.)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LANGUAGE DEATH

Daniel Nuetzel (Universitaet Regensburg)

LANGUAGE DEATH

Daniel Nuetzel (Universitaet Regensburg)

0. INTRODUCTION

At the second conference of the Foundation for Endangered Languages in Scotland, linguist Ole Stig Andersen announced the following (as reported in Crystal 2000: 2):

The West Caucasian language Ubuh…died at daybreak, October 8th 1992, when the Last Speaker, Tevfik Esenc, passed away. I happened to arrive in his village that very same day, without appointment, to interview this famous Last Speaker, only to learn that he had died just a couple of hours earlier. He was buried later that same day.

According to an obituary on a website dedicated to northwestern Caucasian languages and cultures, this last speaker had requested that the inscription on his gravestone read: "This is the grave of Tevfik Esenc. He was the last person able to speak the language they called Ubykh."[1]

Although such stories are rarely reported in the press, the death of a language and its last speaker is not a rare phenomenon. In the countless speech communities in which language shift has taken or is taking place, the choice for one language usually entails the demise of the other(s). This is indeed tragic, considering that the disappearance of a language usually results in the termination of some aspects of the cultural traditions of that language's speakers. Nevertheless, the phenomenon is relatively common. One-half of all known languages have already vanished (Sasse 1992a:7), and only a few hundred languages, according to current estimates, will still be alive at the end of this century (Bobaljik and Pensalfini 1996).[2]

---

[1] "Ubykh" is an alternative spelling to "Ubuh." The obituary can be found at www.circassianworld.com/tevfikesench.html.

[2] Those languages that will survive show no great typological or genetic variation from one another, and, as Bobaljik and Pensalfini (1996:18) point out, this has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field of linguistics, since typological diversity i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universals of grammar and the possible range of language variation."

Yet linguists have been slow in dealing with language death. Only in recent years have linguists attempted to study languages nearing extinction, and, as a result, much remains to be donebefore any definite conclusions can be reached about the nature of language death. This makes each and every study of an endangered language all the more crucial, and I am grateful that we have gathered here to exchange ideas on such an important topic.

In the following, it is my aim to give a general over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on language death. I will begin by looking at more specific estimates of the numbers of languages that are dying and will be extinct within the next hundred years. After that, I will address the question of why we should care that so many languages are facing an uncertain future. I will then briefly examine the types of language death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and introduce to you two studies of moribund dialects with which I have personally been involved over the past two decades. Finally, I will attempt to end this paper on a positive note, with some suggestions for preserving the linguistic diversity which for so long has been a characteristic of the world in which we live.

1. HOW MANY LANGUAGES ARE ENDANGERED? THE STATISTIC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not as easy as one may think. The number of speakers any given language has does not automatically indicate whether or not the language is endangered. Icelandic, for example, has only about 100,000 speakers, yet nobody would claim that Icelandic is facing extinction (Nettle and Romaine 2000: 9). Breton, on the other hand, had about one million speakers only a few generations ago, and today it claims only a handful of young speakers. A language may be considered moribund when children are no longer learning it as a native language, and, despite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exact number of child speakers a language may have, we have ample reason to believe that an alarming number of the world's languages are in danger of

disappearing.

Krauss' (1992) estimates on the number of dying languages appear to be the most plausible and are still largely accepted by linguists working with endangered languages[3], and the numbers are,quite disturbing. Krauss, a linguist at the University of Alaska, begins with statistics which, he claims, "are relatively well known" (Krauss 1992:5) to him, those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f the 187 languages spoken in these two countries, 149 are no longer being passed on as native languages tochildren, i.e., 80 percent of all native North American languages are facing extinction.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 situation is somewhat brighter, with 17 percent of Meso-American and 27 percent of South American languages estimated to be moribund. Nonetheless, the total percentage of moribund native languages in the Americas is 33 percent, i.e. 300 of 900 languages.

Worldwide, the fate of native languages in Australia is the most ominous, according to Krauss(1992:5). Here, 90 percent of the 250 aboriginal languages are moribund, with most of them "very near extinction." But Asia and Africa's ethnic languages do not fare much better in Krauss' (2000:6) estimates. Nine countries, each of which is home to over 200 languages, account for about 3,500 of the 6,000 languages believed to be spoken today: Papua New Guinea (with 850 languages), Indonesia (670 languages), Nigeria, India, Cameroon, Australia, Mexico, Zaire, and Brazil. Another 13 countries, which I will not name here for brevity's sake, have between 100 and 160 languages each. Altogether, then, these 22 nations account for 5000 of the 6000 languages spoken worldwide.

Considering what we know about the languages we already consider moribund and how they became endangered, and given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the 22 nations mentioned above, Krauss believes we can predict how many ethnic languages will become moribund in the near future. He concludes (2000:7): "I consider it a plausible calculation that . at the rate things are going . the coming [21st] century will see either the death or the doom of 90 percent of mankind's languages."

[3] More recent publications, such as Nettle and Romaine (2000) and Crystal (2000), attest to this.

2. WHY SHOULD WE CARE? THE IMPACT OF LANGUAGE DEATH

The question "why should we care?" may seem offensive to those of us studying endangered languages. As linguists, we realize that scientific reasons alone justify the preservation of every tongue. We need access to as many languages as possible in our struggle to perfect our theories concerning the structure of human language. Had no linguist interviewed the last speaker of Ubykh mentioned above, we may not have thought it possible for a language to have such a massive inventory of consonants, although now it seems some newly studied African languages may have even more (Haspelmath 1993, cf. also footnote 2).

Nettle and Romaine (2000:13) agree with the above, but they also offer arguments for preserving endangered languages that should convince the non-linguist as well. They maintain that linguistic diversity is directly related to biological diversity: in fact, the two are "often inseparable, perhaps casually connected through coevolution in specific habitats. Our research has shown quite striking correlations between areas of biodiversity and areas of highest linguistic diversity, allowing us to talk about a common repository of what we will call biolinguistic diversity." The authors then provide statistics to support their claim: "The greatest biolinguistic diversity is found in areas inhabited by indigenous peoples, who represent around 4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but speak at least 60 percent of its languages and control or maintain some of the ecosystems richest in biodiversity." Where species of plants and animals are facing extinction, they conclude, languages are also endangered, and as both species and languages become extinct, what we know about our world is bound to become more limited. To illustrate the point, Nettle and Romaine (2000:16) provide the following two examples:

In the Native American language Micmac, trees are named for the sound the wind makes when it blows through them during the autumn, about an hour after sunset when the wind always comes from a certain direction. If an elder remembers, for example, that a certain stand of trees used to be

called by a particular name 75 years ago but is now called by another, these terms can be seen as scientific markers for the effects of acid rain over that time period. One Palauan traditional fisherman born in 1894… had names for more than 300 different species of fish, and knew the lunar spawning cycles of several times as many species of fish as have been described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for the entire world.

Indeed, language reflects what we know about our environment and ourselves, and each individual's language represents his or her window to the world. Moreover, all people have a right to maintain and transmit their own language, i.e. their own cultural heritage, to the next generation. For moral, scientific and aesthetic reasons, all languages are worth preserving.

3.1 HOW DO LANGUAGES DIE? CLASSIFYING LANGUAGE DEATH

3.1.1 THE FOUR BASIC TYPES OF LANGUAGE DEATH

Campbell and Muntzel (1992) identify four basic types of language death:

a. Sudden death, in which a language dies abruptly as a result of the death or disappearance of its speakers due to environmental change or a natural disaster. One example is the Tamboran language, which was spoken on the island of Sumbawa in the Indonesian archipelago. Its speakers were obliterated all at once by a volcanic eruption in 1815 (Nettle and Romaine 2000:51). As there is no obsolescing state to examine, this type of language death lies beyond the scope of linguistic analysis.

b. Radical death, which, like sudden death, takes place rapidly as a result of political repression or even genocide. Speakers may choose to abandon their language for purposes of self-defense. As with sudden death, radical death usually leaves little for linguistic analysis, and the language dies

still structurally intact. Examples of languages having met a radical death are Lenca and Cacaopera, native languages of El Salvador.[4]

c. Bottom-to-Top, in which a language survives only in elevated rituals but is lost in familiar settings. Examples are the native Mexican languages Chiapanec and Southeastern Tzeltal, of which only prayers have managed to survive. Consultants are able to recite the prayers and to translate them only in paraphrases.

d. Gradual death, the type of language death most accessible to linguistic analysis and therefore most common in the literature. Because of the quantity of work that has been done on languages which are dying or have died a gradual death, this next section deals extensively with this type of language death.

3.1.2 GRADUAL DEATH

When a speech community shifts over time to the more dominant language in a language-contact situation, the language which is abandoned usually dies a gradual death. During the time needed to make the shift, an intermediate stage of bilingualism arises in the community. Initially, both the language which will be abandoned (henceforth Language A) and the dominant language (henceforth Language D) are used in separate domains. As time goes on, Language D begins to take over domains formerly reserved for Language A, and eventually, Language A is no longer used at

[4] While both Lenca and Cacaopera are considered extinct, there are so-called "rememberers" of Lenca, speakers who were once fluent but have not spoken the language in decades. In certain cases, it is not always clear exactly when a language is dead: Nettle and Romaine (2000:52) point out that Cornish apparently had become extinct on the British Isles with the death of its alleged last speaker in 1777; nearly 100 years later, however, in 1875, six people on their sixties were found who spoke some Cornish.

all in the community.

The best-documented cases of gradual language death are Arvanitika, an Albanian dialect of Greece, and East Sutherland Gaelic. Sasse (1992a), terming his "theory" of language death the "Gaelic-Arvanitika Model," argues that the study of these two obsolescing languages uncovers three phenomena relevant to language death. First, there are the extralinguistic factors: cultural, sociological, ethnohistorical, economic, etc.,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 pressure in a community to abandon Language A for Language D. These extralinguistic factors then induce the second phenomenon, a change in speech behavior. In Dorian's (1981) study of East Sutherland Gaelic, for example, the fisher folk came under socioeconomic and political pressure from all sides to abandon Gaelic. The language could not be taught in schools, and speaking Gaelic was highly stigmatized. Eventually, Gaelic speakers themselves came to believe that their language was inferior to English. Gaelic lost its public domains, and only its position in the home could save it from doom, for "in the case of a strictly local-currency language of low prestige, lacking any institutional support whatever, the home domain is clearly crucial to the continuity of the language" (Dorian 1981:82). Yet the ultimate change in speech behavior befell the Gaelic dialect: parents became reluctant to teach their children a language no longer considered functional. Such negative language attitudes are common in communities shifting to a Language D and often at the root of changes in speech behavior. Sasse (1992a:14) reports that, although the attitudes toward Arvanitika are not totally negative (he refers to attitudes towards Arvanitika as "schizophrenic"), speakers consider their own language "ugly and useless." As a result, the domains of Arvanitika caved in to pressure from Greek; speakers stopped transmitting the language to their children, and the language was doomed to extinction.

3.2 DECAY AND THE SEMI-SPEAKER

When transmission to new generations is interrupted, the position of Language A is mostradically

threatened: it is at this point that Language A often begins to decay structurally. Children do not learn the language fully at home; they hear Language A only occasionally and are unable to develop normal language proficiency in it. The result is a continuum of proficiency in Language A within the community: those who fully acquire the language at home are fully fluent speakers, while those who acquire the language only partially are so-called "semi-speakers" and speak Language A with varying amounts of proficiency. The proficiency of the semi-speaker will depend upon the speaker's linguistic talent, the degree of exposure to the language, the presence of older fluent speakers from whom the semi-speaker can acquire Language A, an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at language. In the final phase of obsolescence, the speech community consists almost exclusively of semi-speakers (Sasse 1992b).

It is with the semi-speaker, writes Sasse (1992a:15-17):

that we enter a new phase . and perhaps the crucial one . of the process of language death. This period is characterized by a phenomenon called language decay.

Language decay is defined as the serious linguistic disintegration which is typical for the speech of so-called semi-speakers, i.e. that speaker generation which results from the interruption of language transmission... Their morphology is extremely defective, they lose important grammatical categories such as tense, aspect or mood, even if these categories are present in [the dominant language]. Their speech often shows a pidgin-like simplification of syntax and a strong insecurity in the mapping of forms and functions. They are hardly able to master the phonological distinctions of [Language] A and show extreme variation in their pronunciation ... A language in decay is not a language in the sense properly understood (a structured code), but an amorphous mass of words and word forms, stereotype sentences and phrases, formulaic expressions, idioms and proverbs, which are learned in "chunks," whose forms are imperfectly known and whose functions are poorly understood. When used in conversation, these linguistic fossils are put together in some random linear order without fixed syntactic rules.

There are numerous studies of languages of all typologies which point to such decay, though not

always to the extent described above by Sasse: Mougeon and Beniak (1989) report decay in the determinative pronoun system of Welland (Canada) French; Voegelin and Voegelin (1977) attribute changes in the usage of relative clauses in Tubatulabal (Mexico) to imperfect acquisition by semi-speakers; Schmidt (1985) maintains that young speakers of moribund Dyirbal no longer control ergative usage. Campbell and Muntzel (1989) observe syntactic and morphological decay in a number of languages: the loss of the dual and plural marker in Ocuilteco (Mexico), loss of case endings on adjectives in American Finnish, and the absence of the passive in Pipil (El Salvador). They also argue that there are general trends in dying and decaying languages: there is an overgeneralization of unmarked forms, for example, with less marked forms often replacing more marked forms. The reverse, they claim, can also be true, i.e. an overgeneralization of marked forms: marked forms may be used excessively by speakers who consider such forms exotic.

Dorian's (1981) work with East Sutherland Gaelic offers the most detailed study of decay within a dying language. Semi-speakers no longer have a command of the Gaelic gender system: masculine pronouns appear where feminine pronouns should be, feminine diminutive suffixes incorrectly appear in place of their masculine counterparts, and gender marking on adjectives is often faulty. Moreover, semi-speakers exhibit incorrect forms for the dative and the vocative and have trouble with plural formation. No semi-speakers show a totally intact verbal system in Gaelic, having trouble with tense formation and mood, e.g. the conditional and the passive.

3.3 DECAY OR BORROWING?

It is necessary, however, to distinguish between decay in Language A and elements which have appeared or disappeared because of borrowing from Language B, warns Sasse (1992a and 1992b), since even healthy languages in language-contact situations borrow not only lexical items, but also structure. Sasse (1992b:64) points out that languages in long-time contact situations exhibit "some

kind of ideal goal (which may never be arrived at in effect) to develop a one-to-one relationship between the morphosyntactic systems of the two languages"; in particular "there is a tendency towards an identical category system, and a tendency towards structurally similar means to mark these categories." Examples of such borrowings in the literature are countless, e.g. in the verbal system in Plain Pennsylvania German (Louden 1988). Sasse (1992b:64) and Thomason and Kaufman (1988:215 ff.) offer the example of Greek in Turkey: grammatical gender has been abandoned, and Greek syntax now models its Turkish counterpart. When Language A begins to imitate the patterns of Language D, we are most likely dealing with borrowing rather than decay.

When Language A begins to lose categories that are present in Language D, however, Language A is most likely in the process of decay. Sasse (1992b) points to Arvanitika, which has lost categories present in Greek but not compensated for the categories lost: e.g., aspectual distinctions have been lost, and articles have either disappeared or are used incorrectly. The gerund, which has an exact parallel in Greek, has been lost, and gender agreement is no longer observed. Semi-speakers use few suppletive forms, and analogy "goes in all directions" (1992b:71). Irregular forms appear where they shouldn't be and are lacking where they ought to be (cf. Campbell and Muntzel 1989 discussed in 3.2). In short, Arvanitika has lost its power of expression, and extinction is imminent.

4. EXAMPLES FROM AMERICA AND EUROPE

Over the past 20 years,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conduct research on moribund dialects of German. In the 1990s I studied an endangered East Franconian dialect of German spoken in Haysville, a small community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state of Indiana in the United States. The dialect I call Haysville East Franconian (HEF) will be extinct in 50 years. More recently I have been examining German varieties spoken in the Czech Republic. These varieties are also

endangered, and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ey will be spoken after the year 2050.

4.1 HAYSVILLE EAST FRANCONIAN

Gradual death best describes what HEF has been undergoing for the past 40 years: little by little, the dialect has lost its domains in Haysville, and families have ceased to transmit the dialect to their children. However, the semi-speaker as described by Sasse (1992a) and Dorian (1981) is not to be found in Haysville, and the decay which has taken place in languages like Arvanitika and East Sutherland Gaelic has, for the most part, hardly set in within HEF.

People in Haysville had been speaking German since their ancestors arrived there from Upper Franconia in the late 1830s and 1840s. The Haysville dialect is virtually unintelligible to outsiders who speak Standard German. Although larger neighboring communities, such as in the city of Jasper, only a few kilometers away, also spoke varieties of German, those dialec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5] than the Haysville variety and more similar to Standard German; moreover, Haysville's neighbors generally belonged to a different religion than the people in Haysville. Because of the linguistic and religious differences, HEF speakers were isolated, and the dialect was able to remain conservative, i.e. extremely similar to its base dialect.

The pressures for the shift from German to English in German speech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iscussed at length in the literature (cf. Salmons 2002, 2005), and these pressures played a major role in language shift in Haysville as well. In addition, the pastor of the church in

Haysville, an immigrant from Germany, told his congregation that their EF dialect was hard on the ear, and he physically punished children who spoke HEF in his presence. Within a short amount of time, shortly after World War II, parents in Haysville simply stopped teaching their children the EF

[5] The Germans who settled in the neighboring communities were from a different area of Germany, i.e. the southwest.

dialect, and later generations picked up little or none of their ancestors' language. Nearly all HEF speakers are now 80 and older and represent the last generation of HEF speakers. The exceptions are a brother and sister, fluent speakers born in 1945 and 1950, whose parents still spoke German with them: these siblings, however, spoke no German with their children. The reasons are rather simple: the speech community was under pressure to speak English, and if German was used, the neighboring Jasper dialect, closer to Standard German, was considered more "correct" German. Parents stopped the transmission because, as one consultant put it, "ich hob dengd, des muss aus a Buch kumma" 'I thought it [a language worthy of transmission] had to come from a book'. That consultant had been punished as a child by the above-mentioned pastor.

As a result of the almost overnight cessation of transmission to new generations, the impact of language death upon the structure of HEF is more similar to the effects of radical death: the moribund language remains more or less intact, since the semi-speakers of East Sutherland Gaelic or Arvanitika have no counterparts in the Haysville speech community. This situation appears similar to Hill's findings for Luiseno and Cupeno in California, where, as Dorian (1981:115) quotes personal communication from Hill, "You either speak fairly well or not at all." Some HEF speakers, especially those who claim never to speak German, did, in initial interviews and at the beginning of follow-up interviews, show some traits typical of semi-speakers in language death, though in no way to the extent in the studies discussed above. HEF speakers' greatest difficulty appeared not to be with syntax or morphology, but rather with the lexicon: those speakers often asked me how to say a particular item in German.6 Dorian (1981:145) also notes problems with lexical retention for some of her fluent speakers, but claims that "lexical recall did not correlate well with grammatical conservatism for fluent speakers," i.e. not only "mere" semi-speakers have trouble recalling lexical items.

Indeed, HEF is amazingly intact and remains morphologically and syntactically very similar to its base dialect. As Dorian (1982b:31) points out, "It is not a necessary feature of linguistic extinction that a dying language be structurally 'exceptional.'" Indeed, if one speaks HEF in Haysville, one

speaks a dialect which has surprisingly managed to avoid
massive amounts of analogical leveling in its morphology; the most "exceptional" characteristic of HEF is its continuing resemblance to European EF. Suppletive forms in the base dialect are, for the most part, suppletive forms in HEF, and the dialect will most likely die intact and true to the varieties the Haysville settlers brought with them.

[6] As one might expect, speakers had the greatest difficulty with lexical recall when asked to translate sentences from English into HEF.

4.2 ATLAS OF GERMAN DIALECTS IN THE CZECH REPUBLIC

The Atlas der deutschen Mundarten in der Tschechischen Republik, or Atlas of German Dialects in the Czech Republic, is a joint project of the University of Regensburg in Germany, the University of Brno in the Czech Republic, and the University of Vienna in Austria. Since 2001, the Atlas has been collecting data on the moribund German varieties spoken in the historical lands of the Bohemian Crown (Bohemia, Moravia, Silesia)[7] in the present-day Czech Republic (CR). Virtually all of these dialects, thriving until 1945, will be extinct in 40 years.

A little background information concerning the history of German in this geographical area is necessary here. As early as the 12th century, German colonies, often consisting of speakers from various parts of the German-speaking lands, began to settle in the territory of the Bohemian Crown and to develop distinct dialects. For centuries, these ethnic Germans formed a majority in areas of the present-day CR that border modern Germany, Austria, and Poland (then Silesia/Germany), and there were large numbers of German speakers in larger cities such as Prague, Brno, Olomouc, etc., as well.

---

[6] As one might expect, speakers had the greatest difficulty with lexical recall when asked to translate sentences from English into HEF.

[7] A more recent term (19th century) for those areas in Czechoslovakia inhabited predominantly by Germans is Sudetenland.

At the outset of World War II, over 3 million ethnic Germans were living in the Sudetenland. After Nazi Germany capitulated in 1945, all but 200,000 Sudeten Germans were expelled, primarily to Germany, leaving behind their homes and most of their possessions to non-Germans from other areas of Czechoslovakia. Those Germans who remained were mainly families in which at least one parent had skills, such as experience in mining or forestry, useful in the eyes of the Czech authorities.

It is the Germans who remained after the war that the Atlas of German Dialects in the Czech Republic is attempting to interview. The Sudeten Germans who resettled in Germany are no longer completely reliable speakers of Sudeten German dialects: most may have, to some extent, borrowed features from the varieties of their new homeland. To be sure, the number of German dialect speakers still in the CR has significantly decreased within the past 50 years: according the 2001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of the CR, about 39,000 people claim "German nationality"[8], but many of them are not fluent speakers of German. Most Germans who stayed behind did not speak German with their children, at least not sufficiently for the children to become proficient dialect speakers; many assert that they feared their children would suffer political or social disadvantages if they spoke German.

Thus, their children are at best semi-speakers, if not Czech monolinguals.[9]

Nonetheless, field workers of the Atlas have been able to locate competent dialect speakers in nearly all areas of the former Sudetenland. Speakers answer between 865 and 3000 questions eliciting phonological (the primary focus of most traditional German dialectologists, as shown in the next paragraph), morphological and syntactic features of the dialect as well as some lexical items. By the middle of next year, the data collection phase of the project will be complete, with about 600 different varieties having been documented. A six-year publication phase will then begin, during

[8] This number is reported on the website of the Czech Statistical Office at www.czso.cz/eng/redakce.nsf/i/basic_final_results_of_the_population_and_housing_census_2001, table 29-2.

[9] There are fortunately a few exceptions : for example, a colleague reports that the ten year-old grandson of one of his consultants is a fluent German dialect speaker.

which five volumes will appear: three dealing with the sound systems of the dialects, one on morphology and syntax, and one concerning lexical items.

The Atlas, like most linguistic atlases in German-speaking Europe, works in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German dialectology, which distinguishes German varieties large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ir vocalic systems, using the vocalism of Middle High German as a point of comparison. To this end, field workers search out only fluent dialect speakers, and, as a consequence, semi-speakers are completely overlooked by the project. This is, unfortunately, a necessity, since funding for the Atlas is extremely limited and barely sufficient for the traditional goals the project has set for itself. As a result, the published data may do little to shed light on the structural decay that is likely taking place in the speech of the semi-speakers. Nevertheless, the value of the projec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indeed, the Atlas is documenting in tremendous detail[10] and therefore preserving for future generations numerous varieties of German that will soon die. These varieties are, as are all languages, "repositories of history" (Crystal 2000:104). analyses of these dialects help us to trace, for example, the settlement of a particular area of the Sudetenland, whence its German settlers emigrated, and so forth. and it is tragic that not all moribund languages undergo such documentation and analysis before becoming extinct.

5. WHAT SHOULD WE DO? CONCLUDING REMARKS ON PRESERVING ETHNIC LANGUAGES

The above projects with which I have been associated deal with languages that are doomed to die, and revitalization is not possible. This is not the case for many endangered languages, however, and

[10] Documentation is "a sine qua non,..a top priority in those where there is a real risk of impending language death (Crystal 2000:150)

linguists have the obligation to develop strategies to save as many languages as possible from extinction. It is not an option for a linguist to study a language without being interested in the fate of the people who speak it: Crystal (2000:145) aptly compares such a linguist to a doctor who collects medical data without any regard for the future of the patient.

But what can be done to safeguard the future of our "patients?"

We turn again to Crystal (2000:127 ff.), who proposes six means by which speakers of endangered languages, with some outside help from e.g. politicians and linguists, can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language maintenance. He argues that an endangered language will progress if its speakers increase their prestige within the dominant community; increase their wealth relative to the dominant community; increase their legitimate power in the eyes of the dominant community; have a strong presence in the education system; can write their language down; and can make use of electronic technology.

Some of these suggestions are more easily implemented than others, but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the speakers themselves must be motivated to take their linguistic fate into their own hands to some extent and cannot depend exclusively on outside support, such as financial backing or legislation under the auspices of a national government, to sustain the life of their language or culture.

There must be, as Nettle and Romaine (2000:177) suggest, a "bottom-up approach to language maintenance," i.e. a grassroots movement to keep an endangered language ali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ttention is good, but local action is critical: the household domain must be protected, as a language not spoken at home cannot survive. The natural habitat of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of its speakers must be preserved. Nettle and Romaine (2000:179 ff.) offer examples of such local initiatives that have proven successful. A grassroots organization in Hawaii was responsible for founding Hawaiian immersion preschools in which parents are actively involved and even attend language classes themselves. With the help of outsiders, the Karaja people of Brazil have set up schools in which their children are initially instructed in their native language and then later in

Portuguese, and Karaja history and culture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urriculum. The teachers are not "imported" from outside communities, but are locals trained in their own villages.

Teaching an endangered language at school is certainly desirable, but a classroom is nonetheless still an artificial environment. Parents must take the initiative to speak the language at home, and they must be convinced that bilingualism is something positive. Irish parents may fear, for example, that their child will be less proficient in English if the child learns Irish at home. Such fears are groundless, yet they are widespread and a great hindrance to language maintenance. It is the linguist's job to let parents know the positive effects bilingualism can have on children and the community at large.

While advocating a grassroots approach, Nettle and Romaine (2000:200 ff.) do not simply dismiss "top-down" efforts to maintain endangered languages. Legislated protection of endangered languages can certainly be useful, just as they are for endangered species of plants and animals. They point out that programs in the European Union, such as the European Bureau of Lesser Used Languages and the MERCATOR network, have proved beneficial to speakers of minority languages.

They also endorse a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f Linguistic Rights, in which governments agree to recognize the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within their territories and to guarantee the rights of minorities to maintain their languages and cultures.

It is five minutes before twelve, and we must take action immediately. It is my hope that this symposium contributes to efforts to spare humanity the tragic loss of some of its greatest resources: languages.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세계문화의 흐름과 소수 언어의 보존 방향

다니엘 뉘에철 (독일)

세계문화의 흐름과 소수 언어의 보존 방향

다니엘 뉘에철(레겐스부르크대학교 교수)

1. 도입

스코틀랜드의 사멸할 위험에 처한 언어를 위한 재단의 두 번째 회의에서 언어학자인 올스틱 앤더슨은 다음을 발표했다. (Crystal 2000: 2에 보고된 것처럼)

서 코카시안 언어인 우부(Ubuh)는 마지막 화자인 테픽 에센스가 사망했던 1992년 10월 8일 새벽에 사멸했다. 필자는 약속하지 않고 유명한 마지막 화자인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바로 그 날 테픽 에센스가 사는 마을로 도착해서 그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며칠 후에 매장되었다.

북서부 코카시안 언어 및 문화 전용 웹사이트의 사망기사에 따라서 마지막 화자는 그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쓰일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테픽 에센스의 무덤임. 그는 그들이 우비크(Ubykh)라고 불렸던 언어를 말할 수 있었던 마지막 사람이었음."[1)]

그러한 이야기가 언론에 드물게 보도될지라도 언어 및 마지막 화자의 사망은 드문 현상은 아니다. 언어변화가 일어나거나 발생하고 있는 셀 수 없는 언어사회에서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의 소멸을 내포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언어가 사라지는 것이 화자들이 이어온 문화전통의 일부분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실제로 비극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은 비교적 흔하고 (싸세1992a:7), 현재 평가에 따라서 수백 개에 불과한 언어만이 여전히 본 세기의 끝에 살아있을 뿐일 것이다. (Bobaljik과 Pensalfini 1996).[2)]

---

1) "Ubykh"는 "우부(Ubuh)"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철자이다. 사망 기사는 www.circassianworld.com/ tevfikesench.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생존하게 될 언어들은 서로 어떠한 위대한 유형학적 또는 발생론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Bobaljik와 Pensalfini (1996:18)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은 언어학 분야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유형학적인 다양성은 "문법의 보편적 실재와 언어 변화의 범위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은 언어 사멸을 다루는 경우에 민첩하지 못했다. 최근 몇 년에서야 언어학자들은 소멸할 위기에 있는 언어들을 연구하려고 시도했으며, 그 결과 언어 사멸의 성질에 대하여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이 사멸할 위험에 처한 언어의 각기 모든 연구를 더욱 더 중대하게 만들며 우리가 그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는 사실에 필자는 기쁘다.

다음에서 언어사멸에 대한 최근 논문의 일반개요를 제공하려는 것이 필자의 목표이다. 필자는 다음 수 백 년 이내에 사멸하고 있고 소멸하게 될 언어 수의 보다 구체적인 평가를 조사함으로써 시작할 것이다. 그 후에 그렇게 많은 언어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 다음에 필자는 논문에서 확인되었던 언어의 유형을 간략하게 실험하고 과거 20년에 걸쳐 개인적으로 수반되었던 소멸해 가는 방언에 대한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특징이었던 언어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일부 제안과 함께 긍정적인 기록으로 본 논문을 마칠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언어가 사멸할 위험에 처해 있는가? 통계 자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 어느 언어의 화자 수가 자동적으로 언어가 사멸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어는 화자가 100,000명에 불과하나 누구도 그 언어가 소멸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틀과 로메인 2000: 9). 한편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백만 명의 화자가 존재했으며 오늘날에는 소수의 화자만이 존재한다. 아이들이 더 이상 그것을 모국어로 배우지 않는 경우 언어는 소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언어를 말하는 아이들의 정확한 수를 결정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언어 중에서 심상치 않은 수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죽어가는 언어의 수에 대한 크라우스(1992)의 판단은 가장 그럴 듯해 보이며 위험에 처한 언어를[3] 활용하는 언어학자들이 대부분 수용하고 있고 그 수는 매우 걱정된다. 알래스카 대학교의 언어학자인 크라우스는 통계로 시작하는데, 그가 주장하기를 이것은 그에게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크라우스1992:5), 미국과 캐나다의 언어들 즉, 이 두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187개의 언어 중에서 149

3) 네클과 로메인(2000)그리고 크리스탈(2000)이 쓴글 같은 최근의 출판물이 이것을 입증해 준다.

개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모국어로 통용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모든 북아메리카 모국어의 80%가 소멸에 직면하고 있다. 중앙 및 남아메리카에서 상황은 다소 긍정적인데, 메소 아메리카어의 17%와 남아메리카어의 27%가 사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에서 사멸한 모국어는 총 33%인데, 즉 900개의 언어 중에서 300개가 그러하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호주의 모국어의 운명은 가장 어둡다(1992:5). 여기에서 250개의 토착언어 대부분이 '소멸에 근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90%가 사멸했다. 그러나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인종 언어는 크라우스(2000:6)의 판단에 따르면 그 운명이 보다 더 낫지는 않다. 9개국 각각은 200개의 언어에 대해 자국의 언어로 쓰며 오늘날 쓰이는 것으로 믿어지는 6,000개의 언어 중에서 약 3,500개의 언어를 차지한다. 즉 파푸아뉴기니(850개의 언어), 인도네시아(670개의 언어), 나이제리야, 인도, 카메룬, 호주, 멕시코, 자이르 및 브라질 등이 그러하다. 또 다른 13개국은 간략하게 하기 위해 열거하지는 않을 것인데 각각 100개에서 160개의 언어를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22개의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6,000개의 언어 중에서 5,000개의 언어를 차지한다.

언어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는 사멸한 것과 그것들이 사멸 위험에 어떻게 처해지는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22개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적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크라우스는 생각하기를 수많은 인종 언어가 가까운 미래에 사멸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00:7) 즉 "사물이 사라져가는 속도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인류 언어의 90%가 사라지거나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럴 듯한 계산을 해 본다."

3.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어 사멸의 영향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멸 위험에 처한 언어를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언어학자들로서 과학적인 이유만이 모든 언어의 존재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인류 언어의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의 이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언어에 근접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언어학자도 위에 언급한 우비크(Ubykh)의 마지막 화자를 인터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프리카 언어가 훨씬 더 많은 자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일부의 최근 연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상당히 많은 자음을 갖는 언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Haspelmath 1993, 주석 2와 비교할 것).

네틀과 로메인(2000:13)은 위에 동의하나 그들은 또한 비언어학자들도 납득시키고 위험에 처한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논거를 제공한다. 그들은 언어학적 다양성이 생물학적 다양성과 직접 관련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두 가지는 "종종 분리될 수 없으며 아마도 특정한 거주지에서 공진화를 통해 실제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연구는 우리가 생물언어학적 다양성이라고 부르게 될 공통적인 보고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생물의 다양성 영역과 가장 높은 언어학적 다양성의 영역간에 매우 두드러진 상호 관계를 보여 주었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즉 "가장 큰 생물언어학적 다양성은 세계 인구의 약 4%를 나타내고 있는 토착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견되나 적어도 자체 언어의 60%를 사용하고 생물학적 다양성에서 가장 풍부한 생태계 중 일부를 통제하거나 보존한다." 그들이 결론 내리기를 식물 및 동물 종이 멸종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언어 또한 사멸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종과 언어가 모두 소멸하게 될 때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다 제한적이 된다. 그런 점을 예증하기 위해서 네틀과 로메인(2000:16)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를 제공한다.

토착적인 미국 언어인 미끄맥에서 가을에 바람이 나무를 거쳐 불어오는 경우 바람이 만드는 소리에 대해서, 바람이 항상 특정한 방향으로부터 불어오는 경우 일몰 후 약 1시간 후에 나무의 이름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만약 연장자가 75년 전에 특별한 이름으로 불렸던 나무들의 특정한 입목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이러한 단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산성비의 영향에 대해 과학적인 표시로 볼 수 있다. 1894년에 태어난 한 팔라우인의 전통적인 어부는 300가지 이상의 상이한 종의 생선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전 세계에 알려진 과학적인 논문에 기술되었던 것과 같은 수많은 종의 생선이 달의 작용에 따라 여러 번 산란하게 되는 주기를 알고 있었다.

실제로 언어는 우리가 자신의 환경 및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자각하는 것을 반영하며 각각의 개별적인 언어는 세계에 그들만의 창을 나타낸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언어를 보존하고 전달할 권리를 가지는데, 바꿔 말하면 다음 세대에게 그들만의 문화유산을 전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도덕, 과학 및 심미적인 이유로 모든 언어들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

4. 언어는 어떻게 사라지나? 언어 사멸 분류

가. 언어 사멸의 기본적인 네 가지 유형

캠벨과 및 Muntzel(1992)은 언어 사멸의 기본적인 네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 환경적인 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화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결과로 언어가 갑자기 사라지는 갑작스런 사멸. 일례는 Tamboran 언어인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군도의 숨바와섬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이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1815년 화산폭발로 갑자기 사라졌다 (네틀과 로메인 2000:51).

실험을 위한 쇠퇴 상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언어 사멸은 언어학적 분석 범위 밖에 존재한다.

나. 갑작스런 사멸과 같은 급격한 사멸은 정치적인 진압이나 집단 학살의 결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 자신의 언어를 포기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갑작스런 사멸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죽음은 실제로 언어학적인 분석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언어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손대지 않은 상태로 사멸된다. 급격한 사멸을 맞이한 언어들의 예는 엘살바도르의 모국어인 Lenca 및 Cacaopera이다.[4)]

다. 최저에서 최상까지 언어는 높아진 의식안에서 존속되나 친숙한 환경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고유한 멕시코 언어인 Chiapanec와 동남부의 Tzeltal인데,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존속되어 관리되었던 언어이다. 상담역은 기도를 암송하고 그것들을 단락에 한해 번역할 수 있다.

라. 언어학적 분석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언어 사멸의 유형이므로 논문에서 가장 흔한 점진적인 사멸. 사멸하고 있거나 점진적인 사멸을 했던 언어에 대해 사용되었던 활용 양 때문에 다음의 절은 이러한 유형의 언어 사멸을 광범위하게 다루게 된다.

나. 점진적인 사멸

언어 사회가 언어 접촉 환경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지배적인 언어로 이동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포기되는 언어는 실제로 점진적인 사멸을 맞이하게 된다. 변통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간 중

---

4) 한편 렌카 및 Cacaopera 양쪽다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한때 유창했으나 수십년 후에 그 언어를 더 이상 말하지는 않는 화자중에 렌카를 소위 "기억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특정한 경우에 언어가 정확히 사멸하는 경우 그것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며 네틀과 로메인(2000:52)는 켈트어가 분명히 1777년에 마지막 화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영국 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거의100년 후인1875년 60대의 여섯 명의 사람들이 일부 켈트어를 말했던 것으로 발견되었다.

에 2개 국어 상용의 중도적인 단계가 사회에 발생한다. 초기에 포기될 (이하 A 언어) 언어와 지배적인 언어 (이하 D 언어)가 개별적인 영토에서 사용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D 언어는 A 언어에 대해 전에 예비되었던 영토를 접수하기 시작하며 결국 A 언어는 사회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게 된다.

점진적인 언어 사멸 중 문서로 가장 잘 작성된 사례들은 Arvanitika, 그리스의 알바니아 방언 및 동부의 서덜랜드 게일인의 언어이다. "게일어-Arvanitika 모델," 의 언어 사멸의 "이론"을 언급하는 싸세(1992a)가 주장하기를 도태하는 이러한 두 가지 언어에 대한 연구는 언어 사멸의 세 가지 현상을 드러낸다고 한다. 첫 번째, 언어학 외의 요소 즉 문화, 사회, 민족 역사학, 경제 등등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D 언어를 위해 A 언어를 포기하기 위한 사회의 압력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학 외의 요소들은 언어 행위의 변화인 두 번째 현상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동부의 서덜랜드 게일어에 대한 도리안의 (1981) 연구에서 어부들은 게일어를 포기하기 위해서 모든 측면으로부터 사회 경제 및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 언어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으며 게일어로 말하는 것은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 결국 게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의 언어가 영어보다 열등하다고 믿게 되었다. 게일어는 자체 공적인 영역을 상실했고 본국에서의 자체 위치에 한해 사멸할 위험에서 그것을 구할 수 있었으며, "본국 영토가 언어의 지속성에 분명히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하며 명성이 낮고 엄격하게 지역에 통용되는 언어의 경우"에 그러하다." (도리안 1981:82). 그러나 언어 행위의 궁극적인 변화는 게일어의 방언에서 발생하며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더 이상 기능적을 것을 상실한 언어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국어 태도는 D 언어로 이동하는 사회에서 공통적이며 종종 언어 행위의 변화의 근원에 있다. 싸세(1992a:14)는 Arvanitika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는 Arvanitika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정신 분열증"으로 지칭한다) 화자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를 "추하고 쓸모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고한다. 그 결과 Arvanitika의 영토는 그리스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며 화자들은 그들 자녀에게 언어를 전달하는 것을 그만 두고 언어는 소멸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다. 쇠퇴 및 준화자

새로운 세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단될 때 A 언어의 위치는 가장 급격하게 위협을 받게 되며 A 언어가 종종 구조적으로 쇠퇴하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그 언어를 완전히 배우지 않게 되며 A 언어를 가끔 듣기는 하나 그것 안에서 정상적인 언어 숙달로 개발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사회 내에서 A 언어의 능숙의 연속체이며 가정에서 그 언어를 완전히 습득한 사람들은 완전히 능숙한 화자인 반면에 부분적으로만 언어를 습득한 사람들은 소위 "준화자"이며 능숙함의 다양한 정도로 A 언어를 말하게 된다. 준화자의 능숙함은 화자의 언어학적인 재능, 언어의 노출 정도, 준화자가 A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숙한 연장자의 존재와 그 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좌우될 것이다. 쇠퇴의 마지막 단계에서 언어 사회는 거의 독점적으로 준화자로 구성된다 (싸세 1992b).

준화자의 경우로 싸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1992a:15-17).

우리는 언어 사멸의 과정 중에서 아마도 중요한 단계인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다. 본 기간은 소위 *언어 쇠퇴* 라는 현상으로 특징지어진다. 언어 쇠퇴는 소위 준화자의 언어에 대해 전형적이면서도 심각한 언어학적 분열로 정의되는데, 예를 들어 언어 전달의 중단으로 초래되는 화자 세대이다. 그것들의 형태론은 극히 결함이 많으며 언어의 문법적인 범주가 [지배적인 언어]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시제, 상 또는 법과 같은 중요한 문법적 범주를 상실하게 된다. 그 언어는 종종 형태 및 기능의 지도에서 통사론의 혼성어와 유사한 단순화 및 강력한 불안정을 보여 준다. 그것들은 거의 A 언어의 현상적인 구별을 통달할 수 없으며 발음에서 상당한 변형을 보여 준다. 쇠퇴하는 언어는 적절하게 이해되는 의미에서 언어가 아니나 (구조적인 코드) 단어 및 단어 형태의 무정형의 덩어리, 전형적인 문장, 구문, 수식, 숙어 및 속담은 "덩어리"로 학습되는데, 이것들의 형태는 불완전하게 알려져 있으며 그것들의 기능은 불충분하게 이해된다. 대화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언어학적인 낡은 사고 방식은 고정적인 통사론적인 역할 없이 무작위의 선형 순서로 함께 취합된다.

비록 항상 싸세가 위에서 기술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러한 쇠퇴를 가리키는 모든 유형학의 언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Mougeon과 Beniak (1989)는 웰란드(캐나다) 프랑스어의 한정적인 대명사 제도의 쇠퇴를 보고하며 Voegelin과 Voegelin (1977)는 Tubatulabal (멕시코)의 상대절의 사용의 변화를 준화자에 의한 불완전한 습득의 탓으로 돌린다. 슈미트(1985)는 사멸한 드르발의 젊은 화자가 더 이상 능동격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캠벨과 Muntzel (1989)은 수많은 언어에서 통사론적이고 형태학적인 쇠퇴를 목격하는데, 즉 Ocuilteco (멕시코)의 이중 및 복수적인 표시의 손실, 미국식 핀란드어에서 형용사에 대한 격어미의 손실 및 피필(엘살바도르)에서 수동태의 존재가 그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장하기를 사멸 및 쇠퇴하고 있는 언어에는 일반적인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종종 보다 두드러진 형태를 대신하는 덜 두드러진 형태로 된 표시되지 않은 형태의 과도한 일반화이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그와 반대 또한 사실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두드러진

형태의 과도한 일반화 즉 두드러진 형태는 그러한 이국적인 형태를 고려하는 화자가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동 서덜랜드 게일어에 대한 도리안(1981)의 작업은 사멸하는 언어 내부의 쇠퇴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연구를 제공한다. 준화자들은 더 이상 게일의 성 제도의 명령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여성 대명사가 있어야 하는 곳에 남성 대명사가 나타나고, 여성 지소적 접미사가 남성 지소적 접미사를 대신하여 부정확하게 나타나며 형용사에 대한 성 표시가 종종 잘못 되어 있다. 게다가 준화자들은 여격 및 호격에 대해 부정확한 형태를 표현하며 복수 형태에 문제가 있다. 어떠한 준화자들도 시제 형태 및 법에 즉 조건문 및 수동태에 문제를 나타내면서 게일어에서 전적으로 손대지 않은 구두 시스템을 보여 주지 않는다.

라 쇠퇴 또는 차용어?

싸세 (1992a and 1992b)가 경고하기를 그러나 A 언어의 쇠퇴와 D 언어로부터의 차용어 때문에 나타났거나 사라졌던 요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언어 접촉 상황에서 건전한 언어조차도 어휘 항목뿐만 아니라 구조까지도 차용하기 때문이다. 싸세 (1992b:64)는 장기간 접촉한 상황의 언어들은 "두 언어의 유형 통사론적인 시스템간에 일대일 관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일부 종류의 이상적인 목표(결코 실제로 도달할 수 없는)를 표현한다." 특히 "동일한 범주 시스템에 대한 경향과 이러한 범주를 표시하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수단에 대한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한 논문에서 차용어의 예들은 셀 수 없는데, 예를 들어 평이한 펜실베니아 독일어에서 그러하다 (Louden 1988). 싸세 (1992b:64)와 토마슨 그리고 코프먼(1988:215 ff.)은 터키에서 그리스어의 예를 제공하는데, 문법적인 성이 포기되었으며 그리스의 통사론은 이제 터키의 통사론을 모델로 한다. A 언어가 D 언어의 패턴을 알리기 시작하는 경우 우리는 쇠퇴보다는 차용어를 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러나 A 언어가 D 언어에 나타나는 범주를 상실하기 시작하는 경우 A 언어는 쇠퇴의 가정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 싸세(1992b)는 Arvanitika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어에 나타나는 범주를 상실했으나 상실한 범주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상의 구별이 상실되었으며 관사가 사라졌거나 부정확하게 사용되었다. 동명사는 그리스어에서 정확히 대등한 것을 갖게 되었고 상실되었으며 성 일치는 더 이상 준수되지 않는다. 준화자들은 거의 보충법의 형태를 사용하지 않으며 유추는 "각 방면으로 사라진다." (1992b:71). 그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불규칙적인 형태로 나타나

며 있어야 하는 곳에서는 충분치 않다 (비교. 3.2에서 다루어지는 캠벨과 Muntzel 1989). 간단히 말해서 Arvanitika는 자체 표현력을 상실했으며 소멸이 임박했다.

5. 미국 및 유럽의 예들

과거 20년에 걸쳐서 필자는 독일의 사멸한 방언에 대한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인디애나 주의 남서부 지역의 소규모 사회인 Haysville에서 사용되는 독일어의 사멸할 위험에 처한 동부 프랑코니언의 방언을 연구했다. 필자가 Haysville East Franconian (HEF)이라 부른 방언은 50년이 지나서 소멸할 것이다. 보다 최근에는 체코 공화국에서 사용되는 독일어 변형을 실험해 왔다. 이러한 변형은 또한 사멸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2050년 이후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

가. HAYSVILLE EAST FRANCONIAN

점진적인 사멸은 HEF기 과거 40년 동안 겪어 왔던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 방언이 서서히 Haysville의 영토에서 상실되었으며 가족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그 방언을 전달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싸세 (1992a) 및 도리안(1981)이 설명하는 것처럼 준화자는 더 이상 Haysville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대체로 Arvanitika와 동 서덜랜드 게일어와 같은 언어에서 발생했던 쇠퇴가 HEF에서 거의 나타나지는 않았다.

Haysville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1830년대 후반 및 1840년대에 Upper Franconia로부터 도착한 이래로 독일어를 사용해 왔었다.Haysville 방언은 표준 독일어를 사용하는 외부인에게 사실상 난해하다. 비록 불과 몇 킬로부터 떨어진 자시퍼시와 같은 더 큰 이웃 사회가 독일어의 변형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방언들은 Haysville 변형과는 상당히 상이하며[5] 표준 독일어와 더욱 유사하다. 게다가 Haysville의 이웃들인 일반적으로 Haysville의 사람들과는 상이한 종교에 속한다. 언어학 및 종교적인 차이점 때문에 HEF 화자들은 고립되었으며 그 방언은 보수적인 채로 남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자체 기본 방언과 극히 유사하다.

미국의 독일 언어 사회에서 독일어에서 영어로 이동하려는 압력이 논문에서 오랫 동안 다루어졌

5) 이웃 사회에 거주했던 독일인들은 독일의 상이한 지역 즉 남서부 출신이었다.

으며 (비교. Salmons 2002, 2005), 이러한 압력은 Haysville에서도 역시 언어 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게다가 독일에서 이민 온 Haysville의 교회 목사는 그의 신도들에게 말하길 그들의 EF 방언은 귀에는 어려우며 그 앞에서 HEF를 말하는 아이들은 물리적으로 벌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단기간 내에 2차 대전 후 바로 Haysville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EF 방언을 가르치는 것을 단순히 중단했으며 후의 세대는 그들 조상의 언어를 선택한 사람은 소수이거나 거의 없었다. 거의 모든 HEF 화자들은 이제 80이거나 그 이상이며 HEF 화자의 마지막 세대를 나타낸다. 예외는 1945년 및 1950년대에 태어난 능숙한 화자들인 형제 자매인데, 그들의 부모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독일어를 말했으나, 이러한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자녀에게는 독일어를 말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소 간단한데, 언어 사회는 영어를 사용하라는 압력하에 놓여 있었으며, 만약 독일어가 사용된다면 표준 독일어에 더 근접한 이웃의 자스퍼 방언이 보다 "정확한" 독일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한 상담역이 그것을 표현한 것처럼 “ich hob dengd, des muss aus a Buch kumma”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언어]는 책에서 유래했어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상담역은 아이로서 위에서 언급한 목사에게 벌을 받았다.

새로운 세대로 언어를 전달하는 것을 거의 하룻밤 만에 중단한 결과로서 HEF의 구조에 대한 언어 사멸의 영향은 급격한 사멸의 영향과 더욱 유사한데, 동 서덜랜드 게일어 또는 Arvanitika의 준화자들은 Haysville의 언어 사회에서 그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멸한 언어는 여전히 다소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캘리포니아의 Luiseno 및 Cupeno에 대한 힐의 연구 결과물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여기에서 도리안(1981:115)이 힐로부터 개인적인 대화를 인용한 것처럼 “화자는 상당히 잘 말하거나 아예 말을 하지 못한다.” 일부 HEF 화자들, 특히 독일어를 말하지 말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초기 인터뷰와 후속 인터뷰의 초기에서 결코 위에서 언급된 연구의 정도는 아닐지라도 언어 사멸의 준화자의 일부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HEF 화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통사론이나 형태론과 함께가 아니라 어휘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며, 그러한 화자들은 종종 독일어로 특별한 항목을 말하는 방법을 필자에게 묻곤 했다.[6)]

도리안 (1981:145)은 또한 유창한 화자 중 일부의 경우 어휘 보유의 문제를 지적하나, "어휘 회상은 유창한 화자에 대한 문법적인 보수주의와 그리 상관 관계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준화자에 한해서 어휘 항목을 상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

6)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화자들은 영어의 문장을 HEF로 번역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어휘 상기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HEF는 놀라울 정도로 손을 대지 않았으며 자체 기반 방언과 형태론적 및 통사론적으로 매우 유사한 채로 남아 있다. 도리안 (1982b:31)이 지적한 것처럼 “사멸하는 언어가 구고적으로 ‘예외적’ 이라는 것은 언어학적인 소멸의 특징이 아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Haysville에서 HEF를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체 형태에서 상당한 양의 유추적인 평준화를 피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관리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며, HEF의 가장 "예외적인" 특징은 유럽의 EF와 지속적인 유사성이다. 기본 방언의 보충법의 형태는 대체로 HEF의 보충법의 형태에 대한 것이며 그 방언은 손대지 않은 채로 사멸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고 Haysville 정착민들이 그들과 함께 가져왔던 변형에 딱 맞을 것이다.

나. 체코 공화국의 독일 방언의 도해서

The *Atlas der deutschen Mundarten in der Tschechischen Republik*, *독일어의 도해서 체코 공화국의 방언은* 독일의 Regensburg 대학교, 체코 공화국의 Brno 대학교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교의 합작 프로젝트이다. 2001년 이래로 도해서는 보헤미안 왕관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시아)[7]

현재에는 체코 공화국 (CR)의 역사적인 영토에서 사용된 사멸한 독일어 변형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왔다. 실제로 이러한 모든 방언은 1945년까지 존재했는데 40년이 지나 소멸할 것이다.

이러한 지리학적인 영역에서 독일 역사와 관련하여 약간의 배경 정보가 여기에 필요하다. 12세기 초반에 독일어를 말하는 영토의 다양한 일부에서 온 화자로 종종 구성되는 독일 식민지는 보헤미안 왕관의 영토에 정착하고 독특한 방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여러 세기 동안 이러한 인종적인 독일어는 현대 독일, 오스트리아 및 폴란드 (실레시아/독일)를 경계 짓는 현대의 CR의 영역에 과반수를 형성했으며 Prague, 보르노, Olomouc 등등과 같은 더 큰 도시에서 더 많은 수의 독일어 화자가 존재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3백만 명 이상의 독일인들이 수데텐란트에 살고 있었다. 1945년에 나찌 독일이 항복한 후에 200,000명의 수데텐 독일인을 제외한 전부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영토에서 그들 재산의 대부분과 그들 가옥을 뒤로 남겨둔 채 대부분 독일로 추방되었다. 남아 있는 독일인들은 적어도 한 부모가 체코 당국이 보는 바로는 유용한 광업이나 산림의 경력과 같은 기술을 보유했던 가족들이었다.

전쟁 후에 체코 공화국의 독일 방언 도해서가 인터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남아 있던 독일

7) 독일인이 두드러지게 거주했던 체코슬로바티아의 영역에 대해 보다 최근의 용어 (19세기)는 수데텐란트이다.

인이다. 독일의 재정착한 수데텐 독일인들은 더 이상 수데텐 독일 방언을 완벽하게 신뢰할 정도로 말하는 화자가 아니며 대부분은 어느 정도 그들 자신의 새로운 고향의 변형에서 차용한 특징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CR에서 여전히 독일 방언 화자의 수는 과거 40년 내에 현저히 감소했으며 2001년 CR의 인구 및 가구 센서스에 따르면 약 39,000명의 사람들이 "독일 국적"을[8] 주장하나 그들 중 상당 수는 독일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다. 위에 남아 있던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독일어를 말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아이들이 능숙한 방언을 말하게 되기에 충분치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독일어를 말한다면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는 체코의 1개 국어 사용자가 아니라면 기껏해야 준화자이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해서의 현장 작업자들은 이전의 수데텐란트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능숙한 방언 화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화자들은 일부 어휘 항목뿐만 아니라 음운론적 (다음 단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전통적인 독일 방언학자의 주요한 초점), 형태론적 및 통사론적 특징을 유도하는 865개에서 3,000개의 질문에 답한다. 다음 해 중반까지 프로젝트의 데이터 취합 구문은 문서로 작성되었던 약 600개의 상이한 변형과 더불어 완벽해질 것이다. 6년간의 출판 단계가 시작될 것인데, 이 기간 중에 5권이 나올 것이며 방언의 소리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 3권, 형태론 및 통사론을 다루는 것이 1권이며 어휘 단어와 관련된 것이 1권이다.

독일어를 말하는 유럽에서 가장 언어학적인 도해서와 같은 도해서는 전통적인 독일 방언학의 프레임워크에서 작업하는데, 이것은 비교 시점으로서 Middle High 독일인의 모음 조직을 사용하여 그들 모음 시스템의 개발에 따라 주로 독일 변형을 구별한다. 결국 현장 작업자들은 유창한 방언 화자에 한해 조사하며 그 결과로서 준화자들은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간과된다. 도해서에 대한 기금이 극히 제한적이며 프로젝트가 스스로 설정했던 전통적인 목표에 매우 충분하기 때문에 불행히도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 결과 출판된 자료들은 준화자들의 언어에서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인 쇠퇴를 해명하는데 거의 할 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가치는 과소 평가되어

8) 본 숫자는 www.czso.cz/eng/redakce.nsf /i/basic_ final_results_of_the_population_ and_housing_census_2001, 표 29-2의 체코 통계청의 웹사이트에서 보고된다.

9) 다행히 일부 예외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동료들은 그의 상담역 중의 한 명의 10살짜리 손자가 유창한 독일 방언 화자라고 보고한다.

서는 안 되며 실제로 도해서는 상당히 세부적인[10] 문서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곧 사멸할 독일어의 수많은 변형을 차세대를 위해 보존하고 있다. 모든 언어가 그러하듯이 이러한 변형들은 "역사의 보고"이며 (크리스탈 2000:104) – 예를 들어 이러한 방언에 대한 분석이 우리로 하여금 수데텐란트의 특별한 영역의 정착을 추적하는 것을 도와주므로 자체 독일 거주자들은 이민을 갔으며 소멸하게 되기 전에 사멸한 모든 언어가 그러한 문서화 및 분석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비극적이다.

6.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종 언어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비평 결론

필자가 연관을 맺었던 위의 프로젝트는 사멸할 운명이며 되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사멸할 위험에 처한 언어의 경우는 아니며 언어학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언어들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언어는 연구하는 것은 언어학자들의 선택권이 아니며 크리스탈 (2000:145)은 환자의 미래에 대한 관심 없이 의료 데이터를 취합하는 의사와 언어학자를 비교한다. 그러나 우리의 "환자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치학자 및 언어학자의 외부 도움으로 사멸할 위험에 처한 언어의 화자들이 언어 존속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생성할 수 있는 6가지 수단을 제안하는 크리스탈(2000:127 ff.)에게 다시 돌아가 보자. 그가 주장하는 것은 만약 화자가 지배적인 사회 내에서 그들 특권을 증가시키고 지배적인 사회에 상대적인 그들의 부를 증가시키며 지배적인 사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정당한 권력을 증가시키며 교육 제도의 강력한 존재가 있고 그들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으며 전자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 사멸할 위험에 처한 언어가 진보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 중의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더욱 용이하게 이행되나 모든 것들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화자들이 스스로 그들 자신의 영토에 어느 정도 그들의 언어적인 운명을 가져오기 위해 동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들의 언어나 문화의 수명을 지속하기 위해 국가 정부의 후원하에 재정적인 지원 또는 입법과 같은 외부 지원에 독점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10)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언어 사멸을 이행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그러한 사례에서 가장 우선적이다. (크리스탈 2000:150).

네틀과 로메인(2000:177)이 제안하는 것처럼, “언어 존속에 대한 상향식 접근,” 예를 들어 사멸 위험에 처한 언어를 살리기 위한 풀 뿌리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국가 및 국제적인 관심도 중요하나 지역 조치가 필수적이며 가정에서 쓰이지 않는 언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 영역이 보호되어야 한다. 자체 화자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자연적인 서식지가 보존되어야 한다. 네틀과 로메인(2000:179 ff.)는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던 지역 발의한의 예를 제공한다. 하와이의 풀 뿌리 조직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언어 강의에 참여하기조차 하는 하와이의 집중 훈련 미취학 학교 재단을 담당하고 있었다. 외부인의 도움으로 브라질의 카라자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모국어로 초기에 학습하며 나중에 포르투갈어로 학습하는 학교를 설립했으며 카라자 역사 및 문화는 학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들은 외부 사회로부터 "유입되지"는 않으나 그들 자신의 마을에서 훈련 받은 지역 사람들이다.

사멸할 위험에 처한 언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확실히 바람직한 것이나 강의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위적인 환경이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언어를 말하는데 주도적이 되어야 하며 2개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다소 긍정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납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아일랜드어를 배운다면 영어에 덜 능숙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한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며 그것들은 널리 퍼져 있으며 언어 존속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2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녀와 사회에 대체로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부모들이 알도록 하는 것은 언어학자들의 몫이다.

풀뿌리 접근을 옹호하는 반면에 및 로메인 (2000:200 ff.)은 사멸 위험에 처한 언어를 존속하도록 "하향식" 노력을 단순히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이 식물 및 동물의 멸종 위험에 처한 종을 위한 것처럼 사멸 위험에 처한 언어의 입법화된 보호는 확실히 유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유럽 저사용 언어 사무국(European Bureau of Lesser Used Languages)과 메르카토르(MERCATOR) 네트워크와 같은 유럽 연합의 프로그램이 소수 언어의 화자들에게 이로웠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들은 또한 유네스코(UNESCO)의 언어권에 관한 세계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Linguistic Rights)을 뒷받침하는데, 여기에서 정부는 그들의 언어 및 문화를 존속하기 위해 소수의 권리를 보증하고 그들 영토 내에서 언어 및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식하는데 동의한다.

12시 5분전이며 우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심포지엄이 인류에 자체적으로 가장 위대한 근원 중의 일부 즉 언어의 비극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thnic Languages and Scripts in Yunnan

He Lifeng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thnic Languages and Scripts in Yunnan

Yunnan Provincial Minority Nationalities Languages and Literature Work Executive Committee

He Lifeng

Yunnan province is located in southwest China and has an area of 394,100km2. It borders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and Guizhou Province in the east, Sichuan Province in the north, and the Tibetan Autonomous Region in the northwest. It shares a 4,061 km border with three countries: Myanmar in the west, Laos in the south and Vietnam in the southeast. Yunnan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transportation hub connect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south Asia through out history. Presently, there are ten national and ten provincial ports of entry with more than 20 cross border roads. Yunnan abounds in natural resources. It is known as the 'Kingdom of plants', the 'Kingdom of animals' and the 'Kingdom of non-ferrous metals.'

Yunnan province is characterized by its abundance natural resources and diverse ethnic cultures.

I. People groups in Yunnan

Yunnan is the Chinese province with the most ethnic groups.

According to the 2000 census, there are 55 ethnic groups in China besides the Han Chinese. There are 14.159 million ethnic minorities, which is 33.43% of China's total population. The population of Yunnan's ethnic groups is second only to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There are 25

indigenous minority ethnic groups in Yunnan with a population of over 5,000, namely: Bai, Hani, Zhuang, Dai, Miao, Hui, Lisu, Lahu, Wa, Naxi, Yao, Jingpo, Tibetan, Bulang, Buyi, Achang, Pumi, Menggu, Nu, Ji'nuo. De'ang, Shui, Man, and Dulong.

Yunnan is the province which is most distinctly ethnic.

Among the 25 ethnic groups inhabiting Yunnan, 15 of them have more than 80% of their population living in Yunnan. These ethnic groups are called minority nationalities in China.

Yunnan province has the most cross-border ethnic groups.

Cross-border ethnic groups are those ethnic groups who live inside of China's border and across the border in neighboring countries. Along Yunnan's 4,061 km border with Myanmar, Laos and Vietnam, there are 25 counties. In these counties there are 16 cross-border ethnic groups, including the Yi, Hani, Zhuang, Dai, Miao, Lisu, Lahu, Wa, Yao, Jingpo, Bulang, Buyi, Achang, Nu, De'ang, and Dulong.

Yunnan contains the most ethnic autonomous areas.

There are 8 autonomous prefectures with 29 autonomous counties. The prefectures are Xishuangbanna Dai Autonomous Prefecture, Dehong Jingpo Autonomous Prefecture, Nujiang Lisu Autonomous Prefecture, Dali Bai Autonomous Prefecture, Diqing Tibetan Autonomous Prefecture, Honghe Hani and Yi Autonomous Prefecture, Wenshan Zhuang and Miao Autonomous Prefecture and Chuxiong Yi Autonomous Prefecture. In total, there are 37 ethnic autonomous areas in Yunnan. Of the 25 indigenous ethnic groups in Yunnan, 18 of them are in autonomous areas. Out of the 129 counties in Yunnan, 78 (60.5%) of them are autonomous areas, which covers 276,600 km2 (70.2% of the size of Yunnan).

Yunnan's least populated ethnic groups.

There are 7 ethnic groups in Yunnan which have a population of less than 100,000. These are the Bulang, Achang, Pumi, Nu, Jinuo, De'ang and Dulong. Traditionally, these ethnic groups are referred to as ?less populated ethnic groups in Yunnan.?

II. Language and orthography

Yunnan is a multi-ethnic, multi-cultural and multi-orthographic border province. Among the 25 minority nationalities in Yunnan, excluding the Chinese speaking Hui, Shui and Man, there are 22 minority nationalities who use 26 languages in their communication. The Jingpo nationality uses 2 languages. The Yao nationality uses 2 languages. And the Nu nationality uses 3 languages. These 26 languages belong to Tibeto-Burman, Tai-Kadai, Hmong-Mien and Mon-Khmer language branches of the Sino-Tibetan and Austro-Asiatic language Families.

Fourteen of the minority nationalities have used more than 50 different types of orthographies including regional, old or new orthographies. After the PRC was established, the government helped the following minority nationalities improve their own orthography: the new Tai-le orthography of Dai, the Jingpo orthography, the Lahu orthography and the standard orthography of Northeast Dian Miao. In the 1950's the government helped the following minority nationalities create their own orthographies: the Haya and Bika orthographies for the Hani, the Chuang Qian Dian Miao orthography, the Northeast Miao orthography, the Lisu orthography, the Naxi orthography, the Wa orthography, the Jingpo orthography (Zaiwa branch) and the Zhuang orthography. In the 1980's the government helped the following minority nationalities improve or create their own orthographies: the Bai orthography, the Dulong orthography, the Wenshan Zhuang orthography, the Yao orthography and the Xishuangbanna Hani orthography.

After several years of working hard on research and standardiz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now 14 minority nationalities in Yunnan using 22 orthographies: 3 for Dai (the Xishuangbanna old and new Dai orthographies, and the Dehong Dai orthography), 3 for Miao (the Chuang Qian Dian sub-dialect Miao orthography and the Northeast Dian Miao Standard orthography, Northeast Dian Miao old orthography), 2 for Yi (the pan-Yunnan Yi orthography and the Liangshan Yi standard orthography), 2 for the Lisu (Old Lisu orthography and New Lisu orthography), 2 for the Yao (Men dialect orthography and Mien dialect orthography), 2 for the Jingpo (Jingpo orthography and Zaiwa orthography), the Zang (Tibet) orthography, the Lahu orthography, the Naxi orthography, the Guangxi Zhuang orthography, the Hani orthography, the Wa orthography, the Bai orthography and the Dulong orthography. There 12 minority nationalities with another orthography outside of China: Yi, Hani, Zhuang, Dai, Miao, Yao, Tibetan, Lisu, Lahu, Wa, Jingpo and Dulong.

Types of scripts of the minority nationalities in Yunnan

Pictographic: the Naxi Dongba script

Varieties of Chinese characters: the square Zhuang script and the square Bai script.

Syllabic script: the Naxi Geba script and the Yi script.

Indic script: Zang (Tibet) script and Dai script.

Roman based Pinyin script: Zhuang orthography, Jingpo orthography, Zaiwa orthography, Lahu orthography, Wa orthography, Yao orthography, Lisu orthography, Miao orthography, Naxi orthography, Hani orthography, and Dulong orthography.

The minority nationalities in Yunnan have historically developed differently from each other because of differing geographical and linguistic environments, differing populations and concentration verses integrated ethnic communities. Every ethnic group in Yunnan has received very different levels of influence from other ethnic groups, thus each group's distinct characteristics

have emerged. The language use situation of the ethnic groups in Yunnan is as follows: monolingual (referring to those who can only speak their mother tongue), bilingual (referring to those who speak Chinese or another ethnic language while speaking their mother tongue), multilingual (referring to those who can speak at least 2 other languages besides their mother tongue), and mother-tongue-shifted (referring to those who are using Chinese in lieu of their mother tongue). Based on the above, we can categorize the language use situation in Yunnan as following:

Monolingual: this type is mainly found in remote mono-residential areas. Some people living in these areas are bilingual in Chinese (for instance students, government workers, and militants), but the mother tongue is still considered the language of communication.

Bilingual: this is very common among the ethnic groups in Yunnan. It is also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ociolinguistic phenomena. Bilingualism mainly occurs in two situations. The first is bilingualism in Chinese and the mother tongue. This is more common when ethnic minorities live in the lowlands with other people groups. The second is when ethnic groups speak their mother tongue and another minority language. This is most common when ethnic minorities live in remote areas with neighboring ethnic groups.

Multilingual: normally, there are not large populations of this type. These ethnic groups are very close to the neighboring ethnic group. Besides their own mother tongue, they speak 2 or more other languages spoken in the area.

Mother tongue shifted type: this refers to the groups that have shifted from their mother tongue to Chinese as the language of communication.

Besides the four types mentioned above, there are some Han Chinese who have worked in the ethnic area for a long time and have learned to speak the language of the ethnic group in the area to some extent.

III. The Main Achievements made since the PRC was established

A broad survey of the ethnic groups in Yunnan.

As early as 1951, a research team from the Language Research Institute of China's Academy of Social Sciences had done some research on Dai, Lisu, Lahu, Wa, Achang, and others. Their research revealed the basic situation of the orthography of the minority nationalities of Yunnan. In 1956, the Central Minority Affairs Committee formed a work team joined by the Language Research Institute of the Science Institute of China, Central Minority University and local minority language research organizations and related entities. This research team with more than 200 people including the local researchers carried out a detailed survey of Dai, Jingpo, Zaiwa, Lisu, Wa, Achang, Hani, Bai and Naxi. Since then, the Yunnan Minority Language Affairs Committee started to organize and facilitate different types of work on language research. After years of working, we have worked out the distribution of every ethnic language and script with detailed analysis of the phonetics, lexicons and grammars. Surveys of dialects have also provided scientific dialect division evidence. Based on these surveys, researchers have written many survey reports from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which have become the foundation of making and improving ethnic scripts.

Helping minority nationalities in Yunnan to create or improve their orthographies.

After the survey of the minority nationalities in 1957, the Yunnan Minority Language Affairs Committee started to assist the ethnic language research team to create or improve orthographies.

There were 7 ethnic groups which had their orthographies created or improved. These 7 groups are Lahu, Miao, Lisu, Jingpo (Zaiwa branch), Naxi, Wa and Hani. Among the 7 groups, the following have newly created orthographies: Zaiwa, Hani, Chuan Qian Dian Sub-dialect Miao, Naxi and Wa. The following groups had improvements made to their orthographies: Dehong Dai, Xishuangbanna Dai, Jingpo and Northeast Dian Sub-dialect Miao.

Since 1980,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ing the will and choice of the minority nationalities," there are have been three new orthographies created: Bai, Yao and Dulong. The Zhuang script was improved and the Yi script was standardized.

Good results on literacy and bilingual education.

After creating or improving the orthography for the ethnic groups in the 1950's, the government started literacy projects both in schools and in the communities. This kind of literacy project was carried out in almost all the ethnic groups with orthographies. Good results were observed in testing the orthographies an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minority education.

Since 1982, the Yunnan Minority Language Affairs Committee has started 14 pilot projects with 12 orthographies in ten minority nationalities. This was in cooperation with prefecture and county level education bureaus, the Minority Affairs Committee and the Minority Language Affair Committee. These ten minority nationalities were the Wa, the Lisu, the Naxi, the Bai, the Lahu, the Yi, the Jingpo, the Tibetans, the Miao and the Hani. The pilot projects promoted the literacy projects to a broader level. Now there are 3,689 schools running bilingual education programs in 66 counties from 15 prefectures.

Education in minority languages at a higher level.

In 1956 the Yunna Institute of Nationalities established majors in three languages: Daile(Xishuangbanna Dai), Daina (Dehong Dai) and Jingpo. In September the same year, the department of Ethnic Languages was established. In the years to come, the institute began majors in

the study of Lisu, Naxi, Wa, Zaiwa, and others. These majors provided training for many ethnic language researchers in Yunnan.

Since 1997,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bilingual education, the Yunnan Minority Affairs Committee has achieved great results in producing and publishing minority language educational materials. With the great help of the National Education Department, together with the Yunnan Education Bureau, the Yunnan Minority Affairs Committee has edited 247 copies of primers and text books in 18 scripts for 14 minority nationalities. The total number of copies published amounts to 980,000 copies.

Every year the Yunnan Minority Affairs Committee runs textbook writer's workshops and bilingual teacher's training workshops.

The development of media in minority language.

The minority languages have been used widely in media such as radio, film, television and newspapers. Now, there are 45 radio stations in Yunnan broadcasting in 15 language spoken by 10 minority nationalities. Nine film-translating entities have translated a great number of movies and documentaries into 18 languages spoken by 16 minority nationalities. There are 250 minority language movie theaters. There are 12 minority nationalities with newspapers in a total of 19 different languages. Two minority nationalities have three types of newspapers published.

Great achievements made in publication of minority literature.

The Yunnan Minority Nationalities Publishing House and Dehong Minority Nationalities Publishing House are two local publishing houses with a focus of publishing minority literature. There are now 1,280 volumes published in 16 orthographies with 1,800,000 copies.

Efforts in saving, editing, researching and publishing minority's ancient scripts.

Yunnan Province has put great effort into saving more than 20,000 volumes of endangered

minority scripts. More than 3,000 volumes of ancient scripts were saved in the years of 1999 to 2000. "The Commentary on the Ancient Naxi Dongba Scripts" (100 volumes) is inscribed i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Progress made in regulating and standardizing minority orthography.

In the process of doing language surveys, and creating and improving minority orthographies, the Yunnan Language Affairs Committee cooperated with Language Research Institute of China's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 researching new vocabulary and terms in minority languages. This cooperation led to the publication of a series of Chinese and ethnic language bilingual dictionaries. In order to improve the standardization of the ethnic orthography, the Yunnan Language Affairs Committee set principles to determine new terms. A new term glossary has been published in Dai, Wa, Miao, Jingpo, Lisu, and Lahu.

Since the 1990's China has started applying to ISO for its minority orthographies. Yunnan submitted two applications; one for the Dehong Dai orthography and another for the Xishuangbanna New and Old Dai orthographies. Both have been approved by ISO (ISO/IECJTCI/SC2/WG2).

On the other hand, great effort has been put into developing typesetting and printing systems for minority orthographies. Since the 1980's, the Yunnan Language Affairs Committee has facilitated the cooperation of the Yunnan Minority Nationalities Publishing House, Dehong Minority Nationalities Publishing House and Shandong Weifang Guanghua Co. in researching and developing the typesetting system for the Dehong Dai script, the Xishuangbanna Dai script and the Lisu script. In the mid 90's, the Yunnan Language Affairs Committee worked with New Tech Company of Beijing University to develop the typesetting system for the Dehong Dai script, Xishuangbanna Dai orthography, and Lisu orthography. The Yunnan Language Affairs Committee facilitate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Xishuangbanna Daily and Weifang Beijing University Bluebird Science Co. Lt. in producing a computer typesetting program for the Xishuangbanna Old

and New Dai scripts. The success in the formatting system symbolizes a new age for publishing minority literature in minority scripts.

Expanding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ince the 1980's, the Yunnan Minority Affairs Committee has been establishing excellent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language research organizations from the USA, Japan and Australia. Our cooperation with SIL East Asia Group has seen great progress in three projects: Bai, Naxi and Yi. Three of these foreign experts were granted the "Friendship with Yunnan Award" by the Yunnan government because of the great contributions they have made. At the same time, we have invited both foreign and Chinese experts to give lectures and hold workshops. We also encourage the staff to work together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s from other provinces in research. All this work has made the Yunnan Language Affairs Committee well known, while promoting minority language work. The quality of the staff has also greatly improved. Besides that which was mentioned above, we have also successfully organized several national conferences to strengthen our communication with related international and national organizations.

IV. Principles in preserving and developing minority language and orthography

We are fully aware of the reality that Yunnan is a multi-ethnic province. The language use situation in each minority nationality is different. Based on the features of the language and actual situation, we developed some principles in the preserving and developing minority language and orthography.

For traditional scripts which are still being used nowadays, we encourage the use and learning of it

to insure that it can be used more broadly in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domains.

For scripts created or improved in the 1950's, we encourage the use of the well accepted ones while helping to improve the not ideal ones. For the ones that are not ideal, we respect the choice of the people.

For groups which don't have an orthography, we encourage them to protect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e.

For those which use both new and old scripts, we encourage them to use the new or improved scripts in publication and bilingual education, and to standardize their script.

We advocate that the minority nationalities without an orthography choose an applicable one for their group. For those groups which have adapted Chinese or the scripts of other groups, we respect their choice.

We encourage the discovery, research and organization of ancient scripts of some minority groups. At the same time, we also reinforce the rescue efforts of endangered minority languages and scripts.

For ethnic groups that live on both sides of China's border, we follow a principle which encourages them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advance the communication between each other.

We encourage the ethnic groups to learn the national language while learning the language and scripts of other ethnic groups.

V. Ideas for future work

First, implement the minority language policies of China and realize the legalization of minority language work.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inority languages is one of the basic rights of minority nationalities.

Minority language work should be legalized. We will implement the minority language policy of China while looking into the reality of Yunnan. The "Yunnan Minority Language Working Guidelines (Draft)" is in the process of being edited and improved. Hopefully, these guidelines will become regional rules for us to follow. At the same time, we are interacting with drafts of related laws in order to include content which will provide protection to minority language work and minority's basic rights.

Second, launch minority language preservation and rescue projects.

Minority languages are an important vehicle of minority culture, which is also an irreplaceable resource. Concern is growing for endangered minority languages, especially groups with small populations and languages with only very few speakers left. We will carry out minority language rescue and preservation project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Combining traditional research methods with modern techniques, we aim to build a Yunnan minority language database.

Third, strengthen the regulation, standardization and computerization process of minority scripts.

Regulation, standardization and computerization are important methods in developing and preserving minority scripts. In recent years, we have emphasized these. With the efforts we made, great progress has been achieved. We will continue to work on it. With regards to regulation, we

will launch projects on regulating the new terms, researching and determining the phonologies and orthographies, and compiling glossaries. These projects will improve the regulation level of the minority language. With regards to standardization, we will continue with the ISO application process. With regards to computerization, we aim to develop software for non-Roman scripts and open minority language websites.

Fourth, guide bilingual education and the work of adaptation of radio, movie, television and literature into minority languages to expand the domains of usage of minority languages.

We will continue the cooperation with the Yunnan Education Bureau to improve the bilingual education levels by adapting and editing minority text books and training bilingual education teachers. At the same time, we will also produce reading materials for the ethnic groups based on their actual needs, like booklets on AIDS and drug prevention, etc.

Fifth, enhance th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recent years, international society pays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research and preservation of minority language. Many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have put a lot of effort in this, so we want to enhance th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application of modern techniques in minority language research, and to broaden the area of minority language research.

중국 정부의 운남성 소수민족 언어 보존 방향

허 리 펑 (중국/윈난성 소수 민족 언어와 문학 작업 위원회)

중국 정부의 운남성 소수민족 언어 보존 방향

허 리펑(운남민족대학교 민족문화학원 겸직교수)

윈난성은 중국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392,100 km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광시 좡족 자치구와 접경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구이저우성, 북쪽으로는 쓰촨성 그리고 북서 쪽으로는 티베트 자치구와 접해있다. 세 개의 국가와 4,061 km 길이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서쪽의 미얀마, 남쪽의 라오스 그리고 남동쪽의 베트남. 윈난성은 역사적으로 항상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중요한 교통 중심지였다. 현재 20 개 이상의 국경을 넘나드는 도로들이 있으며 10 개의 국가 그리고 10 개의 성(省) 통관항이 있다. 윈난성에는 국가 자원이 풍부하다. '식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그리고 '비철금속의 왕국' 으로 알려져 있다. 윈난성은 풍부한 국가 자원 그리고 다양한 민족 문화들로 특징 지워진다.

1. 윈난성의 사람들

윈난은 가장 많은 민족 집단들이 살고 있는 중국 성(省)이다. 2000 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한족(Han Chinese) 을 제외하고 55 개의 민족 집단이 있다. 14,159,000 개의 소수 민족들이 있으며 이들은 중국 전체 인구의 33.43% 를 차지하고 있다. 윈난성 민족 집단의 인구수는 광시 좡족 자치구 다음으로 많다. 윈난성에는 5,000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25 개 고유의 소수 민족 집단들이 있다. 즉: 바이족(Bai), 하니족(Hani), 좡족(Zhuang), 태족(Dai), 묘족(Miao), 회족(Hui), 리수족(Lisu), 라후족(Lahu), 와족(Wa), 나시족(Naxi), 요족(Yao), 징포족(Jingpo), 티베트족(Tibetan), 뿌랑족(Bulang), 뿌이족(Buyi), 아창족(Achang), 푸미족(Pumi), 몽고족(Menggu), 누족(Nu), 지누오족(Ji'nuo), 더앙족(De'ang), 수족(Shui), 만족(Man) 그리고 두롱(Dulong).

윈난은 가장 독특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성(省)이다. 윈난에 거주하고 있는 25개의 민족집단 중 15 개 집단의 인구가 윈난의 80%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 집단들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이라 불린다.

윈난성에는 가장 많은 국경을 넘은 민족 집단들이 있다. 국경을 넘는 민족 집단들은

중국의 국경 안에 그리고 인접 국가들의 국경을 가로질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과 윈난성의 4,061km 길이의 국경을 따라 25 개의 주가 있다. 이들 주 안에16 개의 국경을 넘는 민족 집단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이족(Yi), 하니족(Hani), 좡족(Zhuang), 태족(Dai), 묘족(Miao), 리수족(Lisu), 라후족(Lahu), 와족(Wa), 요족(Yao), 징포족(Jingpo), 뿌랑족(Bulang), 뿌이족(Buyi), 아창족(Achang), 누족(Nu), 더앙족(De'ang) 그리고 두롱족(Dulong)이 포함된다.

윈난성에는 가장 많은 민족 자치구들이 있다. 8 개의 자치구와 29 개의 자치주가 있다. 자치주들은 시쌍반나 따이족 자치구(Xishuangbanna Dai Autonomous Prefecture), 떠훙 징포족 자치구(Dehong Jingpo Autonomous Prefecture), 누장 리수족 자치구(Nujiang Lisu Autonomous Prefecture), 다리 바이족 자치구 (Dali Bai Autonomous Prefecture), 디칭 티베트족 자치구(Diqing Tibetan Autonomous Prefecture), 홍허 하니와 이족 자치구 (Honghe Hani and Yi Autonomous Prefecture), 원샨 좡 과 묘족 자치구 (Wenshan Zhuang and Miao Autonomous Prefecture) 그리고 추슝 이족 자치구(Chuxiong Yi Autonomous Prefecture)다. 모두 합쳐서 윈난에는 39 개의 민족 자치 구역들이 있다. 윈난 고유의 25 개 민족 집단들 중 18 개는 자치 구역에 있다. 윈난의 129 개 주 중에서 78 개 주는 (60.5%) 자치 구역에 있으며 이는 276,600 km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윈난 크기의70.2%).

윈난성에는 최소 인구 수의 민족 집단들이 있다. 십만 이하의 인구를 갖고 있는 7 개의 민족집단들이 윈난성에 있다. 그들은 뿌랑족, 아창족, 푸미족, 누족, 지누오족, 더앙족 그리고 두롱족이다. 전통적으로 이들 민족 집단들은 "윈난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민족집단' 들로 알려져 있다.

2. 언어와 정자법(orthography)

윈난성은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정자법의 국경 지역이다. 후이(Hui), 슈(Shui) 그리고 만 (Man)을 사용하는 중국인들을 제외한 윈난성의 25 개 소수 민족들 중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26 개의 언어들을 이용하는 소수 민족들은 22 개다. 징포족은 2 개의 언어들을 이용하고 있다. 요족은 2 개의 언어들을 이용한다. 그리고 누족은 3 개의 언어들을 이용한다. 이들 26 개의 언어들은 시노 티베트어 (Sino-Tibetan) 그리고 남아어 (Austro-Asiatic) 어족의 티베트 버마어 (Tibeto-Burman), 타이 까다이어 (Tai-Kadai), 몽미엔 (Hmong-Mien) 그리고 몬크메르어

(Mon-Khmer) 어파에 속한다.

14 개의 소수 민족들은 지역적인 정자법, 구 정자법 또는 신 정자법을 포함한 50 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정자법 들을 이용하였다. 중국인민공화국(PRC)이 수립된 후 정부는 다음의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정자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태족, 징포족 그리고 라후족 정자법의 새로운 Tai-le 정자법 그리고 북동 디안 묘족의 표준 정자법. 1950 년대 정부는 다음의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만의 정자법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니족을 위한 하야와 비카 정자법, 추앙 키안(chuang Qian) 디안묘족정자법, 북동 묘족 정자법, 리수족 정자법, 나시 (Naxi) 족 정자법, 와족 정자법 징포족 정자법 (자이와족 파) 그리고 좡족 정자법. 1950 년대 정부는 다음의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 만의 정자법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바이족 정자법, 두롱족 정자법, 원샨 좡족 정자법, 요족 정자법 그리고 시쌍반나 하니족 정자법.

수년간의 연구와 포준화 노력 끝에 이제 윈난성에는 22 개 정자법을 이용하는 14 개의 소수민족들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태족은 3 개의 정자법 (시쌍반나 구 태족 정자법과 신 태족 정자법, 그리고 떠훙 때족 정자법), 묘족은 3 개의 정자법 (추앙 키안 디안 하위방언 묘족 정자법 그리고 북동 디안 묘족 표준 정자법, 북동 디안 묘족 구 정자법), 이족은 2 개의 정자법 (윈난 이족 정자법 그리고 량산 이족 표준 정자법), 리수족은 2 개의 정자법(구 리수족 정자법과 신 리수족 정자법), 요족은 2 개의 정자법 (멘족 방언 정자법 그리고 미엔족 방언정자법), 징포족은 2 개의 정자법 (징포 정자법과 자이와족 정자법), 장족 (티베트) 정자법, 라후족 정자법, 나시족 정자법, 광시 좡족 정자법, 하니 정자법, 와족 정자법, 바이족 정자법 그리고 두롱족 정자법. 중국 밖의 다른 정자법을 갖고 있는 12 개의 소수 민족들이 있다: 이족, 하니족, 좡족, 태족, 묘족, 요족, 티베트족, 리수족, 라후족, 와족, 징포족 그리고 두롱족.

〈윈난성의 소수 민족들의 스크립트 종류〉

- 상형문자: 나시 동바(Naxi Dongba) 스크립트
- 중국 문자들의 다양성: 네모꼴 좡족 스크립트 그리고 네모꼴 바이족 스크립트.
- 음절 스크립트: 나시 게바족 스크립트 그리고 이족 스크립트.
- 인도 스크립트: 장족 (티베트) 스크립트 그리고 다이족 스크립트.
- 로마어에 기초한 병음(Pinyin) 스크립트: 좡족 정자법, 징포족 정자법, 자이와족 정자법, 라후족 정자법, 요족 정자법, 리수족 정자법, 묘족 정자법, 나시족 정자법, 하니족 정자법 그리고

두롱족 정자법.

윈난성의 소수 민족들은 지리학적 그리고 언어학적 차이 그리고 인구와 인구 집중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르게 발전하였다. 위난성의 모든 민족 집단은 다른 민족 집단들로부터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받았으므로 각각의 집단들은 고유의 특징을 갖는다. 윈난성의 소수 민족의 언어 이용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개 민족의 언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모국어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2 개 민족의 언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모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또는 다른 민족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러 민족의 언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모국어 외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다른 민족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모국어를 전환하여 이용하는 사람들 (모국어를 대신해서 중국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윈난성의 언어 이용 상황을 분류할 수 있다:

- 1 개 민족의 언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들은 멀리 떨어진 단일 거주 지역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중국어도 함께 쓰지만(예를 들면, 정부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군인들) 모국어는 여전히 의사소통 언어로 이용된다.
- 2 개 민족의 언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들은 윈난성의 민족 집단들 사이에 매우 일반적이다. 또한 이는 가장 중요한 사회언어학적 현상 중 하나다. 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 주로 일어난다. 첫 번째는 중국어와 모국어 이용이다. 이는 민족 집단이 다른 집단과 저지에서 살 때 일반적이다. 두 번째는 민족 집단이 모국어와 다른 소수 언어를 이용할 때다. 이는 소수 민족들이 다른 민족 집단과 인접한 먼 거리에서 살고 있을 때 일반적이다.

- 여러 민족의 언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수는 크지 않다. 이들 민족 집단들은 인접 인종 집단과 매우 근접해 있다. 자신들의 모국어 외에 그들은 2 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이용한다.
- 모국어를 전환하여 이용하는 사람들: 이들은 의사소통의 언어로 모국어를 중국어로 바꾼 사람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네 종류 외에도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운 한족들도 있다.

3. 중국인민공화국 수립 후 주요한 성과들

윈난성의 민족 집단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1951년 중국 사회과학 언어 연구 학술 단체의 연구팀은 태족, 리수족, 라후족, 와족, 아창족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윈난성의 소수 민족들의 정자법의 기초적인 상황을 밝혀내 주었다. 1956년 중앙 소수민족 위원회는 (Central Minority Affairs Committee) 중국의 언어연구 과학 재단, 중앙 소수민족 대학 그리고 지역 소수민족 언어 연구 기관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하나의 작업 팀을 형성하였다. 지역 연구자들을 포함한 200 명의 이 연구 팀은 태족, 징포족, 자이와족, 리수족, 와족, 아창족, 하니족, 바이족 그리고 나시족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위난성 소수민족 언어 위원회는 언어 연구에 관한 여러 작업들을 구성하고 추진시켰다. 몇 년간의 연구 끝에 음성학, 어휘 그리고 문법의 상세한 분석으로 모든 민족 언어의 분포를 완성하였다. 방언에 관한 연구는 또한 과학적인 방언 분포 증거를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조사들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민족 스크립트를 만들고 개선하는 기초가 된 많은 이론적 그리고 실용적 관점의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윈난성의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정자법을 만들거나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기. 1957년 소수민족에 관한 조사 이후 윈난성 소수 언어 위원회는 정자법을 만들거나 개선하기 위한 민족 언어 연구 팀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7 개의 민족 집단들이 자신들의 정자법을 만들거나 개선하였다. 이들 7 개 집단들은 라후족, 묘족, 리수족, 징포족 (자이와족 파),나시족, 와족 그리고 하니족이다.

7 개 집단 중 다음은 새롭게 정자법을 만들었다: 자이와족, 하니족, 추앙 키안 디안 하위 방언 묘족, 나시족 그리고 와족. 다음의 민족들은 자신들의 정자법을 개선하였다: 떠홍 태족, 시쌍반나족 태족, 징포족 그리고 북동 디안 하위 방언 묘족이다.

1980 년 이후, "소수민족들의 의지와 선택을 존경"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3 개의 새로운 정자법들이 만들어졌다: 바이족, 요족 그리고 두롱족. 좡족 스크립트는 개선되었고 이족 스크립트는 표준화되었다.

읽고 쓰는 것과 두 나라 말을 쓰는 교육에 관한 훌륭한 결과들. 1950 년대 정자법의 창조 또는 개선 이후 정부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읽고 쓰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읽고 쓰기 프로젝트는 정자법을 가진 거의 모든 민족 집단에서 실행되었다. 정자법을 실험하고 소수민족들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좋은 결과들이 관찰되었다.

1982 년 이후, 윈난성 소수 언어 위원회는 10 개 소수 민족들의 12 개 정자법에 관한 14 개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는 자치구와 주 차원의 교육 기관, 소수민족 위원회 그리고 소수 언어 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되었다 10 개의 소수 민족들은 와족, 리수족, 나시족, 바이족, 라후족, 이족, 징포족, 티베트족, 묘족 그리고 하니족이다. 실험적인 프로젝트는 읽고 쓰는 프로젝트를 좀더 광범위한 범위로 촉진시켰다. 이제 15 구의 66 개 주에서 두 개의 민족 언어 교육을 하는 학교가 3,689 개나 된다.

높은 단계에서의 소수언어 교육. In 1956 년 위난성 민족 단체는 세 개의 언어로 전공을 설립했다: 따이러족(Daile) (시쌍반나 태족), 따이나족(Daina) (떠홍 태족) 그리고 징포족. 같은 해 9월, 민족언어부서가 설립되었다. 그 이후, 기관은 리수족, 나시족, 와족, 자이와족 그리고 다른 민족언어 연구 전공을 시작했다. 이들 전공들은 윈난성의 많은 민족 언어 연구자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주었다.

1997년 이후, 2 개 민족 언어 교육의 과정에서 윈난성 소수민족 위원회는 소수 언어 교육 자료를 만들고 발행하는데 있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국가 교육부의 큰 도움과 윈난성 교육 부처의 지원으로 윈난성 소수민족 위원회는 14 개 소수 민족들을 위한 18 개 스크립트로 된 247 개의 입문서와 교과서 사본을 편집하였다. 발행된 총 사본의 수는 980,000 이다.

매년 윈난성 소수민족 위원회는 교과서 작가 워크숍과 2 개 민족 언어 이용 교사들의 훈련 워크숍을 진행한다.

소수 언어로 된 미디어 개발. 소수언어는 라디오, 영화, TV 그리고 신문과 같은 매체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이제 윈난성에는 10 개의 소수 민족들이 이용하는 15 개의 언어로 방송하는 45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 9 개의 영화 번역 기관이 많은 수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16 개의 소수 민족들이 이용하는 18 개의 언어들로 번역하였다. 현재 250 개의 소수 언어 영화관이 있다. 19 개의 다른 언어로 된 12 개 소수민족 신문들이 있다. 두 개의 소수 민족들은 세 개 종류의 신문들을 발행하고 있다.

소수 민족 문학 출판의 거대한 성과. 윈난성 소수민족 출판사와 떠홍 소수민족 출판사는 소수 민족 문학의 출판에 집중하는 두 개의 지역 출판회사다. 16 개의 정자법으로 출판된 1,280 권의 1,800,000 사본이 있다.

소수 민족들의 고대 스크립트 보존, 편집, 연구, 출판 노력. 윈난성은 생명이 위태로운 20,000 권의 소수민족 스크립트를 보호하는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 3,000 권 이상의 고대 스크립트 가 1999 년에서 2000 년 사이에 되살려졌다. "고대 나시 동바족 스크립트 에 관한 기록" (100 권) 이 유네스

코의 "세계 기록 유산"에 등록되었다.

소수 민족 정자법의 규제와 표준화 진행 상황. 언어 조사와 소수 민족 정자법 창조와 개선의 과정에서 윈난 언어 위원회는 소수 민족 언어의 새로운 단어들과 용어들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사회과학 언어 연구 학술 단체와 협력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과 민족 언어의 두 개 언어 사전의 연속적인 출판으로 이어졌다. 민족 정자법의 표준화를 개선하기 위해 윈난 언어 위원회는 새로운 용어들을 결정하는 원칙들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용어집이 태족, 와족, 묘족, 징포족, 리수족 그리고 라후족에서 출판되었다.

1990 년대 이후 중국은 소수 민족 정자법을 위해 ISO 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윈난은 두 개를 제출했다 떠홍 태족 정자법을 위한 한 개 그리고 시쌍반나 신 태족 정자법과 구 태족 정자법을 위한 다른 한 개. 두 개 모두 ISO 의 승인을 받았다 (ISO/IECJTCI/SC2/WG2).

또 다른 한편 소수 민족 정자법을 위한 식자와 인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큰 노력을 하였다. 1980 년대 이후 윈난 언어 위원회는 떠홍 태족 스크립트, 시쌍반나 태족 스크립트 그리고 리수족 스크립트 의 식자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윈난 소수 민족 출판사, 떠홍 소수 민족 출판사 그리고 산둥 웨이팡 광화(Shandong Weifang Guanghua) 회사의 협력을 촉진시켰다. 90년대 중반, 윈난 언어 위원회는 떠홍 태족 스크립트, 시쌍반나 태족 정자법 그리고 리수족 정자법을 위한 식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북경 대학교의 신 기술 회사와 함께 일했다.

윈난 언어 위원회는 시쌍반나 구 태족 스크립트 그리고 신 태족 스크립트를 위한 컴퓨터 식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쌍반나 신문사와 웨이팡 베이징 대학 블루버드 과학 주식회사(Weifang Beijing University Bluebird Science Co. Lt.)사이의 협력을 촉진시켰다. 포맷 시스템의 성공은 소수 민족 스크립트 의 소수 민족 문학을 출판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와 국제 기관과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확장. 1980 년대 이후, 윈난 소수 민족 위원회는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로부터의 언어 연구 기관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SIL 동아시아 그룹과의 협력은 세 개의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발휘했다: 바이족, 나시족 그리고 이족. 이들 외국 전문가들 중 세 명에게는 정부에 의해 "윈난과의 우호상"이 수여되었다. 이와 동시에, 워크숍을 위한 국외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을 초대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들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서 일할 것을 직원들에게 권장하였다.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 윈난 언어 위원회는 널리 알려졌으며 소수 민족 언어 작업 또한 홍보되었다. 직원들의 질도 매우 향상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우리는 관련 국외 그리고 국내 기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몇몇 국가적인 회의를 성공적으로 조직

하였다.

4. 소수 민족 언어와 정자법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원칙들

윈난이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각각의 소수 민족의 언어 이용 상황은 매우 다르다. 언어와 실제 상황의 특성에 기초하여 우리는 소수 민족 언어와 정자법을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원칙들을 개발하였다.

현재 여전히 이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스크립트 의 경우, 우리는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의 이용과 학습을 권장한다.

1950 년대 만들어지거나 개선된 스크립트 의 경우 우리는 이상적이지 않은 것은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잘 수용되는 것들의 이용은 권장한다. 이상적이지 않은 것들의 경우 우리는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정자법을 갖고 있지 않는 집단의 경우 우리는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할 것을 권장한다.

새로운 그리고 오래된 스크립트 모두를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우리는 출판과 두 개 민족언어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또는 개선된 스크립트를 이용할 것을 그리고 스크립트를 표준화할 것을 권장한다.

정자법을 갖고 있지 않는 소수 민족 집단의 경우 자신들을 위해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중국 또는 다른 집단의 스크립트를 채택한 집단의 경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같은 소수 민족 집단의 고대 스크립트의 발견, 연구 그리고 조직화를 권장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존재가 위태로운 소수 민족 언어와 스크립트 의 구명 노력을 강력히 주장한다.

중국 국경의 양쪽 모두에 살고 있는 민족 집단의 경우, 우리는 서로로부터 배우도록 권장하며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칙들을 따른다.

우리는 민족집단들이 다른 민족집단들의 언어와 스크립트를 배우면서 국가 언어를 배울 것을 권장한다.

5. 미래 작업을 위한 아이디어들

첫 번째, 중국의 소수 민족 언어 정책들을 이행하고 소수 민족 언어 작업의 적법화를 실현시킨다. 소수 민족 언어의 개발과 적용은 소수 민족 집단들의 기초적인 권리 중 하나다. 소수 민족 언어 작업은 적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윈난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서 중국의 소수 민족 언어 정책을 이행할 것이다. "윈난 소수 민족 언어 작업 지침(초안) 은 현재 편집과 개선 작업중이다. 바라건대, 이러한 지침들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지역적인 규칙들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소수 민족 언어 작업과 소수 민족의 기초적인 권리의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초안과의 상호보안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소수 민족 언어 보존과 구원 프로젝트 착수. 소수 민족 언어들은 소수 민족언어의 중요한 매개물이며 대치할 수 없는 자원이다. 존재가 위태로운 언어들에 대한 걱정들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작은 인구수의 집단들과 매우 작은 수의 사람들만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집단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소수 민족 언어 구원과 보존 프로젝트를 중앙 정보가 만든 규칙에 따라 진행시킬 것이다. 전통적인 연구 방법들과 현대 기술들을 통합하여 우리는 윈난 소수 민족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이다.

세 번째, 소수 민족 스크립트 의 규칙, 표준화 그리고 전산화 과정의 강화. 규칙, 표준화 그리고 전산화는 소수 민족 스크립트를 개발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최근, 우리는 이들을 강조하여 왔다. 우리의 노력으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규칙과 관련하여 우리는 새로운 용어들의 규제, 음성학과 정자법의 연구와 결정 그리고 어휘 수집에 관한 프로젝트를 착수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소수 민족 언어의 규제 수준을 개선할 것이다.

표준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ISO 적용 과정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전산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로마어가 아닌 스크립트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소수 민족 언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네 번째, 소수 민족 언어 이용을 확장하기 위해 2개 민족 언어 교육과 소수 민족 언어로의 라디오, 영화, TV 그리고 문학의 번안 작업을 지도한다. 우리는 소수 민족 교과서의 번안과 편집 그리고 2개 민족 언어 교육 교사들의 훈련을 통해서 2개 민족 언어 교육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윈난 교육 부처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AIDS 와 약물 예방 등에 관한 작은 책자, 즉 민족 집단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에 기초하여 읽을 자료들을 만들 것이다.

다섯 번째, 국외 기관과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향상. 최근 국제 사회는 소수 민족 언어의 연구와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있다. 많은 국가들, 국제 기관들 그리고 NGO 들은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소수 민족 언어 연구의 현대적인 기술 적용을 개선하고 소수 민족 언어 연

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관과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향상하고자 한다.

沖縄地域における民俗の保存について

萩原左人（琉球大学　准教授）

沖縄地域における民俗の保存について

萩原左人（琉球大学　准教授）

はじめに

本稿は、日本国沖縄県における民俗の保存についての報告である。ここで取り上げる沖縄社会のみならず、現代社会のなかで民俗がおかれている位相は、かつてのように村落社会のなかで民俗が醸成され伝承されてきた状況とは大きく異なっている。このシンポジウムの主題である「保存」という行為もまた現代社会における民俗をめぐる動向の一つであり、その背後には民俗自体の変容や消滅といった事情だけではなく、民俗に対する社会的な認識の変化や文化行政などの問題も深く関わっている。ここでは、「保存」の問題を含めて、現代の沖縄社会における民俗の状況についていくつかの事例を報告し、「保存」をめぐる議論の材料を提供したい。

1　地域の概況

①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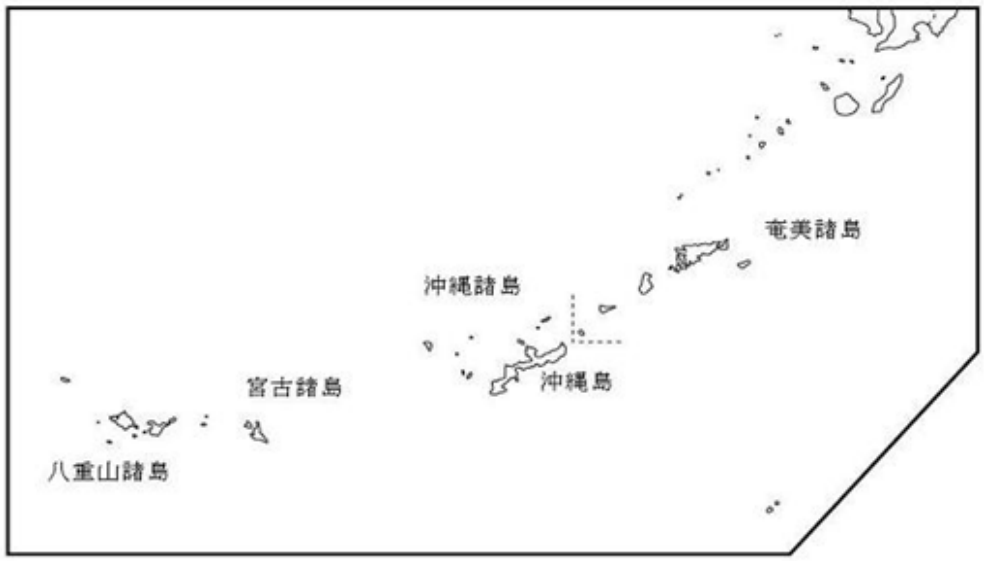
九州島から台湾島の間には、北から薩南諸島、奄美諸島、沖縄諸島、先島（宮古・八重山）諸島などの島嶼群が弧状に連なっている。沖縄県は、これらの列島の南半にあたる沖縄諸島と先島諸島に位置している。県庁所在地は、沖縄島南部の那覇市である。

②歴史

沖縄はかつて琉球国が存在した地域であり、歴史的・文化的にも日本本土とは異なる背景をもつ。14 世紀、この地域の中心地である沖縄島は三山（北山・中山・南山）分立の状態にあったが、15 世紀に入り中山王統の尚巴志により統一がなされ、その後奄美諸島・宮古・八重山諸島を含む琉球国の版図が形成された。

17 世紀初頭（1609 年）には九州島の薩摩藩・島津氏が琉球へ侵攻し、奄美諸島を直轄地とした。この侵攻によって薩摩藩および日本の幕藩体制への従属化が進められたが、王国としての体制はその後も維持された。琉球国は沖縄島の首里（現在の那覇

市）に都を置き、首里王府のもとに各種の官人や神女を組織して、政治・宗教の両面から地方や島嶼群を統治していた。また対外的には中国との進貢貿易を軸としてアジア各国との中継貿易が盛んに行われ、海外との交渉を通してさまざまな文化が移入された。



1872年、日本の明治政府は琉球国を琉球藩とし、さらに1879年には琉球藩を廃して沖縄県を設置した。このいわゆる「琉球処分」によって琉球国は消滅し、沖縄の島々は日本の近代国家のなかに直接組み込まれることとなった。以後は沖縄県として歩みを進めるが、第二次大戦終末期の1945年には「鉄の暴風」と形容される熾烈な沖縄戦が行われ、多くの県民が犠牲となった。以後、沖縄の島々はアメリカ軍の統治下に置かれたが、1972年に施政権が日本に返還され現在に至っている。

③言語

日本語は、本土方言（本土語）と琉球方言（琉球語）の二つに大別される。琉球方言とは、奄美諸島から沖縄諸島、宮古・八重山諸島で用いられてきた言語の総称である。一般に、本土方言と琉球方言は共通の祖先から分岐した言語であり、両者の間に

は規則的な対応関係がみられるとされている。琉球方言は、奄美沖縄方言群と先島（宮古・八重山）方言群の二つに大別される。ただしこれらの島々は広大な海域に点在するために島ごとの差異も大きく、奄美方言・沖縄方言・宮古方言・八重山方言など細かな下位区分がなされており、さらに島ごとや集落ごとにも微細な差異がみられるという。

近代以後の沖縄県では、これらの琉球方言の他に日本本土からの標準語（共通語）が併用された。もちろん生活には在来の方言を用いることが多かったが、学校などの教育機関では標準語が用いられた。標準語教育は沖縄の近代化を進めるために不可欠なものとされ、学校制度の発足とともに県をあげて標準語の使用が励行された。しかし、このことは一方で生活語である方言の蔑視につながるものとなり、各地の学校で方言使用の禁止や処罰が行われた（よく知られている例としては「方言札」がある）。また、特に県当局による標準語奨励運動が強力に推進された1940年には、来島した柳宗悦ら日本民芸協会同人らとの間で、標準語教育と方言の評価をめぐって「方言論争」も展開された。第二次大戦後は、かつてのような強硬な標準語励行や方言蔑視の風潮はみられなくなったものの、方言を用いる人々は相対的に減少している。

現在、方言の使用状況は世代により大きく異なる。一般に、方言を使用するのは高齢者を中心とする世代であり、場面によって標準語と方言とを使い分ける人も多い。これに対して若年層は大半が標準語の生活環境の中で育った世代である。彼らは日常的に標準語もしくは「ウチナーヤマトゥグチ」と呼ばれる折衷的な新方言（標準語のなかに方言の語彙や音韻を一部取り込んだもの）を話すことが多く、在来の方言を自在に使用できる者は少ない。このことから、将来、琉球方言のもつ多様な言語文化が継承されずに衰退することが危惧されている。近年では、学校や行政でも方言の教育・普及に取り組んでおり、方言劇や方言スピーチ大会などの催事が各地で行われている。

2007年2月、沖縄県議会は「しまくとぅばの日に関する条例」を制定した。シマクトゥバとは沖縄在来の言語、つまり方言を指す。この条例の趣旨は、方言を次世代に継承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方言の普及促進を図るというもので、9月18日を「しまくとぅばの日」に定め、当日は方言による講演会・方言劇・民俗芸能の公演など各種事業が行われる。

２　民俗の保存

①民俗文化財について

民俗の保存という場合、その中心となるのは国や地方自治体による文化財行政である。行政による文化財の指定事業は、国・都道府県・市町村などさまざまなレベルで行われるが、その根拠となるのが国の文化財保護法であり、あるいはこれに準拠して各地方自治体が定める文化財保護条例等の法令である。

近代日本における文化財行政は、1871 年の古器旧物保存法の制定にはじまる。その後 1897 年の古社寺保存法では、歴史上重要な建造物や美術品の指定事業（「国宝」・「特別保護建造物」など）が開始された。さらに 1919 年の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1929 年の国宝保存法等により、指定対象が拡大された。いずれにせよ、この時期までの文化財行政の対象は、歴史上・美術上の価値を有する物品、建造物、史蹟、天然記念物などが中心であり、庶民の日常生活のなかで形成された民俗は行政による保護政策の対象ではなかった。

第二次大戦後、1950 年に現在の文化財行政の根拠となる文化財保護法が制定された。これにより、従来の保護対象となってきた事物が「文化財」の名称のもとに統合され、制度のさらなる拡充が図られた。文化財は「有形文化財」・「無形文化財」・「史蹟名勝天然記念物」に区分され、民俗資料（民具等）は有形文化財のなかに位置づけられた。

1954 年の文化財保護法の改正では、民俗の性質が一般的な有形文化財とは異なることから、有形文化財から切り離し、「民俗資料」の名称で独立した保護制度が設けられた。民俗資料のうち、有形のもの（民具等）については「重要民俗資料」の指定制度が設けられ、無形のもの（風俗習慣等）については選択して記録作成等の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よう規定された。

さらに 1975 年の文化財保護法の改正では、民俗資料の名称が「民俗文化財」に改称された。この改正によって、有形のもの（民具等）は「重要有形民俗文化財」に、無形のもの（風俗習慣・民俗芸能等）は「重要無形民俗文化財」にそれぞれ指定できるよう改められた。また指定以外の無形民俗文化財も選択して記録作成等の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よう規定された。

このように民俗は、文化財保護法によって国の文化財行政のなかに位置づけられた。

さらに数次の改訂によってその対象が拡大し、有形だけでなく無形の民俗にも保護政策がとられることとなった。

文化財保護法による保護の具体的な内容は文化財の種別ごとに異なる。国の重要有形民俗文化財の場合、文化庁から所有者・管理団体等に対して、文化財の管理・修理・復旧・公開に関する指示・命令・勧告等が行われ、国庫による補助が出される。また、重要無形文化財の場合は、記録作成などの措置が実施され、記録作成や後継者の養成等に関して国庫補助、公開や保存のための勧告などが行われることになる。

②沖縄県の民俗文化財

沖縄県の場合、終戦後1945年から1972年まではアメリカ軍の統治下にあったため、この間の事情は本土地域とは異なっている。戦後の沖縄では、すぐに戦争によって破壊された史跡や建築物の調査と保存の事業が始められた。その後、沖縄史跡保存会、琉球文化財保護会が組織され、文化財の調査研究・修復・保護が進められた。1954年には日本の文化財保護法（1950年）をもとにして、当時の琉球政府による「文化財保護法」が公布されたが、1972年に施政権が返還されて沖縄県となったため「沖縄県文化財保護条例」に改められた。その後は文化財保護法の改定をうけて県条例も改定され、今日に至っている。

次に、現在の沖縄県における民俗文化財の指定状況をみてみよう。沖縄県教育委員会の資料（2005年現在）によれば、沖縄県下における国・県・市町村別の指定民俗文化財は、国指定が８件（有形０・無形８）、県指定が 20 件（有形 14・無形６）、市町村指定が 190 件（有形 109・無形 181）である。また選択無形民俗文化財（記録作成の措置がとられるべきものとして選択された無形の民俗文化財）は、国選定が 18 件、県選定が３件となっている。

表１．国の指定・選定民俗文化財（沖縄県）

重要無形民俗文化			
名　　称	指定年月日	所　在　地	保　持　団　体
多良間の豊年祭	1976.5.4	多良間村	多良間村民俗芸能保存会
竹富島の種子取	1977.5.17	竹富町字竹富	竹富島民俗芸能保存会
安田のシヌグ	1978.5.22	国頭村字安田	安田古文化財保存会
与那国島の祭事の芸能	1985.1.12	与那国町	与那国民俗芸能保存会　他
西表島の節祭	1991.2.21	竹富町字西表祖納、星立	西表島民俗芸能保存会
宮古島のパーントゥ	1993.12.13	宮古島市平良字島尻	宮古島市島尻自治会
		宮古島市上野字野原	宮古島市上野字野原部落会
塩屋湾のウンガミ	1997.12.15	大宜味村字田港、屋古、塩屋、白浜	田港区、屋古区、塩屋区、白浜区
伊江島の村踊	1998.12.16	伊江村	伊江村民俗芸能保存会

選定無形民俗文化財			
名　　称	指定年月日	保　持　団　体	備　　考
勢理客の獅子舞	1973.11.5	勢理客の獅子舞保存会	
竹富島の種子取	1974.12.4	竹富島種子取保存会	1977.5.17国指定
多良間島の八月踊	1975.12.8	多良間村民俗芸能保存会	1976.5.4国指定「多良間島の豊年祭」
伊江島の村踊	1976.12.25	伊江村民俗芸能保存会	1998.12.16国指定
西表島祖納・星立の節祭	1978.1.31	西表民俗芸能保存会	1991.2.21国指定「西表島の節祭」

那覇安里のフェーヌシマ	1979.12.7	那覇安里のフェーヌシマ保存会	
野原のマストリャー	1980.12.12	野原民俗芸能保存会	
宮古のパーントゥ	1982.12.21	島尻自治会、野原部落会	1998.12.18国指定「宮古島のパーントゥ」
沖縄北部のウンガミ	1992.2.25		
石垣島四ヶ村のプーリィ	1998.11.26	石垣島登野城字会、大川字会、石垣字会、新川字会	
波照間島のムシャーマ	1998.11.26	波照間民俗芸能保存会	
沖縄の綱引き	1994.12.7		
久高島の漁撈習俗	1994.12.7		
小浜島の芸能	1995.11.8	小浜民俗芸能保存会	
宮古のクイチャー	2002.2.12		
操り獅子	2004.2.6	名護市川上区、謝名アヤーチ獅子保存会、伊豆味区あやつり獅子保存会	
泡瀬の京太郎	2005.2.21	泡瀬京太郎保存会	
宜野座の八月あしび	2005.2.21	宜野座区、宜野座区二才団	

（沖縄県教育委員会資料より）

表１は国の指定・選択民俗文化財の内訳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まず有形民俗文化財については国指定のものはない。無形民俗文化財については８件のうち２件は風俗習慣として、残り６件は民俗芸能として指定されている。選定無形民俗文化財については18件のうち５件（そのうち生業関係が１件、祭祀儀礼が４件）が風俗習慣、13件が民俗芸能として選定されている。また、選定18件中５件がその後に重要無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おり、選定と指定の間に連動性がみられる。

次に県指定の民俗文化財の場合、有形民俗文化財が14件ある。その内訳は、村落の聖地や祭祀施設などの信仰関係の文化財が大半である。無形民俗文化財は６件で、す

べて民俗芸能である。また県選定の無形文化財 3 件も基本的に芸能分野である。もちろん民俗芸能や風俗習慣などの登録上の種別は便宜的なものである。特に民俗芸能の場合は、その性格上祭祀や信仰とも密接に関連しており、実際に村落祭祀の一環として上演されるものが多い。いずれにせよ、沖縄県の場合、少なくとも国・県レベルで指定・選定される民俗文化財の内容には一定の傾向性があり、祭祀・信仰や民俗芸能が主体となっている点が特徴的である。市町村の民俗文化財の場合は件数が多いため内容も多様であるが、やはり同様の傾向がみられる。

③民俗学からみた民俗文化財

国や地方自治体による文化財行政と民俗学との関係性については、これまで民俗芸能などの分野を除いて十分な議論は行われてこなかった。しかし近年、いわゆるフォークロリズムや民俗の「資源化」をめぐる議論のなかで、行政による民俗文化財の保護・保存・活用について民俗学の側から問い直す試みがなされている[日本民俗学会編 2003 年、岩本編 2007 など]。以下では文化財行政ついて、主に法令（行政）側および民俗を実践する現地側の二つの側面からみることにしたい。

文化財保護法は、民俗文化財を「衣食住、生業、信仰、年中行事等に関する風俗習慣、民俗芸能及びこれらに用いられる衣服、器具、家屋その他の物件で我が国民の生活の推移の理解のため欠くことのできないもの（第二条三項）」と規定し、これを有形と無形に分類した上で指定･選定することによって民俗を保存･活用するものである[文化庁文化財保護部 1997]。このうち有形の民具等については、確かに特定の地域や時代における人々の生活内容を直接的に示す資料であるし、それを開発等による物理的な破損や消滅から保護したり展示などに活用するというのは判り易い。これに対して無形の民俗・風俗習慣は人々の生活の中にあるさまざまな行為、あるいは生活そのものである。言うまでもなく生活は時代によって変遷するものであり、これを行政の側から指定制度でもって保存することが妥当であり、かつ可能であるのかという疑問が常についてまわることになる。

実際に、1954 年の改正の時点では指定制度は有形民俗のみに適用され、無形民俗は記録作成の措置に留められていた。同年に出された文化財保護委員会事務局長通達においても、「無形の民俗文化財については、そのものをそのままの形で保存するという

ことは、自然的に発生し、消滅していく民俗資料の性質に反し、意味のないことである。(中略) これらは記録保存の措置をもって足りる」との見解が示されている[文化庁文化財保護部 1997]。しかし、先述したように、その後 1975 年の改正により無形民俗に民俗芸能が加えられるとともに、無形民俗にも指定制度が適用されることになる。岩本通弥はこうした無形民俗文化財への指定制度の導入について、「指定された段階での形式・形態が規範化し、それは変化を阻止し継続を強要する性格を帯びざるを得ず、変化の前提とその理念は崩された」とし、制度の問題点を指摘している[岩本 1998]。

また、民俗文化財の指定事業は、結果として指定されない地域・民俗との差異化をもたらす。1975 年に出された文部省告示の「重要無形民俗文化財指定基準」では、風俗習慣のうち「基盤的な生活文化の特色を示すもので典型的なもの」や「芸能の基盤を示すもの」、民俗芸能のうち「発生または成立を示すもの」「変遷の過程を示すもの」「地域的特色を示すもの」という基準が示された。この点について岩本は、「より古く原型を示すものを重視する芸能史的価値と判断が導入された結果、本来、等価値である文化 (=民俗) に対し、指定制度はそれを格付けし、高いランクのものを選別・優遇する仕組み」であり、保護ではなく権威付けのシステムに陥っていると批判している[岩本 1998]。

このように文化財保護法に関してはいくつかの問題点が指摘されているものの、現実にはこれに拠って数多くの指定事業が進行し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次に、指定の対象となった現地側で民俗 (民俗文化財) がどのような形で実践されるのかについてみてみたい。

文化財指定を受ける経緯や指定による影響などは個別の事例によって多様であるが、一般に指定を外部からの評価として好意的に受け入れる場合が多い。なかには現地の側が指定を獲得するために積極的に運動を展開する例も少なくなく、指定事業がある種の権威付けのシステムとして作用するという指摘は頷けるものである。実際に、地方自治体の要覧や各種パンフレットなどにも大抵その地域の「伝統文化」として指定文化財が紹介されており、現地でも指定文化財であることを示す説明板や記念碑などを立てる例も多くみられる。

しかしながら、それは必ずしも現地側が国や行政の論理や価値観を一方的に受け入

れたこと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ようである。沖縄県竹富島の種子取祭（1974年に国の選定、1977年に国の指定を受ける）を調査した森田真也の報告によれば、竹富島の人々は種子取祭の文化財指定のために積極的に運動したにもかかわらず、人々にとってこの祭礼は文化財としてではなく、あくまで自らが楽しみ、演じ、鑑賞し、祈るための場としてあるという。そこには「外部の権威を利用しながらもそれに完全に巻き込まれずに自らの価値基準を自分たちの側に保持しつづける」という現地側の「やり方」があり、文化財指定は「その場のコンテクストにより対外的に掲げられる名誉な看板の一つ」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森田 2007]。

行政による文化財の指定や公開は、もともと地域や村落の中にあった民俗に対して、国や県などの外部社会との関係性という新たな文脈をもたらす。これに対する現地側の対応はさまざまである。先にみた竹富島の事例はその一つであるが、一方で逆に文化財の指定や公開の機会を積極的に活用して地域振興や観光事業などに結びつけようとする場合もある。さらに、1992年には民俗芸能や民俗行事などを資源として観光や地域振興に活用するための法律として、「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通称おまつり法）が制定された。これは民俗の保存よりも活用の方向に大きく踏み出した内容になっており、全国各地で公演イベントが開催されている。橋本裕之は、そうした事例も含めて「観光資源という社会的な文脈すらも自己を再構成する資源として操作する主体の状況的な想像力と創造力」を正当に評価すべき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橋本 2000年]。

3　民俗の復活と拡大

ここまでは、主に行政における民俗文化財の保護についてみてきた。最後に、文化財行政とは異なる場における民俗の動向について事例を紹介することにしたい。

①民俗の復活

一般に民俗は、現代の急激な社会変化や生活環境の変化のなかで変容し、衰退・消滅するという考え方がある。実際に沖縄においても、たとえば年中行事などを簡略化したり廃止する例は数多くある。一方、逆に長い間途絶していた行事や芸能を住民の手で復活する事例も少なくない。

たとえば、沖縄島中部にある宜野湾市宜野湾区では、今年 2007 年 7 月 29 日に 66 年ぶりに綱引き行事を復活させた。宜野湾区では、かつて旧暦 6 月 15 日に一年の豊作を感謝し翌年の豊作を祈願するウマチーと呼ばれる村落祭祀が行われ、その一環として当日の夜に村人による綱引きが催されていた。当時の綱引きは村落を前村渠と後村渠に二分し、前村渠が準備した雄綱と後村渠が準備した雌綱をカヌチボー（貫木棒）で結合させて引き合うものであった。宜野湾の綱引きは市内でもよく知られる盛大な行事であったが、第二次大戦が激しさを増した 1941 年を境に途絶えていた。

戦後、旧宜野湾村落の一部がアメリカ軍飛行場として接収されたため、新村落（現宜野湾区）は旧村落の東側に形成されたが、綱引きは途絶えたままであった。その後 2006 年、市主催の創作市民劇に宜野湾区が参加し、劇中で綱引きの場面を再現する機会があった。これを契機にして区民の間で綱引き行事を復活させる機運が高まり、その年のうちに自治会長を中心とする「宜野湾区大綱引き実行委員会」が結成された。そして翌年の実施に向けて執行部会・総務部会・綱製作部会・演舞部会・旗頭部会などの各部会が組織され、戦前の経験者からの聞き取り調査・材料の調達・演目の練習などの準備が進められた。

2007 年 7 月に入ると区民が総出で綱を作り、28 日にリハーサル、翌 29 日には近くの大学の運動場を会場として本番の綱引きが行われた。当日は、夕方から①道ズネー（旗・綱の行列）②開会式③ガーエー（旗・棒・演舞などの示威的な競い合い）④綱引き⑤シュニンモアシビ（区民らによる余興会）の順で行われ、近在の多くの観客が見守るなか盛況のうちに終了となった。

今回の復活までには 66 年の空白があるため、かつての綱引き経験者と大半を占める初参加者とでは綱引きに対する認識は一様ではないと思われるが、区では今回の綱引きの復活を「伝統文化の継承」（実行委員会の趣意書より）として位置づけている。事情によって日程や会場などに一部改変がみられたが、綱の形状や行事内容についてはできるだけ正確に復元することを心がけたという。また、今回の綱引きの復活には自治会と郷友会（旧村落出身者の組織）が共催であたっており、区民が一体となってこの事業を達成したことを評価する声が多く聞かれた。戦後の宜野湾区は軍用地接収や新住民の増加など大きな社会変化のなかにあり、区の求心力として綱引きの「伝統」

が求められたことがうかがえる。

②民俗とイベント

現在沖縄では、各市町村などの自治体や観光協会などが主導するイベントが盛んに行われている。その多くは市町村名を取って「○○祭り」等と呼ばれている。もちろんこの場合の祭りは祭祀儀礼のことではなく、新たに創られた観光や地域振興のためのイベントである。これらの観光・地域振興のイベントでは、そのプログラムのなかに民俗（実際には民俗行事や民俗芸能、郷土食など、民俗の一部である）を組み込む例が多くみられる。

たとえば宜野湾市では、「宜野湾はごろも祭り」が毎年夏に開かれている。これは市の観光振興協会内に作られた「宜野湾はごろも祭り実行委員会」が主催する観光イベントである。イベント名のはごろもは、宜野湾市内の森の川と呼ばれる泉にまつわる羽衣伝説に由来する。これは、「昔、この泉に降りた天女が村の男と夫婦になり、子供をもうけた後に羽衣で天に帰った。天女と男の間にできた男子が後に中山王察度となった」という伝説で、イベントの目玉の一つである察度王歴史絵巻行列はこの伝説に因んで創られたものである。

2007 年のはごろも祭りは第 30 回にあたり、8 月 18 日・19 日の 2 日間にわたって開催された。プログラムは、18 日が①市公園の広場での開会式、保育園・老人クラブ連合会・婦人連合会による踊り、②路上でのマーチングバンド、察度王歴史絵巻行列、旗頭、カチャーシー（踊りの一種）、ストリートダンス、フラダンス、子供エイサー、獅子舞、青年会エイサーなどの上演、③特設ステージでの音楽ライブ、④花火打ち上げ、19 日が①別会場の闘牛場での闘牛大会、②特設ステージでの県内大学生による音楽ライブ、アームレスリング大会、カチャーシー大会、③花火打ち上げとなっている。

この多彩なプログラムの中で、いわゆる民俗に関連する演目としては、旗頭・獅子舞・青年会エイサーなどがある。これらは市内に伝承される民俗芸能であるが、特に青年会エイサーは多くの区で行われており、このイベントにも各区の青年会が参加した。

エイサーは旧暦 7 月の盆行事に関連した芸能として沖縄各地で広く伝承されている。エイサー団体は地域の青年会などを基盤にした若者の集団で、基本的に唄・伴奏を担

当する地謡衆と手踊り・太鼓踊りなどを担当する踊手衆とからなる。近年では民俗芸能大会や観光イベントも頻繁に開催されるため、エイサー団体がこれらのイベントに出演する機会も増えている。もちろん観光イベント等での上演は盆行事とは無関係であり、はごろも祭りのエイサーの場合も他の創作ダンスやストリートダンスなどと並ぶ演目の一つとして行われている。このようなケースは本来の芸能からすれば真正さを欠くものとみなされがちであるが、出演する青年たちにとってはこれも青年会活動の一環であり、必ずしも否定的に捉えている訳ではない。当事者側からみれば、上演の場や機会が地元の村落だけでなくその外側に拡大したことになる。このような活動の多様化はエイサーのあり方にも変化をもたらすが、一方で普及や継承において一定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ともいえよう。

おわりに

以上、現在の沖縄における民俗の保存をめぐるいくつかの事例をみてきた。言語や民俗はその土地に生きる人々の生活の中にある。その保存については、行政など外部からの取り組みだけでなく、それに対処しながら生活する現地の人々の実践も含めて考える必要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

文献

岩本通弥　「民俗学と『民俗文化財』とのあいだ－文化財保護法における『民俗』をめぐる問題点－」『国学院雑誌』第 99 巻 11 号、1998 年
岩本通弥編　『ふるさと資源化と民俗学』、吉川弘文館、2007 年
日本民俗学会『日本民俗学』第 236 号（特集フォークロリズム）、2003 年
橋本裕之　「民俗芸能の再創造と再想像－民俗芸能に係る行政の多様化を通して－」『講座日本の民俗学』第 10 巻、雄山閣出版、2000 年
文化庁文化財保護部編　『文化財保護関係法令集』、ぎょうせい、1997 年
森田真也　文化を指定するもの、実践するもの－生活の場における『無形文化財』－」岩本編『ふるさと資源化と民俗学』所収、吉川弘文館、2007 年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오끼나와 지역어와 민속 보존 방안

하기와라 사히토 (일본/萩原左人, 류큐대 준교수)

오키나와 지역어와 민속 보존 방안

하기와라 사히토(류큐대학교 교수)

1. 서론

이 글에서는 일본 오키나와 현(沖縄縣)의 민속 보존에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비단 이 글의 사례 대상 지역인 오키나와의 사회뿐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민속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민속 문화란 촌락사회 내부에서 생겨나 자라나고 또 전해진다고 하는 과거의 상황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 심포지엄의 주제인 '보존'이라는 행위 또한 현대사회의 민속을 둘러싼 여러 가지 동향들 중의 하나에 해당하며, 그 배경에는 민속 자체의 변용이나 소멸이라고 하는 사정뿐 아니라, 민속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문화행정 등의 문제들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보존' 문제를 포함하여 현대 오키나와 사회의 민속을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보고함으로써 '보존'에 관한 논의의 재료로 삼아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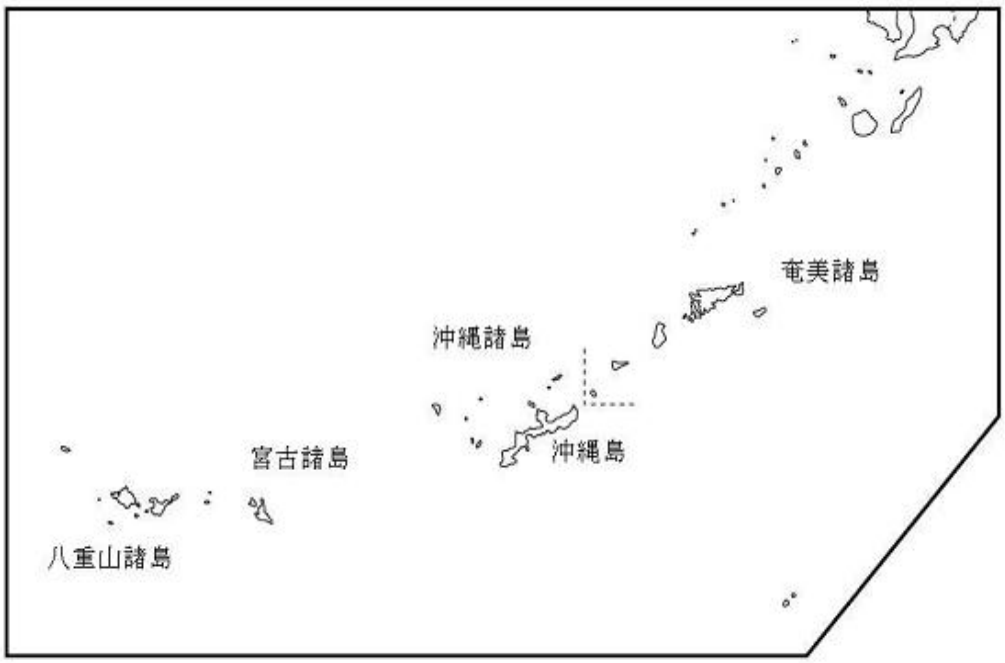
2. 본론

가. 지역 개관

1) 위치

규슈(九州) 섬과 대만 섬 사이에는 북쪽에서부터 사쓰난-제도(薩南諸島), 아마미-제도(奄美諸島), 오키나와-제도, 사키시마(미야코(宮古)・야에야마(八重山))-제도(先島諸島) 등과 같은 여러 섬들이 반달 모양으로 이어져있다. 오키나와 현은 이러한 열도의 남반부에 해당하는 오키나와-제도와 사키시마-제도에 위치하고 있다. 현청소재지는 오키나와 섬 남부의 나하 시(那覇市)이다.

2) 역사



오키나와는 과거 류큐 국(琉球國)이 존재하였던 지역으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본 본토와는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14세기에는 이 지역의 중심부인 오키나와 섬이 '삼산' (三山-북산(北山) · 중산(中山) · 남산(南山))으로 분립된 상태에 있었으나,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중산 통일왕조인 쇼하시(尙巴志)에 의해 삼산이 통일되었고, 이후에는 아마미-제도, 미야코 · 야에야마-제도를 포함하는 류큐 국의 판도가 형성되었다.

17세기 초(1609년)에는 규슈 섬 사쓰마 번(薩摩藩)의 시마즈 씨(島津氏)가 류큐를 침공하여 아마미-제도를 직할령으로 삼았다. 이 침공에 의해 사쓰마 번 및 일본의 막번(幕藩) 체제로의 예속화가 진행되어 갔으나, 왕국으로서의 체제는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류큐 국은 오키나와 섬의 슈리(首里, 현재의 나하 시)에 수도를 두고, 슈리 왕부(王府) 아래 여러 관인 및 신녀(神女)들을 조직하여 정치, 종교 양쪽에서 지방이나 섬들을 통치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진공(進貢) 무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중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해외와의 교섭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이입되었다.

일본의 메이지(明治) 정부는 1872년에 류큐 국을 류큐 번으로 바꾸었으며, 이후 1879년에는 류큐 번을 폐지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류큐 처분' (琉球處分)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류큐 국은 소멸하였고, 오키나와의 섬들은 일본 근대국가 속으로 바로 편입하게 된 것이었다.

이후 오키나와 현으로서의 걸음을 걷게 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시기인 1945년에 '철의 폭풍'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치열한 오키나와 전쟁이 발발하여 수많은 현 주민들이 희생당하였다. 종전 후 오키나와의 섬들은 미국군의 통치 하에 놓이게 되었지만, 1972년에 시정권이 일본으로 반환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언어

일본어는 본토 방언(본토어)과 류큐 방언(류큐어)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 류큐 방언이란 아마미-제도, 오키나와-제도, 미야코·야에야마-제도에서 사용되어온 언어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본토 방언과 류큐 방언은 공통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언어이며, 둘 사이에는 규칙적인 대응관계가 발견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류큐 방언은 아마미·오키나와 방언군과 사키시마(미야코·야에야마) 방언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단, 이러한 섬들은 광대한 해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섬들 각각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며, 아마미 방언·오키나와 방언·미야코 방언·야에야마 방언 등 보다 세부적인 하위구분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은 다시 섬, 집락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이후의 오키나와 현에서는 위와 같은 류큐 방언 외에도 일본 본토의 표준어(공통어)가 함께 사용되었다. 물론 생활에 있어서는 토착적인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표준어가 사용되었다. 표준어 교육은 오키나와의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학교제도의 시작과 함께 현 전체에서 표준어 사용이 장려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에서는 생활언어인 방언을 멸시하는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각지의 학교에서는 방언 사용의 금지나 처벌이 행해졌다(유명한 예로서는 '방언찰(方言札)'이 있음). 또한 현 당국에 의한 표준어 장려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었던 1940년에는 오키나와를 방문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등의 일본민예협회 회원들 사이에서 표준어 교육과 방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방언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이전과 같은 강경한 표준어 장려나 방언 멸시와 같은 풍조는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역시 방언을 사용하는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오늘날 방언의 사용현황은 세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세대이며, 장면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에 비해 젊은 층의 대부분은 표준어로 이루어지는 생활환경 속에서 자라난 세대이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표준어 또는 '우치나야마투구치'(ウチナーヤマトゥグチ)라고 불리는 절충적인 새로운 방언(표준어 안에 방언 어휘나 음운을 일부분 포함시킨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토착적인 사투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류큐 방언이 지니는 다양한 언어문화가 계승되지 못하고 장래에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나 행정에서도 방언

교육 및 보급에 힘을 쏟고 있으며 방언 극이나 방언 스피치 대회 등과 같은 이벤트가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2007년 2월 오키나와 현 의회는 '시마쿠투바(しまくとぅば) 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시마쿠투바'(シマクトゥバ)란 오키나와의 토착적인 언어, 즉 방언을 뜻한다. 이 조례의 취지는 방언을 다음 세대에 계승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언의 보급촉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9월 18일을 '시마쿠투바의 날'로 정하고, 이 날에는 방언을 사용한 강연회, 방언 극, 민속예능 공연 등과 같은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

2. 민속의 보존

1) 민속문화재에 대하여

민속의 보존이라고 할 때,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 행정이다. 행정에 의한 문화재지정 사업은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 등 다양한 레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나라의 문화재 보호법이며, 혹은 이에 준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문화재 보호조례 등의 법령이다.

근대 일본의 문화재 행정은 1871년 '고기구물 보존법'(古器旧物保存法) 제정으로 시작된다. 이후 1897년의 '고사사 보존법'(古社寺保存法)에서는 역사상 중요한 건조물이나 미술품에 대한 지정사업('국보,' '특별보호 건조물' 등)이 이루어졌다. 그 후 1919년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법,'(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 1929년의 '국보 보존법' 등에 의해 지정대상이 확대되었다. 어쨌든 간에 이 시기까지의 문화재 행정의 대상이 역사적, 미술적 가치를 지니는 물품, 사적, 천연기념물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되어진 민속은 행정에 의한 보호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에는 현재 문화재 행정의 근거가 되는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종래의 보호 대상이었던 것들이 '문화재'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으며, 제도는 보다 확대되었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구분되었으며, 민속자료(민구 등)는 유형문화재 속으로 편입되었다.

1954년의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서는 민속의 성격이 일반적인 유형문화재와는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 유형문화재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민속자료'라는 명칭으로 독립된 보호제도가 생겨났다. 민속자료 중 유형의 것(민구 등)에 대해서는 '중요민속자료'라는 지정제도를 만들었으며, 무형의 것(풍속습관

등)에 대해서는 선택하여 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1975년의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서는 민속자료의 명칭이 '민속문화재'로 바뀌었다. 이 개정에 의해 유형의 것(민구 등)은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 무형의 것(풍속습관, 민속예능 등)은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 지정되지 않은 무형민속문화재도 선택하여 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민속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국가의 문화재 행정 안에 자리를 잡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개정에 의해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유형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민속에 대해서도 보호 정책이 취해지게 된 것이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가 중요유형민속문화재의 경우, 문화청으로부터 소유자·관리단체 등에 대해 문화재의 관리·수리·복구·공개에 관한 지시·명령·권고 등이 행해지며, 국고 보조가 이루어진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기록작성 등의 조치가 시행되어 기록작성이나 후계자 양성 등에 관한 국고 보조, 공개와 보존을 위한 권고 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2) 오키나와 현의 민속문화재

오키나와 현의 경우, 종전 후인 1945년부터 1972년까지는 미국군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사정은 일본의 본토 지역과는 상이하다. 전후의 오키나와에서는 전쟁에 의해 파괴된 사적이나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보존 사업이 즉각 이루어졌다. 이후 오키나와 사적보존회, 류큐 문화재 보호회가 조직되었고 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수복·보호가 진행되었다. 1954년에는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1950년)에 기초하여 당시 류큐 정부에 의한 '문화재 보호법'이 공포되었으나, 1972년에 시정권이 본토에 반환되고 오키나와 현이 되면서 '오키나와 현 문화재 보호조례'로 개정되었다. 그 후에는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도 개정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오키나와 현의 민속문화재 지정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오키나와 현 교육위원회의 자료(2005년)에 의하면, 오키나와 현에 속하는 국가·현·시정촌 별 지정 민속문화재는 국가 지정이 8건(유형 0/무형 8), 현 지정이 20건(유형 14/무형 6), 시정촌 지정이 190건(유형 109/무형 181)에 이른다. 또한 선택무형민속문화재(기록작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으로 선택되어진 무형의 민속문화재)는 국가 선정이 18건, 현 선정이 3건 있다.

(표1) 국가 지정 · 선정 민속문화재 (오키나와 현)

중요무형민속문화재

명 칭	지정 연월일	소재지	보존단체
다라마지마의 풍년제	1976. 5. 4	多良間村	다라마 촌 민속예능보존회
다케토미지마의 다네도리	1977. 5. 17	竹富町字竹富	다케토미지마 민속예능보존회
아다의 시누구	1978. 5. 22	國頭村字安田	아다 고문화재보존회
요나구니지마의 제사 예능	1985. 1. 12	与那國町	요나구니지마 민속예능보존회 외
이리오모테지마의 시치	1991. 2. 21	竹富町字西表祖納, 星立	이리오모테지마 민속예능보존회
미야코지마의 판투	1993. 12. 13	宮古島市平良字島尻, 宮古島市上野字野原	미야코지마시 島尻 자치회 미야코지마시 上野字 野原 부락회
시오야 만의 운가미	1997. 12. 15	大宜味村字田港, 屋古, 塩屋, 白浜	田港 구, 屋古 구, 塩屋 구, 白浜 구
이에지마의 마을 춤	1998. 12. 16	伊江村	伊江 촌 민속예능보존회
선정무형민속문화재			
명 칭	**지정 연월일**	**보존단체**	**비 고**
짓차쿠의 사자춤	1973. 11. 5	짓차쿠 사자춤 보존회	
다케토미지마의 다네도리	1974. 12. 4	다케토미지마 다네도리 보존회	1977. 5. 17 국가 지정
다라마지마의 팔월 춤	1975. 12. 8	다라마 촌 민속예능보존회	1976. 5. 4 국가 지정 '다라마지마의 풍년제'
이에지마의 마을 춤	1976. 12. 25	伊江촌민속예능보존회	1998. 12. 16 국가 지정
이리오모테지마의 祖納·星立의 시치	1978. 1. 31	이리오모테 민속예능보존회	1991. 2. 21 국가 지정 '이리오모테지마의 시치'
나하 아사토의 훼누시마	1979. 12. 7	나하 아사토의 훼누시마 보존회	
노바루의 마스토랴	1980. 12. 12	노바라민속예능보존회	
미야코의 판투	1982. 12. 21	島尻 자치회, 野原 부락회	1993. 12. 13 국가 지정 '미야코지마의 판투'
오키나와 북부의 운가미	1992. 2. 25		
이시가키지마 네 개 마을의 푸리	1993. 11. 26	石垣島 登野城 학회, 大川 학회, 石垣 학회, 新川 학회	
하테루마지마의 무샤마	1993. 11. 26	하테루마지마 민속예	

		능보존회	
오키나와의 줄다리기	1994. 12. 7		
구타카지마의 어로 습속	1994. 12. 7		
고하마지마의 예능	1995. 11. 8	고하마민속예능보존회	
미야코의 구이차	2002. 2. 12		
아야쓰리 사자	2004. 2. 6	나고 시 가와카미 구, 자나 아야치 사자 보존회. 이즈미 구 아야쓰리 사자 보존회	
아와세의 존다라	2005. 2. 21	아와세 존다라 보존회	
기노자의 팔월 아시비	2005. 2. 21	기노자 구, 기노자 구 2세단	

(표1)은 국가 지정·선택민속문화재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유형민속문화재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는 없다. 무형민속문화재의 경우, 8건 중 2건은 풍속습관이며, 나머지 6건은 민속예능으로 지정받고 있다. 선정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해서 살펴보면 18건 중 5건(이 중 생업관계가 1건, 제사의례가 4건)이 풍속습관, 13건이 민속예능으로 선정되어 있다. 또한 선정된 18건 중 5건이 이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선정과 지정 사이의 연동성을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현 지정 민속문화재의 경우, 유형민속문화재가 14건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촌락의 성지나 제사시설 등 신앙과 관련한 문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무형민속문화재는 6건으로 모두 민속예능이다. 또한 현이 선정한 무형문화재 3건도 기본적으로는 예능 분야이다. 물론 민속예능이나 풍속습관 등과 같은 등록상의 종별은 편의적인 것이다. 특히 민속예능의 경우, 그 성격상 제사나 신앙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촌락제사의 일환으로 상연되는 것이 많이 있다. 어쨌든지 간에 오키나와의 경우, 적어도 국가·현 레벨에서 지정·선정된 민속문화재의 내용에는 일정한 경향이 발견되는데, 즉 제사·신앙이나 민속예능이 그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시정촌의 민속문화재와 같은 경우,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양하다. 그러나 역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3) 민속학에서 본 민속문화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 행정과 민속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속예능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이른바 포크롤리즘이나 민속의 '자원화'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행정에 의한 민속문화재의 보호·보존·활용에 대해

민속학에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일본민속학회 편, 2003년; 이와모토 편, 2007 등) 이하에서는 문화재 행정에 대해 주로 법령(행정) 및 민속을 실천하는 현지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재 보호법은 민속문화재를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 민속예능 및 이들에 사용되어지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 물건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 추이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제2조 3항)"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유형과 무형으로 분류한 다음에, 지정·선정함으로써 민속을 보존·활용하는 것이다. (문화청 문화재보호부, 2007) 이 중 유형의 민구 등에 대해서는 역시 특정한 지역이나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을 개발 등으로 인한 물리적인 파손이나 소멸로부터 보호하거나, 또는 전시 등에 활용한다는 점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무형의 민속·풍속습관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들, 혹은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생활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이것을 행정 레벨에서 지정제도를 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언제나 따라다니는 것이다.

실제로 1954년 개정 당시, 지정제도는 유형민속에만 적용되었고 무형민속은 기록작성의 조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같은 해에 나온 문화재 보호위원회 사무국장 통달에서도 "무형의 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대로의 형태로 보존한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소멸해가는 민속자료의 성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다. (중략) 이들은 기록보존 조치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견해가 피력되어 있었다. (문화청 문화재보호부 편, 1997)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후의 1975년 개정에 의해 무형민속에 민속예능이 추가됨과 동시에 무형민속에도 지정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와모토 미치야(岩本通弥)는 이러한 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한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지정된 단계에서의 형식·형태가 규범화되고, 그것은 변화를 저지하고 지속을 강요하는 성격을 띠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변화라는 전제와 그 이념은 무너져 버린 것이다."라고 논하면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모토, 1998)

또한 민속문화재 지정사업은 결과적으로 지정받지 못한 지역·민속과의 사이에 격차를 야기한다. 1975년에 나온 문부성 고시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지정기준' 에서는 풍속습관 중 "기반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형적인 것" 이나 "예능의 기반을 나타내는 것," 민속예능 중 "발생 또는 성립을 나타내는 것," "변천 과정을 나타내는 것,"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이 점에 대해 이와모토는 "보다 오래되고 원형을 나타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예능사적인 가치와 판단이 도입된 결과, 본디 동일한 가치인 문화(=민속)에 대해 지정제도는 우열을 매겼으며,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선별·우대하는 구조" 라고 하면서, 보호가 아니라 권위부여 시스

템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와모토, 1998)

이상과 같이 문화재 보호법에 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근거하여 수많은 지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지정 대상이 된 현지의 측면에서 민속(민속문화재)이 어떠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문화재 지정을 받게 된 경위나 지정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로부터의 평가라고 이해하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개중에는 현지에서 지정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예도 적지 않으며, 지정사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권위부여 시스템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은 납득이 간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요람이나 각종 팸플릿 등에도 보통 해당 지역의 '전통문화' 로서 지정문화재가 소개되고 있으며, 현지에서도 지정문화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설명 팻말이나 기념비 등을 세우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현지가 국가나 행정의 논리와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키나와 현 다케토미지마(竹富島)의 다네도리-마쓰리(種取祭, 1974년에 국가 선정, 1977년에 국가 지정)를 조사한 모리타 신야(森田眞也)의 보고에 의하면, 다케토미지마 사람들은 다네도리-마쓰리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 이 제례는 문화재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들 스스로가 즐기고 연기하며 감상하고 기원하기 위한 대상이라고 한다. 거기에서는 "외부의 권위를 이용하면서도 그에 완전히 말려들어가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기준을 그들 편에서 계속 유지" 하는 현지의 "방책" 인 것이며, 문화재 지정은 "그곳의 문맥에 따라 대외적으로 내세워진 명예로운 간판의 하나" 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리타, 2007)

행정에 의한 문화재 지정이나 공개는 지역사회나 촌락 내부에 원래부터 있어왔던 민속에 대해 국가나 현 등과 같은 외부사회와의 관계성이라는 새로운 문맥을 가져온다. 이에 대한 현지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앞에서 본 다케토미지마의 사례는 그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 또 그와는 반대로 문화재 지정이나 공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이나 관광사업 등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1992년에는 민속예능이나 민속행사 등을 자원으로 하여 관광 및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법률로서 '지역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속칭 '축제법'(おまつり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민속의 보존보다도 활용 쪽으로 크게 방향을 전환시킨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공연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하시모토 히로유키(橋本裕之)는 그러한 사례들도 포함하여 "관광자원이라는 사회적인 문맥조차도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주체의 상황적인 상상력과 창조력" 은 올바르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고 주장하였다. (하시모토, 2000)

3. 민속의 부활과 확대

여기까지는 주로 행정의 측면에서 민속문화재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행정과는 다른 영역에서 민속의 동향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민속의 부활

일반적으로 민속이라는 것은 현대의 급격한 사회변화나 생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변용되고, 쇠퇴·소멸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실제 오키나와에서도 예를 들어 세시풍속 등을 간소화시키거나 폐지시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오랫동안 그 맥이 끊겨있던 행사나 예능을 주민들의 손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면, 오키나와 섬 중부에 위치하는 기노완 시(宜野湾市) 기노완 구(宜野湾區)에서는 올 2007년 7월 29일에 66년 만에 처음으로 줄다리기 행사를 부활시켰다. 기노완 구에서는 옛날에 음력 6월 15일 날이 되면 일 년 동안의 풍작에 대해 감사하고 다음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우마치'(ウマチー)라고 불리는 촌락제사가 행해졌으며, 그 일환으로 당일 날 밤에 마을 사람들에 의한 줄다리기가 열렸었다. 당시의 줄다리기는 촌락을 '멘다카리'(前村渠)와 '신다카리'(後村渠)의 둘로 나누어서, 멘다카리가 준비한 '숫 밧줄'(雄綱)과 신다카리가 준비한 '암 밧줄'(雌綱)을 '가누치보'(ガヌチボー, 빗장 봉)로 연결시켜서 끌어당기는 놀이였다. 기노완의 줄다리기는 시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성대한 행사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더욱 격렬해지는 1941년을 마지막으로 중지되어 버렸다.

전쟁이 끝난 다음, 구 기노완 촌락의 일부가 미군 비행장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촌락(현 기노완 구)은 구 촌락의 동쪽으로 옮겨졌으며 줄다리기는 계속해서 중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2006년 시가 주최한 창작시민극에 기노완 구가 참가하였고 극 중에서 줄다리기의 장면이 재현되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일을 계기로 구민들 사이에서 줄다리기 행사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기운이 고조되었으며, 그 해 중으로 자치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노완 구 대 줄다리기 실행위원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이듬해의 실시를 목표로 집행부회, 총무부회, 밧줄 제작부회, 연무(演舞)부회, 기두(旗頭)부회 등의 각 부회가 조직되었으며 전쟁 전의 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재료의 조달, 상연종목의 연습 등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2007년 7월이 되자 구민들이 총동원되어 밧줄을 만들었으며 28일에는 예행연습, 그리고 이튿날인 29일에는 드디어 근처 대학교의 운동장을 회장으로 빌려서 본 줄다리기가 개최되었다. 당일에는 저녁때부터 ① '미치즈네'(道ズネー, 깃발과 밧줄의 행렬), ②개회식, ③ '가에'(ガーエー, 깃발, 봉, 연무 등의 힘겨루기 싸움), ④줄다리기, ⑤ '슈닌모아시비'(シュニンモアシビ, 구민들에 의한 뒤풀이 행사)의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근방에서 모여든 많은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부활까지는 66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줄다리기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경험자들 사이에 줄다리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 당국에서는 이번 줄다리기의 부활을 "전통문화의 계승"(실행위원회 취의서)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정이나 개최장소 등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밧줄의 형상이나 행사 내용에 있어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또한 이번 줄다리기의 부활에는 자치회와 향우회(구 촌락 출신자의 모임)가 공동개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구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 사업을 달성해낸 것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종전 후의 기노완 구는 군용지 접수나 신주민의 증가 등 커다란 사회변화 속에 있지만, 구의 구심력으로서 줄다리기의 "전통"이 필요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민속과 이벤트

현재 오키나와에서는 각 시정촌과 같은 자치단체나 관광협회 등이 주도하는 이벤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부분의 경우, 시정촌의 이름을 따서 '○○ 마쓰리' 등으로 불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의 '마쓰리'(祭り)는 제사의례로서가 아닌, 새롭게 만들어진 관광이나 지역발전 등을 위한 이벤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 관광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이벤트들은 프로그램 안에 민속(실제로는 민속행사나 민속예능, 향토음식 등, 민속의 일부분임)을 포함시키는 예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기노완 시에서는 '기노완 우의 마쓰리'(宜野湾はごろも祭り)가 매년 여름에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는 시의 관광진흥협회 내에 설치된 '기노완 우의 마쓰리 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관광 이벤트이다. 이벤트 이름에 등장하는 '우의'는 기노완 시내에 있는 숲속의 강이라고 불리는 샘터에 관련한 우의전설에 유래한다. 이것은 '옛날에 이 샘터에 내려온 선녀가 마을의 남자와 결혼하여 부부를 이루고 둘 사이에 아이를 두고는 우의를 입고 천상으로 돌아갔다. 선녀와 남자 사이에 생긴 남자아이가 후에 중산의 왕 삿토(察度)가 되었다.'라는 전설이다. 이벤트의 주요 볼거리 중의 하나인 '삿토왕 역사그림행렬'(察度王歴史絵巻行列)은 이 전설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2007년도의 우의 마쓰리는 제30회 개최에 해당하며, 8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18일에는 ①시 공원 광장에서 열린 개회식, 보육원 · 노인클럽연합회 · 부인연합회에 의한 춤, ②거리에서 열린 마칭밴드(marching band), 삿토왕 역사그림행렬, 기두(旗頭), '가챠시'(カチャーシー, 춤의 일종), 스트리트 댄스, 훌라댄스, 아이들 에이사(エイサー), 사자춤, 청년회 에이사 등의 공연, ③특설 무대에서 열린 음악 라이브 공연, ④불꽃놀이가 개최되었다. 19일에는 ①별도 장소에 마련된 투우장에서 열린 투우 대회, ②특설 무대에서 열린 현의 대학생들에 의한 음악 라이브 공연, 팔씨름 대회, 가챠시 대회, ③불꽃놀이로 이어졌다.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른바 민속과 관련되는 종목이 기두, 사자춤, 청년회 에이사 등이다. 이들은 시내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예능인데, 특히 청년회 에이사는 많은 구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 이벤트에도 각 구의 청년회가 참가하였다.

에이사는 음력 7월의 봉(盆) 행사와 관련되는 민속예능으로서 오키나와 각지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다. 에이사 단체는 각 지역의 청년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젊은이들의 집단으로, 기본적으로는 노래와 반주를 담당하는 '지우타이-중'(地謡衆)과 손짓을 하며 추는 춤과 북춤 등을 담당하는 '오도리테-중'(踊手衆)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민속예능대회나 관광 이벤트 등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사 단체들이 이러한 이벤트에도 출연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관광 이벤트 등에서의 공연은 봉 행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우의 마쓰리에 출연하는 에이사의 경우에도 다른 창작 댄스나 스트리트 댄스 등과 함께 열거되는 종목의 하나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사례는 본래의 민속예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진정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직접 출연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 또한 청년회 활동의 일환인 것이며 반드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연의 장소나 기회가 근거지인 촌락에서 그 밖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다양화는 에이사의 본래 모습에도 변화를 가져오지만, 한편에서는 그 보급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지금까지 현재 오키나와에서 나타나는 민속의 보존을 둘러싼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언어나 민속은 그 땅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보존에 대해서는 행정 등 외부로부터의 관여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면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현지 사람들의 실천을 포함시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일본어 문헌)
이와모토 미치야(岩本通弥), 「民俗學と『民俗文化財』のあいだ―文化財保護法における『民俗』をめぐる問題点―」, 『國學院雜誌』 제99권 11호, 1998년.
이와모토 미치야 편, 『ふるさと資源學と民俗學』, 吉川弘文館, 2007년.
일본민속학회 편, 『日本民俗學』 제236호 (特集フォークロリズム), 2003년.
하시모토 히로유키(橋本裕之), 「民俗芸能の再創造と再想像―民俗芸能に係る行政の多様化を通して―」, 『講座日本の民俗學』 제10권, 雄山閣出版, 2000년.
문화청 문화재보호부 편, 『文化財保護關係法令集』, ぎょうせい, 1997년.
모리타 신야(森田眞也), 「文化を指定するもの´實踐するもの―生活の場における『無形文化財』―」 (이와모토 미치야 편, 『ふるさと資源學と民俗學』, 吉川弘文館, 2007년).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The situation and policy on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Ly Toan Thang (Institute of Linguistics, Hanoi –Vietnam)

The situation and policy on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LY Toan Thang
(Institute of Linguistics, Hanoi –Vietnam)

0. Introduction

Vietnam is a multiethnic, multicultural and multilingual country comprising54 ethnic groups (ethnicities): 01 majority the Viet (the Kinh) and 53 minorities.

The most important ethno-linguistic feature of Vietnam is that during about four thousands years, throughout the very long historical period of foundation,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e ethnic groups in Vietnam were living side by side in peaceful harmony and unity, without any ethno-linguistic war between the Viet and minorities, or between the minorities themselves.

In this ethno-linguistic aspect the history of Vietnam is the history of interaction of languages following the tendency of convergence and intergration for forming an ethno-linguistic union in Vietnam. That tendency is strengthened in new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nditions of Vietnam in XX century.

In Vietnam there are 54 ethnic groups, but about 100 minority languages/dialects. A couple of ethno-linguistic communities, such as the Hoa (Chinese) and the Khmer, have a linguistic relationship with China and Cambodge, in which countries Chinese and Khmer are the national languages. The Tay, Nung and Thai have genetic relations with the Choang (Zhung), Thai, Shan in South China, Laos, Thailand and Burma. The Hmong are about 550 thousands in Vietnam, a few millions in China, a few thousands in Thailand and Laos, and even a few hundreds of thousands Hmong people in USA, Australia and France.

Since independence in 1945 the language policy in Vietnam has reflected a strategy of preservation,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including both Vietnamese and minority languages.

This paper briefly focuses on the language situation and language polic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975-2005).

1. The ethno-linguistic situation in Vietnam

Every multiethnic country has its "own" ethno-linguistic situation, the special features of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making the state language policy. In Vietnam they can be indicated as follows:

- multi-component situation (54 ethnic groups and about 100 ethnic languages)
- unequal situation (majority language as Vietnamese - minority language as Thai, Hmong, Cham, Khmer...)
- linguistic typological similarity situation: all ethnic languages in Vietnam belong to the same linguistic "isolating type" (not "flexional type" as Indo-European languages)
- native language situation (Vietnamese, as a national language, is indigenous)

1.1 Ethnic population size and ethno-linguistic distribution

In Vietnam the Viet(Kinh) group is about 87% of state population, and the minorities groups are 13%. In general the population size of each ethnic group, on average, is small. Of the 53 ethnic minorities:

	Ethnic group	Population size
1	Tay	1.190.000
2	Thai	1.040.000
3	Muong	914.500
4	Hoa	900.100
5	Khmer	895.200
6	Nung	705.700
7	Hmong	558.000
8	Dzao	473.900
9	Gia Rai (Jrai)	242.000
10	E De	194.700
11	Bahnar	136.800
12	Cao Lan	114.000
13	Cham	98.900
14	Xo Dang	96.700
15	San Diu	94.900
16	Hre	94.200
17	Co Ho(Koho)	92.100
18	Raglai	71.600
19	Mnong	67.300
20	Tho	51.200
21	Stieng	50.100
22	Kho Mu	42.800
23	Bru-Van Kieu	40.100
24	Co Tu(Ka Tu)	39.900
25	Giay	37.900
26	Gie-Trieng	26.900
27	Ta Oi (Pakoh-Taoih)	26.000

	Ethnic group	Population size
28	Ma	25.400
29	Co	22.600
30	Cho Ro (Chro, Chrau, Chau)	15.000
31	Ha Nhi	12.400
32	K sinh mul (Xinh Mun)	10.700
33	Chu Ru	10.000
34	Lao	9.600
35	La Chi	7.800
36	Phu La	6.500
37	La Hu	5.300
38	Khang	3.800
39	Lu	3.600
40	Pa Then	3.600
41	Lo Lo	3.100
42	Co Lao	1.400
43	Chut	2.400
44	Mang	2.200
45	Bo Y	1.400
46	La Ha	1.400
47	Cong	1.200
48	Ngai	1.100
49	Si La	590
50	Pu Peo	380
51	Ro Mam	280
52	Brau	230
53	O Du	194

- only 02 groups, the Tay and the Thai, have over 1.000.000 people
- 05 groups have over 500.000 people
- 05 groups have over 100.000 people
- 09 groups have from 50.000 to 100.000 people
- 33 groups have under 50.000 people
- some groups have only a few thousands or a few hundreds, as the La Hu, Khang, Pa Then,

Lo Lo, Co Lao, Bo Y, Cong , Si La, Pu Peo, Mang, Brau, Ro Mam, O Du

In detail we can see below the population sizes of ethnic minority groups in Vietna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opulation size of ethic minority groups differ from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who can use the mother tongue. Within each ethnic group there are small local groups whose members can speak different (but related) languages/dialects, or speak not their mother tongue but use a language for interethnic communication in their local area. For example, nowadays many people of the Ksinh Mul, O Du groups have forgotten their mother tongue and speak Thai language. Even the language of Red Co Lao people (a very small group of Co Lao ethnicity) in North Vietnam has absolutely disappeared. It means that the population size of ethnic groups are bigger than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who can use their mother tongue.

Unconcentrated and mixed habitation is crucial feature of ethno-linguistic picture of minority groups in Vietnam, especially in the North. The most dispersed in distribution are the Yao people, located in 1035 communes, the Hmong located in 745 communes, the Nung in 988 communes. Many districts have over 10 ethnic groups, many communes have 4, 5 ethnic groups, in somes provinces a few dozens ethnic groups are located together side by side in the same dictrict. The multi-ethnic location leads to the marriages forming mixed and bi- or multi-lingual families. Recently, different migrations of Vietnamesesand minority peoples strengthen the unconcentrated and mixed habitation of ethnic groups and their languages.

In comparison with the majority language (Kinh/Vietnamese) the minority languages have a lower

status and a smaller number of social functions. A good example of the unequal bilinguism is the Hmong (Miao). Fieldwork of Vietnam Linguistic Institute in 1994-1995 years at four places in Lai Chau and Ha Giang provinces has shown how many languages the 805 Hmong people use in every day life andwhich function each language has. The results are in the following table:

	Sphere of communication	Language used in communication	Number of users	Proportion
1	Talking to relatives in family	-Hmong -Vietnamese -Hmong and Vietnamese	753 17 35	93,5% 2,1% 4,3%
2	Cultural and religious activity (songs, dances, worships...)	-Hmong -Vietnamese -Hmong and Vietnamese	596 52 157	74% 6,4% 19,5%
3	At the maeket, shop, post	-Hmong -Vietnamese -Hmong and Vietnamese	677 84 44	84% 10,4% 5,5%
4	At the meeting in the village	-Hmong -Vietnamese -Hmong and Vietnamese	788 13 4	97,8% 1,6% 0,5%
5	Communicating with the Vietnameses	-Hmong -Vietnamese	440 365	54,6% 45,3%
6	Communicating with other ethnicities (not Vietnamese)	-Hmong -Vietnamese -Quan Hoa -Tay	609 116 68 12	75,5% 14,4% 8,4% 1,5%
7	Communicating with Hmong people from other places	-Hmong -Vietnamese -Hmong and Vietnamese	561 53 191	69,6% 6,5% 23,7%
8	At school	-Vietnamese	230/230	100%

Here we can see that for the Hmong people their mother tongue is the most important medium of communication, and the statusof Vietnamese in Hmong villages is lower than at shool or in talking to Hmong people coming from other places. The number of people speaking only the Hmong language is similar to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speak two languages (mostly, Hmong and Vietnamese).

1.2 Geneticand typological relations of ethnic languages in Vietnam

Thanks to special historical and geographic conditions, during thousand years, in the Southeast Asia region, Vietnam has become a three-way crossroad of different ethnicity migrations and of language contacts, lying between the two civilizations of China and India, between the mainland and islands, hence creating such a diversified picture of ethnic languages. It seems to be a microcosm of ethnic groups with their languages in SEA region.

In Vietnam there are 05 main representatives of language families of the region:

1. Austroasiatic
2. Austronesien
3. Tai - Ka dai (Tai, Kam-Tai, Daic)
4. Hmong- Mien (Miao-Yao/Dzao)
5. Sino - Tibetan

Out of 53 ethnic minority groups, 23 use different Austroasiatic languages which havegenetic relations with Vietnamese. This fact provides favourable conditions for an easycontact among the languages of the same origin to improve bilingual capability and enhance Vietnamese role in the development of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the respect of linguistic typology the most crucial feature of ethnic languages in Vietnam is that all these genetically different languages belong to the same "isolating type" unlike the Indo-

European languages of "flexional type". Being the isolating languages, they share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phonology and grammar. Moreover, having been formed and evolved for thousand years, the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tend to have common changes in their structures such as monosyllabism or formation of tones. Not only these characteristics help ethnic minority groups easily contact and learn from one another, but also offer them favourable conditions for an appropriate integration of language develop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genetic relations the ethnic languages in Vietnam can be divided into language families, branches, sub-branches and groups including languages and their dialects, as we can see below:

Language Family	Branch, Sub-Branch, Group	Language / Dialect
Austroasiatic	Branch ***Mon-Khmer*** Ⅰ. Sub-Branch ***Vietic***	1. Kinh(Vietnamese) Dialects: North, Central, South 2. Muong Dialects: North, Central, South 3. Nguon 4. Poong 5. Tho 6. Cuoi 7. Dan Lai, Li Ha 8. Ruc 9. May 10. Sach 11. Ma Lieng 12. Kri (Phoong) 13. A Ream
	Ⅱ. Sub-Branch ***Palaungic***	1. Mang, Dialects: Muong Te, Sin Ho, Muong Lay
	Ⅲ. Sub-Branch ***Khmuic***	1. Khmu 2. Ksinh Mul (Pucc, Pu Hooc) 3. Khang (Khang, Khang in Quang Lam) 4. O Du (Tay Hat, I Duh)
	Ⅳ. Sub-Branch ***Katuic***	1. Bru (Bru-Van Kieu, Van Kieu, Mang Coong, Khua, Tri (So), Ka Lo

Language Family	Branch, Sub-Branch, Group	Language / Dialect
Austroasiatic	Ⅳ. Sub-Branch ***Katuic***	2. Pa koh (Pa Co) 3. Ta Oih (Ta Oi) 4. Ka Tu (Ca Tu); Dialects: High Ka Tu, Low Ka Tu, Phuong)
	Ⅴ. Sub-Branch ***Bahnaric*** 1. Group *North Bahnar*	1. Bahnar (Ba Na). Dialects: To Lo, Go La, A La Koong, Jo Long, Krem 2. Cua (Kor) 3. Ka Dong 4. Ha Lang 5. Gie (Jeh); Dialects: North Gie, South Gie 6. Trieng 7. Xe Dang (XoDang, Hteang, Htea, Steang) 8. Ro Ngao 9. Ta Kua (Ca Tua, Kta) 10. Hre 11. Mo Nam (Po Noong, Bo Nam) 12. Ve (Veh, La Ve) 13. Ro Mam (Ro Mam, La Mam) 14. To Dra (Xo Ra, Mo Dra)
	2. Group *West Bahnar*	Brau
	3. Group *South Bahnar*	1. Ko Ho (Co Ho) Dialects: Sre, Ka Lop, La Ya, Rion, Nop, To La, Lach, ...) 2. Mo Nong (Mnong) Dialects: + Central Mnong: Preh, Biat, Bu Na, Bu Rung, Dih Brih, Bu Dang, + East Mnong: Ro Lom, Gar, Koanh, Chil + South Mnong: Bu Nong, Piang, Bu Dip. 3. Ma (Chau Ma) 4. Stieng 5. Chrau (Chau Ro, Chro, Ro, Ta Mun)
	Ⅵ. Sub-Branch ***Khmer***	Khmer in South Vietnam

Language Family	Branch, Sub-Branch, Group	Language / Dialect
Tai-Ka Dai	Ⅰ. Branch ***Tai*** 1. Group *central Tai*	1. Tay (Tho, Ngan, Phen) Dialects: Tay in Cao Bang, Central Tay, South Tay 2. Nung Dialects: Nung Chao, Nung Phan Slinh, Nung Inh, Nung Din, Nung Giang, Nung An ... 3. Cao Lan 4. Thu Lao
	2. Group *South West Tai*	1. Black Thai (Thai Dam) 2. White Thai (Thai Don) 3. Red Thai (Thai Deng) 4. Thai Theng 5. Thai Do 6. Thai in Hang Tong (Tai Muong) 7. Lao 8. Lu 9. Tay Nam 10. Pa Di
	3. Group *North Tai*	1. Giay (Nhang, Dzang, Dioi) 2. Bo Y 3. Tu Di 4. Pu Na
	Ⅱ. Branch ***Dong Thuy (Kam-Thuy)***	1. Tong (Dong, Cam) 2. Thuy (Sui)
	Ⅲ. Branch ***Ka Dai***	1. La Ha; Dialects: La Ha, Ta Mit, La Ha in Noong Lay 2. La Chi; Dialects: Black La Chi, White La Chi, Long hair La Chi 3. Pu Peo (La Qua, Ka Beo) 4. Co Lao Dialects: White Co Lao, Green Co Lao, Red Co Lao 5. Nung Ven
Hmong-Mien (Meo-Yao)	Ⅰ. Branch ***Hmong (Meo)*** 1. Group *West Hmong (Xuyen-Kiem-Mien, Hoa Mieu)*	1. Hmong Dialects: Fluer Hmong (Hmong Lenh), White Hmong (Hmong Do), Black Hmong (Hmong Du), Chinese Hmong (Hmong Sua), Red Hmong (Hmong Si)

Language Family	Branch, Sub-Branch, Group	Language / Dialect
Hmong-Mien (Meo-Yao)	2. Group *Central Hmong (Hmu, Hac Mieu)*	1. Na Meo
	Ⅱ. Branch ***Pa Then***	1. Pa Then (Pa Hung)
	Ⅲ. Branch ***Mien (Yao, Dzao)***	1. Mien (Red Yao, Wearing-coins Yao, Yao Cooc Ngang, Yao O Gang, Close-fitting Pants Yao, Yao Dai Ban, Yao Tieu Ban... 2. Mun (White Pants Yao, Green Clothes Yao, Yao Ao Dzai, Yao Ha, Yao Tuyen, Dao Lan Ten...)
Austronesian	Branch ***Chamic***	1. East Cham (Cham in Ninh Thuan and Binh Thuan) 2. West Cham (Cham in An Giang, Tay Ninh) 3. E de (Ra De, Rde, De) Dialects: Kpa, Bih, Mdhur, Krung, Ktul, Dlie, Epan, Blo, Ko Drao, A Dham... 4. Gia rai (Ja Rai, Dja Rai); Dialects: Ho Drung, A Rap, Ha Bau, Go La…) 5. Raglai (Rai, Noang, La Oang, Ra Dlai, Rac Lay, Ray Glay, Rang Glai); Dialects: North Raglai (in Khanh Hoa and Ninh Thuan), South Raglai (in Binh Thuan and Ninh Thuan) 6.Hroi 7.Chu ru
Sino-Tibetan	Branch ***Han (Chinese)***	Hoa; Dialects: Cantonese, Man (in Phuc Kien), Hac Ka, Ngai, Sang Phang
	Branch ***Tibeto-Burmese*** Group *Burmese-Lo Lo*	1. Lo Lo; Dialects: Lo Lo, Black Lo Lo, Chinese 2. Ha Nhi 3. La Ho 4. Si La 5. Cong (Phu Noi) 6. Xa Pho 7. Phu La

1.3 Writing systems of ethnic minority groups in Vietnam

Among 53 ethnic minority groups there are 26 ethnicities having a script, while 27 ethnicities do not have a writing system, as in the following table:

	Ethnic group	Writing system
1	Tay	Nom Tay, and Romanized Tay-Nung script created 1961
2	Thai	Traditional scripts and versions of Romanization
3	Hoa	Chinese script
4	Khmer	Traditional Sansscrit script
5	Nung	Nom Nung script and Romanized Tay-Nung script created 1961
6	Hmong	Romanized script created 1961
7	Gia Rai	Romanized scripts created before 1945, 1965-1975
8	E De	Romanized script created before 1945
9	Bahnar	Romanized script created before 1945
10	Cham	Traditional Sanscrit script and versions of Romanization
11	Xo Dang	Romanized script
12	Hre	Romanized script
13	Ko Ho	Romanized script created before 1945, 1975 and 1985
14	Raglai	Romanized script created before and after 1975
15	Mnong	Romanized script created by 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USA)
16	Stieng	Romanized script
17	Bru-Van Kieu	Romanized scripts created before 1975, and 1985
18	Co Tu (Ka Tu)	Romanized script created before 1975
19	Lo Lo	Traditional script
20	Gie Trieng	Romanized script created by SIL
21	Ta Oih (Pa Co-Ta Oi)	Romanized scripts created before 1975, and 1985
22	Ma	Romanized script created by SIL
23	Co	Romanized script created by SIL before 1975

	Ethnic group	Writing system
24	Cho Ro(Chro,Chrau, Chau)	Romanized script created by SIL before 1975
25	Chu Ru	Romanized script created by SIL before 1975
26	Lao	Romanized script created by SIL before 1975
27	Muong	Traditional Sanscrit script
28	Yao / Dzao	Different versions of romanized script
29	Cao Lan	Nom Yao script
30	Tho	Nom Cao Lan script
31	Kho Mu	No script
32	Giay	No script
33	La Chi	No script
34	Phu La	No script
35	La Hu	No script
36	Khang	No script
37	Lu	No script
38	Pa Then	No script
39	Chut	No script
40	Mang	No script
41	O Du	No script
42	Co Lao	No script
43	Bo Y	No script
44	La Ha	No script
45	Cong	No script
464	Ngai	No script
7	Si La	No script
48	Pu Peo	No script
49	Ro Mam	No script
50	Brau	No script
51	San Diu	No script
52	Ha Nhi	No script
53	Ksinh Mul	No script

Writing systems of ethnic minority in Vietnam can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 Group of 'Nom' scripts created on the base of Chinese ideograms: Nom Tay-Nung, Nom Yao.
- Group of traditional scripts: the Chinese of the Hoa people; Cham, Khmer and Thai scripts created on the base of Sanscrit.
- Group of romanized scripts created in XX century, as Bahnar, E De, Gia Rai, Ko Ho, Mnong, Stieng , Tay-Nung, Hmong, Mnong, Co Tu, Bru-Van Kieu, Pakoh-Taoih,...

In the period 1945-2005 a few dozen romanized scripts have been created in Vietnam for ethnic minority groups it is a breakthrough in the development of their language. Thanks to these scripts, social functions of ethnic minority languages have been enlarged, the vocabulary has increased, the language of literature step by step formed, new functional styles have taken shape, and innovations in word formation and sentence complex have appeared.

2. The policies of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2.1 Overview

In Vietnam, there are witnessed ten Legal Documents on languages, including two Government Decisions considered to be important on creating, improving and using scripts of ethnic minority languages (No. 153-CP dated Aug.20th, 1969; and No. 53 dated Feb. 2nd, 1980).

Before and after the Independence 1945 Vietnam Communist Party had the policy of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it can be seen in two following documents:

+ Extracted from Resolution on Ethnic Minority Group Work, National Congress I, March 1935:

"All ethnic minority groups (...) are entitled to use their own mother tongues in daily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activities."

+ Extracted from Politburo's Resolution No.4 and No.5 1949: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of ethnic minority groups should be taken seriously. Those groups already have had their own scripts; they can use them for teaching at elementary level of education. And those who have not, national languages in form of dialectal transcription should be used instead."

In the period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975-2005), positive results of the language policy have been recognized. For example, in education, during 1980-2005, seven ethnic minority languages are regularly teaching and learning at school: Khmer, Hoa, E De, Cham, Hmong, Gia Rai (Jrai), Bahnar. And during 1990-2005 there are eleven ethnic minority languages used at central and local broadcasting stations: Hmong, Khmer, E De, Gia Rai, Bahnar, Xo Dang, Ko Ho, Thai, Cham, Dzao, Mnong. From 2002 until today ten ethnic minority languages are used on Vietnam Television (VTV5): Hmong, Thai, Khmer, Cham, E De, Gia rai, Bahnar, Xo Dang, Ko Ho, Stieng.

2.2 Status and functions of Vietnamese and of minority languages

Legally, the policy of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as:

- acknowledged and assured the entitlement of having their own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 acknowledged and assured the entitlement of ethnic language equality, and minority groups are entitled to preserve and develop their own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 provided favourable conditions to enable minority groups to use their own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in various fields of social life.
- encouraged all ethnic minority groups, on a optional principle and observation of language equality and freedom, to acquire Vietnamese, making it a common medium for

communication among different ethnic groups, i.e. a national and official language that does act as means of unifying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and unanimity of fraternal groups throughout the country.

The language policy was clearly manifested in the new Vietnam's Constitution (1992):"All ethnic minority groups are entitled to use their own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to preserve ethnic characters as well as to bring good traditions and cultures, customs and practices into full play."

The status and functions of the Vietnamese and of minority languages is presented in the Government's Decision No. 53 (dated Feb. 2nd, 1980): "Vietnamese spoken and written language is the common language of the community of ethnic groups in Vietnam.(…). Therefore, all Vietnamese citizens are under an obligation and entitlement to study and use their common language. All ethnic minority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not only can be seen as their own treasure but also a cultural heritage of the whole country. In localities inhabited by ethnic minority groups, their own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and common language are simultaneously used."

The policy on bilingual education is noted in the Article 4 of Law on Primary Education (1991): "Primary Education is carriedout in Vietnamese, but the ethnic minority groups are entitled to use their own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for implementing Primary Education as well."

2.3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of the policy on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The policy on ethnic minority groups in general, and the policy on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particular, which have been executed for the past few years, are helping ethnic and mountainous areas to make more progressive changes in terms of economy, politics, culture andsociety.

Apart from their strengths and achievements in the main, it is clear that there still exist some shortcomings required positive, comprehensive and scientific measures to be taken soon.

Though the Government's viewpoints and guidelines on ethnic minority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weredetermined rather early in a creative and proper way, it is unlikely to institutionalize them as a Law (Language Law) or a Policy (Language Policy). As result, in implementing them there appear spontaneous, unsteadily up-and-down applications, rather than strict legalism. Such activities as 'script creating', 'script teaching' at school, 'script nourishing'in press and mass media, illiteracy eradicating in ethnic regions havenot been well performed.

Vietnam is a country with many ethnic groups, cultures and languages, which are diversified but unified in peaceful co-existence. It must be considered as the mainstay to determine and establish a legal foundationfor each ethnicity and each citizen in terms of duties and interests. As far as language is concerned,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role that Vietnamese plays as a national language and the particular status of ethnic languages with their social functions.

There should be proper guidelines on traditional and romanized scripts of ethnic languages, which should be encouraged in conservation and planned for alternately using with Vietnamese, preparing plans for delivery and put them into practice effectively. Among the languages without writing system, scripts should be created for those which are spoken by a majority or those who wish to formulatetheir own writing. As for ethnic languages spoken by fairly small groups, there should be special measures taken to preserve them or probably use the script of another relative ethnic language in an optional way.

Obviously, the most important (and most difficult) task is language education especially bilingual education, to carry out the goals of equal development in the government's policies of ethnic minority groups and languages.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opularization of primary educationand illiteracy eradication by teaching Vietnamese and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the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integration, language convergence could result in making endangerous languages spoken by too small groups or used in a limited area gradually vanish. The conservation,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ethnic minority cultures and languages is now regarded as an urgent problem for quite a few countries and a huge challenge for improvement of ethnic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as well.

References

- Bianco J. L., 1987. National policy on languages.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anberra.
- Hoang Tue (edit.), 1984. Ngon ngu cac dan toc thieu so o Viet nam va chinh sach ngon ngu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ang Language policy), NXB Khoa hoc Xa hoi, Ha Noi.
-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Information, 2002. Nghien cuungon ngu cac dan toc thieu so Viet Nam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Ha Noi.
- Ly Toan Thang & Nguyen Van Loi, 2001. Ve su phat trien cua ngon ngu cac dan toc thieu so o Viet Nam trong the ky XX (The development of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in XX century), Tap chi Ngon ngu, No. 2, tr. 1-11.
- Tran Tri Doi, 1999. Nghien cuu ngon ngu cac dan toc thieu so Viet Nam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NXB Dai hoc Quoc gia, Ha Noi.
- Vietnam Institute of Linguistics, 1988. Nhung van de ngon ngu cac dan toc o Viet Nam va khu vuc Dong Nam A (Some issues of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and Southeast Asia region), NXB Khoa hoc Xa hoi, Ha Noi.
- Vietnam Institute of Linguistics, 1993. Nhung van de chinh sach ngon ngu o Viet Nam (Some issues of language policy in Vietnam), NXB Khoa hoc Xa hoi, Ha Noi.
- Vietnam Institute of Linguistics, 1997. Canh huong va chinh sach ngon ngu o nhung quoc gia da dan toc (Language situation and language policy in multi-ethnic countries), NXB Khoa hoc Xa hoi, Ha Noi.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베트남 소수 민족 언어 실태와 소수 민족 언어 정책

리토안탕 (어학연구소,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소수민족 언어의 상황과 정책

리 토안 탕(베트남 사회과학원 언어위원회 위원장)

1. 서론

베트남은 54개의 종족(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국가이다: 1개의 다수민족인 비엣(Viet) (낀족)과 53개의 소수민족.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민족-언어적 특징은 건국 이래 국가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온 4천년에 이르는 긴 역사 속에서 베트남의 여러 종족들이 비엣과 소수민족 간, 혹은 소수민족들 간의 민족-언어적 전쟁 없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언어적 측면에서, 베트남의 역사는 민족-언어 연합체를 형성하기 위해 융합, 통합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역사이다. 이러한 융합, 통합의 경향이20C 베트남의 새로운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강화되고 있다.

베트남에는 54개의 종족이 있지만, 언어적인 면에서는 약 100개의 소수 언어와 방언이 있다. 호아족 (중국인)과 크메르족 같은 몇몇 민족-언어 사회는 중국, 캄보디아와 언어학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캄보디아에서는 중국어와 크메르어가 국어이다. 따이족, 눙족과 타이족은 남중국, 라오스, 태국, 미얀마의 초앙(중)족, 타이족, 샨족과 유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흐몽족은 베트남에 약 55만명이 있고, 중국에 수백만 명, 태국과 라오스에 수천 명, 그리고 심지어 미국과 호주, 프랑스에도 수십만 명이 있다.

1945년 독립 이후, 베트남의 언어정책은 베트남어와 소수민족어를 포함한 모든 문어와 구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논문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1975-2005)의 언어 상황과 언어정책에 간략하게 초점을 맞춘다.

2. 베트남의 민족-언어 상황

모든 다민족 국가는 그 "자체의" 민족-언어적 상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의 언어정책을 입안할 때 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민족-언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다구성요소적 상황 (54개 종족과 약 100개의 민족 언어)

- 불평등한 상황 (다수민족언어인 베트남어-타이, 흐몽, 참, 크메르어 같은 소수민족언어)
- 언어유형적 유사성 상황: 베트남의 모든 민족어는 동일한 언어유형인 "고립어"에 속한다(인도유럽어처럼 "굴절어"가 아님.)
- 모국어 상황 (국어로서 고유의 베트남어가 있음.)

가. 민족 집단의 규모와 민족-언어 분포

베트남에서 비엣족(낀족)이 전체 인구의 약 87%를 차지하고, 그 외 소수민족들이 13%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각 종족의 집단 규모는 평균적으로 적다. 53개 소수민족 가운데

- 따이와 타이의 단 2민족만이 백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 5개 민족은 5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 5개 민족은 1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 9개 민족은 5만 내지 1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 33개 민족은 5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 La Hu, Khang, Pa Then, Lo Lo, Co Lao, Bo Y, Cong, Si La, Pu Peo, Mang, Brau, Ro Mam, O Du 같은 일부 민족은 고작 수천에서 수백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아래 표에서 베트남 소수민족의 인구수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종족	인구수		종족	인구수
1	Tay	1.190.000	10	E De	194.700
2	Thai	1.040.000	11	Bahnar	136.800
3	Muong	914.500	12	Cao Lan	114.000
4	Hoa	900.100	13	Cham	98.900
5	Khmer	895.200	14	Xo Dang	96.700
6	Nung	705.700	15	San Diu	94.900
7	Hmong	558.000	16	Hre	94.200
8	Dzao	473.900	17	Co Ho(Koho)	92.100
9	Gia Rai (Jrai)	242.000	18	Raglai	71.600

	종족	인구수		종족	인구수
19	Mnong	67.300	37	La Hu	5.300
20	Tho	51.200	38	Khang	3.800
21	Stieng	50.100	39	Lu	3.600
22	Kho Mu	42.800	40	Pa Then	3.600
23	Bru-Van Kieu	40.100	41	Lo Lo	3.100
24	Co Tu(Ka Tu)	39.900	42	Co Lao	1.400
25	Giay	37.900	43	Chut	2.400
26	Gie-Trieng	26.900	44	Mang	2.200
27	Ta Oi (Pakoh-Taoih)	26.000	45	Bo Y	1.400
28	Ma	25.400	46	La Ha	1.400
29	Co	22.600	47	Cong	1200
30	Cho Ro(Chro, Chrau, Chau)	15.000	48	Ngai	1100
31	Ha Nhi	12.400	49	Si La	590
32	Ksinh mul(Xinh Mun)	10.700	50	Pu Peo	380
33	Chu Ru	10.000	51	Ro Mam	280
34	Lao	9.600	52	Brau	230
35	La Chi	7.800	53	O Du	194
36	Phu La	6.500			

소수민족의 인구수가 모국어를 말할 수 있는 원어민의 수와 다르다는 것이 주지되어야 한다. 각 종족 내에 다른 (그러나 관련이 있는) 언어/방언을 말할 수 있거나, 모국어를 말할 수 없지만 각자의 지방에서 이민족간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지역 집단이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끼신 물, 오 두 종족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를 잊었지만 타이어를 말한다. 북베트남의 레드 꺼 라오(꺼 라오 소수민족의 아주 작은 집단) 언어조차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종족의 인구수가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원어민의 수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것이 베트남, 특히 북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의 민족-언어적 상의 중요한 특징이다. 가정 널리 퍼져있는 민족은 야오족으로 1,035개 코 에 퍼져 있으며, 흐몽족은 745개 코 , 눙족은 988개 코 에 퍼져 있다. 10개 이상의 종족이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으며, 많은 코 에4~5개의 종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일부 성의 경우 수십개의 종족이 같은 구역에서 더불어 살고 있다. 다민족적

위치로 인해, 이민족간 결혼과 2개 국어 혹은 다국어 가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진다. 최근에, 베트남족과 소수민족 사람의 다양한 이동으로 인해, 종족과 그들의 언어의 분포가 더 분산, 혼합되고 있다.

다수민족 언어(낀/베트남어)와 비교했을 때, 소수민족어는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기능도 더 적다. 흐몽어(먀오어)가 불평등한 2개 국어 상용의 좋은 예가 된다. 라이 쩌우 성과 하 지앙 성의 네 개 장소에서 1994-1995년간 실시된 베트남 어학연구소의 현지 조사 결과는 805명의 흐몽족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각 언어가 어떤 기능을 가지는 지를 보여준다. 아래 표에 그 결과가 나와 있다.

	의사소통의 범위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	사용자 수	비율
1	가족, 친지와의 대화	- 흐몽어 - 베트남어 - 흐몽어와 베트남어	753 17 35	93,5% 2,1% 4,3%
2	문화, 종교적 활동 (노래, 춤, 예배)	- 흐몽어 - 베트남어 - 흐몽어와 베트남어	596 52 157	74% 6,4% 19,5%
3	시장, 가게, 근무처에서	- 흐몽어 - 베트남어 - 흐몽어와 베트남어	677 84 44	84% 10,4% 5,5%
4	부락 모임에서	- 흐몽어 - 베트남어 - 흐몽어와 베트남어	788 13 4	97,8% 1,6% 0,5%
5	베트남사람들과의 의사소통	- 베트남어 - 흐몽어	440 365	54,6% 45,3%
6	베트남사람이 아닌) 다른 소수민족 과의 의사소통	- 흐몽어 - 베트남어 - 호아어 - 떠이어	609 116 68 12	75,5% 14,4% 8,4% 1,5%
7	다른지방출신의 흐몽족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 흐몽어 - 베트남어 - 흐몽어와 베트남어	561 53 191	69.6% 6.5% 23.7
8	학교애서	- 베트남어	230/230	100%

여기서 우리는 흐몽족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국어가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매체이며, 흐몽족 마을에서 베트남어의 위상은 학교에서 또는 다른 지방 출신의 흐몽족 사람들에게 말할 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흐몽어만을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두 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대부분 흐몽사람과 베트남사람)의

수와 유사하다.

나. 베트남 소수 민족 언어의 유전적, 유형적 관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 천년 동안의 특수한 역사적,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베트남의 본토와 섬은 중국 문명과 인도문명이라는 두 문명의 사이에서 다양한 소수민족의 이주와 언어 접촉의 세갈래 교차지점이 되어왔고, 그리하여 베트남에 다양한 소수민족어가 출현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마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종족들의 소우주인 것 같다.

베트남에는 5개의 대표적 어족이 있다.

- 오스트로아시아 어족
-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 타이-카 다이 (타이어, 캄-타이어, 다익어)
-흐몽- 미엔 (먀오-야오어 /자오어)
- 중국 티베트어족

53개 소수민족 중에, 23개 소수민족이 베트남어와 유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오스트로아시아 언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 기원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2개 국어 사용 능력이 개선되게 하고, 소수민족어의 발전에 있어 베트남어의 역할을 강화한다.

언어 유형의 관점에서, 베트남 소수민족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모든 유전적으로 다른 언어들이 "굴절어"인 인도유럽어와 달리, 동일한 "고립어"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고립어에 속하는 이들 언어는 음운론과 문법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더욱이,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베트남 소수민족의 언어는 단음절성 또는 성조 같은 구조에 있어 공통적인 변화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소수민족들이 서로 쉽게 접촉하고 서로의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언어 발전의 적절한 통합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한다.

유전적 관계의 관점에서, 베트남의 민족 언어가 어족, 어파, 하위 어파, 그리고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언어와 그 언어들의 방언을 포함하는 언어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어족	어파, 하위 어파, 언어군	언어/방언
오스트로아시아 어족	어파 **몬-크메르** I. 하위 어파 **비엣**	1. 낀(베트남어) 방언: 북, 중앙, 남부 2. 몽 방언: 북, 중앙, 남부 3. Nguon 4. Poong 5. Tho 6. Cuoi 7. Dan Lai, Li Ha 8. Ruc 9. May 10. Sach 11. Ma Lieng 12. Kri (Phoong) 13. A Ream
	II. 하위 어파 **팔라웅어**	1. Mang; 방언: Muong Te, Sin Ho, Muong Lay
	III. 하위 어파 **크무르어**	1. Khmu 2. Ksinh Mul (Puoc, Pu Hooc) 3. Khang (Khang, 꽝 람 지역의 Khang) 4. O Du (Tay Hat, I Duh)
	IV. 하위 어파 **카투어**	1. Bru (Bru-Van Kieu, Van Kieu, Mang Coong, Khua, Tri (So), Ka Lo 2. Pa koh (Pa Co) 3. Ta Oih (Ta Oi) 4. Ka Tu (Ca Tu); 방언: 고 Ka Tu, 저 Ka Tu, Phuong)
	V. 하위 어파 **바나르어**	1. Bahnar (Ba Na). 방언: To Lo, Go La, A La Koong, Jo Long, Krem 2. Cua (Kor) 3. Ka Dong 4. Ha Lang

	1. 언어군 북부 바나르어	5. Gie (Jeh); 방언: 북 Gie, 남Gie 6. Trieng 7. Xe Dang (Xo Dang, Hteang, Htea, Steang) 8. Ro Ngao 9. Ta Kua (Ca Tua, Kta) 10. Hre 11. Mo Nam (Po Noong, Bo Nam) 12. Ve (Veh, La Ve) 13. Ro Mam (Ro Mam, La Mam) 14. To Dra (Xo Ra, Mo Dra)
	2. 언어군 서부 바나르어	Brau
	3. 언어군 남부 바나르어	1. Ko Ho (Co Ho) 방언: Sre, Ka Lop, La Ya, Rion, Nop, To La, Lach, ...) 2. Mo Nong (Mnong) 방언: + 중앙 Mnong: Preh, Biat, Bu Na, Bu Rung, Dih Brih, Bu Dang, + 동부 Mnong: Ro Lom, Gar, Koanh, Chil + 남부Mnong: Bu Nong, Piang, Bu Dip. 3. Ma (Chau Ma) 4. Stieng 5. Chrau (Chau Ro, Chro, Ro, Ta Mun)
	VI. 하위 어파 크메르어	남 베트남의 크메르어
타이-카 다이	I. 어파 타이 1. 언어군 중앙 타이	1. Tay (Tho, Ngan, Phen) 방언: Cao Bang 지역의 Tay, 중앙 Tay, 남부 Tay 2. Nung 방언: Nung Chao, Nung Phan Slinh, Nung Inh, Nung Din, Nung Giang, Nung An ... 3.Cao Lan 4.Thu Lao

	2. 언어군 남서 타이	1. 블랙 Thai (Thai Dam) 2. 화이트 Thai (Thai Don) 3. 레드 Thai (Thai Deng) 4. Thai Theng 5. Thai Do 6. 항 똥지역의 Thai (Tai Muong) 7. Lao 8. Lu 9. Tay Nam 10. Pa Di
	3. 언어군 북부 타이	1. Giay (Nhang, Dzang, Dioi) 2. Bo Y 3. Tu Di 4. Pu Na
	II. 어파 **동 투이** **(캄-투이)**	1. Tong (Dong, Cam) 2. Thuy (Sui)
	III. 어파 **까 다이**	1. La Ha; 방언: La Ha, Ta Mit, La Ha in Noong Lay 2. La Chi; 방언: 블랙 La Chi, 화이트 La Chi, 롱 헤어 La Chi 3. Pu Peo (La Qua, Ka Beo) 4. Co Lao 방언: 화이트 CoLao, 그린Co Lao, 레드 Co Lao 5. Nung Ven
흐몽- 미엔 **(먀오-야오어)**	I. 어파 **흐몽** **(Meo)** 1. 언어군 서부 흐몽(쑤옌- 키엠- 미엔, 호아 미우)	1. Hmong 방언: Fluer Hmong (Hmong Lenh), 화이트Hmong (Hmong Do), 블랙 Hmong (Hmong Du), 중국 Hmong (Hmong Sua), 레드 Hmong (Hmong Si)

	2. 언어군 중앙 흐몽 (흐무, 하스 미우)	1. Na Meo
	II. 어파 **빠 텐**	1. Pa Then (Pa Hung)
	III. 어파 **미엔어 (야오, 자오어)**	1. Mien (레드 Yao, 동전을 달고 다니는 Yao, Yao Cooc Ngang, Yao O Gang, 몸에 꼭 맞는 바지를 입는Yao, Yao Dai Ban, Yao Tieu Ban... 2. Mun (하얀 바지를 입는Yao, 푸른 옷을 입는 Yao, Yao Ao Dzai, Yao Ha, Yao Tuyen, Dao Lan Ten...)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어파 **참어**	1. 동부 Cham (Ninh Thuan & Binh Thuan 지역의 Cham) 2. 서부Cham (An Giang, Tay Ninh 지역의 Cham) 3. E de (Ra De, Rde, De) 방언: Kpa, Bih, Mdhur, Krung, Ktul, Dlie, Epan, Blo, Ko Drao, A Dham... 4. Gia rai (Ja Rai, Dja Rai); 방언: Ho Drung, A Rap, Ha Bau, Go La…) 5. Raglai (Rai, Noang, La Oang, Ra Dlai, Rac Lay, Ray Glay, Rang Glai); 방언: 북부 Raglai (Khanh Hoa & Ninh Thuan 지역), 나부Raglai (Binh Thuan & Ninh Thuan 지역) 6.Hroi 7.Chu ru

중국 티베트어족	어파 한 (중국어)	Hoa; 방언: 광둥어, Man (Phuc Kien 지역), Hac Ka, Ngai, Sang Phang
	어파 티벳-버마어 언어군 버마어-로로	1. Lo Lo; 방언: Lo Lo, 블랙 Lo Lo, 중국어 2. Ha Nhi 3. La Hô 4. Si La 5. Cong (Phu Noi) 6. Xa Pho 7. Phu La

다. 베트남 소수 민족의 문자 체계

53개 소수민족 가운데, 다음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26개 민족이 문자를 가지고 있고, 27개 민족은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순서	종족	문자 체계
1	**Tay**	놈 따이, 1961년에 창제된 로마자 따이-눙 문자
2	**Thai**	전통문자와 로마자 버전
3	**Hoa**	한자
4	**Khmer**	전통 산스크리트 문자
5	**Nung**	놈 눙 문자와 1961년에 창제된 로마자 따이-눙 문자
6	**Hmong**	1961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7	**Gia Rai**	1945년 전과 1965-1975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8	**E De**	1945년 전 창제된 로마자 문자
9	**Bahnar**	1945년 전 창제된 로마자 문자
10	**Cham**	전통 산스크리트 문자와 로마자 버전
11	**Xo Dang**	로마자 문자
12	**Hre**	로마자 문자
13	**Ko Ho**	1945 년 전과1975, 1985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순서	종족	문자 체계
14	**Raglai**	1975년 전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15	**Mnong**	SIL(하계 언어학 연구소 – 미국)에 의해 창제된 로마자 문자
16	**Stieng**	로마자 문자
17	**Bru-Van Kieu**	1975년 전과 1985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18	**Co Tu (Ka Tu)**	1975년 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19	**Lo Lo**	전통 문자
20	**Gie Trieng**	SIL에 의해 창제된 로마자 문자
21	**Ta Oih (Pa Co-Ta Oi)**	1975년 전과 1985년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22	**Ma**	SIL에 의해 창제된 로마자 문자
23	**Co**	1975년 전에 SIL에 의해 창제된 로마자 문자
24	**Cho Ro (Chro, Chrau, Chau)**	1975년 전에 SIL에 의해 창제된 로마자 문자
25	**Chu Ru**	1975년 전에 SIL에 의해 창제된 로마자 문자
26	**Lao**	전통 산스크리트 문자
27	**Muong**	로마자 문자의 다른 버전
28	**Yao/Dzao**	놈 야오 문자
29	**Cao Lan**	놈 차오란 문자
30	**Tho**	문자 없음
31	**Kho Mu**	문자 없음
32	**Giay**	문자 없음
33	**La Chi**	문자 없음
34	**Phu La**	문자 없음
35	**La Hu**	문자 없음
36	**Khang**	문자 없음
37	**Lu**	문자 없음
38	**Pa Then**	문자 없음
39	**Chut**	문자 없음
40	**Mang**	문자 없음
41	**O Du**	문자 없음
42	**Co Lao**	문자 없음
43	**Bo Y**	문자 없음
44	**La Ha**	문자 없음
45	**Cong**	문자 없음
46	**Ngai**	문자 없음
47	**Si La**	문자 없음
48	**Pu Peo**	문자 없음
49	**Ro Mam**	문자 없음
50	**Brau**	문자 없음
51	**San Diu**	문자 없음
52	**Ha Nhi**	문자 없음

베트남 소수민족의 문자 체계는 세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중국 표의문자를 기초로 하여 창제된 '놈' 문자 그룹: 놈 따이-눙, 놈 야오.
- 전통 문자 그룹: 호야족의 중국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를 기초로 하는 참, 크메르, 타이 문자
- 20C에 창제된 로마자 문자 그룹: 바나르어, 에 데, 자 라이, 끄 호, 므농, 스팅, 따이-눙, 흐몽, 끄 뚜, 브루 반 끼우, 파코 따오이,…

1945-2005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수십개의 로마자 문자가 창제되었고, 소수민족들에게 그러한 로마자 문자들이 그들의 언어 개발의 돌파구가 되었다. 그러한 문자들로 인해, 소수민족 언어의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었고, 어휘가 증가되었으며, 문학 언어가 차츰차츰 형성되었고, 새로운 기능 스타일이 구체화되었으며, 조어법과 문장 합성에 있어 혁신이 나타났다.

3. 베트남 소수민족 언어의 정책

가. 개요

베트남에 소수민족언어의 문자 창제와개선, 사용에 관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두 개의 정부 결정(1969.08.20일 No. 153-CP; 1980.02.02일 No. 53)을 비롯해 언어에 관해 승인된 10개의 법률 문서들이 있다.

1945년 독립 전후,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소수민족어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두 문서에서 그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다.

- 1935.03. 제1기 국민회의, 소수민족에 관한 결의문에서 발췌: "모든 소수민족은 일상의 경제, 정치, 문화적 활동에서 각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1949년 공산당 정치국 결의문4, 5호에서 발췌: "소수민족의 구어와 문어는 존중되어야 한다. 소수민족은 이미 각자의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고, 초등 교육 수준의 교육에서 그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의 경우는 방언 표기의 형태로 국어를 대신 사용해야 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기간(1975-2005) 동안, 언어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얻어졌다. 예를 들어, 1980-2005년 동안 교육 분야에서 7개의 소수민족언어가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쳐지고 학습되었다: Khmer, Hoa, E De, Cham, Hmong, Gia Rai (Jrai), Bahnar. 그리고1990-2005년 동안, 11개의 소수민족언어가 중앙방송국과 지방방송국에서 사용되었다: Hmong, Khmer, E De, Gia Rai, Bahnar, Xo Dang, Ko Ho,

Thai, Cham, Dzao, Mnong. 2002년부터 지금까지 10개의 소수민족언어가 베트남 TV(VTV5)에서 사용되고 있다: Hmong, Thai, Khmer, Cham,E De, Gia rai, Bahnar, Xo Dang, Ko Ho, Stieng.

나. 베트남어와 소수 민족어의 위상과 기능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소수민족언어 정책은 법적으로

- 소수민족이 각자의 구어와 문어를 가질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한다.
- 소수민족언어의 평등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며, 소수민족은 각자의 구어와 문어를 보존하고 개발할 권리가 있다.
- 소수민족들이 다양한 사회 생활의 영역에서 각자의 구어와 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호의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 언어의 평등과 자유를 준수하면서 각 민족의 선택에 따라 소수민족들이 다른 민족과의 의사소통의 공통 매체로 베트남어를 사용하기 위해 베트남어를 습득하는 것을 격려한다. 베트남어는 베트남 전체 형제 집단의 결속과 단합을 위한 수단이 되는 국어이고 공식어이다.

베트남의 새 헌법(1992)에 언어 정책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소수민족은 좋은 전통과 문화, 관습을 최대한 계승하고, 민족성을 보존하기 위해 각자의 구어와 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베트남어와 소수민족언어의 위상과 기능이 정부 결정 53호 (1980.02.02)에 제시되어 있다: "베트남어가 베트남에서 모든 종족들의 공통어이다. 그러므로 전 베트남 국민은 공통어를 배우고 사용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모든 소수민족의 구어와 문어는 각 민족의 보물일 뿐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화 유산이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지방에서는 그들의 고유한 구어, 문어와 공통어가 동시에 사용된다."

두 언어 병용 교육에 관한 정책이 초등교육법 (1991) 제 4조에 나와 있다: "초등교육은 베트남어로 실시되지만, 소수민족들은 각자의 구어와 문어를 사용해 초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베트남 소수 민족 언어 정책의 평가와 권고 사항

지난 수 년간 실시된소수민족 전체에 대한 정책과 특정 소수민족어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소수민족 지역과 산악지역이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인 면에서 더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대체적인 장점과 업적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여전히 몇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며, 그 단점들이 곧 실제적, 종합적, 과학적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비록 소수민족의 구어와 문어에 관한 정부의 관점과 지침이 창조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비교적 일찍

이 결정되었지만, 그러한 지침이 법 (언어법) 또는 정책 (언어 정책)으로 제도화될 것 같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지침을 실행함에 있어, 엄격한 법률 만능주의보다 자연적이고 불안정한 적용이 나타난다. 학교에서의 '문자 창제,' '문자 교육' 같은 활동과 언론과 대중매체에서의 '문자 육성,' 민족 지역에서의 문맹퇴치 같은 활동들이 잘 수행되고 있지 않다.

베트남은 민족과 문화, 언어가 다양하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국가이다. 의무와 이익의 관점에서 각 소수민족과 모든 국민에 대한 법적 기초를 결정하고 설정하는 일이 초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언어에 관한 한, 베트남어를 국어로 하고,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는 소수민족 언어의 특수 위상을 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민족어의 전통 문자와 로마자 문자에 관한 적절한지침이 있어야 하고, 민족어 문자가 보존되어야 하며, 보급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또한 민족어 문자가 베트남어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계획되어야 한다. 문자 체계가 없는 언어들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말해지는 언어나 문자 체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언어에 대해 문자가 창제되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말해지는 민족 언어에 대해서는 그 언어를 보존할 수 있는 특별 조치가 취해져야 하거나 선택적인 방법으로 다른 가까운민족 언어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민족과 언어에 대한 정부 정책의 평등한 개발이라는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언어교육, 특히 두 언어 병용 교육이 분명히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베트남어와 소수민족 언어를 가르침에 의해 초등교육을 보급하고 문맹을 퇴치해야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통합의 과정에서, 언어적 융합으로 인해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되는 멸종 위기의 언어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소수민족 문화와 언어의 보존과 발전은 이제 많은 국가에서 급박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또한 소수민족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큰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참고문헌

Bianco J. L., 1987. *National policy on languages*.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anberra.

Hoang Tue (edit.), 1984. *Ngon ngu cac dan toc thieu so o Viet nam va chinh sach ngon ngu*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ang Language policy), NXB Khoa hoc Xa hoi, Ha Noi.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Information, 2002. *Nghien cuu ngon ngu cac dan toc thieu so Viet Nam*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Ha Noi.

Ly Toan Thang & Nguyen Van Loi, 2001. *Ve su phat trien cua ngon ngu cac dan toc thieu so o Viet Nam trong the ky XX* (The development of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in XX century), Tap chi Ngon ngu, No. 2, tr. 1-11.

Tran Tri Doi, 1999. *Nghien cuu ngon ngu cac dan toc thieu so Viet Nam*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NXB Dai hoc Quoc gia, Ha Noi.

Vietnam Institute of Linguistics, 1988. *Nhung van de ngon ngu cac dan toc o Viet Nam va khu vuc Dong Nam A* (Some issues of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and Southeast Asia region), NXB Khoa hoc Xa hoi, Ha Noi.

Vietnam Institute of Linguistics, 1993. *Nhung van de chinh sach ngon ngu o Viet Nam* (Some issues of language policy in Vietnam), NXB Khoa hoc Xa hoi, Ha Noi.

Vietnam Institute of Linguistics, 1997. *Canh huong va chinh sach ngon ngu o nhung quoc gia da dan toc* (Language situation and language policy in multi-ethnic countries), NXB Khoa hoc Xa hoi, Ha Noi.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도

강 영 봉 (제주대학교)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도

강영봉(제주대학교 교수)

1. 서 언

언어는 사용자의 정신과 함께 언어가 쓰이는 지역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확인된 사실이다. 언어의 본질의 하나인 '문화성' 이 바로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전반에 대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어 '삼춘'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표준어가 '삼촌' 이라고 해서 사전적 의미인 '아버지의 형제.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자 형제를 이른다.' 라는 정의로 설명될 수 없다. 마을 길거리에서 만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친척 여부를 떠나 '삼춘' 이다. 이는 생활 공동체라는 제주 사회의 문화 반영이라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언어는 그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정신 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주어 우주관이나 우주 분석 방법·경험 방식·통솔 방법 등이 다르게 마련' 이라는 이른바 '언어 상대설 이론Sapir-Whorf 가설)도 결국은 〈언어라는 창구를 통한 문화 현상 들여다보기〉라는 주장이다. 그 한 예로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농기구' 인 '키' 만 보더라도 '언어에는 배후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기능을 지닌 농기구를 '푸는체' 라고 한다. 틀('에움' 이라고 한다.)은 '자귀나무' 를, 바닥 재료는 '차풀' 또는 '버드나무' 를 쓰는데, 앞쪽에 붙어 바람을 일으키는 '날개' 가 없다. 그러나 육지부인 경우는 대나무와 고리버들로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날개' 가 붙어 있다. 이는 바람의 많고 적음에 따른 형태상의 특징으로, 제주도에서는 자연의 바람으로 충분히 '까불' 수 있지만, 육지는 그렇지 않아 앞부분 양쪽에 바람을 일으키는 '날개' 가 달려 있어야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결국 육지에서는 '키' 이지만, 제주도에서는 '푸는체' 이어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제주어는 제주 문화와 사회의 반영임과 동시에 정신 정신의 발현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제주어의 특징

제주어의 특징은 음운, 문법, 어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음운론적 측면에서 볼 때 〈訓民正音〉의 음운 목록을 유지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특히 '후두유성음' ([ɦ])과 '아래아' ([ɐ])와 '쌍아래아' (jɐ)의 사용이다. 그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후두 유성음

◦놀애[nolɦiɛ](〉노래[norɛ])/놀애를 브르리 하ᄃᆡ(용비어천가 13장)
◦몰애[molɦiɛ](〉[모래morɛ])/드틀와 몰애셔 나죗 길헤 셔쇼라(두시언해)
◦멀위[məlɦiy]/ 멀위 타레 고지 갓단 왓저
◦ᄉᆞᆯ오리[sɛlɦiori]/ ᄇᆞ름에 그 밧듸 ᄉᆞᆯ오리도 미끈 씰어져서라.
◦ᄉᆞᆯ우다[sɛlɦiuda]/ 게민 할으방신디 ᄉᆞᆯ우와 불키여.

② 아래아(ᄋᆞ)

◦ '제자해' 의 ‘“舌縮而聲深” (→후설저모음)
◦변화 양상:
㉠유지: ᄃᆞ리(橋)〉ᄃᆞ리 ᄀᆞᄃᆞᆨ(滿)〉ᄀᆞ득
㉡〉ㅏ: ᄂᆞᆷ(他)〉남 사ᄅᆞᆷ(人)〉사름
㉢〉ㅡ: ᄀᆞᄂᆞᆯ(陰)〉그늘 마ᄉᆞᆫ(四十)〉마은
㉣〉ㅗ: ᄂᆞᆷ(他)〉놈 마ᄂᆞᆯ〉마농
㉤〉ㅣ: ᄆᆞᄃᆡ(節)〉ᄆᆞ디 ᄉᆞᆰ(狸)〉식 슥
㉥〉ㅜ: ᄂᆞᄅᆞ(鹿)〉노루 ᄇᆞᆯ(件)〉불
㉦〉ㅓ: 도ᄌᆞᆨ〉도적 아ᄃᆞᆯ(子)〉아덜

③ 쌍아래아(ᅀᆞ)

◦ '합자해' 의 ‘“一起ㅣ聲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기긴之類”
◦ᅀᆞ답(여덟) ᅀᆞ슷(여섯) ᅀᆞ라(여러) ᅀᆞᆯ다(열다) ᅀᆞ보록ᄉᆞ보록(남상남상)

이외에도 어두자음군의 거센소리되기(빡〉착, 뙤다〉초다, 삐다〉치다 등), 'ㅅ' 이 받침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이시다, 잇다, 싯다), 단모음 'ㅚ' [ø]가 복모음 'ㅞ' [we]로 발음되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다.

둘째, 문법론적 측면에서 접사의 발달, 정연하고 생산적인 문법소들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① 접사

◦갈중의(갈+중의)

◦아끈천(아끈+천) 아끈다랑쉬(아끈+다랑쉬)

◦도나다(도+나다) 도치다(도+치다)

◦아방, 어멍

② 문법소

◦진행상: 가고 있다→가고 있다//감저

◦완료상: 가아 있다→가았다//갓저

◦사동: 얻지다, 굳후다

이밖에도 동작상, 서법 등에서도 제주어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어휘론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이원진의 ≪耽羅志≫(1653) '風俗' 의 "지방 말이 간삽하다. 촌 백성의 말이 간삽하고 앞이 높고 뒤가 낮다. 김정의 (제주)풍토록' 에는 이곳 사람들의 말소리는 가늘고 높은 게 바늘과 같고 또한 많은 것은 알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주기에는 특이한 어휘가 많아 '서울' 을 '서나' 라 하고 '숲' 을 '고지' , '오름' 을 '오름' , '톱' 을 '콥' , '입' 을 '굴레' , '굴레' 를 '녹대' , '재갈' 을 '가달' 이라 하는데 그 말소리는 이와 같다 하였다." (俚語艱澁 村民俚語艱澁 先高後低 金淨 風土錄 土人語 音細高如針刺 且多不可曉 州記 語多殊 以京爲西那 以藪爲高之 以岳爲兀音 謂爪爲蹄 謂口爲勒 草羈謂之祿大 鐵銜謂之可達 其語音類如此)라는 내용으로 대표할 수 있다. 그 외에 중세 어휘가 쓰인다는 점, 한자 어휘가 많다는 점, 차용어 가운데 몽골어가 많다는 점,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부사어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① 중세 어휘

◦〈훈민정음 용자례〉: 납(猿), 틱(頤), 풋(小豆), 드리(橋), 부섭(브섭, 竈), 돌(月)

② 한자 어휘

◦벌초허는 사름어시믄 골총뒈는 겁주.(골총=古塚)

◦게난 구기가 그거라.(구기=九九)

◦경혜 붸도 구늉은 지깍헌 사름이라.(구늉=窮凶)
◦큰물에 강 서답ᄒᆞ영 오라.(서답=洗踏)
◦혜여 댕기는 게 꼭 숭시 남직허다.(숭시=凶事)
◦어떵사 숭악헌지.(숭악=凶惡)
◦웨가에 식게 먹으레 갓다 와수다.(식게=式暇)
◦이 식게 테물이라도 먹읍서.(테물=退物)

③ 몽골 어휘
◦가라(ᄆᆞᆯ): 털빛이 까만 말
◦고들게친: 껑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껑거리끈)
◦고라(ᄆᆞᆯ): 털빛이 누런 말
◦고렴: 상가에 조문 가는 일
◦고적: 가까운 친척의 상에 부조하는 일
◦구렁(ᄆᆞᆯ): 털빛이 밤색인 말
◦녹대쉬염: 귀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구레나룻)
◦다간: 두 살의 소(몽골에서는 어린 말을 뜻함)
◦복닥: 물건에 씌워진 껍질 또는 물건 위에 덧씌어진 모자 따위
◦부루(ᄆᆞᆯ): 털빛이 하얀 말
◦수룩 짓다: 꿩 따위가 서로 벗을 거느리다
◦우룩 맞추다: 자웅이 서로 소리 질러 부르고 그에 응하다
◦적다(ᄆᆞᆯ): 털빛이 붉은 말
◦주레(주네): 피리. 취주용 악기의 한 가지
◦지달(쓰다): 마소의 발을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게 몸에 동여 묶는 일

④ 부사어
◦새 보리낭에 불을 숨아가난 연기가 **팡팡** 허난 할망이 와선게.
◦지금이야 돈이 농협으로 **팡팡** 나오곡.
◦총소리가 **팡팡** 나난 우리 아버진 아이고 이젠 큰일낫젠.
◦나는 물이니까 그냥 물이 경 **팡팡** 하지 아 주.
◦아덜 늬 갤 나질 못헌덴 **팡팡** 두드리단 이젠 가렌 보내엿주기.

◦눈 **팡팡** 헌 때 일허레 간디 욕만 막 허는 거라.
◦어멍 봐지난 어멍신디 가지도 안 허연 질레에 **팡팡** 막 울언.

3. 제주어 보존을 위한 활동

가. 개인의 활동

제주어 보존을 위한 개인의 활동은 어휘집을 발간한다거나 연구 업적을 저서로 발간한 경우를 말한다. 그 주용 어휘집과 연구 업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류〉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박용후(1960/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현평효(1962/1984),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태학사.

〈단행본〉
◦강영봉(1994), ≪제주의 언어≫(1), 제주문화.
◦강영봉(1997), ≪제주의 언어≫(2), 제주문화.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강정희(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김공칠(1999), ≪탐라어연구≫, 한국문화사.
◦김광웅(2001), ≪제주 지역어의 음운론≫, 제주대출판부.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연구≫, 도서출판 세림.
◦성낙수(1984),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 정음사.
◦성낙수(1992),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송상조(1990),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학위논문.
◦우창현(2003), ≪상 해석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이숭녕(1985),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홍종림(1993),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술 전사 자료집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고재환(2002),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김승윤 구술(1990), ≪사삼 사태로 반 죽었어, 반!≫(민중자서전14), 뿌리깊은나무.
◦김영돈 외(1985), ≪제주설화집성≫,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문무병(1998) ≪제주도무속신화≫(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장주근(2001),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정문연(1980), ≪한국구비문학대계≫9-1(북제주군편).
◦정문연(1981), ≪한국구비문학대계≫9-2(제주시편).
◦정문연(1983), ≪한국구비문학대계≫9-3(서귀포시·남제주군편).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4),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도.
◦진성기(1959), ≪남국의 속담≫, 제주민속연구소.
◦진성기(1972/2002), ≪제주도금기어연구사전≫, 제주민속연구소.
◦진성기(1976/1977),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진성기(1980), ≪남국의 무속서사시≫, 정음사.
◦진성기(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현용준·현승환(1996), ≪제주도무가≫(한국고전문학전집29),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나. 기관의 활동

기관의 활동이란 지방 자치 단체 및 자생 단체의 활동을 말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어사전≫ 발간

1995년 제주도에서는 6명의 전공자를 동원하여 2년 동안 조사를 하고 ≪제주어사전≫을 발간하였다. 이 사전은 '발간사, 조사 경위, 일러두기, 본문, 제주어표기법(부록1), 제주어 연구논저 목록(부록2)'으로 구성된, 신국판, 625면의 자료집으로, 행정 기관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방언사전'이다. 2006년부터는 3개년 계획으로 ≪제주어사전≫ 증보, 수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2) 〈제주어 교육 자료〉 개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07년 3월 〈제주어교육자료〉를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다. 이 교육 자료는 '재량활동 시간' 에 활용할 제주어 교재(CD)로, 이 자료 개발 또한 전국에서는 맨 처음 있는 일이다.

초등학교 교육 내용은, ①제주의 생활 모습(음식·옷·집·생활 모습) ②제주의 자연(동·식물) ③제주의 설화(4편) ④기타(속담·관광지·마을)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중학교는, ①말하기·듣기, ②문학(설화·시), ③민요로 구성하고, 단원 말미에 '쉬어 가는 마당' 을 두어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 유발을 유도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학교별 교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01차시: 제주의 생활 모습-우리 주변의 음식
02차시: 〃 -우리 고장의 옷
03차시: 〃 -우리 고장의 집
04차시: 〃 -우리 고장의 생활 모습
05차시: 제주의 자연-제주의 식물(1)
06차시: 〃 -제주의 식물(2)
07차시: 〃 -제주의 동물(1)
08차시: 〃 -제주의 동물(2)
09차시: 제주의 설화-설문대할망 이야기
10차시: 〃 -고을나양을나부을나 이야기
11차시: 〃 -명의 진국태 이야기
12차시: 〃 -오찰방 이야기(1)
13차시: 〃 -오찰방 이야기(2)
14차시: 제주어는 내가 최고-제주어 속담
15차시: 〃 -제주의 관광지
16차시: 〃 -제주의 마을 여행(1)
17차시: 〃 -제주의 마을 여행(2)

〈중학교〉

Ⅰ. 말하기·듣기(1~4)

1. 영화의 한 장면

2. 시장에서의 대화

3. 관광지에서의 대화

4. 해녀와의 대화

▷쉬어 가는 마당

Ⅱ. 문학-설화(1~5)

1. 자청비 이야기

2. 날개 돋은 아이

▷쉬어 가는 마당

3. 은혜 갚은 개구리

4. 출천지효(出天之孝)

▷쉬어 가는 마당

5. 멩관(명관)이야기

▷쉬어 가는 마당

Ⅲ. 문학-시(1~6)

1. 브름구덕

2. 제주도 할망 정신

▷쉬어 가는 마당

3. 어영 마을 바다 풍경

▷쉬어 가는 마당

4. 제주의 여름

5. 물마농꽃

▷쉬어 가는 마당

6. 뚜럼

▷쉬어 가는 마당

Ⅳ. 민요(1~3)

1. 북제주 '양태겯는 소리'

2. 북제주 동요 '옛날 뒷날'

3. 아이 재우는 소리(자장가)

▷쉬어 가는 마당
참고 자료

〈고등학교〉
01차시: 제주어의 특징과 제주어 보존의 필요성
02차시: 농업 관련어로 즐기는 제주어
03차시: 수산업 관련어로 즐기는 제주어
04차시: 속담으로 즐기는 제주어(1)
05차시: 속담으로 즐기는 제주어(2)
06차시: 수수께끼로 즐기는 제주어(1)
07차시: 수수께끼로 즐기는 제주어(2)
08차시: 민요로 즐기는 제주어(1)
09차시: 민요로 즐기는 제주어(2)
10차시: 설화로 즐기는 제주어(1)
11차시: 설화로 즐기는 제주어(2)
12차시: 제주어로 대화 나누기
13차시: 음식 어휘로 즐기는 제주어
14차시: 제주어로 이야기 꾸미기(1)
15차시: 제주어로 이야기 꾸미기(2)
16차시: 대중가요를 제주어로 바꿔 부르기
17차시: 문학 작품을 제주어로 바꿔 표현하기

⑶ 제주어말하기 대회 등

'탐라문화제'(한라문화제) 기간 중에는 '제주어말하기대회'를 비롯하여 '제주어가요제'와 '제주어연극제'가 열린다. 이 가운데 '제주어말하기대회'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대회의 본선 진출을 위하여 각 시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예선 대회가 치러지기도 한다. 한편,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2003년부터 '제주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어 노래 부리기는 KBS제주총국의 '제주어로 부르는 동요 대회'를 비롯하여, (사)한국연예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의 '제주어가요제' 등이 있다.

그 외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제주어 강좌'도 있다.

4. 제주어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

가. 제도 마련의 계기

제주어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의 계기는 2006년 4월 18일 국립국어원과 국립민속박물관이 제주지역어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공동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제주 방언에 대한 언어학적, 민속학적 조사를 함께 펼친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 업무 협정은 절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살리기 위한 유네스코가 운영 중인 '위험에 처한 언어들' (Endangered Languages)이라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점점 사라져 가는 제주어 살리기에 함께 나서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협정이 도화선이 되어 제주도내 언론 기관은 물론 여러 단체에서도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006. 4. 20.~24. 한라일보 제주어특집 연재(한라일보)
◦2006. 10. 8. '브름의 말, 제주어' (한글날 특집 KBS일요스페셜, 이 달의 PD상 수상)
◦2006. 9. 8. 국립국악원·삼성문화재단 공동 주최 국악동요제 '코생이' 대상 수상(박수남 선생)
◦2007. 7. '사라져 가는 제주어, 지금은' (제주 MBC 라디오 3부작, 제34회 한국방송대상 지역다큐상 수상)
◦2007. 2. 12. 제주어로 부르는 동요 대회(kbs제주방송총국)
◦2007. 4. 16. 조례제정을 위한 모임(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제주도지회)
◦2007. 5. 11. 제주어 보존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주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제주도지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옥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
제주대학교국어상담소
제주도중등국어교육연구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및올바른조례제·개정을위한도민운동본부
후원: 국회의원 김재윤 의원(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천영세의원(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

◦2007. 7. 6. 올바른제주어보존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7. 9. 7.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안' 수정 가결

◦2007. 9. 11. 제주도의회 제2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안' 수정 가결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

2007년 8월 28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신관홍, 오옥만, 위성곤 의원 등 12 명의 의원 공동으로, '제주어의 보전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전승 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9월 7일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9월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전문은 〈부록〉 참조)

⑴제주어 보전 계획의 수립(제4조):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제주어 능력증진과 제주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정책과 제주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주어 선양과 제주어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제주어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제주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제주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주어의 사용·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⑵ 제주어심의위원회 설치(제8조):

① 제주어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사항
4. 제주어 보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주어 보전과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⑶제주어 주간(제16조):

① 제주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탐라문화제 개최기간 즉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주어 주간 기념행사
2. 제주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행사 등
3. 그 밖에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③ 도지사는 제주어 주간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제주어 관련 행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⑷제주어연구소 설치(제17조)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어의 보전과 연구를 위하여 제주어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

다.

③ 제주어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과제

전국 최초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느 정도 제주어를 보전하고 육성할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다음과 몇 가지는 앞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 제주어 표기법 제정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제주어 표기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이제까지는 ≪제주어사전≫부록으로 실려 있는 '제주어표기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이 표기법도 1985년 몇몇 사람에 의해 작성된 시안에 불과한 것이다. 제주어 표기 통일을 위한 표기법 제정이야말로 가장 화급한 과제이다.

2006년 '국악동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코생이'라는 동요의 가사를 보자.(인터넷 기사에서 인용함)

톡톡톡톡 톳기만 허곡
요놈의 괴기 촘 요놈의 괴기 촘
이레 화륵 저레 화륵 잘도 돌아 댕겸쪄
어떵허콕 어떵허콕 그냥 확 동겨보아신디
요놈보라 요놈보라 옆댕이에 걸려부렀져
톡톡톡톡 톳기만 허당
고놈의 괴기 촘 고놈의 괴기 촘
불쌍허다 안 되부렀져 고놈 안되부렀져

'제주어로 노랫말을 썼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가사에서 '톳기만, 괴기, 촘, 댕겸쪄, 어떵허콕, 동겨보아신디, 걸려부렀져, 되부렀져' 등은 ≪제주어사전≫ 부록의 '제주어표기법'으로 볼 때 아무래도 이상하다. 초등학교 교사가 이러할진대 일반인들이야 어떠한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나.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 방안 마련

'제주어 보전 및 사용 조례안' 에 따르면, "도지사는 바람직한 제주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제주어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지사는 제주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제주어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제주자치도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의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제주어 문화확산 프로그램 개발' 에 관한 내용, '교재 개발' , '제주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수립, '제주어 보급을 위한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학교 교육에 활용

제주어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보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학교 교육에서 구현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한 제정 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몫이고, 실제 집행하고 교육에 활용은 교육의원의 몫' 이라는 협조가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라. 구어체 교재 개발

방언이야말로 구어체 언어의 전형이기 때문에, 구어체 교재 개발이 절실하다. 지금 개발된 교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처이 제작한 〈제주어교육자료〉가 유일한데, 이마저 대화 중심의 자료 구성이 아쉽다. 방언은 현실 언어로 입말이 중심이다. 그런데도 교육 자료 대부분은 화석화된 제주도방언에 치중하고 있다. 화석화된 방언 중심으로 교육 자료가 구성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 유발은 물론 동기 부여라는 방언 교육의 목표는 자연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에 인용하는 1965년 이운금의 ≪제주도사투리≫(박문출판사)는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표기는 원전에 따른다.)

10. 해녀와
[서로 높임 사이]

물질ᄒᆞ레 감이우꽈?(물질(海女作業) 하러 가십니까?)
예, 무사 들엄수광?(예, 어째서 묻습니까?)
말 ᄒᆞ쏠 든젠마씀.(말 좀 물으려구요.)
기영홉서(그러세요.)
그 구물 닮은 건 무스거우꽈?(그 그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마씀? 망시리 홉네다. 점복이나 구젱기나 메역이나 ᄒᆞ민 이디 담앙 오는 거 아니우꽈.(이것 말입니까? 〈망시리〉라고 합니다. 전복이나 소라나 미역이나 따면 여기 담아서 오는 것 아닙니까.)
저 쉐막뎅인 무스거라마씀?(저 쇠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이거 비창마씀. 점복땔 때에 알로꿰영 들러올리능 거마씀(이것은 〈비창〉입니다. 전복을 딸 때에 밑으로 꿰어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 호민뭣에 씁네까?(그 낫은 무엇에 씁니까?)
이건 메역 홀 때 쓰는 거우다.(이것은 미역 벨 때에 쓰는 것입니다.)
저 동고랑ᄒᆞᆫ 건 ᄀᆞᆯ라 지 아니ᄒᆞ게 ᄒᆞ능 거 답수다 양.(저 동그란 것은 가라앉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건 테왁인디, 이걸 안앙 힙주마씀. 기영ᄒᆞ곡 망시리에 부떠 이시난 그것도 ᄀᆞᆯ라 지 아니ᄒᆞ곡마씀.(예, 이것은 〈테왁〉인데, 이것을 안고 헤염지지요. 그리고 〈망시리〉에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가라앉지 않구요.)
ᄒᆞ를 멧시간이나 물질홉네까?(하루 몇시간이나 〈물질〉합니까?)
한창 때 대 대ᄋᆞᄉᆞᆺ시간씩 홉네다.(한창인 때는 대여섯 시간씩 합니다.)
물엔 아무 때나 듭네다?(물엔 아무 때나 듭니까?)
물땔 맞추왕 듭네다.(물때(干滿時間)를 맞추어워서 듭니다.)
사진 ᄒᆞᆫ장 찍읍주.(사진 한 장 찍읍시다.))

마. 체계적인 조사와 자료집 발간

전래적인 제주어가 사라지기 전에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자료집이 발간되어야 한다.

조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야 한다.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 항목, 조사자 등 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체계적인 방언 조사가 가능하다. 조사 지점을 예로 들더라도 우선 삼현(三縣) 분립의 역사적 사실 곧, 제주·대정·정의 지역을 고려해야 하며, 해안 마을과 산간 마을, 동

부 지역과 서부 지역, 산남(山南)과 산북(山北) 등 지역적 특수성과 함께 전체성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를 위한 자료집은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언조사 방법에 따른 제보자에 관한 사항, 조사 지역, 조사자, 조사 개요 등등이 자세하게 밝혀있어야 하고, 올바른 〈제주어표기법〉에 의해 전사함을 전제로 한다.

보관과 이용이라는 측면과 현대라는 시간적 관념까지를 고려한다면 CD와 VTR 제작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의거 제주어의 보전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주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제주어를 이해하게 하는 한편, 제주어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전 및 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불편 없이 제주어를 이용하거나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어 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제주어 능력증진과 제주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정책과 제주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주어 선양과 제주어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제주어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제주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제주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주어의 사용·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도지사는 2년마다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도민의 제주어능력·제주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제주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주어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주어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사항
4. 제주어 보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주어 보전과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제주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1인
2. 국어·제주어·민속학·문화인류학·지역문학·지역문화 또는 제주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12인 이내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격이라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의 일신상 이유로 인하여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주어 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바람직한 제주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제주어 문화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주어의 보급 등) 도지사는 제주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제주어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제주어 교육)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보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주자치도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의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주어를 연구하는 기관·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에게 시설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제주어 주간 지정 등) ① 제주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탐라문화제 개최기간 즉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주어 주간 기념행사
2. 제주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행사 등
3. 그 밖에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③ 도지사는 제주어 주간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제주어 관련 행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주어연구소 설치)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어의 보전과 연구를 위하여 제주어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주어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주어 주간 기념행사
2. 제주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행사 등
3. 그 밖에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③ 도지사는 제주어 주간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제주어 관련 행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주어연구소 설치)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어의 보전과 연구를 위하여 제주어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주어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제주어의 세계적 가치 발굴 추진 전략

김 귀 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제주어의 세계적 가치 발굴 추진 전략 :
- 유네스코 유산보호사업을 중심으로 -

김귀배(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1. 문화다양성과 언어의 가치

21세기에 들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문화다양성의 증진은 기본적으로 각 문화는 인류가 지닌 창조적 잠재력의 발현이자 인류성장 및 발전의 동력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해 문화적 활동에 대한 국가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거대한 문화기업이 독점력을 넓혀감에 따라 문화다양성은 그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선보이는 풍요로움을 보존, 유지하는 일은 더 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화다양성에 있어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이다.

많은 민족들, 특히 소수민족과 토착민에게 무형문화유산은 역사에 깊이 뿌리 박힌 정체성의 근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통음악, 춤, 축제, 수공예품 제작기술, 구전문화 및 방언과 같은 여러 표현형태들이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 전통문화가 일률적으로 국제문화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배분과 교통수단의 급격한 발전으로 지역 문화는 더욱 그 특성을 잃고 주류문화, 강대국의 문화에 흡수되고 있다. 벌써 우리 주변에서는 수천년을 이어온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현대화라는 미명아래 잃어버리는 사례를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다.

특히, 언어는 무형유산의 중요한 범주중의 하나로서 인류는 언어를 통해 각각의 문화와 행동양식을 다양하게 발전시켜왔다. 각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는 물리적, 자연적 환경과 교감하며 세상속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생각과 철학체계를 형성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을 표현하는 중요한 양식이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배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피지배국의 언어를 말살하고 새로운 언어를 강요하는 현상들을 목격할수 있다. 이러한 언어가 사라지는 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사고와 세계관에 관한 지식과 이해의 단위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중요한 실수인 것이다.

2. 언어다양성의 위기

문화다양성이나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전개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언어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228개국에 6,809종의 언어가 존재한다. 여기에 114개 수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구술언어이다. 물론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계 언어의 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확히 '한 언어' 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정의로부터 한 언어가 다른 언어의 방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언어학적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여개에 가까운 언어의 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네스코에서 제공하는 언어에 대한 기본 정보는 매우 흥미롭다.

- 지구상에는 약 6,000-7,000가지의 구술언어가 있고 같은수의 수화가 있다.
- 한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평균치는 5,000-6,000명 정도이다.
- 전세계 구술언어의 95%이상이 백만명 이하의 모어 사용자를 갖고 있다.
- 약 5,000종의 구술언어는 100,000만명 이하의 화자가 있다.
- 약 3,000종 이상의 구술언어는 10,000명 이하가 사용한다.
- 약 1,500종의 구술언어와 대부분의 수화는 1,000명 이하가 사용한다.
- 1999년 조사에 따르면 약 500종의 언어는 100명 이하가 사용한다.
- 83-84%의 전세계 구술언어는 고유하다. 즉 한 국가에만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메가(mega:백만)-언어를 전세계 인구중 95%이상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표준중국어: 874백만), 힌디어(366백만), 스페인어(358백만), 영어(341백만), 벵골어(207백만), 포르투갈어(176백만), 아랍어(175백만), 러시아어(167백만), 일본어(125백만), 독일어(100백만)순이며 이 언어들이 모든 언어의 1%도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출처: 2002년 '에스노로그' 제14판)

세계화속에서 공동화되고 있는 언어다양성의 위기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 특히 유럽의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 15세기 이래로 이미 수백여종의 언어가 소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언어의 독점화가 심화되면서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세계언어의 90%이상이 인터넷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유네스코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지도' 의 최신판은 전세계언어의 반 정도가 일정부분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존하는 구술 언어의 90%가 금세기말에는 소멸되거나 거의 소멸될 것이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지 최신호에서 보도하고 있다. 소수언어는 약 2주일에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3. 언어다양성과 무형유산협약

가. 언어다양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

유네스코는 창립이래 '문화의 풍요로운 다양성 증진' 을 기구의 주요 임무로 정하고 문화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다. 2001년 채택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문화다양성협약)' 은 문화다양성을 '인류의 공동 유산' 으로 인식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한 국제 규범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은 언어와 문화의 동질화를 반대하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 선언의 실행계획은 이를 반영한 몇몇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인류의 언어 유산을 보호하고 가능한 다양한 언어의 표현, 창조 전파를 지원하기 위해서(5조)' 도 그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살아있는 유산의 핵심으로 언어를 규정하고 사라져가는 소수언어와 언어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위험에 처한 언어프로그램(UNESCO Endangered Languages Programme)을 운영해 왔다. 첫째, 언어의 소멸위기에 대한 인식제고와 언어다양성 증진을 위해 UNESCO-UN 파트너쉽 프로그램, 유네스코 소멸위기에 처한 세계언어 지도화 사업(Atlas) 둘째, 지역 역량강화와 언어정책 진흥사업, 셋째, 소수언어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등이다.

특히 지난 2003년 개최된 소멸위기의 언어보호를 위한 국제전문가회의에서는 각 회원국들에게 1. 위험에 처한 언어에 대한 조사와 목록화사업 실시 2. 교육시스템, 미디어, 사이버세계로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 3. 언어 인권의 존중을 통한 지역민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 고양 등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이나 '제주어 말하기 대회'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제주민속조사보고서' 와 같은 노력들은 제주어의 보존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의 의의

국제사회에서 전통 구술 언어를 포함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유네스코는 2001년부터 소중한 인류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구

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05년까지 90점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오늘날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벨리즈 등 중앙아메리카 대서양 연안지역에 살고 있는 가리푸나족의 가리푸나어와 무용, 음악(The Garifuna Language, Dance and Music, 2001)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가리푸나어는 이라와크 어족에 속하는 언어로 수세기에 걸친 핍박과 언어제국주의를 견뎌내면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언어는 우라가(uraga)라고 하는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우라가는 원래 의식이나 대규모 모임에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리푸나어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오늘날 이 이야기는 점점 잊혀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이주, 민족간 차별 그리고 학교 제도에서 가리푸나어의 소멸 등이 가리푸나어의 존속에 위협요인이 되어 있으며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 언어에 숙달하지 못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01년 등재를 통해 이 언어에 대한 지원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에콰도르와 페루 두나라에 걸쳐 있는 자파라족의 구전유산과 문화적 표현물(The Oral Heritage and Cultural Manifestations of the Zápara People, 2001)이다. 2001년 등재된 이 언어는 자파라족이 아마존 중심부에 위치한 덕분에 자연환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풍부한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언어가운데 꽃과 동물을 가르키는 어휘가 풍부하며, 자파라족의 우주관, 신화, 의례, 예술행위, 언어 등이 표현되므로 사실상 언어가 그들 민족의 역사와 신화와 전설의 보고라고 할수 있다. 에스파냐의 정복, 노예제, 역병, 강제 개종, 전쟁, 산림의 황폐화 등 수세기동안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 들의 전통적인 지식을 잘 보존해 왔다. 그러나 현재 자파라족은 다른 종족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자파라족 전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300명 미만인 인구 가운데 그나마 자파라어를 구사할수 있는 사람은 일흔살이 넘은 5명 뿐이라고 한다. 에콰도르와 페루 정부는 이 언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 등재를 계기로 복원계획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전수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 무형유산협약의 주요골자와 특징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노력은 자칫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소멸될 언어의 보존과 육성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유네스코는 본부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무형유산 걸작선 사업을 2003년 국제협약단계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06년초 가입당사국이 30개국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으며 2007년 8월 기준으로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이미 80개국이 인준하였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발효로 인하여 현재 유형유산 중심으로 구성된 각국의 문화유산정책에 새로

운 전환을 가져오게 되어,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국제적 보호 장치를 만들었다는 데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협약의 발효에 따라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제도도 일련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동 협약의 31조 3항에 준해 협약이 발효된 2006년 4월 이후로는 더 이상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는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다. 즉, 유네스코가 2005년 1월 세 번째로 지정한 일련의 걸작이 마지막이 된다는 말이며 앞으로는 동 걸작 목록을 대신하여 '무형유산 대표목록' 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세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규범인 이 협약은 전문과 총4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 정부간 위원회 및 총회의 구성, 당사국의 책임, 무형유산목록의 작성,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의 의무,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형유산목록과 관련하여 2개의 목록을 작성하기로 되었는데 1)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2) 긴급 보존이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이 그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장에서 협약의 목적이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밝히고, 무형유산의 정의를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b) 공연 예술 c) 사회적 관습, 제례, 축제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e) 전통 기술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자연, 유형, 무형유산 간에 구별을 두지 않는 토착민들의 총괄적인 유산 개념을 반영한 것이며, 구성체제에서는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2조에 무형문화유산은 무형적 요소뿐 아니라 이 무형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도구와 문화공간 그리고 언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무형유산 자체의 예술적 표현만 무형유산이 아니라 그 유산이 창조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공간, 그리고 현재 재현되는 공간까지 무형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협약에서는 당사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들은 각 영토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 기구의 참여하에 국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당사국 정부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목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할 의무,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그 유산의 보전을 사회종합개발계획에 통합시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동 협약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네스코가 특별히 강조하고 공동체 즉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다시 반영된 조항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활동에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이 동참하는 사안이 다루어지고 있다. 즉, 각 당사국이 무형문화유산을 창조, 유지, 전수하는 공동체, 단체, 그리고 적합할 경우 개인이 최대한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이 유산관리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라는 의미이다.

4. 제주어 세계화를 위한 과제

가. 가치의 재발견

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선'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은 더 이상 지정하지는 않고 향후 대표목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따라서 제주어의 보호를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등재를 통해 단시일내에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보다는 제주어 고유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육성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면서 이러한 성과들이 축적되었을때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무형유산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주어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이 최고라는 막연한 자부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인접 국가와 세계여타 국가들의 유사한 언어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연 어떠한 측면에서 제주어가 언어학적, 음성학적으로 어떠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무형유산협약사업에서 무형유산대표목록이나 긴급보존이 필요한 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멸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대한 연구결과의 축적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제주어의 보호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보존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의 첫 단계는 연구와 기록 작업이다. 제주어에 대한 연구와 기록 작업을 통해서 현재

남아 있는 무형유산의 중요한 가치나 특성에 대해 현대적인 기술로 재정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 국가나 지방정부는 해당 무형유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자료 은행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적 연구에 대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중요 요소들을 재생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일반인들과 전수자들도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중요 요소들을 보호하고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만은 불충분하다. 앞서 무형유산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무형유산 자체의 예술적 표현만 무형유산이 아니라 그 유산이 창조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공간, 그리고 현재 재현되는 공간 즉 제주어와 관련된 전통의식, 관습, 가무와 같은 전통 문화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곁들여 질 때 진정한 의미의 종합적인 보호육성정책이 수립되는 것이다.

제주어의 여러 중요 요소들을 계속 관찰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 연구 및 지원 전략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세계유산의 경우, 지정 당시의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제고

무형유산의 보호는 유형유산의 경우처럼 일정기간내에 보수 복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대에 걸쳐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언어의 경우는 이를 구사하는 미래세대를 확보하는가가 언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호해 온 문화유산을 물려받는 동시에 우리의 보호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구전언어교육은 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 중,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규, 비정규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문화교육시설과 교육자료 개발을 통하여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어가 지역의 중요한 자산임을 알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우리의 전통문화에 관한 발전, 이해의 과정을 깨닫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제주어가 더 이상 표준어의 방언이 아닌 지역의 독특한 가치와 정체성을 대변하는 문화자산으로서 존중되고 인식될 때 언어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라. 국제적인 파트너쉽을 통한 홍보 강화

제주어의 진흥을 위해서는 세계화에 걸맞는 전략기법이 요구된다. 종래의 수동적인 홍보전략에서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학술, 예술계 인사 및 관련단체와의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의 전문가들의 국제적 역량의 함양이 요구된다. 더더욱 다학문적 접근과 문화적 환경, 문화의 생활화가 전제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경우 국제적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홍보사업, 공동연구사업,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하겠다.

5. 맺는 말

무형문화유산은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공고화하여 새로운 창조성이 잉태되는 원천이다. 우리가 문화유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유산이 우리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넘어 과거와 현대를 거쳐 미래에도 우리 문화발전의 중요한 핵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는 다른 유산과 달리 끊임없이 생산되고 진화되며 사회.문화적 영향과 충격에 민감하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마련에 고심해 왔다. 그리하여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무형유산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적으로는 협약의 정신과 개별 규정에서 언급한 무형유산의 개념을 제반 유산보호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고 진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2003)
- Recommendation for Action Plans of International Expert Meeting on the Safeguarding of Endangered Languages(UNESCO, 2003)
- The Status of the World's Languages as Reported in Ethnologue(David Harmon, 1995)
-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
- 제2차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자료 ITH/06/1.COM/CONF.204/7 (UENSCO, 2007)
- 지구의 언어, 문화, 생물다양성 이해하기(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5)
- 에스노로그 제14판(2002)
-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의 의미와 전망(박성용, 2006)
- 무형문화재보존을 위한 국제워크숍 보고서(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 에스노로그 홈페이지(http://www.sil.org/ethnologue)
- 유네스코 본부 홈페이지(www.unesco.org)



제2부
제주 민속과 섬문화

- 강권용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 제주민속문화의 해 조사 개요 및 특성
- 고부자 (단국대학교) – 제주민속연구 현황과 과제(미래)
- 분무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 제주 정신문화의 본(本)이 되는 무속신화
- 강정희 (한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 사회 변화와 제주 방언의 변화
- 좌혜경 (해녀박물관) – 제주도 구비문학의 전승 변이적 특성
- 고광민 (제주대학교) – 牝牛 와 牡牛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제주민속문화의 해 조사 개요 및 특성

강 권 용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민속문화의 해 조사 개요 및 특성

강권용(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 민속문화 공동 학술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민속박물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7 제주 민속문화의 해" 사업 중의 하나이다.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 이 조사사업은 관광화·현대화로 급변하는 제주민속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주 민속의 보존방향과 현대적 계승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어의 의의와 보존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장에서는 제주 민속문화 공동 학술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주 조사에서 처음 시도된 생활재 조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주 민속문화 공동 학술 조사 개요

가. 제주 마을조사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많은 자연 마을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중 제주 마을의 특징을 뽑으라면 해안마을과 중산간 마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동 학술 조사팀은 해안마을로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를 중산간 마을로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를 조사하였다. 구좌읍 하도리는 800여 가구가 사는 비교적 대규모의 마을로 2,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녀들이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당근, 마늘, 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는 반농반어의 해안 마을이다. 안덕면 덕수리는 300여 가구가 사는 중산간 마을로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덕수리는 감귤 농사를 주로 짓고 있으며 불미공예와 민요 등이 전승되는 마을이다.

위 두 마을에 대해서 공동 조사단은 조사지개관, 사회구조와 마을조직, 경제생활과 생업활동, 의·식·주, 민간신앙, 일생의례, 세시풍속, 구비전승의 분야를 조사하였다.

나. 제주의 민속문화 조사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다른 민속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 중 6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조사 기록하였다. 제주어, 제주의 무덤, 제주의 옹기, 제주의 곶자왈, 제주의 음식

문화, 제주인의 일생은 제주 민속문화의 독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제주 생활재 조사

제주인의 삶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이며 과거 지향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인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가 제주 생활재 조사이다. 특히 제주인의 모습을 정신문화로만 말하는 것은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기에 제주인의 사용하는 집안 도구들을 통해 제주인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였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김성원 씨 댁의 생활도구 6천여 점의 기록을 통해 제주인의 삶을 모습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제주 민속조사 보고서 발간

위 조사들을 통해 제주 마을 민속지 2권, 김성원 씨 댁 생활재 1권, 제주의 민속문화 6권을 발간하였다.

마. 제주 민속문화 기록영화 제작

제주 민속문화의 해 기간 동안 한 해에 한 개의 제주 민속문화를 기록영화로 제작하였다. 2006년에는 허벅장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정동벌립장을 기록하였다.

바. 제주 국제학술대회 개최

제주어와 제주 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이란 주제로 제주어의 보존 방안을 논의하고 제주 민속문화의 특수성 인식과 보존 방안, 지역 민속의 연구 방향 설정 제시를 하고자 한다.

2. 덕수리 김성원 씨댁 생활재 조사

덕수리 김성원씨댁 생활재 조사보고서가 이전의 생활재와 다른 점은 생애사와 관련된 생활재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전의 보고서는 집이란 공간과 그 공간에 놓여있는 생활물품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보자의 구술 내용은 생활재를 설명하기 위한 증언으로써 보조 자료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생활재에서는 제보자의 생애사를 중심에 놓고 생활물품을 보조적 자료로 취하는 장을 따로 마련하였다. 즉 전자의 경우 가옥의 공간별 구성과 그 안에 있는 생활물품의 나열과정에서 특징적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한 제보자의 설명이 끼워 맞춰진다면 이번에 시도하고자 하는 방법은 제보자 생애에 물품을 끼워 맞추는 방식을 추가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것은 생활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생애사를 중요한 자료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활재가 집이란

공간 안에 단순히 과거와 현재에 사용되었거나 쌓아놓았던 물품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사용자의 생애와 호흡하는 물품으로서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가. 덕수리 생활재조사의 과정과 방법

덕수리 생활재조사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제주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7년 '제주 민속문화의 해' 사업 중 제주 민속 조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주도의 해안가 마을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와 농촌 마을인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대한 민속조사를 2006년 3월부터 조사하였다. 두 마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에 이어 피조사자에게 생활재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생활재 조사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외지인에게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으며 생업인 농사일을 제쳐두고 생활재 조사를 도와준다는 것은 한 해 농사일을 망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 주었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서 생활재 조사의 시기는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생활물품의 시시콜콜한 정보에 대해 집안 여성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가정의 주도권을 남자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남편의 허락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였다. 기본조사 과정에서 김성원·윤달화 부부와 집이 생활재 조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성원은 덕수리에서 태어나 군 생활을 제외하고는 덕수리를 떠나 살지 않았으며 윤달화 역시 덕수리 이웃집에서 태어나 19살에 김성원의 집에 시집을 왔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김성원의 아버지가 서당을 운영하기 위해 80여 년 전에 지은 집으로 1956년 이곳으로 분가하여 두 번에 걸쳐 개축을 하였지만 옛날 목재 건물의 형태가 남아 있었다. 김성원은 세금고지서도 6개월 치를 모아 놓는 생활물품에 대한 정리가 철저한 사람으로서 농약살포일지를 쓰는 등 생활기록도 철저하여 제보자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생활재 조사 시기가 10월 이후로 잡혀 있어 덕수리 주 작물인 감귤 수확기와 맞아 섭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덕수리 김성원·윤달화씨가 귤 수확을 미루면서 생활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생활재 조사는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차 조사 : 10월 11일 - 10월 18일(총 8일)
- 2차 조사 : 11월 14일 - 11월 20일(총 7일)
- 3차 조사 : 12월 14일 - 12월 21일(총 8일)

생활재 조사방법은 생활재 사진촬영 및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피조사자가 제주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주도 현지 출신 조사자가 담당하였고 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에 바로 입력하였다.

나. 김성원 씨댁 생활재의 종류 및 특성

제주도의 전통적인 가옥구조는 일반적으로 바깥 길에서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올레라는 중간 지점인 좁은 길을 지나야 한다. 올레는 마당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 밖거리, 쇠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리'는 '채'를 부르는 단어이다. 이곳에 사용된 집 구조 호칭은 김성원 및 윤달화가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김성원씨댁 가옥도 제주도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인 안팎거리로 이루어져있으며 전통적인 올레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형태이다. 현재 김성원씨의 집 구조는 안거리, 밖거리에 창고, 화장실 등 기타공간으로 이루어졌다. 긴 올레를 통해 들어가면 안마당이 나온다. 안마당 건너에 정면으로 안거리가 있으며 오른쪽으로 밖거리, 창고가 'ㄱ' 형태로 이루어졌다. 안거리는 부부의 주 생활 공간으로 방 3개, 마루 1개, 청방 1개, 정지 2개, 욕실 1개로 이루어져있으며 바깥정지 및 욕실은 증축 한 것이다.

밖거리는 방 2개, 창고 1개, 정지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창고는 원래 소를 키우던 쇠막이었지만 경운기가 생기면서 소로 밭을 갈 필요가 없게 되고 축산업도 그만두어 귤 농사를 하면서 귤 저장고 및 농기계 저장고로 변화되었다.

이 세 개의 큰 공간에는 6천여 점의 생활재로 다음과 같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김성원씨댁 생활재 시트 및 수량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트 수량	생활재 수량	비고
안거리	현관	신발장	102	158	
		단지	7	11	
		벽·바닥·천장	5	5	
		소계	114	174	
	마레	벽 1·2·3·4	27	43	
		화분진열대	9	9	
		바닥·천장	20	47	
		소계	56	9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트 수량	생활재 수량	비고
안거리	큰구들	바닥·천장	13	18	
		벽 1	7	33	
		벽 2	31	32	
		벽 3	30	274	
		책장	111	494	
		소계	192	851	
	작은구들	벽 1	138	358	
		벽 2	74	115	
		벽 3	98	152	
		소계	310	625	
	안내방	천장·바닥	4	4	
		벽 1	10	31	
		벽 2	16	61	
		벽 3	122	298	
		벽 4	8	14	
		소계	160	408	
	청방	벽 1·2·3·4	16	23	
		냉장고	155	231	
		식탁	18	26	
		기타·천장	2	5	
		소계	191	285	
	정제	벽 1·싱크대	113	220	
		벽 2	56	99	
		찬장	52	192	
		벽 3·4	9	9	
		아궁이	27	39	
		천장·기타	4	6	
		소계	261	565	
	욕실	벽 1·2·3·4	40	102	
	다용도실	바닥	15	35	
		벽 1·2	7	41	
		벽 3	96	331	
		소계	118	407	
	안거리 소계		**1442**	**351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트 수량	생활재 수량	비고
밖거리	창고	벽 1	148	336	
		벽 2	26	119	
		벽 3	100	275	
		벽 4	8	15	
		소계	282	745	
	마레	바닥·천장	3	9	
		벽 1·2	15	24	
		빨랫줄	3	14	
		다용도 수납장	49	145	
		소계	70	192	
	작은구들	벽 1·2·3·4	59	173	
		화장대	16	27	
		천장	1	1	
		소계	123	287	
	큰구들	벽 1·2·3·4	91	316	
		옷장	62	135	
		벽 4 tv	57	126	
		천장	1	1	
		소계	211	578	
	정제	바닥	7	14	
		벽 1·2·3	43	97	
		소계	50	111	
	밖거리 소계		**736**	**19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트 수량	생활재 수량	비고
쇠앙창고	쇠앙창고 1	벽 1·2·3·4	50	129	
	쇠앙창고 2	벽 1·3	13	23	
		벽 2	32	242	
		벽 3 선반	35	86	
		천장	1	1	
		소계	81	352	
	쇠앙창고 소계		**131**	**48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트 수량	생활재 수량	비고
기타공간	화장실	화장실	5	5	
	화장실 옆 창고	화장실 옆 창고	8	13	
	마당및바깥공간	마당및바깥공간	54	137	
	소지품	소지품	14	29	
			81	**184**	

위 현황표를 통해 김성원씨댁 생활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첫째, 김성원의 아버지 및 김성원의 개인사 관련 자료들이 많다. 김성원 본인도 이번 조사를 통해 아버지 관련 물건들이 있는 것을 다시 찾았다고 하였다고 한다. 김성원의 아버지 관련 물품들은 대부분이 한시 관련 문학 작품들이며 토지 매매 문서들이다. 김성원의 물품들은 어릴 적 통지표에서부터 시작하여 군대, 새마을 운동, 농사 개량 관련 물품들이 상당수가 있었으며 특히 개인 사진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 10여개의 사진첩을 갖고 있었다. 이런 자료들은 제주도 현대사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제주도 농가의 특징인 귤 농사와 관련된 생활재가 많다는 것이다. 귤을 처음 시작한 60년대 자료부터 현재 귤 재배 농기구까지 다양한 생활재들이 분포되어 있다. 귤을 처음 시작할 때 참고용 서적으로 사용하였던 일본 책들과 시중에 나와 있는 귤 재배 관련 잡지, 서적이 안거리에 분포되어 있으며 병해충 방지용 농약, 증산용 비료, 귤나무 간벌용 가위, 수확용 가위, 운반용 바구니 등 귤 재배와 관련된 생활재가 밖거리 및 창고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두 내외가 구입한 물건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구입하여 증여한 것들이 많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 출가하여 부모들을 위해 계절에 따라 옷을 구입하여 증여하였으며 8남매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마다 혼수로 들어온 옷도 상당수가 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건강식품 및 음식재료들을 계속해서 조달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밭에서 생산되는 야채 및 곡류들을 조달해 주고 있다. 특히 식당을 운영하는 큰딸을 위해서는 계속하여 야채를 공급하여 주고 있다.

넷째, 시내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과수원을 물려받아 귤 농사를 짓고 있어 농기구를 공유하고 있다. 부모가 농약과 비료들을 구입해 주고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자재비를 받고 있다. 자녀들은 귤 농사를 위해 주말마다 덕수리를 방문하여 자기의 과수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창고에는 자녀들의 작업복이 준비되어 있고 작업복 및 자재 관리도 부모들이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세시풍속인 음력 8월 '모듬벌초' 의례에 사용하기 위하여 갈옷과 낫 등이 가족 수만큼 준비 되어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동네 대소사에 참여한 후 받은 답례품들이 많다는 것이다. 음료수, 술, 치약, 설탕, 라면 등 부조의 답례품으로 받은 물품들을 밖거리 및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윤달화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물품들은 갑작스런 손님들이 방문이나 귤 수확 시 많은 '놉' 을 빌려 할 때 간식거리로 사용하고자 보관하고 있었다.

김성원, 윤달화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이 물품들은 부부의 물건이기도 하면서 자녀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소통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3. 김성원 씨댁 생활재 조사를 통해 본 제주 민속조사의 방향

김성원 씨 댁 생활재 조사는 제주도에서 처음 시도된 조사 사업이다. 이 조사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김성원 씨의 생활도구에 의미가 부여되어졌다. 생활재 조사를 통해 생활도구에 사용자의 의미가 불어넣어지게 된 것이다. 단지 박제화 된 물건을 뛰어 넘는 것으로 사용자와 물건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제주 및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개인의 물건을 넘어 제주, 한국의 역사를 말해주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일제강점기, 광복, 4·3사건, 한국전쟁, 새마을 운동 등 제주 및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개인의 역사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확장된 자료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자료가 아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오래된 사진이나 부모님의 농사일기, 금전기록부 등이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내로 출가한 자녀들과의 소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육지처럼 자녀들의 타지로 나갈 경우 많이 와봐야 1년에 거의 2번에 그치지만 제주도내의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는다. 그러다보니 자녀의 물품이 그대로 부모님의 집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향후 자녀들이 청년기를 보냈던 70-90년대를 말해주는 자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축척은 향후 생활자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생활재 조사를 통해 제주의 생활도구를 기록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며 이런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제주민속연구 현황과 과제(미래)

고 부 자 (단국대학교)

제주 민속 연구의 현황과 과제(미래)

고부자(단국대학교)

1. 머리말

요즘 우리 것 찾기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 것에 대한 학술연구와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킨 민속행사도 유행이다. 그런 일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들을 접하다보면 혹시 내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또 잘못을 알면서도 속이거나[欺瞞] 넘겨버리고[默過] 있지나 않는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절감한다.

이제 나도 책임져야 할 세대가 된 탓인지 모른다. 그 동안 작은 몫이긴 하지만 40여 년 동안 우리 것, 제주 것을 연구해온 제주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어쩌면 해 온 일에 대해서 제 값치고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상반된 착각 때문일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먼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한국민속연구 과정들을 간단히 짚어보고, 둘째로 제주민속연구의 현황으로 主題와 主體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과제를 다루었다. 이 과제는 제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반성이고, 政策立案者나 미래의 세대들에게 보탬되는 고민을 같이하고 풀면서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자하는 부분이며, 이것이 본 발표의 목적이다.

2. 한국 민속연구사

民俗學은 民族과 文化를 硏究하는 科學이며, 口傳과 生活傳承으로 전하는 無記錄傳承의 資料 즉 民俗을 主對象으로 하는 학문이다.[1] 따라서 민속의 범주는 매우 넓고,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만 주로 生業과 情神문화로 나눈다. 생업문화는 '보이는 것[有形]' 즉 물질문화로 넓게는 자연자원으로부터 생업기술, 가옥, 민속공예, 의·식·주 등이 포함된다. 정신문화는 無形의 것으로 언어, 세시풍속, 신앙, 예능과 오락, 민요, 일생의례[冠婚喪祭] 등 이다. 물론 이 有·無形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밝혀야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읽혀졌을 때, 민속연구결과에 대한 보람과 함께 '제 값과 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

1) 李杜鉉·張籌根·李光奎 共著,『韓國民俗學槪說』, 民衆書館, 1974, p. 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민속의 연구시기를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한 연구를 제1세대와 2·3세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1) 日帝强占期

日帝는 朝鮮總督府에서 1910부터 12년까지『朝鮮慣習調査報告』를 시작으로 1924~26년에는『朝鮮民俗資料』로 수수께끼 동화 俚諺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1924부터 1941년까지 는 조사자료 제1~47輯 등을 발간했다. 개인연구물 중 단편적인 것으로 1927년 村山智順의 『朝鮮の服裝』등이 나온다.

1920년대부터는 한국학자들에 의한 開化·啓蒙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民族(朝鮮)主義를 주장하는 연구가 시작된다. 이때는 주로 문헌을 기초로 한 通史的인 수준의 연구였으며, 1918년 李能和의『朝鮮佛敎通史』와『朝鮮女俗考』(1927년), 崔南善의『檀君論』(1926년)을 비롯하여 해방 후『朝鮮常識問答』(1947)등이 발간된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민속학적인 연구의 本體인 現地조사를 방법론으로 택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 1932년 4월에 朝鮮民俗學會가 창설되고 다음해 우리나라 최초의 학회지『朝鮮民俗』을 창간했지만 1933년에 2호, 1940년 3호로 폐간된다. 이때의 개별연구자로 孫晉泰는 주로 文獻學연구로 민간신앙과 口碑傳承을, 宋錫夏는 民間演戱부분을 연구하였다. 이때는 민요와 설화가 主이고 음악과 연극도 부분적으로 연구되었다.

2) 해방 후 硏究開始期(제1세대)

해방 후 1960년대까지 한국 학자들로 구성된 학회가 발족되며 이른바 제1세대들이라 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해 연구가 주도된다. 1945년 大韓建築學會를 시작으로 1946년 大韓人類學會, 1953년 韓國民俗學會, 1958년 韓國文化人類學會, 1969년 民俗學會 등이 창립되고 학술발표와 함께 硏究誌도 낸다. 연구자는 주로 현직 교사(교수)이나 향토연구가들이었다,. 이때는 국문학자들이 중추가 되어 1950년대는 민요와 民俗劇분야가, 1960년대는 민간신앙과 口碑文學연구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3) 활동기(제2·3세대)

1970년대부터는 주로 인류학을 전공한 해외 유학파와, 국내대학에서 젊은 세대들이 학위를 받으면

서 제2세대가 등장하지만 이때도 연구분야나 범위는 앞선 1세대와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1973년 한국지리교육학회, 1980년에는 官邊團體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9년 한국주거학회 등 세분화된 새로운 학회들이 발족되면서 연구가 더 加速되기 시작한다.

1990년대 이후는 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비교와 연구성과에 대한 재해석 및 응용 등 새로운 연구방법이 대두된다.

2000년 이후 현재 학위과정에 있거나, 정식으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연구단체나 관련기관에서 현장조사방법을 배우는 제3세대들에 의해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분야가 세분되고, 특히 같은 주제나 주변국에 대한 상호비교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젊은 세대들에 의해 전통적인 민속현장보다는 현재민속의 영역에 초점을 두는 도시민속분야 연구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흐름은 전공과는 무관한 사람들에 의해 자료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상품화 및 응용 등 콘텐츠작업으로 돈벌이되는 일들을 하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3. 제주 민속연구의 자취

제주민속연구도 중앙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역시 1950년대 말부터 1세대 국문학자나 향토사학들에 의해 민요와 민간신앙 구비문학 등 대부분 같은 주제나 연구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며, 이런 경향은 1970년대도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같다.

1980년대는 본도 출신 제2세대들에 의해 현장에서 자료를 찾아내는 유행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는 작은 자료까지 캐내고 분석하는 완숙기에 접어든다. 2000년대 들면서 국가(道)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요구에 의해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인문은 물론 사회·자연과학분야, 특히 관광경영부분으로 접근하는 연구로 확산된다.

1) 인접학(人文·史學)

(1) 初期국가주도

開始는 1946년 宋錫夏가 했고, 1959년에는 美軍政廳의 재정지원과 후원으로 濟州島綜合學術調査가 실시되는데 역사고고반으로 중앙 학자인 柳洪烈 韓沽劤 金哲埈이 참가하였다. 모두 짧은 기간(20일)이었으며, 보고서는 둘 다 나오지 않았다.[2)]

(2) 학술연구

제주사람은 처음에는 국가주도 연구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도내에서도 눈을 뜨기 시작하여 제1세대들에 의해 개인적인 연구결과 나오기 시작한다.

제주역사 연구는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1)]

제1기: 1945년부터 1959년까지이다. 연구자료는 3건으로 支石墓, 元의 순제와 제주도, 1901년 제주민란이 있다.

제2기: 향토학자 김태능이 제주신문에「耽羅와 三別抄」(1959)를 연재하는가하면 여러 잡지에도 투고하여 50여 편의 연구물이 나왔다. 전문학자의 논문이나 저서로는 남도영의『濟州牧場과 馬政』, 김봉헌의 『濟州島歷史誌』등 17건이다.

제3기: 향토학자에 의해 꾸준히 이어지고, 전문학자들에 의해 선사·고고분야, 역사, 교육, 인물, 유배인, 漂流 등 폭넓게 연구되어 그 결과물이 30여건에 달한다.

제4기: 1981년 제주대학교에 史學科가 생기면서 전공으로 耽羅文化史(교양과목으로 향토와 문화)가 설강되며, 제주역사연구에 토대가 되는 고고학에서부터 근·현대사까지 연구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제5기: 1984년 제주의 역사와 민속학을 연구하는 전국 규모의 연구자단체로 濟州島硏究會(현재 濟州學會.『濟州島硏究』계속 발간)와, 1989년 제주사람이 주축이 된 濟州島史硏究會가 창립되면서『濟州島史硏究』와 제주관계자료 및『濟州史資料叢書』등을 간행하였다.

제4기와 제5기의 연구물은 100여건이 나오는데 특히 抗日(抗爭)운동이나, 1901년도 敎難, 4·3 등 근·현대사 연구가 젊은 세대들에 의해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3) 인접 연구 단체 및 기관

제주도청에서도 1962년 2월 창간호『제주도』를 내기 시작하여 2005년 6월 통권109호까지 발행했는데 행정종합지성격이지만 많은 부분 전문가에 의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동포 단체로는 1985년 동경중심으로 在日濟州道民에 의해 耽羅硏究會가 창립되고 잡지『濟州島』를 발간했고, 1987년에는 오사카 중심으로 日本耽羅學會가 발족했다.

제주대학교 耽羅文化硏究所에서는 제주도 관련의 역사와 자료집을 매년 꾸준히 간행하고, 博物館에서는 1980년 중반이후부터 발굴보고서와 문화유적을 간행하고 있다.

문화원에서도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 북제주의 역사에 대한 연구지를 내고 있다.

특히 박물관(제주교육, 제주민속자연사, 국립제주)과 우당도서관에서는 관련 연구보고서와 책을 발

---

2) 제주도,『濟州道誌』第6卷, 2006, p. 450참조.

1) 위의 책, pp. 451~453참조.

간하고, 특설강좌와 전시를 통하여 도민의 의식을 높이고 있다.

한시적이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지원에 의한 연구를 비롯하여, (주)대우의 지원으로 1987년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제주관계기사를 발췌하여 제주역사연표를 정리하고 있다.

(4) 주요 연구물

역사서 중 通史類로는 김봉현의『濟州島歷史誌』(1960)를 비롯하여 金泰能의『濟州島史論考』(1982), 金宗業의『耽羅文化史』(1986), 金奉玉의 『濟州通史』(1987) 등이 있다.

先史·考古學은 김철준의「제주도 지석묘 조사보고」(1959), 이청규의「광령리 출토 석기와 김해식 토기」(1984), 강창화의「제주 고내리 유적발굴 보고」(1995)등이 나왔다. 특히 이청규는 그 동안 발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고고학연구』(1995)등을 출간한다.

고대 및 고려와 근·현대까지는 石宙明의「耽羅古史」(1947), 柳洪烈의「제주도에 있어서의 천주교 박해:1901년의 敎難」(1956), 남도영의 「李朝 初期 馬政考」(1960)를 시작으로 제주牧馬연구가 계속된다. 또한 김봉현·김민주의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 투쟁사』(1963), 고창석의「麗元과 耽羅와의 關係」(1982), 김진봉「哲宗朝의 濟州 民亂에 대하여」등이 계속된다.

(5) 海外(日本) 저술

가.『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道調査資料 第39輯

1929년에 촉탁 善生永助에 의해 나온 책이다. 자료는 1927부터 3년간 본부직원의 출장조사 및 제주도청의 보고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본문은 174쪽이며 크게 5단락(경제, 부락, 생활, 문화, 생계)으로 나누고 통계, 제주 全島와 5개 도시의 지도, 사진 150여 매를 실었으며. 服裝에도 남녀 옷[衣服]과 모자[冠物], 寢具를 그리고[圖] 명칭을 첨가하였다.

나.『濟州島』

1966년 日人 泉靖一가 정리하고 東京大學出版會에서 출간(본문 311, 49쪽)하였다. 모두 3部로 나누었는데 1부에는 自然環境 村落 家族 超家族集團 宗敎 民具, 2부에는 東京의 濟州島人(1950년), 3부는 濟州島 30년과 濟州島關係文獻目錄(戰前과 解放後), 卷末에는 圖·表·寫眞 目次, 濟州島方言語彙, 英文摘要를 수록하였다.

특히 방언은 1930년대 채집한 자료를 1966년에 현지에서 재검토하고, 본문 중 첨부한 사진 80여 매 중에는 1935~37년에 본인이 촬영한 것 외에 31점은 홍정표 등의 자료임을 밝혔다. 방언은 1931~1932년에 채집한 것이며 방언표에는 알파벳, 발음기호, 韓國文字, 日本譯을 첨가하였다.

2) 민속학 연구

(1) 제주민속연구의 태두(제1세대)

제주민속연구의 初期 흐름은 크게 通史類와 민속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대부분 현지교직자와 향토사학자들이다. 이들의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민속전문연구분야가 제2세대들에 의해 확고하게 틀을 잡기 전까지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없어진 현장이나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다룬 것이므로 지금도 기초자료로 많이 참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자들로는 秦聖麒, 金榮敦, 현용준, 현평효, 홍순만 등이 있다.

(2) 연구주체(기관, 단체)

가. 國家主導

1968년부터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주도하에 全羅南道를 시작으로 지역별 조사를 마치고 1981년까지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가 총 12책이 나오는데 濟州道篇은 1974년 第5册으로 발간되었다. 1984년부터 이를 토대로 한 심층조사를 생활문화별로 나누어 조사하고 鄕土飮食篇(1984년), 住生活篇(1985년), 衣生活篇(1986년) 외에도 계속 부분별로 발간된다.

나. 濟州道

①『濟州의 民俗』

『濟州道誌』편찬사업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1997까지 해마다 濟州文化資料叢書로『濟州의 民俗』5卷을 발간했다(표 1 참조). 철저한 현장조사바탕으로 그 실상을 밝히는데 역점을 두며, 사진 그림 통계 제보자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크게 Ⅰ卷에는 歲時風俗·通過儀禮·傳承演戱, Ⅱ권에는 生業技術·工藝技術, Ⅲ권은 說話 民謠俗談 Ⅳ권은 衣食住, Ⅴ권에는 民間信仰·社會構造으로 구분하였다.

[표 1] 『濟州의 民俗』 Ⅰ ~ Ⅴ 구분과 내용

권	구분	집필자	내 용	분량	발행년도
Ⅰ	歲時風俗	玄容駿 文武秉	信仰歲時, 生活歲時, 農耕歲時, 漁撈歲時, 牧畜歲時, 狩獵歲時, 牛島面의 세시풍속	533	1993
	通過儀禮	金榮墩 高光敏	出産儀禮, 婚禮, 葬禮, 관련자료		
	傳承演戱	李琪亨 玄春植	민속놀이자료, 민요자료		
Ⅱ	工藝技術	金榮墩 文武秉 高光敏 金順伊	農業技術, 漁撈技術, 牧畜技術, 狩獵技術 帽工藝, 草工藝, 甕器工藝, 鑄物工藝, 木工藝	588	1994

②『濟州道誌』

1983년 처음으로 상·하 2권, 1993년 증보판으로 3권, 2006년 제3차 개정증보판으로 전7권을 출간했다. 제3차는 道制실시 60주년과 특별자치도 元年기념사업으로 편찬한 것으로 크게 13부분(지리, 역사, 정치·행정·사법, 산업·경제, 사회·교육·여성, 문화·예술, 문화유산)으로 구분되었다.

③ 調査報告書類

『濟州島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빌레못 동굴 조사 보고서』, 『濟州의 民俗』, 『濟州錄』, 『濟州實錄』, 『濟州100년』, 『濟州의 海女』, 『濟州道 無形文化財』, 『濟州의 文化財』(증보판), 『미개의 寶庫 제주도』 『제주민요의 이해』, 『濟州 俗談 辭典』, 『濟州 女性 文化』 등이 있다.

④ 濟州道 文化賞

1962년에 제정하고 道民 또는 단체로서 교육, 학예, 기타 향토문화의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공로한 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몇 개 분야에 한했지만, 2000년도부터 8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민속부문의 受賞者는 제1회 1962년 현평효(제주방언연구와 국어학 연구 발전), 2회 홍정표(제주

민요연구와 문화재발굴·보존), 6회 김영돈(제주민요 등 민속발굴·육성) 11회(1974년) 진성기(제주세시풍속 등 향토문화보존), 12회 현용준(제주무속연구 및 학술연구), 13회 박용후(도지 등 저술하여 향토사료발굴) 등으로 이른바 제주민속연구의 제1세대들이 할 수 있다.

(3) 研究主題(領域)와 연구자

제주의 민속은 문화유산으로 言語傳承, 民間信仰, 通過儀禮, 歲時風俗, 民謠, 民俗工藝, 生業技術, 衣生活, 食生活, 住生活, 文化財 11개 분야로[4] 나누고 있다.

가. 言語傳承

方言, 俗談, 禁忌談, 傳說, 地名 등이 포함된다.

① 방언

단행본은 물론 논문만 해도 1924년부터 2005년 12월까지[5] 일반 한국인이 350여 편, 日人 7여 편이 된다. 연구물은 1930년대부터 나오는데 朴種鉉의「濟州方言採集行脚」(1937)과 「濟州島의 方言」(1947)이, 특히 1947년에는 石宙明에 의해 최초의 방언어휘집인『濟州島方言集』(1947)이 출간된다.

1950년대는 이숭녕의「濟州島 方言과 그 意義」(1954), 玄容駿「濟州島 方言에서의 'ㅇ'考」(1956)과 1956~7에는「제주도 방언의 어미활용」등이 계속된다.

60년대부터는 주로 제주사람들에 의한 연구물로 朴用厚(1960)와 현평효의『濟州島 方言 硏究』(1962) 등이 나오며, 이 두 사람은 연구를 계속하여 이 분야 제1세대가 된다. 이후 강근보 김문규 김홍식 장태진이, 1980년대는 강공택 강영복 김홍식 송상조 이기문 이남덕 이영희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몇 명 안되는 연구가에 의해 부분적으로 접근할 뿐이었다.

1990년대 들면서 음운, 형태, 문법, 어휘, 통사까지 전 분야에 균형있게 연구되는데 특히 본도 출신의 학위연구물로 집중된다. 음운·문법에는 강영봉 정승철 강정희, 어휘는 강영봉, 지명으로 오창명 박용후 오성찬 고광민이, 특수집단에 대한 연구로 김순이의「濟州島의 潛嫂用語에 관한 調査硏究」(1990)가 있다.

2000년대의 연구물로는 문성숙의「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방언 보존 정책」(2002), 문순덕의「국제자유도시와 제주어 2」(2004), 오창명의「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제주 토착어의 적극적 활용」등이 나온다.

---

4) 제주도, 『濟州道誌』 第7卷, 2006.
5) 위의 책, pp. 375~392참조.

② 俗談

속담부문은 연구경륜과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주 연구자는 高在奐이며 2000년 논문「濟州島 俗談 硏究史」및 저서로 2001에는『제주 방언과 속담』과『제주도 속담 총론』,『제주 속담 사전』(2002)을 출간한다.

차츰 생활과 관계된 연구물이 나오는데 2004년 문순덕의 저서『제주여성 속담으로 바라본 통과의례』가 있다.

③ 禁忌談

모든 연구에 부분적으로 첨부되고 있으며 2002년 진성기의『濟州島 禁忌語 硏究辭典』이 있다.

④ 傳說(神話, 說話)

이 부분은 語學 巫俗 등 다른 분야와 연결된다.

1959년 진성기『神話와 傳說』, 1976년 현용준 『濟州島 傳說』등이 있다.

⑤ 地名

지명은 제주방언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국문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주로 방언집 속에 간단히 다루고 있지만, 1970년대 이후 沈汝澤(「濟州島地名硏究」1972), 金洪植(「제주도지방의 지명에 대하여」1978) 등 단독연구가 나온다.

1990년대 이후는 저서(朴用厚,『제주도 옛 땅이름』1992)와 본도 출신 고혜정(「제주도지명연구」1992) 등 제3세대들에 의해 석사논문이 나오기 시작한다. .

2000년대는 특히 오창명이 논문「제주도 지명 연구사」(1993)를 시작으로『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1998),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2004) 등의 저서를 간행하며 가장 많은 업적을 올리고 있다.

나. 民間信仰

연구는 크게 巫俗과 巫歌(說話포함)로 구분된다. 특히 국문학을 전공하는 본토연구가와 본도 출신 학자들의 학위논문에 가장 많은 주제로 설화 전설 무가 굿판 武具를 비롯하여 石像 石具 彌勒 儒敎 祭儀 酺祭까지 매우 넓게 연구되고 있다.

① 巫歌(神話 說話)

제주도 자료만 다룬 무가연구는 단행본 20여권, 논문이 180여건 외에 보고서가 있다.[6)]

연구가로는 가장 많은 연구를 남긴 제1세대로 秦聖麒 玄容駿 張籌根이다. 다음 세대로는 주로 1980년대부터 고광민, 1990년대 문무병 강정식 김헌선 許椿 許南春 현승환이, 2000년대 양영수 한창

6) 제주도, 『濟州道誌』第6卷, 2006, pp. 427~445참조.

훈 등에 의한 연구물이 나온다.

연구 주제는 가장 많이 神話(巫俗과 三姓始祖, 삼신)를 다루고 있으며, 설화와 고대사 및 각기 本풀이가 곁들기도 한다.

특히 1980년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위논문이 본도 출신에 의해 많이 나오고 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高光敏「濟州島 處女堂 본풀이 硏究」(1982), 金東燮「兎山堂 본풀이 硏究」(1989), 강권용「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플이」(2002)등이 있다. 박사학위논문으로 李秀子의「濟州島 巫俗과 神話硏究」(1989), 2002년에는 장정식의「濟州島 堂神본풀이의 傳承과 變異」와 김영숙의「濟州島 一般神本풀이의 神格化 硏究」등이 있다.

1990년대부터는 비교연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양영수의「한국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비교 연구 : 제주도 신화를 중심으로」(1991)와「제주신화와 중국신화의 비교연구」(2000), 김헌선의「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 연구」(2002) 등이다.

한편 이 부분의 상당수가 역사의 古代부분에서 신화(주로 三姓)와 관련한 연구물로 현용준의「三姓神話硏究」(1983)로부터 전경수의「乙那神話와 耽羅國散考」(1992)·허남춘의「三姓神話 一考察」(1992), 장주근의「三姓神話의 形成과 文獻定着過程」(1994)등이 계속된다.

② 굿(巫俗)

제주무속 관련 단행본만도 20여권에 이르며, 논문은 190여건, 보고서 40여건, 이외에 월간지 등에 실린 것은 무수하다.[1)]

著書는 1960년대부터 현용준은『濟州島 무당굿놀이 槪觀』(1965)과 『제주도신화』(1976)·『濟州島 巫俗 硏究』(1986), 진성기의『南國의 巫俗』(1987), 문무병의 『제주도무속신화』(1998), 2000년대 이후는 장주근의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2001)와 『제주도의 무속음악』(2004), 문무병의『제주도의 굿춤』(2005)이 나오고 있다.

논문은 1946년 石宙明의「兎山堂由來記」, 1950년대 張籌根「濟州島 女神考」(1957)등이 있다.

1960년대는 秦聖麒「濟州島巫俗考(심방篇)」(1963), 장주근「濟州島巫俗의 地域性에 대하여」(1964), 玄容駿의「濟州島 巫神의 性格과 神統」(1964)와「濟州島 巫神의 住處」(1965)·「濟州島의 영등굿」(1969), 金泰坤의「濟州島 堂神의 獻納俗考」(1966)등이 있다.

1970년대는 申瓚均「濟州 소놀이굿」과「濟州의 差使靈맞이」(1978), 金泰坤「濟州島 巫俗實態」(1979)가 있다.

1980년대부터 제주사회의 요구에 의해 김성희「濟州道 堂굿의 觀光資源化에 關한 硏究」(1982)등

1) 제주도, 『濟州道誌』 第6卷, 2006, pp. 407 ~ 427참조.

관광 자원화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다.

한편 제주대학 및 관련단체연구도 활발하다. 1985년대부터 91년까지 月刊觀光濟州社에서『月刊 觀光濟州』가 꾸준히 출간되고 있으며, 1986년부터 濟州大學校 國語敎育硏究會에서는 『白鹿語文』등에 현장연구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중요 결과물로는 제주도와 제주전통문화연구소의『제주도 큰굿 자료집』(2001) 등이 있다.

(3) 通過儀禮

一生儀禮로 여기에는 禮와 俗이 함께 共存하며 出産, 婚姻, 喪·祭禮가 포함된다.

연구물로는 濟州道에서 출간한 『濟州의 民俗』 I (1993)통과의례는 김영돈·고광민이 집필하였다 高富子의 연구로 1976년 産前俗과 産後俗, 1977년 育兒俗, 1978년 婚俗, 1990년 喪俗, 禮節로 1987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18책-禮節篇편이 있다.

(4) 歲時風俗과 傳承演戱(민속놀이)

민속놀이는 특별한 게 없으며 近來에 와서 민속예술(民俗樂, 무용, 劇 등)로 조사되고 있다. 1993년 濟州道에서 출간한 『濟州의 民俗』 I 에서 세시풍속은 현용준·문무병, 전승연희는 이기형·현춘식이 집필하였다. 단행본으로는 진성기의『남국의 민속놀이』가 있다.

(5) 民謠

가. 연구경향

1938년 방종현의「제주도의 민요」가 있으며, 1958년 처음으로 음악적 채보를 시도한 자료집으로 진성기의『남국의 민요』와 『제주민요』1·2·3집이 있다. 1960년대는 洪貞杓의『濟州 民謠 解說』(1963)과 김영돈의『濟州道民謠硏究』(上)(1965), 김영삼의『제주도민요해설』(1963), 홍정표의『제주도민요해설』(1963)등이 나왔으나 개론적으로 자료소개, 개념, 범주, 발생, 분류 수준이다.

1970년대 이후 악보화, 1980년대부터는 음반 및 영상화까지 이루어져 보존과 자료의 활용가치가 높아졌으며 배경(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2007년)과 현장(『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변성구, 2007년)연구까지 발전하였으며 최근 한국민요학회를 중심으로 민요학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어 민요연구는 제주민속분야에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는 민속·음악·문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성숙기로 민요의 위상을 정립한 연구가 많이 나온다. 좌혜경의「제주도 민요의 서술체 구성에 관한 고찰」(1991)과「제주도민요 사설에 드러난 통합성」(1992), 강영봉의「제주민요의 몇 어휘」(1993), 고재환의「제주도속담과 민요사의 상관성」(1995), 1992년 梁永子의「濟州民謠 시집살이 노래 硏究」(1992) 등 매우 다양하다.

1992년 문화방송에서 171곡의 음반과 함께 내놓은『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은 총체론적인 민요자료집이다. 그 외 제주대학교에서는『제주도부락지』(1989~.『국문학보』(1992).『백록어문』(1991~2001) 등으로 연구소와 학과 연구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00년대는 양영자「제주민요의 표현 특질 고」(2002) 좌혜경의 제주민요 가창자론」(2003) 등 민요의 존재양상과 원리까지 세분연구가 나온다. 특히 조영배는 1992년『제주도민속음악』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음악부문에 5여건을 출판하며, 좌혜경의『한국·제주·오끼나와 민요와 민속론』(2000) 등 주변나라와의 비교 연구도 나온다.

나. 노동요

1970년대부터 지역학자들에 의해 시작하여 1980년~90년대는 노동요 연구의 전승기로 김영돈의 박사학위논문「제주도 연자매와 그 민요 연구」(1882)와 석사논문으로 조영배의「제주도 노동요의 음조직과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1984)외에 강성균 변성구 한승훈 변성구 김도훈 등에 의해 김매기 노래, 서우젯소리, 맷돌노래 등이 여러 방면으로 분석연구 된다.

특히 김영돈은 노동요 외에「해녀노래와 해녀」(1977)를 시작으로 해녀노래에 일가견을 이룬다. 이외에 진성기의「제주도 민요에 보이는 여인상: 특히 해녀노래를 중심으로」(1960), 변성구의「해녀노래의 사설유형 분석」(1993), 2000년대는 양영자의「해녀노래의 표현형식 고찰」, 이성훈의「〈해녀노젓는 노래〉의 현장론적 연구」등이 나온다. 저서로는 '해녀'에 대한 현장과 역사적 배경 등을 문학적 집약한 조규익 외,『제주도 해녀 노 젓는 소리의 본토 전승양상에 관한 조사·연구』(2005)가 있다.

다. 儀式과 遊戲謠

석사논문으로 윤치부의「제주도 자장가 연구」(1985)와 강문유의「제주도 상여노래 연구」(1990) 등이 있다.

라. 童謠

좌혜경은 1985년 석사학위 논문「제주 전승 동요 연구」를 기반으로 1993년『제주전래동요사전』을 낸다.

마. 국가주도사업

1982년『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에 농악·풍어제·민요편이 나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1980년부터 3년 동안 제주도 3곳을 나누어 현장론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기술한『한국구비문학대계』와, 1984에는『한국의 민속음악』제주도민요 편에는 220여곡을 채보·수록하였다.

(6) 민속공예

冠帽·甕器·草藁·石工藝로 나눈다. ,

가. 관모

이 분야는 주로 국가주도에 의해 연구된 것들이 많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무형문화재조사보고』를 위한 연구로 1967년과 1973~4년에는 「민간공예」 또는 「민속공예」,1980년대는 갓일 탕건장 망건장 등을 김영돈, 이종석, 김종태가 조사하고 집필했다.

나. 옹기

주로 강창언이 「제주도요지조사보고」(1994) 등이 조사 연구하였다.

학위논문으로 김미영「제주도 허벅에 관한 연구」(1983), 양재심의「제주도 옹기에 관한 연구」(1997)가 있다.

(7)生業技術

1973년『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에 진성기와 김영돈이「狩獵」과「漁業」을 집필하였다. 1990년대 이후 農事와 漁撈·牧畜技術과 道(器)具에 대한 연구가 고광민(「영평동 생업기술」 등)과 1997년 金東燮의「濟州道의 農器具」, 2002년 박사학위논문「제주도 전래농기구연구」,양재심의 -죽(竹)공예를 중심으로 한-「제주의 민구류(民具類)」(1994)등이 나온다. 특히 생업기술과 공예기술로『濟州의 民俗』II(1994. 濟州道)에 김영돈 문무병 고광민 김순이가 철저한 현장연구자료로 집필하였다.

(8) 衣生活

1970년대 이후 국가주도와 제주도 출신들이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한 민속학적 연구로 학위논문을 내면서 시작되는데, 연구범위는 一生儀禮服 勞動服 織造 등 기본 연구에 국한하고 있다. 제주의 민속의생활 연구는 연구자도 적고 아직 이에 대한 단독 저서도 없으나, 연구는 타지방에 비해 많은 편이다.

가. 官主導 硏究誌(報告書)

高富子가 1973·1996·2006년에 濟州道와, 1974년과 1986년에는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2005년에는 제주시50년사편찬위원회와 제주시에서 주도한 조사보고서에 의생활편을 집필하였다. 1996년 濟州道에서 발간한『濟州의 民俗』IV의 의생활편에는 日常服을 고부자, 海女服을 김정숙, 牧者服을 김의숙이 집필하였다.

나. 학위논문

제주의생활의 전반을 다룬 것은 1971년 高富子의 석사학위논문「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硏究」

와 박사논문「濟州島 衣生活의 民俗學的 硏究」(1994)가 있다. 부분적인 연구는 1977년 玄惠景의 海女服과 農民服(갈옷), 1980년 高富子의 通過儀禮服, 1989년 김정숙의 海女服, 1990년 부애진의 갈옷과 海女服 製作技法, 1991년 金義淑의 牧者服이 있다.

다. 기타

학회지나 기관지에 高富子의 연구로 1975년부터 시작하여 호상옷(1984), 1985년 喪禮服(1985), 여인의 속옷 연구(1986), 出生儀禮服과 그에 나타난 意識(1988), 帽子(1991), 傳統織物(1996), 2000년 耽羅巡歷圖에 나타난 服飾 등이 있다.

(9) 食生活

1980년대 이후 日常食과 의례음식 및 用具까지 관주도와 개인 연구물이 나온다.

개인 저서로 진성기의『남국의 향토음식』(1987), 고양숙 외『제주도의 식생활』(1995), 김지순의『제주도음식』(1998)과 『제주도 음식문화』(2001), 고정삼의 『제주의 술』(2003) 등이 있다. 그 외에 『제주전통음식』(1995, 제주도농촌진흥원),『濟州道의 食生活用具』(1989. 제주대 박물관), 1979『제주도의 民俗酒』,『濟州道의 食生活』(199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등의 연구물이 주목된다.

가. 관주도 연구지(報告書)

1974년 황혜성이「濟州地方의 食生活」을(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第5冊 : 濟州道篇), 홍양자의「食」(1973.『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과 1993년 홍양자와 1996년 고부자가「식생활」을 정리하였다. 『濟州의 民俗』Ⅳ(1996. 濟州道)의 식생활편에 일상음식은 홍양자, 저장음식과 특별음식은 고양숙, 음례음식과 祭酒는 장홍종, 부엌세간과 구황음식은 김순이가 집필하였다.

나. 학위(석사)논문

1976년 張愛沈「濟州島 巫俗祭 祭物의 民俗學的 硏究」를 시작으로 이상아의「제주지역의 향토음식과 식생활용구에 관한 연구」(1997), 이정희의「제주도 향토음식에 관한 연구」(1995)가 있다.

다. 기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연구물로 김기남·모수미,「제주지역의 식품금기에 관한 연구」(1977), 정경자「제주향토음식의 이모저모」(1981), 1990년에는 張愛沈「濟州島의 通過儀禮飮食」(1990)과, 양인선·황춘선「제주도향토음식에 관한 대학생의 인지도 및 기호도 조사연구 」, 홍양자의「제주지역 식생활 형태에 관한 연구」(1993), 김지순의「제주지역의 혼례음식문화」(1997) 등이 있다.

(10) 住生活

제주가옥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석사학위논문 등 건축전문학자에 의해 시작된다.

특히 김홍식은 주택「제주도민가 3동」(1970, 71년『중요민속자료지정보고서』문화재관리국) 이후 1980년대 이후『성읍민속마을 기본 및 육성기본계획』(1980)과「성읍리 공간 구성의 연구」(1984)을 비롯하여「제주인의 우주관과 공간미학」(1996) 등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한편 신석하는 연구 주제를 民家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제주도 민가의 구조부재 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1987.석사학위)「초석과 기둥연구」(1990),「제주의 민가」(1994) 외에「제주의 건축문화」(2001) 등이 있다.

석사학위논문으로 강항생의「안·팎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1985), 양택훈「제주도 주거건축의 변천과정에 대한 조사연구」(1988), 김영식「제주주택의 생활공간과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1996) 등이 나온다. 최재권은 2002년 박사학위로「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를 냈다.

1980년대는 조성기의「한국 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1983)와, 이창기「제주도 가옥의 크기」(1987)가 있다.

1990년대에는 생활문화사적인 측면의 연구까지 나온다. 정영철과 이혜성이「무속의례를 통해 본 제주도 전통주거의 공간구조 및 의미에 관한 연구」(1991), 이희봉과 송병헌의「부엌구조와 생활의 대응을 바탕으로 한 제주도 민가유형의 문화지역적 해석」(1999) 등을 연구했다.

1996년『濟州의 民俗』Ⅳ(濟州道)의 주생활편은 김홍식이「제주의 마을 및 주거공간에 대한 조사연구」를,「민가」는 김석윤과 신석하가 집필하였다.

3) 文化財

제주에는 특수한 환경에 따라 無形문화재와 民俗資料가 많다(표 2[8] 참조). 이 자료들은 제주민속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무형문화재전수기능자 양성 및 활동공간으로 2004년 3월 사라봉에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을 건립하였다.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는 국가와 道指定으로 구분된다.

---

8) 제주도,『濟州道誌』第7卷, 2006, pp. 1057~1150참조.

[표 2] 지정문화재 및 민속자료 현황

<table>
<tr><th colspan="4">구분</th><th>건수
(보유자)</th></tr>
<tr><td rowspan="2">무형
문화재</td><td>국가지정</td><td colspan="2">갓일, 탕건장, 제주 칠머리당굿, 제주민요, 망건장</td><td>5</td></tr>
<tr><td>도지정</td><td colspan="2">해녀노래, 영감놀이, 송당리마을제, 납읍리마을제, 덕수리불미공예, 성읍민속마을, 오매기술, 고소리술, 방앗돌굴리는노래, 정동벌립장, 멸치후리는 노래, 고분양태, 큰굿, 제주도 허벅장, 제주불교의식, 제주농요, 진사대</td><td>16</td></tr>
<tr><td rowspan="5">민속
자료</td><td rowspan="3">국가지정</td><td>가옥</td><td>성읍 조일훈가옥, 성읍 고평오가옥, 성읍 이영숙가옥, 성읍 한봉일가옥, 성읍 고상은가옥</td><td rowspan="3">10</td></tr>
<tr><td>방아</td><td>연자마, 잣동네 말방아, 당거리동네 말방아</td></tr>
<tr><td>기타</td><td>성읍 민속마을, 무신도</td></tr>
<tr><td rowspan="3">도지정</td><td rowspan="2">가옥</td><td>초가</td><td>조규창가옥, 오경호가옥, 문시행 가옥, 강운봉 가옥, 양금석 가옥, 송종선 가옥</td><td rowspan="3">32</td></tr>
<tr><td>와가</td><td>김석윤가옥, 황인관 가옥, 조규창 가옥</td></tr>
<tr><td>방사탑</td><td colspan="2">방사탑, 몰래마을 방사탑 1·2호, 골왓마을 방사탑 1~5호, 용수리마을 방사탑 1.2호, 신흥리 방사탑 1.2호, 무릉리 방사탑 1~4호, 안성리방사탑1.2호</td></tr>
<tr><td colspan="2">기타</td><td colspan="2">福神彌勒(2기), 童資福, 西資福, 돌하르방(45기), 남방아, 상여</td></tr>
</table>

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국가지정 5인이며, 도지정은 15인이 된다.

민속자료에서 국가지정은 가옥, 생산도구로 연자마와 말방아가 있다. 가옥은 성읍에 5건이며, 개별로 성읍민속마을과 무신도가 있다.

나. 민속자료

가옥과 방사탑, 신앙, 기타자료로 나뉜다.

가옥에는 草家(5)와 瓦家(3), 방사탑(18), 신앙(3), 돌하르방(1)과 남방아와 喪輿가 각 1건이다.

4. 과제

1)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제주민속은 분명히 다르다. 땅과, 역사가 다르다. 따라서 살아온 삶의 흔적이나 모양도 다를 수밖에 없다. 요즘은 모두들 '제주 말[言語], 풍속, 자연들이 보배' 라고 하여 뜨고(?) 있다. 그러나 이는 絶海孤島에 三災(風, 水, 旱)를 안은 자연환경과, 이에 못지않은 人災까지 겪으면서도 지켜온 것에 대한 매우 작은 보상에 불과하다. 二重國籍人, 出陸禁止, 4·3사건 등 험난한 것들에 도전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순응하고 체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남다른 아픈 이야깃거리들이 많기에 그 값어치는 더 큰 것이다. 그 바탕에 담겨진 것들의 本質은 무엇이며, 왜 그런 것들을 깔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이것들을 바로 알아야 요즘 나온 새로운 말들 섬[島]문화 耽羅學 濟州學이 해결될 것이고, 이 땅을 애타게 살면서 물려준 조상들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三姓神話로 시작된 제주는 수많은 역경을 바탕으로 하는 神話와 說話의 天國이 되고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자리잡았다. 그 후 三國時代에 들면 隷屬과 從屬관계를 거치다가 耽羅國期를 잃은 뒤 高麗 末에는 元宗 14년(1273)부터 약 100여 년 동안 元[蒙古]과 고려 두 나라 사이에서 세금내고 부역을 담당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朝鮮시대에는 仁祖 7년(1629)부터 純祖 34년(1834)까지 200여간 出陸을 禁止 당한다.

무엇보다 집과 사람, 그리고 美風良俗까지 송두리째 빼앗긴 것은 1948년의 4·3사건과 1950년 한국전쟁(6·25사변)때 피난민들의 流入이다. 이는 제주 근대사에 뼈아픈 상처이며 손실이다. 더구나 5·16혁명이후 새마을운동으로 몇백년 이어온 초가의 지붕을 걷어내고 양철을 덮으면서 편리함보다는 寒暑가늠의 기능을 상실한 주거환경, 바람막이에 경계를 가늠했던 돌담을 같은 높이로 맞추고, 또 1969년 이후 제정된 家庭儀禮準則[9] 등은 더 이상 濟州風은 소생할 수 없게 원형을 잃으면서, '濟州로 남아 濟州다 울 수' 만은 없게 되고 말았다.

이제 내 것 찾고 지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러나 아픔이 컸었기에 삶의 흔적이,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연구에 대한 虛와 實를 반성하고, 남은 것이라도 바르게 찾고, 제3세대에게 바르게 가도록 試金石이 되어야 할 때다.

---

9) cf. 가정의례준칙은 1973년에는 강제규정을 내리고 1975년과 1985년 1988년에 일부 개정되며. 1999년에는 健全家庭儀禮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고 1999년 8월31일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이 반포되었다.

2) 준비되었는가?

문제를 던져본다.

넓게는 나라이고, 좁게는 가정과 내 문제이다.

제주는 80년대 들면서 이 보배들 덕에 '觀光濟州'라는 환상에 부풀어 있다.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2006년에는 '特別自治道'라는 큰 선물까지 받았다. 제주특별법, 英語公用化, 세계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도 없이 덜컥 얹어졌다. 이것들 좋아하고 추종하다가 無國籍人, 植民化가 되는 게 아닌지. 東北工程, 獨島…. 어쩌다 이 꼴을 당하게 된 건지.

忠과 孝를 삶의 德目으로 삼던 儒敎倫理속의 전통 삶이 官主導의 體制교육 즉 신식·서양교육, 외래종교의 틀이 굳어짐에 따라 민속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은 空洞化가 되고 말았다. 요즘은 나나 젊은 이들이나 우리 것 귀한 줄 모르고, 위도 섬길 줄 모른다. 倫理道德이 하루가 다르게 타락해 가고 있는 이 亂世에 나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미래를 위한 학술교류, 비교연구, 자료에 대한 신뢰성 높은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내야 할 것이다. 민속은 외형보다 속에 담겨진 속내를 찾아서 전통사회의 의미를 규명함에 그 값을 더 할 수 있다.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도 濟州가 덜 정화되고 덜 세련된 邊防의 것이라는 피해의식, 그래서 숨기고 싶은 하급문화였다는 妄靈이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지나 않는지 되돌아볼 때다.

3) 급하지 않은가?

오늘 제주의 민속을 논하면서 앞을 내다 봐야하는 현실에 대한 해석은 각지 나름대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하나는 내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땅은 물론 조상도, 후손도 잃을 것이라는 것은 동감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계화다, 글로벌화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갑자기 대학생들 사이에는 어학연수나 목적없는 유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현재 '도시민속학'이다, '현대민속학'이다 하여 오늘 것들도 중요하니 연구해야한다 한다. 물론 좋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발 물러서서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오늘 것들은 매스컴(영상) 서적 사진 기록화물로 많이 저장되고 있다. 더 급한 게 많기 때문에 현대의 것은 후손들이 해도 될게 아닌가?

뒤돌아보자. 바로 어머니 시절 것들 중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일반 가정은 물론 가문이나 그 지역 것들이 왜곡되고 제 맛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민속연구는 문헌연구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발로 뛰어 현장에서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

은 그것들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밑바닥 자료들이 나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옷을 찾아 맞게 입히는 작업이 절실할 때이다. 지금 성급히 벌이는 행사들(축제 포함)이 연속성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진솔하게 파고들지 못함은 무엇을 의미함일까. 서울, 일본, 하와이 것을 제주에 갖다 놓으니 될 리가 없다.

4) 분별 못하는 무지(식민지 근성?)

전통은 생명력이다. 이것들은 외부 반응을 살펴야하는 대외적인 관계보다는 民(백성)속에서 살아남은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있다가 사라지는 유행이 아니다. 쓸모있는 것이었기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기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부둥켜안고 지켰기때문에 살아남고 이어진 것이다.

日帝强占期에는 그들의 계획적인 말살정책에 의해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무지로 버린 것은 없는지. 혹은 찾았다는 것들이 제 맛과 본질(핵심)을 빼버린 것들을 안고 내 것인줄 잘못 알고 있지나 않는지 반성해볼 때다. 실제로 학자들에 의해 검증·고증 받았다는 TV 등 매체들은 가관이다. 예로 들자면 고증을 받았다는 어느 방송사의 특집프로에서 喪主들의 喪服을 모두 玉洋木 옷을 입고 있었다. 더구나 요즘 여자 상주들은 검정색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다. 검정 상복은 일본식이고, 일본은 서양 것을 쫓은 것이다. 아직도 그 나라들이 바라는 식민지 망령이 남아있는 셈이다.

5)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화, 세계화는 내 것을 지킴에 있다. 누군가 희생해야하고,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거리 네 가지를 제안한다.

(1) 연구성과물 점검

요즘 전통을 찾고 알리기 작업이 유행이다. 국가나 地自制의 지원으로 많은 연구와 발간을 하고 있다. 2~30년 전 만해도 어림도 없는 일이다. 너무 많아서 탈은 아닌가. 제대로 잘 쓰고 있는가. 순수한 자료 발굴이나 바로 세우고 보이기가 아니라 이걸 미끼로 해서 뭔가 이익이 되는 것을 해보자는 의도는 없는지, 일회용이거나 재탕은 아닌지 점검해볼 때다.

(2) 제주전통공연(축제) 및 설치물 점검.

가. 첫째 공연(축제)거리

농악, 사물놀이 등 정처 없이 흘러 들어온 것들. 이게 제주와 緣이 있는 것들이던가? 제

주 조상들은 삶이 각박하여 敬·弔事 때 "먹씰일(먹고 쓰던-扶助-일)"에나 얼굴보고 모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야말로 조상 적에 보도 듣도 못했던 판이 벌어지고 있다.

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99년 한국민속예술축제로 변경)

전국에 산재하는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창설한 문화예술제이다. 1958년 제 1회 시작으로 2007년 10월 현재 제 48회 개최예정이다. 제주는 제1회부터 참가하였으며 몇 차례 불참도 있었으나 국무총리상과 대통령상(8회 영감놀이, 21회 방앗돌굴리는노래, 31회 서우젯소리·요왕맞이굿놀이)을 각 3번씩 받았다. 이리 거창한 일들하며 살았나?

② 제주세계섬문화축제

1998년 5월에 25개국, 28개섬, 870명이 참가했다한다. 2001년 2회 대회로 중단되고 말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점검 해야 할 일이다.

③ 문화예술축제

금년으로 제46회를 맞는 탐라문화제는 10월5일부터 6일간 계획되었다. 일정에 '제주어축제부분'으로 말하기, 가요, 연극도 있다. 무형문화제(무형, 유형)도 국가지정 9개종목 중 5개는 초대를 할 것이다.

한라문화제도 있다. 축제와 함께 제주도문제심포지움도 한다. 2001년 4월 제주도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지원하며 문화창달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현재 제주민요를 전승하는 주체들은 국악단 중심의 전문소리패들이며 테이프나 음반을 통해서 전수 받고 있다. 무대 위에서 노동과 삶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가창유희로 흐르고 있다. 제주민요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

나. 설치물

어디를 가나 그게 그것인 돌하르방, 물허벅을 짊어진 어머니 상. 적어도 돌하르방은 城안, 정의, 大靜의 맛이 나야 하지 않겠는가. 어설픈 제주 것이라 하는 것들. 없으면 안되나? 사방에 보이는 것들 그대로 족하지 않은가?

건물이나 공원 등에 이름 있는 작가 것이라 하여 버티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들. 우리 풍광과 너무나 동 떨어 진 것, '섬뜩한 흉물거리' 들이다.

(3) 사람 키우기

교육문제는 비단 제주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이는 행정당국과 교육기관의 의무사항이다. 각 지방사, 특히 제주에는 제주사를 교과목에 필수로 넣어 관심을 가지고 익히게 해야 한다. 일본은 매우 잘하고 있다. 특히 功勞로 주는 濟州道文化賞 만이 아니라, 학생의

연구물도 주시하여 싹을 키워야 할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민속의 보고' 라는 제주에 민속학전문 대학은 물론 학과도 없다. 특히 관광으로 먹어 살아야 할 제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될까? 조상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지금 이 마당에 와서 어쩔 것이라는 것들이 너무 많다. 돌이킬 수 없다고 하겠지만 '해녀, 갈옷, 비바리… 등이다. '비바리' 를 단순히 '제주처녀' 라고 알고 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매우 불쾌했다.

도민 모두가 관광자원이 되도록 한다. 제주민속연구자는 제주사람과 他地方사람으로 나뉜다. 외부사람이나 여럿이 하면 넓은 시각, 비교연구에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킴이는 제주사람이 많이 하면 좋을 것이다. 언어, 거리, 시간 등이 장애요인 없어 좋고 내 것이라 더 맘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4) 도무형문화재 양성

2004년 도무형문화재 전수기능자 양성 및 활동공간으로 전수회관을 열었다. 기능은 생활을 통해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수업시간을 통해 접근하도록 制度敎育으로 함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일반 제도로는 부족하다. 특정 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요즘 별일이 아닌데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5) 주인 의식

제주 말[言語]은 제주 말로 존재해야한다. 조선시대 서울말 표준어가 남아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섬밖에 나가면 제주사람 행세 못했다. 적어도 육지의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과도 다른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제주사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1960년대 초 필자가 경상도에서 초등학교 교원발령을 받은 때, 제주도 사람이라 하니 자기 아이 담임시키지 말라고 학부형이 들고나서니 할 수 없이 교장선생님 딸이 있는 반으로 배정했다.

몇 해 전부터 제주에서 사투리대회를 열고 있고 금년에도 道 행사 중에 공고가 나 있다. 어디서, 어디 말이 사투리란 말인가.

정말 제주의 주인이 많다. 적어도 민속분야(물론 타 분야도 같지만) 연구자는 모두 주인인 셈이다. 좀 더『제주의 마을』과 같은 작지만 알찬 연구를 할 주인도 필요하다. 이 책은 1985년 '섬의 머리마을 道頭里' 를 첫 출간하고, 2003년에는 17번째로 '44개 섬이 물위에 뜬 楸子島' 를 낸 다음 잠시 중지되었다. 발행인 오성찬은 "제주마을의 역사와 전설, 신앙, 민요, 지명 등 생생한 삶의 자취가 이 책 안에 수록돼 있다 이미 향토지를 냈거나 계획 중인 마을을 제외하고 50권 발간할 계획

이다. 王朝史 중심의 역사는 반드시 다시 쓰여져야 한다" 고 하였다.

5. 맺음

본 고에서는 日帝强占期부터 현재까지 한국민속연구와 제주민속연구의 자취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일제강점기는 日帝가 식민화의 기초자료를 수집으로 朝鮮總督府 주관 또는 주로 日人에 의한 것들이다. 한국사람들에 의한 연구는 1930년대 시작되지만 매우 미약하다.

해방 후 제주민속연구는 方言, 巫俗, 民謠 등을 시작으로 주로 濟州의 국문학자 및 향토연구가들 중심으로 첫 단계인 자료수집 수준에서 '제1세대연구기' 를 거친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각 분야에 본도 출신 제2세대들에 의해 학위논문 등이 나오면서 특히 언어와 민간신앙 부문에는 세분화하면서 연구의 틀이 세워진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는 어학이나 무속 등 일부는 성숙기에 접어들고, 2000년대 이후는 분석 비교연구 및 國策과 특히 道政에 직접 관련된 관광화 개발 응용부분까지 제안과 함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민요부분은 최근에 자료채집과 정리는 개인과 여러 단체에 의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2007년도에 문헌해제와 연구사가 정리되어서 다른 부분을 재조명해 보는 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료수집 초기단계에 머무르는 분야가 많다.

제주에는 자연과 함께 산 삶 속의 모든 것들 중에 아직도 지나쳐 버린 것이 많다.

흔히 자기 것은 보고 살면서 그냥 익혀진 것들, 또 무뎌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좋음과 아까움을 모른다. 이에 하루 다르게 변화무쌍해지는 현대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전통을 찾아 바르게 채워야 한다. 서툴게, 틀리게는 말아야한다. 적어도 30년 후에 변화된 현장까지 확인하면서 낸『濟州島』(泉靖一.1966년)나, 중단된『제주의 마을』같은 연구물들이 나와야 하겠다. 20~30년 뒤 다시 현장을 찾아가서 변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솔한 연구자세, 앞을 내다보고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임무와 사명감을 동감할 수 있는 일들에 눈을 돌리자.

印度의 故 인디라 간디 여사는 그들의 전통 옷을 벗은 적이 없다. 그를 통해서 세계사람들은 인도의 옷을 알았다. 가까운 나라나 중국을 보자. 중국에는 몇천년 써오던 그들의 문자를 편한 말로 바꾼 백화문으로 쓰고 있다. 일본사람들이 쓰고 말하는 외래어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 외에는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고치질 않는다. 따라오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日帝로부터 해방된 지 60여 년이나 흘렀는데도 일본식 말 "빵구, 테레비, 미싱…" 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웬 바람인지 국내 잔치마당이나 학술회의·연구에도 國籍모르는 외국말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외국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말이다. 심지어 우리것, 우리잔치 잔치, 민속연구까지에도 버젓이 틀어 앉혀놓고 있다. 제대로 알고나 쓰는 건지?

본 발표거리를 준비하면서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는 말을 깨달았다. 제주민속연구는 제주사람들이 맡은 세월만도 환갑을 넘겼는데 '그것들을 다루어 보겠다' 고 했던 대담한 無智가 부끄럽다. 다행히 민요부분은 2007년 최근에 문헌해제와 연구사가 정리되어서 다른 부분을 재조명해 보는 本이 될 것이다. 다른 부분도 擧道的으로 연구의 場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이기문의 글(『국어의 현실과 이상』 1997) '제주방언을 살립시다' 로 마친다.

"제주방언은 국보다. 제주도민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제주도민은 모두 국보적인 존재이자, 국보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책임이 막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방언의 본래의 모습을 잃게되면 국보를 손상시켰을 죄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제주 사람 말[言語]의 실상 한가지.

10代 제주도 학생이 서울에 와서 바지를 사 입으며 한 말이다. "기지가 따 요".

참고문헌

강대원,『해녀연구』개정판, 한진문화사, 1973.

국사편찬위원회,「민속과 의·식·주」,『韓國史論』29 -한국사연구의 회고와 전망Ⅶ-, 1999.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편,『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第17册 (衣生活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1986

_____,『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第5册 (濟州島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李杜鉉·張籌根·李光奎 共著,『韓國民俗學槪說』 民衆書館, 1974,

濟州道,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1973.

_____, 『濟州道誌』第6卷, 濟州道, 2006.

_____, 『濟州道誌』第7卷, 濟州道, 2006.

_____, 『濟州의 民俗』 Ⅰ-歲時風俗·通過儀禮·傳承演戱 -, 濟州道, 1993.

_____, 『濟州의 民俗』 II-生業技術·工藝技術-, 濟州道, 1994.

_____, 『濟州의 民俗』 Ⅲ-說話·民謠·俗談-, 濟州道, 1995.

_____, 『濟州의 民俗』 Ⅳ-衣生活·食生活·住生活-, 濟州道, 1996.

_____, 『濟州의 民俗』 Ⅴ-민간신앙·사회구조-, 濟州道, 1997.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제주 정신문화의 본(本)이 되는 무속신화

문 무 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제주 정신문화의 본(本)이 되는 무속신화

문무병(탐라교육원 교육연구사)

1. 신화의 원의미와 창조적 재해석

가. 제주도를 만든 창조주 설문대할망 이야기

문제 1《슬픔을 바탕에 깔고 있는 해학-설문대할망 콤플렉스》

설문대할망이 만든 땅, 탐라국의 창조신화가 제시하는 미학적 과제는 〈설문대할망 콤플렉스〉다. 〈설문대할망 콤플렉스〉는 작은 나라[耽羅]가 지닌 물자의 결핍, 모자람을 가득 채워주는 탐라인[人間]의 꿈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큰 여신[神]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이다.

설문대할망의 아름다움은 상상할 수는 있지만 볼 수 없는 아름다움, 넉넉하고 충만하고 완숙한 아름다움이다. 너무 커서 제주 사람들이 이를 수 없는 끝없는 미지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슬프다. 슬픔을 바탕에 깔고 있는 해학이 설문대할망 콤플렉스의 시작이다. 아름답지만 너무 큰 할망을 그려보면, 슬프고 처량하고 쓸쓸해서 어색하다. 엉덩이를 백록담에 붙여 앉아 한쪽 발은 지귀섬에 딛고, 한쪽 발을 관탈섬을 딛고, 소섬을 빨래판 삼아 빨래하는 할망, 너무 커서 볼 수 없는 할망의 소리, 바람 소리, 폭풍우 몰아치는 소릴 들을 수 없으니, 저승보다 멀리 전화라도 걸고픈 **불균형의 해학미**를 제주사람의 한계, 〈설문대할망 콤플렉스라〉라 정의 한다.

문제 2 설문대할망의 지혜를 망각한 탐라인에 내린 하늘의 심판-태풍 '나리'가 말하는 문화의 수수께끼

나. 천지창조신화 〈천지왕본풀이〉, —미륵의 시대와 석가의 시대—

문제 3《갑가르는 일, 이승을 다스리는 맑고 공정한 저승법》

문제 4 후천개벽을 말하는 미륵과 태상노군 해월선님의 지하운

천지창조는 무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며, 갑가르는 일이다. 낮과 밤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공간으로 만드는 일. 귀신과 생인, 이승과 저승을 '갑가르는' 법이다. 태초에 천지는 혼돈(混沌)이었다. 하늘 머리가 자방으로 열리고, 땅의 머리가 축방으로 열려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생겼다. 이때 하늘에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수되어 음양상통으로 만물이 생겨났

다.

천지혼합[暗黑]→천지개벽[開闢]
대별왕의 번성꽃←소별왕의 검뉴울꽃(이울어 가는 꽃)

굿의 원리는 저승의 맑고 공정한 법으로 이승의 무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다.

다. 고대 탐라의 신시(神市) '웃손당[송당리] 당오름 백주할망당'

문제 5 신과 인간이 함께한 신시 '고대의 송당 당오름 축제' 의 의미
문제 6 신화의 공간과 역사의 공간이 공존하는 신당의 메카[聖地] 송당리

고대 탐라국의 신시(神市)는 구좌읍 송당리 당오름 자락에 있는 〈웃손당 금백주할망당〉이다. 제주 중산간의 축제는 한라산에서 솟아난 천지창조의 신 창조주 〈설문대할망〉의 아들 500장군, 장수신으로 태어나 '밥도 장군, 떡도 장군, 술도 장군, 힘도 장군' 이라는 한라산의 산신(山神) '하로산또' 들이 한라산을 떠돌며 대각록(큰뿔 사슴)·소각록(작은뿔 사슴)을 사냥하던 옛날의 조상들을 기리는 산신제(사냥제)이며, 그리고 이들 오백이나 되는 한라산의 신들 중에 마을에 내려와 최초의 당신이 되었다는 송당리 알손당에 자리를 잡은 산신(山神) 〈소로소천국〉을 기리는 사냥제, 제주 자왈곳(가시덤불) 돌밭에 뿌리는 바람의 축제다,

2. 제주도의 굿과 신화는 제주인의 꿈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상세계다.

가. 아이의 굿[청소년축제] 〈불도맞이〉와 ―삼승할망 콤플렉스

아이를 받는 삼승할망은 번성·생명꽃·환생꽃을 차지하고, 아이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할망[1]은 수래멸망악심꽃을 차지한 〈꽃가꾸기 경쟁〉

문제 7《해학-아름다움의 변용-저승할망(흑-초라함)삼승할망(백-당당함) -불도할망 콤플렉스》

〈삼승할망 본풀이〉에는 두 미인이 등장한다. 하늘옥황 명진국 따님아기와 동해용왕 따님아기다. 두 미인의 싸움은 아름다움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즉 어머니의 태속에서 아이

1) 구삼싱할망, 구불법, 구할망이라 부르는 아이를 15세가 되기 전에 저승으로 데려가는 여신.

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 해산의 능력을 지녀야 생불왕[삼승할망]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미인은 서로 생불왕[2][삼승할망]이라 우기며 싸웠다. 두 처녀는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등장을 들었다. 옥황상제는 꽃씨 두 방울을 내주며 서천서역국 모래밭에 꽃씨를 심고 꽃이 번성하는 대로 생불왕을 구별하라 하였다. 동해용왕 따님의 꽃은 뿌리도 하나요, 가지도 하나요, 순도 겨우 하나 돋아 이울어 가는 꽃인데, 명진국 따님의 꽃은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는 4만 5천 6백 가지로 번성하고 있었다. 명진국의 따님은 옥황상제에게 물었다. "옥황상제님아, 미혹한 이 소녀가 어찌 아기를 낳게 합니까?" "아기 어머니 늦은 뼈 빳빳하게 하고, 빳빳한 뼈는 늦추어 음문(陰門)으로 해복시켜라" 그리하여 명진국 따님은 아이를 받는 능력을 배워 삼승할망(=생불왕)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동해 용왕 따님은 죽은 아이의 영혼을 차지한 저승할망(=구삼싱할망)이 되었다.

나. 아름다은 미녀 농경신 자청비 콤플렉스

문제 8 : 농경신 자청비는 미모, 남성을 능가하는 문장, 비단 짜는 솜씨, 수수께끼를 푸는 지혜, 위기를 넘기는 기지, 방랑벽, 양성적 성격, 야성을 어르고 달래는 모성, 사랑의 관용, 정력, 무용, 사랑과 낭만과 열정을 지닌 탐라여성여웅이다.

옛날 김진국 부부는 백일동안 불공을 드려 귀한 여자 아이를 얻었다. 딸 아이 이름은 부처님에게 '자청하여 낳은 자식' 이라 '자청비' 라 하였다. 문도령은 자청비와 겨루면 2등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자청비 콤플렉스다. 오줌 갈기기 내기를 생각해 내었다. 문도령이 오줌을 갈기니 여섯 발 반이나 갈기고는 뽐낸다. 자청비는 대 막대기를 잘라 바지가랑이에 넣고 힘을 써 오줌을 갈기니 열두 발 반이나 나갔다. 정력도 힘도 자청비를 이길 수 없었다. 이때 하늘에서 공부를 그만두고 돌아와 장가를 들라는 편지가 왔다. 둘은 귀향길에 주천강 연못에 이르렀다. 자청비는 남자를 옆에 두고 허송한 3년의 쌓인 한, 물에 씻고 가자며 위쪽 물통으로 들어갔고, 문도령은 아래 물통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였다. 자청비는 버드나무 잎을 뜯어 편지를 썼다. "멍청한 문도령아. 삼년을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도 남녀 구별도 못하는 성(sex)의 백치, 눈치 모른 문도령아" 라는 글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편지를 본 문도령은 황급히 옷을 꿰어 입고 자청비를 쫓아갔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맞아 자기 방 병풍 뒤에 숨겨놓고 운우지정을 나누고 한 이불 속에서 연 삼년 애태우던 사랑을 풀었다. 문도령은 박씨 한 알과 얼레빗 반쪽을 꺾어 자청비에게 주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자청비는 박씨를 심었다. 그러나 박이 익어 가도 문도령은 돌아올 줄을 몰랐다. 그리고 자청비

2) 생불은 아이, 생불왕은 아이를 어머니 몸에서 받는 산신(産神)으로 생불할망, 삼승할망, 불도할망이라고도 한다.

는 몸을 지키기도 힘들었다. 남종 정수남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희롱하며 덤벼들었다. 정수남이가 야수처럼 할딱거리며 달려들려 때마다 부드러운 소리로 달래었다. "정수남아, 화만 내지 말고 내 무릎을 베어 누어라. 머리엣 이나 잡아 주마." 정수남이는 지청비의 은결 같은 무릎을 베고 누웠다. 정수남이는 그만 잠에 빠지고 말았다. 자청비는 이때다 하고 청미래덩굴을 꺾어 정수남이의 왼쪽 귀로 오른쪽 귀에 찔러 죽였다.

정수남이를 죽인 자청비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나다. 도중에 신선들이 바둑을 두며 피로 부정해진 자청비를 욕한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으로 말을 달렸다. 서천꽃밭에는 꽃을 지키는 꽃감관이 있었다. 꽃감관은 서천꽃밭에 멸망을 주는 부엉이를 잡아 주면 사위를 삼겠다고 하였다. 자청비는 아무도 몰래 노둣돌 위에 옷을 홀랑 벗고 누워 정수남이의 혼령을 불렀다. "정수남아, 혼령이 있거든 부엉이 몸으로 환생하여 원(怨)진 내 가슴에 앉거라." 부엉이 한 마리가 울면서 날아와 자청비 젖가슴 위에 앉았다. 부엉이는 살에 맞아 죽어 있었다. 꽃감관은 크게 기뻐하며 자청비를 막내 사위로 삼았다. 그러나 백일이 지나도 부부 관계를 하지 않으니 막내딸은 부모님을 찾아가 하소연하였다. 다시 자청비는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선가 베틀 소리가 들려 왔다. 그것은 할머니가 비단을 짜는 베틀 소리였다. 예쁜 자청비를 본 할머니는 그녀를 수양딸로 삼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짜는 비단이 하늘 옥황 문 도령이 서수왕 따님에게 장가드는 데에 폐백으로 쓸 비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청비는 눈물로 비단을 짜 나갔다. 비단은 하늘 옥황에 바쳐졌다. 자청비는 사월 초파일 날 머리 삭발하고, 승복을 입고 목탁을 치면서 쌀을 얻으러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자청비 하늘에 올라 문도령을 만나 부모님의 시험을 거쳐 며느리가 되었다. 서수왕 따님 아기는 죽어 새가 되었다.

하늘 옥황에 큰 난리가 일어났다. 난을 평정하는 자에게 땅과 물 한 조각 갈라 주겠다는 방이 붙었다. 자청비는 난리를 평정하고 오곡의 씨를 얻어 지상에 내려왔다. 자청비와 문도령 농경신이 되고 정수남이 목축신이 되었다.

다. 창조적 모험을 겁내는 어리석은 남성들의 〈가믄장아기 콤플렉스〉

문제 9 : 난 배꼽 밑에 있는 선금 덕에 살지요.맨 처음 배꼽 티를 입은 여자, 그녀는 가믄장아기.

'전상[前生]' 이란 '전생의 업보' 라는 데서 유래한 듯 하다. 실제로 굿판에서는 팔자(八字)•직업(職業)•버릇을 뜻하는 듯한데, 거기에는 운명적인, 타고난 업보(業報)라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전상놀이〉의 내용을 보면, '가난' 이라는 나쁜 전상을 쫓고, '부(富)' 라는 좋은 전상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놀이라 할 수 있다.

'나쁜 전상' 이란 평상시와는 달리 마구 술을 먹거나 해괴한 짓을 하여 일을 망치거나 가산을 탕진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마음을 일컫는다. 이 전상이 붙으면 그 행위를 버릴

래야 버릴 수가 없다. 도둑질을 하여 몇 번이고 감옥엘 출입해도 역시 도둑질 할 마음을 일으키고, 놀음을 시작하면 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다 전상 때문이라 하며, 나아가 농업, 공업, 상업 등 갖가지 직업을 택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역시 전상 때문이라 풀이하고 있다.

거지 부부는 가난하고 배가 고파도 부부 인연은 좋아 은장아기•놋장아기•가믄장아기를 낳게 되고, 그러자 갑자기 천하거부가 된다. 하루는 세 딸을 불러 누구 덕에 사느냐고 묻는다. 은장아기와 놋장아기는 하느님, 지하님, 부모님덕에 산다 했지만, 가믄장아기는 "하느님도 덕이외다, 지하님도 덕이외다. 부모님도 덕입니다마는 나 뱃또롱 아래 선그믓 덕에 삽니다." 하고 대답한다. 부부는 노발대발하며, 불효한 자식이라고 그녀를 내쫓는다. 그녀를 내쫓자 부부는 문에 부딪혀 장님이 되고, 장님이 되자 삽시에 다시 가난한 거지가 되고 만다. 쫓겨난 가믄장아기는 마퉁이 삼형제를 만난다. 가믄장아기는 마퉁이 삼형제를 유혹한다. 큰마퉁이, 셋마퉁이는 거절하지만, 작은마퉁이는 허락한다.

가믄장아기는 작은마퉁이와 부부인연을 맺고, 마파던 구덩이에서 금덩이 은덩이를 주워 삽시에 천하거부가 된다.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석달 열흘 장님들을 불러 백일잔치를 한다. 거지부부를 모시고 가믄장아기가 "이 술잔 드십서 나 가믄장아기우다" 하면, 딸자식임을 알고 어디 보자고 감짝 놀라서 들었던 술잔을 떨어뜨리면 눈을 뜬다. 〈전상놀이〉는 눈을 뜬 거지 부부가 모든 '전상'을 집 밖으로 쫓는 굿이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 사회 변화와 제주 방언의 변화

강정희(한남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최근 급격한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일어나는 생태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오존의 감소. 이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이상 기후현상이 지구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는 곧 그 속에 살고 있는 동. 식물들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생태계의 변화는 주위 외부 환경 조건 여하에 따라 사슬체계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재 진행 중인 현상과 개체 내부의 변화로 인한 멸종 및 변이형의 발생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언어 생태계도 이와 동일 조건에 의하여 변화하고 소멸의 길을 겪는다. 언어 변화에 대한 생태언어학적 연구는 바로 이런 생태학의 시각에서 출발한다.

생태학은 자연과학, 생물학, 인류학, 동물 생태학 등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특히 생태계의 변화 가운데 있는 생물들의 상호작용이나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관찰, 연구하는 학문이다.

언어 생태학은 현재 사회 언어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언어학의 한 영역이다. 이 학문은 생태학의 연구 방법을 언어의 변화에 적용하여 개별 화자나 집단들의 언어생활을 결정하는 외부적인 요인, 즉 사회적인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연구한다. 이 연구 시각은 언어 생태계에서 겪는 언어변화, 언어충돌, 언어소멸, 언어정책, 언어습득 등의 현상들을 자연계에 살고 있는 동. 식물들의 생성, 투쟁, 소멸 과정과 동일하게 보고 설명하자는 것이다.

1970년대 독일에서 인간에 의하여 '자연'을 변화시키고 판단하는 데에 대항하는 '녹색운동'이 곧 위와 같은 생태계 파괴에 대항하는 환경 보호 운동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생물체들에 대한 보호 운동을 생태 언어학자들은 소멸하고 있는 소수의 힘없는 언어 보호에 '녹색 언어 운동'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최근 급격하게 해체 되고 있는 제주 전통문화와 이에 따른 제주방언의 소멸 현상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앞으로 제주방언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본 목

적을 두기로 한다.

2. 언어와 문화유산

2007년 우리 제주도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았다. 우리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연 환경'이 잘 보존, 유지되었다는 것으로 안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 유지되었다는 것은 곧 이 속에 살고 있는 '생태계'가 잘 보존 되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다음, 우리는 호남지방의 무형문화재인 '판소리'와 강릉지방의 '단오제'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이 '자연(유산)'과 다른 점은 그 대상이 '소리, 구술' 그리고 '행위'로 이루어져있는 '문화(유산)'가 잘 보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지역의 전통 문화는 서민층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무형적인 자산이다. 전통 문화 중에서도 구전으로 전승되는 구비 문화들 -신앙 의식(굿), 제례 의식, 무가, 민요, 설화, 속담 등에서는 지역 방언을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판소리와 강릉 단오제 속에는 호남과 강릉 지역 사람들의 과거, 현재의 세계관, 가치관, 정체성과 같은 정신세계를 알 수 있는 지역 방언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렇다면 제주 방언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낙관적이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제주 방언문화 유산으로서 판소리나 강릉 단오제를 능가할 만한 민속 문화 형태를 제시할 수도 없고, 설혹 있다하더라도 원형 보존도 그리 잘 되어오지 못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주에는 다른 지방이 갖지 못하고 있는 제주 특유의 전통 민속 문화로서 '영등굿'이라든가 '노동요'로서 '해녀가' 등이 있다. 이 문화재들도 판소리와 강릉 단오제처럼 제주 지역 '방언'을 바탕으로 하는'소리'와 '행위'의 문화다.

그러나 이 문화재들은 제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거나 변질되어 가고 있다. 영등굿은 마을마다 그 규모가 작아지거나 문화제 등의 행사에서 공연하기 위한 공연성이 많아지는 변이형으로 바뀌어져가고 있으며, 해녀 노래는 해녀 수의 감소로 인해서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점이 요즈음 우리 제주방언 무형문화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오늘 필자는 왜 방언문화가 문화유산일 수가 있는가? 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문화는 의식주 등의 물질적 문화뿐 아니라, 언어 사용 집단의 우주관 세계관, 사고방식과 같은 정신세계를 포괄한다. 언어는 이와 같은 '문화'의 두 측면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첫째는 어떤 사회가 구축한 문화는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에 언어를 잘 살펴보면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둘째, 언어 속에는 언어 집단의 과거, 현재의 정신세계가 반영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정신세계의 현재형이다.

오래전부터 언어학자와 철학자들은 '언어와 인간, 언어와 사고' 그리고 '인간과 사고' 라는 함수관계에 대해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의 외적 표현 수단이라고도 하고 또는 '존재의 집'이라고 해왔다. 이는 어떤 사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인간에게 만약 언어가 없었다면 존재 자체를 의식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언어'='인간 존재의 집'이라는 등식에서 우리가 '집' 속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망라하는 '문화'다. 그러므로 방언문화가 잘 보존된다는 것은 해당 방언 사회의 경험세계와 정신세계의 전통성 및 정체성의 보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정신세계의 표현인 언어의 보존이라는 과제는 언어의 본질을 닮아서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멸의 과정을 밟고 있는 방언 현상들에 민감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제주 방언형들이 담겨져 있는 전통문화들의 원형을 살려서 보존하는 작업에서 방언 변화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 작업이 곧 우리 제주 방언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3. 환경 변화와 언어 변화

인간의 역사가 '흥망성쇠'의 반복이라고 할 때 언어 또한 '흥망성쇠'의 역사를 지닌다. 언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역사 언어학이나 생태 언어학이 사용하는 언어의 소멸, 생존과 같은 용어들이 이를 반영한다.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고 생존경쟁을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서로의 존재가 의존적인 것과 같이 언어들 사이에도 서로 균형이 유지되거나 또는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서 외부 세계로부터의 강력한 존재의 공격에 의한 변화다. 이 변화는 개체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충돌현상의 결과로 일어난다.

말하자면 토종과 비토종과의 힘겨루기에서 토종이 밀리는 현상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황소개구리의 등장으로 토종개구리의 개체수의 감소와 청솔매가 토종 다람쥐를 내 는 생태계의 변화 현상과

같은 것이다.

언어도 이와 마찬가지다. 외부에서 제 2의 우세어가 들어오면 토착화자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저항과 타협, 그리고 항복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 관찰되는 것이 언어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유형의 언어 변화의 모습이다.

언어의 보존을 토착화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우세어에 저항해서 이겨낸 결과라면 언어의 소멸은 주로 타협과 항복이라는 약세적인 태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제주 토종 방언의 소멸은 곧 제주의 전통 사회. 문화의 해체라는 등식 관계에 놓인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언어의 소멸 요인인 1)외세의 무력침략, 2) 민족의 멸망, 3)강한 문화로의 동화도 결국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생존경쟁의 원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다음에 위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한 언어의 소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외세의 무력 침략에 의한 언어 소멸

외세의 무력적 침략에 의한 언어 소멸은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사례는 가까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지배자였던 일본인들의 피지배자들의 우리 한국어에 대한 억압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통치를 위한 국가주의적 언어정책은 정치적이며 이념적인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하여 피지배자 집단의 언어가 소멸되는 현상은 인위적인 현상으로 간주된다.

나. 민족의 멸망에 의한 언어 소멸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정설은 없다. 언어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3천 종이라는 설에서부터 5천 종, 심지어는 1만 종이라는 설까지 있다. 왜냐하면 언어의 숫자는 동. 식물의 숫자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언어통계학에 따르면(박육현:1999, 42 (역)에서 재인용)(Decy(Spiller에서 인용 1991: 20) “1970년과 1985년 사이 언어의 수는 약 4500에서 2800으로 줄었다 그리고 언어의 소멸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도 일어났다. 예를 들어 지난 2세기 동안 달마티아어와 영국의 두 켈트어가(Grafschaft Cornwall의 Cornish와 Man 섬의 Manx)없어졌다.

Cornish를 사용했던 마지막 여자가 1777년에 죽었다.

1901년도 Manx를 사용한 화자는 5만 명 섬 주민들 중에서 4650명으로 줄었다. 1931년에는 Manx만을 사용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529면은 이중언어를 사용하였다. 이중에

서 1950년에 10명이 생존했으며 다시 이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화자인 Maddell은 1974년 97세의 나이로 죽었다.” 결국 이 화자가 죽음으로써 Manx 어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동양에서는 만주족의 멸망으로 인한 만주어의 소멸이 대표적이다[1].

다. 강한 문화로의 동화로 인한 언어 소멸

언어 변화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 해에 걸친 문화의 접촉과 간섭에 따라서 언어와 문화에 일어난 영향과 수용 관계에 의하여 이루지고 사용자들 간에 작용하는 사회적 힘 또한 작용한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소유보다 더 나은 것을 취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낳게 하고 또 그 대상을 모방하는 모방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 신분 상승의 심리적 구조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문화를 쉽게 수용하게 한다. 이러한 인간들의 본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제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모방 심리는 자연스런 현상이므로 모방에 의한 언어 습득과정도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위로 향한 변화는 의식적인 변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변화는 표준어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언어 변화에 대하여 James Lesly Milroy(Milroy, 1992)는 변화의 요인을 결속력에 두고 있다. 언어 사회의 구성원 간의 강한 결속감은 언어 변화의 속도를 더디게 하지만 약한 결속력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결속력(network)’이란 바로 그 모집단에 대한 구성원들의 ‘정체성(identity)’을 의미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다.

4. 급격한 제주 사회 변화에 따른 제주 방언의 변화

IV장에서는 제주 방언의 소멸 위기를 생활 환경 파괴와 ‘잠재적 열등의식’ ‘우세 문화로의 동화욕

1) 필자가 1970년 대 중반 박사학위 과정에서 만주어를 가르치시던 서울대 언어학과 성백인 교수가 만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타이완으로 조사, 채록하시러 가던 일이 생각난다. 그 당시 이 제보자는 매우 고령자로서 이 화자가 죽으면 실제로 만주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구', '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생활환경 파괴에 의한 방언 소멸

요즈음 제주 사람들을 만나면 '제주 토착 방언이 사라지고 있다' 고 하는 데에 공감을 한다. 제주 방언의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현상은 아니다. 길게는 국어사 속에서, 짧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제주도가 겪었던 급격한 사회적인 격동기를 거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알다시피 제주도는 1948년 4.3 사건과 1950년 - 1953년에 겪은 한국 전쟁과 1960년 -1970년 대 이 지역의 토지 개발의 붐을 타고 강한 문화인 육지 문화에 휩쓸리게 된다.

1948년 4.3 사건과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은 외부와의 접촉이 없던 제주민들에게 외부인들과의 왕성한 교류를 하게 만든 전환점의 시기였다. 이 기간 육지에서 제주도로 밀려온 수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들어온 여러 지역문화들이 제주의 전통문화와 섞여서 공존하게 된다. 문화뿐만 아니라 제주 방언도 육지 사람들의 언어에 노출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제주 사회의 주체 세력은 제주 방언 화자들이었으므로 육지인들이 언어에 비해서 제주 방언이 우세어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제주 문화와 육지 문화와의 접촉은 제주 방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이 시기에 외부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제주 방언이 서서히 변화를 경험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제주 방언이 본격적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시기는 1960-1970 년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는 정부의 새마을 운동과 식생활 개선, 표준어 교육 실시 등의 통치의 편의를 위한 정치적인 정책이 제주 전통 사회와 민속 문화의 변화를 한층 가속화 시킨 시기였다. 그 결과 우리는 의식주 생활에서의 놀라운 편리성이라는 득을 얻었으나 전통문화와 방언문화의 해체라는 엄청난 대가를 감당하기 시작해야만 했다. 즉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인위적인 의식주생활 환경 변화의 가속화는 이어서 전통 의식주 문화의 해체 속도를 그만큼 빠르게 견인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이 의식주 관련 토착 방언형의 소멸 속도도 빨라지게 되었다. 마치 생태계 변화의 사슬 구조와 같은 변화의 연쇄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지붕개량 운동으로 초가집이 없어지고 개량지붕과 개량집이 생기고 아파트까지 주거형태가 바뀌게 된다. 제주도 주거문화의 변화는 토종 초가집을 밀어내고 신종 개량주택이 들어서고 집안에서 사용하던 토착 방언들조차 밀어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정지, 굴묵, 상방, 살래, 무뚱, 고팡, 통시' 등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전통 초가집에서나 그 명맥을 유지하는 소멸과정에 놓인 방언

어휘들이다.

식생활도 마찬가지다. 식생활 개선 운동에 따라서 '상홰떡'은 '빵'에 밀려버리고 '모밀초배기'는 '수제비'라는 표준어에 밀리고, '오메기, 돌레떡' 등은 천박하고 맛이 없는 떡으로 상에서 없어진 지 오래다. 의생활에서도 한 때 '갈옷' 이 사라지면서 울담 안에 있는 토종 '땡감'으로 물들이는 제주만의 전통 염색 문화가 사라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한 환경 파괴 외에 이 시기의 제주 방언의 변화를 가속화 시킨 숨겨진 요인으로서 당시의 제주도민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제주도라는 모집단과 제주 방언에 대한 '열등의식' 내지 '약한 결속력' 또한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열등의식' 은 최근 제주도가 국내외적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정받는 시기의 세대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50대 이상의 세대들의 집단 무의식이다. 이 세대들은 제주도가 살기 편해지기 전 그들의 고향이 자연 환경이 척박한 유배지라는 역사성 때문이었는지 육지 사람들에게 묘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다. 육지 사람들도 이 시기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 출신자들을 멸시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육지에 간 제주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주저했었다. 육지말로의 언어 전환 속도도 타 지역 출신자들에 비해서 매우 빨랐다. 그 이유는 육지말과 방언차가 큼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외형적인 요인도 작용했겠으나 그 외에 고향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자신의 출신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식이 작용했던 것이다. 즉 이 시기의 이 세대들의 '열등의식'은 불리한 조건으로 인한 자신의 출신에 대한 '정체성'의 약화로서 이 시기의 급격한 방언 변화에 한 몫을 했다고 본다.

이제 2000 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짚신, 갓을 삼는 작업, 초가지붕을 '새'로 잇는 일, 농업의 기계화. 해녀복의 현대화 등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서민들의 기층문화의 소멸로 말미암아 이에 사용하던 토착 방언형들이 우리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 사라진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나. 우세 문화로의 동화 욕구에 의한 방언 소멸

방언학에서는 한 개별 언어 안에서 방언 차가 클수록 대내외적인 조건에 의한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최근 제주 방언의 변화 속도를 관찰해볼 때 이 주장은 매우 무기력해짐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제주 방언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대중매체-TV와 인터넷의 막강한 힘과 표준어 교육정책으로 인한 단일 모국어화 언어정책, 이에 대응한 제주민들의 '우세한 문화로의 동화' 심리와 제주도라는 모집단에 대한 '결속력'과

'정체성' 을 들 수가 있다.

현대 우리 사회는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서울 문화로의 '단일화'로 향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단일화'의 가장 핵심 요소로서 'TV'와 '인터넷'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TV'는 지역 방언들을 표준어로 단일화하는 데에 큰 몫을 담당한다. 대중매체에서 학습되는 문화들은 '상향 지향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앞의 Ⅲ장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지역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층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의 문화를 동경하거나 모방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현상은 제일 첫 단계로서 언어의 모방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서울 말씨는 '아름답고, 신분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학습하게 되고 방언은 '투박하고, 유치하고, 촌스럽다'는 인식에서 방언 사용을 거부하게 된다. 이러한 우세어 사용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권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물론 표준어 중심의 교육을 하는 데에서 더욱 굳어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모집단에 대한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1990 년대의 제주민의 정체성을 조사한 김항원(1998:227)의 보고에 의하면 외부 문화에 대한 제주 문화, 가치관에 대한 조사 결과는 1960-70 년대의 기존세대들이 가졌던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와 같은 '열등의식' 은 없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2]. 그러면 제주도라는 모집단에 대한 '결속력 - 정체성' 의 문제는 과연 어떠한가?

다중언어 사회에서 소수언어화자가 가지는 '결속력'은 양면성을 지닌다. 그것은 자신의 모집단으로부터의 이탈하여 목표 집단으로의 '결속력'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모집단에서 볼 때는 약한 '결속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중언어 사회에서 소수언어 사용자인 이중언어 사용자가 가지는 '정체성'의 혼란 현상은 흔한 일이다. 이와 동일하게 표준어와 방언은 '이중체계'로서 서로 경쟁한다. 그러므로 방언 화자의 '정체성' 정도에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밀리느냐가 결정된다.

다행히 최근의 제주도를 모집단으로 방언 화자들에게서는 제주 방언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김항원:1999, 251-64). 그러나 이 조사는 한 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세대가 젊어질수록 그 성향이 매우 감소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방언 화자들의 감소를 예상하게 하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이 약할수록 외부로부터의 간섭으로 인한 언어변화-소멸은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

2) 김항원(1998: 227)은 제주도 주민들의 열등의식에 관한 조사로〈나는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에 비해서 못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설문 조사 결과 83.6%의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다. 인구 감소로 인한 제주 방언의 소멸

Ⅲ장 2에서 해당 언어 사용자들의 감소함에 따라서 그 언어의 생명도 앞당겨지는 언어적 사실을 살펴보았다.

제주도 인구는 출생율의 저하와 청소년 집단과 젊은 집단의 육지로의 유학 및 취업으로 인한 이주로 인하여 최근 10 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다.

제주도 100여 만 인구가 모두 방언화자라고 한다면 방언 소멸의 시기는 훨씬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인구'란 토착 방언을 구사하는 노령층 이나 전통문화와 구비 전승 문화의 보유 인구수를 말한다. Ⅳ 장에서 우리는 제주 전통 문화의 소멸에 따른 방언의 소멸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다.

'신바치'와 '갓바치', '심방', '줌녀', '테우리' 등 제주의 기층 문화를 이루는 각 분야의 전문 인구의 감소는 이 분야의 토착 방언의 감소를 의미하고 토착 방언을 구사하는 노령층의 감소는 생활어의 방언의 소멸을 수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연 생태계에서 개체수의 감소와 멸종에 따른 개체집단의 특성의 소멸에 대응되는 언어 생태계의 모습이다.

5. 자연 보호가 필요한 제주 방언-제언

환경론자들은 멸종되어가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온 힘을 쏟는다. 그것은 자연 보호가 바로 인간 보호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멸 위기 단계에 와 있는 제주 방언도 보호 받아 마땅하다. 그 이유는 제주 방언이 가지는 국어사적 가치 외에 제주의 정신 문화재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 방언이기 때문이다. 즉 제주 방언의 보호는 해체되고 사라지는 제주민의 정신문화재들의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제주 방언의 보존의 절실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가. 제주방언의 국어사적 가치

국어학과 방언학 연구에서 늘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인접 강대국의 잦은 침략으로 많은 문화유산 -기록 문화유산들이 소실되었다. 그 결과 우리 정신의 뿌리인 국어사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록 문화유산의 공백을 각 지역 방언의 산 자료가 보완해주고 있다 그 중에도 제주 방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외부와의 접촉이 불가능한 고립된 자연 환경으로 섬 안에서 방언의 고유형을 형성하거나 고대 국어형으로부터 중세, 근대를 지나 20세기 초의 국어가 잘 보존될 수 있었다.

다음에 제주 방언에서 발견되는 국어사의 자료를 간단히 예로 설명해보기로 한다.

1) ㉠오늘 메틀고? 메틀날 갈 거옌 해니?
(며칠) (며칠날)
㉡오늘 메틀이나 나시니?
(오늘 며칠이나 되었니?)

'메틀/metɨr/'은 고대국어에서 모음 사이에 *t를 가졌던 단어들 중에서 날짜를 헤아리는 *hɔtɔr과(이기문,1981, 70) 비슷한 시기의 어형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다. 현재 *t를 유지하고 있는 날짜 단위어는/ it-ɨr/(二日), /it-he/(二年, 두 해째) 정도다. *hɔtɔr은 *hɔt-ɔr 로 분석하여 *hɔt(홑, 單, 하나)-ɔr(일)로 보일 수 있듯이(이기문,1981,77) /met-ɨr/은 /met(何)-ɨr(일)/로 보일 수가 있다.

2) 막걸리 놓고 통밀로 소상이나 대상 때 상에 올리는 찐빵은?
상왜떡.

'상왜떡'은 高麗歌謠 '雙花店'의 '상화떡'으로 소급할 수 있는 고형이라 하겠다.

이 '상화떡'은 '상화〉상회〉상외/상왜'로 수의변이형으로 발화되며 이 떡의 모양은 밀가루 등을 발효시켜서 둥근 찐빵 모양이나 작은 베개 모양으로 길쭉하게 만든다. 이 밀떡 속에는 현재의 만두(饅頭)와는 달리 속에 소를 전혀 넣지 않는다. 현재 제주도에서 제사 등에 이 '상왜떡'을 상에 올리는 집이 많다. 그러나 이 어휘도 '찐빵'에 밀려나고 있다.

3) 다리? 가달. 막 쓰는 말이주.

처용가의 '脚烏伊'를 이기문(1981,82)은 '가ᄃᆞ리'로 읽고 있다. 그는 "'가ᄅᆞ리'에 依據하여 쉽게 解讀된다. 中世國語의 '가ᄅᆞᆯ'의 古代形은 *katɔr(가ᄃᆞᆯ)이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고 하였다. 이 추정은 현재 조사된 본 자료나 제주방언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발화되고 있는 katar(가달)로 증명된다.

4) 일분 완 두불서방해여그네, 나 온 후젠 두불서방 얻을거 아니?

'두불서방 허다, 두불서방 얻다'는 '再婚하다'라는 이 방언의 관용 표현이다.

'두불서방'의 '두불'은 鷄林類事의 '二曰 途孛'[3](*두불〉두ᄇᆞᆯ〉두울〉둘)로 소급할 수 있는 매우 오래된 고형이다. 이 방언에는 농사 용어로 '초불 검질, 두불 검질 매다.'(애벌, 두 번째 김매기를 하다)라는 표현을 아직까지 발화하고 있으나 (3)과 같은 '두불서방 ᄒᆞ다/ 얻다'라는 표현은 현재 제주 방언에서는 듣기 힘든 자료 다.

5) (11) 저울에/로 저울여보난 한 칭(秤)은 되염직 해네(저울로 재다)

'저울'과 관계되는 '저울대, 저울 갈구리, 저울눈, 저울뿡돌(추)' 등 재래식 저울이 없어지면서 사라진 어휘들을 추가 조사할 수 있었다. 이 '저울'은 12세기 문헌인 鷄林類事에 '秤曰雌孛'로 소급되는 어휘다.

6) 제사때 상에 올리는 밥, 국은? 밥은 메, 국은 갱(갱국).

'메'와 '갱'은 중세국어형이 이 방언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예로서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고 차례상 차림에만 쓰는 존대 어휘다.

ᄒᆞᆫ번 뫼 자셔든(一飯)〈小언 四, 12〉
다 자시ᄆᆞᆯ 기ᄃᆞ려 뫼ᄅᆞᆯ 설고〈家언 四,24〉
그 아비 영장 ᄒᆞ는 날애 오히려 굵깅을 먹거늘〈小언 五, 48〉
깅 밍ᄀᆞ라 머기라〈救간, 111〉

3) 강신항(1980,36)과 이기문(1981,96) 참조.

7) 아방 죽언 영장ᄒᆞ젠 ᄒᆞ난 돈이 어디 셔?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자고 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

'장사지내다'의 중세국어 형은 '영장ᄒᆞ다'다. 최근 제주도에서 이 어휘는 고형으로 되어가고 있고 대신에 표준어에서 들어간 '장례치루다/지내다'가 그 영역을 확보해가고 있다.

'장례식에 참가하다/가다'는 "(영)장밭듸 감수다."의 보수형 표현을 쓰고 있다.

영장ᄒᆞ다(下葬)〈同文 下 10〉
그 能히 영장(營葬) ᄒᆞᆫ 거슬〈小언 六 32〉

나. 제주방언의 변화 모습

1) 육지어와의 접촉에 의한 접촉방언형

가. 아지다.
나. 고추룩
다. 있수다, 없수다,
라. 먹었수다.
마. ᄀᆞ르니까, 말ᄒᆞ난
바. 가**시**쿠가?

2) 방언의 고형 소멸

가. 글주후제,글르후제,그르후제, 그로후에, 글로부떠〉 그 후에
나. 발음 '· 〉 ㅗ, ㅓ, ㅏ'로 변화
다. '잣(성벽)'

다. 국제화 시대에 제주방언 보존 방안

국제화 시대에 세계 언어에도 생존경쟁의 원리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초강대국의 언어인 영어가 세계 언어를 지배하고 잠식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약소국가나 소수민족 언어는 자연 도태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시기다.

이러한 시대에 “특정한 자연언어를 소멸시키는 것은 언어-세계-정보유형-경험체계를 없애는 것이며, 생태 언어학적 언어보호의 과제인 언어-세계-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다양한 경험체계를 보호하는(Trampe:1990,209 -박육현:1999,41 재인용) 의미를 가진다.

지난 해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제주방언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을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방언 지킴이’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주 방언 보존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1) 토착 방언 화자 발굴 및 보호 및 육성 정책 실시

노년층의 토착 방언화자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언 채록 및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세워야 한다.

건강한 화자라면 방언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을 초중등학교에서의 방언 교육의 ‘방언 교사’로서의 활용 방법이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방언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토착 방언화자들을 육성하도록 한다.

이 방안은 호남의 ‘판소리’가 잘 보존된 이유 중의 하나로 판소리 전수자들을 ‘판소리 전수관’이라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서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는 ‘제주방언 학교, 또는 제주방언 전수관’이라는 교육기관을 각 지역에 설치하여 방언 화자들의 인구 저변 확대를 기해야 한다. 제주 방언 전수관에서는 제주 조상들이 사용하던 생활어, 민담, 설화, 속담, 민요, 노동요 등의 제주 방언 문화 전반에 걸친 구연자들을 육성하는 교육 내용으로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2) 방언 교육의 강화

표준어와 방언은 서로 이중체계로서 존재한다. 젊은이들에게 표준어 중심의 단일언어 교육에서 벗어나 표준어와 방언을 모국어로서 다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크게 1)교육 현장, 2)교육 행정 이 상호 협조 관계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1) 교육 행정 - 초중등학교에서의 방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 정책이 시급하다.

앞에서 제시한 노년층의 방언화자를 1일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 방법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세대차로 인한 의사소통상의 문제, 교육의 전문성의 부족 등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과 노년층 자원봉사 방언 교사들이 돌아가신 후 그 기능을 이어 받을 국어과 교사들에게 방언 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는 방법과 임용 시 영어과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

처럼 제주 방언 구사능력을 반영하는 방법도 적용해볼 만하다.

(2) 교육 현장

국어시간 외에 음악 시간을 방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국어과의 방언 교육은 7차 교육 과정에서 각 지역과 언어에 대한 단원이 있으므로 이 단원을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수준별, 단계별로 교재를 개발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제주도 전 지역이 공통 교재와 교안을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방언 교재에는 제주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역할극하기, 연극, 영화의 한 장면을 제주방언으로 바꿔보기, 제주 방언 자료 채록 하기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아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가지게 해야 한다.

음악과는 사라진 제주 전래 동요, 민요들을 발굴해서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 방언으로 창작 동요도 만들어서 교육한다면 노래로 배운 제주 방언이 국어과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될 것이다.

3) 방언 문화 활성화-제주방언 마을 운영

방언 문화란 방언으로 이루어진 모든 문화를 망라한다. 전통 구비전승 문화 외에 방언으로 쓴 문학 작품들도 물론 해당된다.

방언으로 시연되는 민속 문화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진다. 즉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접해볼 기회가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제주도에 있는 민속마을을 '제주방언 체험 마을'로 강화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면 제주 방언으로 의사소통과 모든 민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방언 교육의 체험 학습장으로서 민속 마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4) 지역 대중매체들의 방언에 관한 관심

제주 방언 보존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 중에서도 TV의 힘은 다른 대중매체의 최우선에 선다. 그러므로 지역의 TV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제주 문화와 제주 방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역 대중매체는 제주방언에 대한 자긍심, 정체성 확립에 대한 논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말을 과잉 사용하는 일에 대한 재조명, 제주방언의 관광 상품화에 대한 여론 및 방법 조사 등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부터 방언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 방언 알기, 그리고 방언 화자들의 발굴 및 소개 등과 1)-3)에 제안한 방안들의 내용을 제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지역의 대중매체가 제주 방언 보존에 한 몫을 하게 되는 것이다.

5) 방언 연구자를 위한 지원 정책 실시

제주방언 연구자의 수는 전국 지역 방언 연구자 수에 비해서 매우 영세하다.

그 이유는 제주 방언의 큰 방언차로 인해서 다른 지역 출신 국어학자들이 제주방언을 이해하거나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제주 방언 연구는 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제주 토박이 화자나 대학 교수, 그리고 제주 출신 국어학자와 민속 및 구비문화 연구자들을 합해서 10 여 명 남짓하다.

그러므로 방언 전수자를 육성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주 민속, 및 구비 문화 자료와 방언자료를 채록하고 보존,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한 예로 제주도에 있는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화' 시켜서 젊은 연구자들을 육성하고 이들의 연구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자연 보호가 제주민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제주의 방언 문화 보호도 이와 같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강정희(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김광해 외(1999), 〈국어지식 탐구〉, 박이정

김항원(1999),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박육현(1999, 역),〈생태 언어학〉, 한국문화사.

박의재,정미정(1999,역), 〈현대 사회언어학〉,한신문화사.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제주도 구비문학의 전승 변이적 특성

좌 혜 경 (해녀박물관)

제주도 구비문학의 전승 변이적 특성

좌혜경(해녀박물관)

1. 서언

제주도 구비문학의 주된 장르는 민중의 노래인 민요,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설화와 무속의례에서 창으로 불려지는 무가, 교훈담이나 생업담 등의 속담이다. 모든 구비 장르는 전승되면서 변이를 겪는 것이 기본적 속성이다. 유동문학, 표박문학이라는 개념은 변이적 특성으로 명칭지어지기도 했다. 곧 전승변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 지역적 특성 및 구비문학 향유층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한편 전승변이는 공동작이라는 개념과 적층(積層)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승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 및 화자와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한 변이를 뜻한다. 동일한 소재가 장르내부에서 변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지역적 소재를 차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상대적 관점이나 화자가 특히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설화들은 그가 속한 문화적 집단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가 살고 있는 공간에 관한 것들이 많다.[1)]

특히 제주도 전설의 특징으로 제주 땅의 생성을 설명하는 '설문대할망 전설'과 '고종달형 전설'에서는 불모의 땅으로서의 제주와 제주인의 삶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역사 인물전설은 권력적인 욕구를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적절하게 형상화시키는 반면, '이형상 목사와 광정당 전설' '김녕뱀굴 전설'에서처럼 토속신앙과 조선조 이데올로기와의 갈등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분명하게 형상화되기도 한다.[2)]

이글은 구비전승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이양상을 고찰하여 지역적, 시대적, 역사적, 개인적 변이양상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살피고자 한다.

2. 지역적 특성에 따른 변이

가. 동유형 전설의 전도적 분포

1) 이수자, 『설화 화자 연구』 박이정, 1998, 33쪽.
2) 제주도, 『제주의 민속 Ⅲ』, 1995.

유명한 지관 '소목사' 나 중국의 풍수사인 '호종단(고종달)', 그리고 날개잘린 아기장수 전설 등은 전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종달인 경우는 물과 연결되어 곳곳에 산재되어 구전되고 있다. 제주는 왕후지지(王侯之地)의 땅이어서 중국의 진시황은 풍수사인 고종달을 보내어 수혈과 지혈을 끊어서 인물이 나지 못하게 하면서 자연을 황폐화시켰다. 그런데 수혈을 끊지 못한 곳들이 있는 데, 이러한 곳을 '행기물' 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서귀포의 홍로, 안덕면 광평리 창고천에 있는 '행기소', 혹은 천미천, 화북천의 '행기물' 전설과 같은 경우다. 이러한 전설의 내용은 유사한데 자연지형에 대한 해석이다. 척박한 불모의 땅을 제주민들은 고종달의 지맥 끊기 모티브를 차용하여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설의 경개를 살피면

고종달은 지리서(地理書)를 따라서 동쪽으로부터 지맥을 끊고 서귀포 홍로에 다다랐다. 지리서에는 '꼬부랑나무아래 행기물' 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지리서의 물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백발노인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저 물 한그릇을 길어다가 소길마 밑에 놔 주십시오" 하고 너무 다급하게 애원했다. 조금 지나서 고종달이가 와서 물을 찾았다. "여기에 오래 살았어도 그런 곳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오" 고종달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백발노인은 농부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는 물혈(水脈)을 지키는 수신이었다. 그래서 홍로지경의 물혈은 맥을 끊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이다. 곧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물' 은 소길마(쇠질매) 밑에 숨겨져 있는 행기그릇의 물이란 뜻으로 농부가 숨긴 물그릇을 가리킨다.

가난과 굶주림의 삶을 자연환경의 파괴로 돌리고 있으며 행위에 대한 고발과 원초로의 회귀 혹은 극복, 낙원으로의 복귀를 주제로 한다.

나.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시각

인물전설 속에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택하느냐 부정적인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집단이 갈라지지 않을 수 없다.[3)]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인물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시각의 차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좌수와 이형상과 같은 유교적인 이데올로기의 인물에 대한 긍정과 부정은 인격과 지혜를 칭송하거나 유교 제례의식의 엄숙함을 깨우치도록 하는데 이용하도록 짜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무속의 당인 '광정당' 전설에서 이형상의 신당철폐와 함께 유교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기

3)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9쪽.

존의 관습과 전통사상에 대한 집착을 표현하기도 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인 무속사상에 바탕에 둔 기존세력의 저항의지와 힘을 표현한 것이다.

더불어 민중들은 유교적이고 현학적인 인물들의 위선과 거짓을 고발하기도 한다. 비록 공부를 많이 한 유학자들에게서 위선의 탈을 벗은 진정한 관리들을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명분과 논리를 내세운 선비정신에 과감히 도전하여 새로운 인간상을 창조하기도 했다. 한 인물전설의 예를보면 조선조 말 서귀포시 하효동에 현유학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기지와 재치가 비상하여 일곱 살 적에 한 노인이 나이를 묻자 '굽' 이라고 했다. 곧 일곱을 간단히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나이든 노인을 화가 나서 '버릇없는 놈' 이라고 했다.

현유학은 "혀를 한 번 구부리는 데, 힘이 안듭니까" 하자 노인은 기가 막혀 막을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양반들은 천한 사람과는 친하지 않았으나 현유학은 기생에게 절을 하여 술을 얻어먹고 누님이라고까지 해서 큰 술상을 받아 얻어먹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동네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자 "나는 기생에게 절한 바가 없소. 술항아리에 절한 것이오" 하고 점잖은 양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으며 호탕한 행동을 해대었다.

대정읍의 김생원이 이 사실을 듣고 버릇을 고치겠다고 우쭐대었다. 그러나 현유학은 반대로 김생원을 체포하여 문초하기에 이른다. "제주목에서 통문이 왔다. 제주에 왜선이 침범하여 왜놈들이 두서너명 올라 왔는데 잡아서 문초하라. 왜놈들은 사타구니에 큰 사마귀가 있다고 하는 데 검사를 해서 풀어주도록 해라" 현유학을 골탕먹이겠노라고 큰소리치던 김생원은 보여서는 안 될 곳마저 관리들 앞에서 공개해야만 했던 것이다. 도민들은 양반들의 위선에 너무나 오랫동안 진저리나 혐오를 느꼈을 것이다. 재치와 기지가 넘치는 훈장의 모습을 상상하고 재창조한 것이다. 그런데 비록 재치있는 현훈장도 이완용에게는 영락없이 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것은 양반을 상징하는 두루마기, 경남 통영의 갓모자, 합죽선, 전주 부채와 은장도까지 치장하여 허식에 치우친 나머지 곧 자신의 위선이 탄로나기에 이른 것이다. 차림을 본 이완용이 "당신은 과히 선비가 못되오. 작은 고을의 훈장인 주제에 그렇게 치장을 해서 다닐 수가 있겠소. 훔치거나 얻어 입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유교적인 위선의 탈을 둘러쓰지 않은 진정한 관리들의 본연의 모습을 찾았으나 결국은 다시 명분과 논리에 묶인 한 인간을 본 셈이다.

다. 제주민의 한계 인정

아기장수를 비롯한 장사들의 이야기는 제주 전역에서 뭇 서민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곤 했다. 제

주민의 삶의 한계나 역사속의 고난 등을 제주민들은 날개를 잘린 '오찰방' 이나 혹은 먹지 못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인 '막산이' 와 같은 장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종종 표출하곤 한다. 왕후지지의 땅에서 거대한 힘인 왕권에 저항 할 수 있는 영웅들이 등장 할 수 있다는 이상향은 바로 중국의 풍수사인 호종단에 의해서 그 근본적인 힘이 말살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곤 했다.

'막산이'는 제주의 대표적 거인이며 먹을 것이 없어 쫓겨난 어느 종이나 다름없으나 결국은 도적질을 하여 그 힘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면서 어느 기간에 만 지니고 있다가 무의미하게 소멸되어 버렸다. 이는 제주장수들의 배고픔과 힘의 한계인데 곧 제주민의 한계를 뜻한다.

'오찰방' 역시 섬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장수를 상징하는 날개를 잘리고는 중앙에 가서 도둑을 잡아 공을 세웠으나 단지 말을 타고 궁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찰방 벼슬을 얻는데 불과했다.

섬사람으로서 가지는 한계표출은 바로 이러한 장수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며 이야기를 통해 섬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시켰던 것이다.

거인이나 힘이 센 인물의 역할은 노동적 기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곤 했다. 장사들의 이야기가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고 이러한 비극적 결론은 결국 자신들의 삶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대를 살아나갈 수 없던 아기장수 혹은 장사들의 삶을 통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한 예는 강정리 김씨댁 쌍둥이 아기장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버님의 묘소가 '장군대좌형' 이나 묘를 이장하려고 산을 파서 막 헤집으려고 할 즈음 큰 황새가 뒷발을 일으키고 날개를 벌려 푹 고꾸라져 죽고 말았다. 시신을 이장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들은 이미 죽어있었다. 마찬가지로 장수가 살아갈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고 한계다.

'양태수' 역시 날개를 잘리고 장수는 되지 못했으나 장사로서 한평생을 살았다고 한다. 오뉘힘내기 전설인 홍리의 고대각, 시홍리 부대각, 그리고 지역의 영웅적인 장사인 중문 대포리 강씨, 호근리 허욱, 허결 등은 표상적이며 지향적인 인물들이었다.

라. 풍수 전설의 성행

풍수전설은 전국적으로 광포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남성들에 의해 즐겨 향유되곤 했다. 특히 조상이 죽으면 좋은 음택지를 택해 묻음으로써 자손발복, 조상발복을 기원하는 음택풍수에 대한 전설들이 많이 회자되고 향유자들이 욕망을 자극하기도 한다. 또 자연 지형에 대한 기형(奇形)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풍수관념을 이용해서 해석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소목사'는 유명한 지관으로 그에 얽힌 풍수전설들이 많은데 지형에 관한 해석과 함께 욕망(慾望)의 징계(懲戒)와 수분(守分)을 교훈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 소목사가 하루는 지참서(地讖書)에 표시

된 산을 감산리에서 찾아서 군물동산을 보고 '명출호림형'의 길지라고 감탄했다.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통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묻을 자리를 부탁드리자 명당을 가리키며 금기를 지키도록 했다. 터 밑에 있는 돌을 치우지 말고 장사를 지내라고 한 것이다. 곁에서 이를 듣던 사위는 그 명당 자리가 탐나서 틈새를 타 돌을 들어낸 후 파혈을 시켜버렸다.

한편 소목사가 산 자리를 보고 감투자리 몇 개 날 것인데 하며 푸념을 하자 그것을 듣고 있던 김씨 집안의 사람은 거기에 산을 썼는데 집안이 완전히 망해 버리고 말았다.

통인이 소목사가 가르쳐 준 음택자리의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파혈이 되어 버려 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곧 모든 물건에는 임자가 있고 반드시 분수가 있는 법인데, 그 욕망의 경계를 깨닫지 못해서 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방산과 같은 신성한 장소를 장지로 삼았을 때는 하늘이 가뭄으로 흉년을 들게 해서 벌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원리 강훈장' 역시 지관이 알아본 땅을 거스르고 발복 자리에 채구석의 할아버지를 묻어 그 후손이 복을 받았다는 전설은 풍수지리적 지상론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 반영

역사전설은 역사적인 사건과 직접 연결된 장소나 전설상에 나타난 지형지물 또 직접 역사상의 인물이거나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을 경우 역사전설에 포함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진실이 어느 일정시기가 지나면 전설화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누적되어 온 것일 뿐 만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을 가지고 있다.[4] 삼별초의 주역 김방경과, 김통정은 신화와 전설에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제주민의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

항파두리의 삼별초 항쟁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지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제주민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다. 항파두리와 가까운 인근지역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신화나 김통정 전설에는 삼별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곧 애월읍 고성리 항파두리를 중심으로 치러진 삼별초 난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삼별초에 대한 구비전승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물론 김통정이다.

그러나 두 장르상에서 나타나는 인물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결국 본향당 신화에서는 싸움에 이긴 여몽 연합군의 삼장수(홍다구, 김방경, 흔도)가 당신으로 좌정하고 영웅으로 표출되는 데 반해서, 전설에서는 김통정이 영웅화 된다.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도 구연자들의 인식이 이처럼 상반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4) 조동일, 앞의 책, 436-437쪽.

곧 신앙민 혹은 구연자들의 역사 인식에서 달라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며 장르의 특징과도 연결시켜 살필 수 있다.

신화에서 김통정을 잡기 위한 지역민을 대표하는 아기업개의 등장은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결국 여몽연합군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다. 김방경이 장수들을 지휘하여 내성으로 들어가자 아녀자들이 호곡하여 김방경이 안심시켰다.

삼장수가 토지관이 되었다는 것은 여몽 연합군의 승리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신화의 주인공은 고난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거나 싸움에 승리한 자들이다. 곧 토지관은 자신들을 돌봐주기 위해 파견 된 관리들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신화의 모티프 중 용감한 세칫하르방이 토지관의 잘못을 꾸짖었다는 것은 중앙에 대한 비판 인식이다. 이러한 비판인식은 전설에는 김통정을 선호하고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염원을 달성해 줄 인물로 기대 한 전설적 내용과도 상통한다.

지방의 토속 세력으로 볼 수 있는 세칫하르방은 바로 토지관 위에서 제를 받게 된다. 비록 승리자를 당신화의 주인으로 만들더라도 외세의 세력과는 긴밀하게 결합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주인임을 인식하는 제주민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전설은 김통정에 대한 역사 전설로 곧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을 선택하여 향유자들이 인식을 덧붙여 탄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연자들은 김통정을 지혜를 갖춘 장수로서 신비한 도술과 외모적 특성을 지닌 영웅성과 같은 존재로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전설은 역사 속의 주인공을 선택하면서도 항파두리 인근의 자연 지형을 김통정과 연결시키면서 서술해 나간 자연 지형 전설로서의 특징도 함께 갖고 있다. 곧 구연자들은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전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하면서도 김통정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고, 뿐만 아니라 더욱 설득력이 있는 증거물을 선택한 것이 '흙붉은 오름', 그리고 '장수물'인 것이다.

전설 전반에 나타난 김통정은 지역민들에게 회자 될 때에는 상당히 영웅적이고, 바라보는 관점 역시 긍정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곧 지역민들은 관군에 협조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삼별초를 도왔을 법하다. 이 당시 전사한 김수의 묘지(墓誌)에는 "토착민이 관군에 협조하지 않고 적을 도왔기 때문에 패배했노라" 라고 적고 있다고 한다. 제주사람들이 삼별초를 더 선호했다는 것이다.[5)]

그러나 도민들은 김통정의 영웅성을 강조하나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곧 여몽 연합군과의 대결이라는 세계우위에 입각 결국 김통정은 좌절을 겪고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향유 집단은 김통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관에 의한 억압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곧 자신들의 관에 대

5)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81쪽.

한 불만을 해소 시켜줄 영웅을 기대했으나결국은 역사적 사실에 의거해서 패배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목호의 난과 최영장군에 대한 일화가 일정지역과 연결되어 전설화 혹은 유래담으로 전승되는 예도 있다.

서귀포시 법환리 '막숙' 은 공민왕은 23년 (1374년) 최영에게 군사를 주어서 토벌하게 하였다. 최영은 법환리 포구에 막을 치고서 군사를 독려하며 목호의 잔당을 섬멸시켰다. 이런 사건으로 그 지역을 막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지명 유래담이다.

범섬 남쪽 '큰항문이도' 는 해식동굴로 30척의 배를 숨겨둘 만한 곳인데 동굴 벽 위에는 꽃처럼 아름다운 암석들이 박혀있었고 원나라의 목자들이 여기 와서 숨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막동산' 은 고려말 1374년 목호의 난을 진압하러 온 최영 장군의 군사가 짐승가죽으로 막을 치고 머물렀다 해서 유래되었다.

목호의 난 당시 범섬을 점거한 목호의 잔당을 최영장군이 공격하기 위하여 고려 군사들을 조밀하게 숨겨두었다고 해서 '빽빽이동산' 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오달이' 는 목호의 난 당시 뭍에서 최영 장군이 이끄는 군사에게 밀려 범섬으로 도망친 목호 두목과 잔병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오달이라는 장군이 일명 '큰태왓' , '군사왓' 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사들을 훈련시켰던 곳이다. '벨진ᄆᆞ루' 는 목호군의 최후 격전지인 범섬을 포위하고 최영장군이 육로를 통하여 도주하는 적을 섬멸하기 위해 별도로 진을 치고 방어를 했다.

바. 인근 소재에 의한 변이

제주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설화를 다시 지역적으로 소재화 하면서 한 지역의 역사와 사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역사전설이나 인물전설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 예를들면 덕수리에서는 전도적인 분포를 보이는 '소목사' 를 사계리 오댁묘와 연결하고 도원리 장훈장과 채구석을 등장시켜 지역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날개달린 아기장수 유형인 오찰방 그리고 신당을 철폐한 이형상, 이좌수 등 전형성이 강한 인물들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의 소재와 연결시키면서 전승하고 있다.

민담 자료조사에서 보면 〈산방산의 금장지〉는 역시 산방산 전설의 차원보다는 금장지와 기우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유형의 일종인 〈사람 잡아 먹는 오랑이〉와 같은 호랑이를 다루면서도 인간과 호랑이의 친밀감을 그린 〈호랑이의 눈썹〉, 동화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민담형을 구연하고 있다.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의 호랑이가 제주 지역에 없었음을 볼 때 구전의 전파로 볼 수도 있다.

사. 근대기 해녀 항일 역사 사실담 생성

해녀 항일이 일어났던 구좌읍 지역의 하도, 세화, 우도 등에서는 해녀 항일담이 종종 구전되고 있으며 특히 실제 사실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서 기존에 전승되던 다른 설화가 거의 구전되지 않고 있다. 근대기의 역사적 사실이 두드러지면서 부각되었기 때문이며 전통적인 이야깃감들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담은 해녀운동의 과정과 역사적 전개, 해녀 항일운동의 경과 및 당시의 상황, 장소와 인물 등이 자세하게 증언되고 있다. 항일에 대한 증언은 거의 비슷한 경험과 동일한 모티프의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녀 항일 투쟁은 구좌면 해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본의 수탈에 저항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투쟁을 거듭해 왔다. 제주 해녀들의 항일운동은 일제의 경제 수탈에 맞선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임과 동시에 일제의 수탈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항일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러한 사실담의 주된 모티프들이 역사전설화 될 가능성이 높다.

- 젊고 똑똑하게 보이는 주동자인 사람들의 흰 저고리에 붉은 잉크로 표시하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잉크 물을 뿌려서 표지한 후 족족 검속하여 차에 태우고 이를 말리는 해녀들과 경찰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찰관 모자를 벗겨버리는 용감한 해녀들이 있었다. 해녀들은 아주 강한 의지로 일경에 항거하였다.
- 일경들은 가혹하게 억압해서 체포된 청소년은 물론이고 여성들에게도 혹독한 매질로 관련자(지도자)색출에 혈안이었다. 소위 '쇠좃매' 란 말이 생기다시피 했다.
- 잡혀간 해녀들 중에는 분만해서 10일도 채 못 되어 체포되어, 40여일 만에 풀려나와 보니 애기는 죽고 말았다는 비운의 이야기도 전한다.
- 다행하게도 또 한 해녀는 애기를 분만해서 7일 밖에 안 된 때에 구금되었으므로 풀려 돌아오자, 그 시누이가 애기를 업고 다니면서 젖을 먹여 살렸다.
- 해녀들이 항일 때 주로 불렀던 '해녀가' 는, 옥중에서 강관순에 의해 면회 온 사람에게 넘겨져 해녀들은 주로 야학에서 가르쳤다. 노동독본, 농민독본, 국문, 산수를 배웠다.
- 김옥련은 야학에서 한영택을 만나 결혼하고 김옥련의 남동생은 김재득으로 혁우동맹의 일원이었으며 부승림은 부춘화의 오빠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녀고초와 투쟁을 이야기하는 중에 무단정치와 경찰행정의 현실을 보

여주는 예를 구전을 통해서 잘 살필 수 있다.

3. 장르상의 변이

가. 신화, 전설, 민담의 장르 공유

산문 서사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먼저 신화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설 민담시대가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작가의 작품인 소설시대가 있다[6]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신화 전설 민담과의 장르상의 변이를 명확히 살필 수 있는 예는 '설문대할망' 자료다.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에는 "백록선자(白鹿仙子)와 선마고(詵麻姑) 신에게 절하며 축원했다"(영조 46년)라는 귀절이 나오는데 이는 도교적 신선 사상과 더불어 여신성을 가진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의 산신으로 좌정했었음을 의미한다.

거인여신으로서의 설문대는 거인으로서 인물의 창조행위와 관련해 치마에 흙을 담아서 산봉우리를 만든다거나, 배설한 대소변으로 산천을 만드는 행동을 희화화하는 모티프는 마고할미의 전설과 닮아 있다. 원초적인 신격으로 세계창조행위와 자연물의 내부를 질서화한 두 여신은 대모신(the great mother)으로서의 두 존재 관련성을 암시한다.

신라에서는 국행제등이 영산(靈山)에서 치러진 산신제에서 시작되고 있다. 신라의 산천제에서 산신은 민간에서는 호랑이를 신봉하는 호(虎)산신이나, 국행제에서는 남성신과 여성신으로 등장한다. 설문대 할망은 강원도의 마고할미, 북한산 노적봉의 미륵할미처럼 창조형 거인 여신이며 여산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신앙의식은 영실 오백나한의 불교와 성모여산신의 도교적 성격과 관련되면서 호국신적 성모신 성격도 다분히 첨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삼국유사 감통 제7에 나오는 선도성모는 중국의 제실지녀(帝室之女)가 남편 없이 잉태하여 사람에게 의심을 받자 배를 타고 진한(辰韓)에 와서 해동의 신라시조(新羅始祖)인 혁거세를 낳은 여산신이다. 신라 남해왕(南解王)의 비, 운제(雲帝)부인인 운제성모(雲悌聖母), 혹은 가야산성모(伽倻山 聖母), 지리산(智異山), 치술령(鴟述嶺) 신모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신라 초기의 여산신의 출현은 "원시사회에 있어서 강한 모권(母權)과, 원시 종교에서 여무(女巫)가 주제자였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7]

곧 선도산 성모신화는 혁거세 신화보다 앞선 것이므로 신적 속성은 고대국가 성립 이전의 신관념

6)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37쪽.
7) 손진태, "朝鮮 古代의 山神의 性에 就하여",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p.275.

으로 표상가능한데, 그 역할은 지모신(地母神), 생산신(生産神)적 역할[1]을 담당했다. 성모의 오줌줄기가 힘이 세고 양이 많았다는 것은 생식력과 다산신을 의미하는데, 이는 성모신, 서구암의 마고할미, 설문대가 유사한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신격들은 세계창조의 대모신으로 건국신화에는 편입되지 못한 채 국가적인 체제가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해 온 고유한 창조행위를 담당한 생산신으로 숭앙된 원초적인 신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2]

신화는 구체적인 증거물과 연결되어 전설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문대 신화와 더불어 '오백나한' 과의 관련이다.

고려가 불교를 숭상해서 국가 종교로 삼고, 태조 개국 원년 천신(天神)과 산신(山神) 용신(龍神)을 합해서 재를 올리는 팔관회를 국행제로 시작했다. 불신과 산천의 음조(陰助)로 고려를 개국할 수 있었다고 믿었고 호국불교 및 산천 숭배의 신앙은 고려시대에 계속되었는데[3],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설문대와 오백나한에 대한 전설이다. 이 전설은 신화적 속성을 감추고 상징물과 연결되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 이야기다.

이 설문대 할망신화는 할망의 아들들을 영실기암인 오백나한과 연결시키면서 창조적 여신의 성격은 사라지고 전설화된다. 한편 설문대 할망을 희화한 민담에서도 신화에서 나타난 신성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신화가 전설이나 민담으로 구전되는 과정에서 장르적 전이가 일어나 신성성은 사라지고 속세화되거나 희화(戱化)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대국가 이전의 원초적 관념의 성격을 띤 산신은 다시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처럼 단군(檀君)이 남성성을 띤 남산신(男山神)이 된 것처럼 성(性)이 바뀌게 된다.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남성신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신라 강성시대 이후부터 고려 통일 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지배계급 또는 지식계급 사이에 중국 전래의 부권(父權)본위의 사상에 의하여, 혹은 필연적인 사회사상에 의하여 점차로 산신이 남성으로 화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11] 이처럼 설문대 신화는 고려기를 거치면서 바로 남성신인 'ᄇᆞ름웃도' 와 같은 男神(남신)으로 대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화산회토의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땅 곧 '모자람' 의 자연적· 지리적 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문대 할망인 거녀의 창조신화를 탄생시키기도

---

1)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1993.
2) 강진옥, 윗글, p. 36쪽.
3) 金榮振, 『韓國自然信仰硏究』,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5, p. 73.
11) 손진태, 앞의책, p.270.

하고, 한편 신선의 사는 땅이 온전한 수 100이 아닌 99계곡으로 하나가 부족한 이미지를 통해 못사는 사람들의 삶을 변명했다.

이것은 자신들의 삶의 합리화 방법이었다. 처음 태초부터 생긴 부족과 가난은 제주 사람들인들 어떻게 하겠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보다는 불모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세적이며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한라산신을 만들고 각 마을마다 가지를 뻗으면서 전도적으로 분포시켰다. 신들은 외부의 여성을 만나서 살아가기도 하고 현실에 적응 혹은 투쟁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제주인의 삶의 모습 그대로이다.

제주민들은 제주도의 형세를 설문대 할망이라는 거녀를 설정하여 그녀의 행동과 신체에 따라 자연지형을 해설하고 전설화해서 전한다. 성산쪽에서 구전되는 '거시기' 큰 설문대와 같은 민담을 만들었다. 신성성을 지닌 할망의 모습보다 민담으로 구전되던 할망에게 내포된 잠재력이 제주민들에게는 더욱 삶의 활력소였을 것이다. 불모지의 땅에 대한 합리화를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했던 서민적 사고가 훨씬 역동적인 삶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나. 당신화간의 지역적 연계

한라산계 당신 신화 계보는 송당계 본풀이, 예래계 본풀이, 금악계 본풀이와 연관시켜서 본풀이들의 연계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12]송당본풀이와 한라산계 본풀이와의 연계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은 송당 본향당신 아들 중에서 다섯째 아들인 '수산하로산' 인데 이 수산하로산은 한라산계 아홉형제 중에서 첫째 아들이 되고 있다. 곧 송당계와 한라산계는 서로 유명 신당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의 명칭이 넘나듦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라산계와 예래계와의 관계는 부녀지간이 되어 여성신 계보를 형성한다. 아버지 '하로하로산' 과 '족다리 대서부인' 사이에 딸 일곱을 낳았다. 이 여신들은 안덕면 창천, 통천, 감산 등의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 지역 여성들의 혼인에 의한 전파와 마을 분리에 의한 신앙분리로 보고 있다.

서귀포의 신화는 주로 당본풀이에서 연유한 당 신화들이 주를 이룬다. 당본풀이는 신의 계열을 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웃한 지역과 연계를 가지며 마을 설촌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예촌과 효돈, 보목, 토평이 서로 동일계 신화로 관련이 있으며 한라산신계의 신이고 보목과 효돈은 같은 신으로 되어 있다. 곧 당본풀이는 좌정위치 뿐 만 아니라, 신의 특성, 위계, 혹은 신의 식성마저도 설연

12)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하고 있다. 각 당의 좌정위치 및 제일과 당 본풀이를 통하여 당의 특성과 신앙민의 인식을 살필 수 있다.

신화에 나타난 신들은 인간적인 속성을 지닌다. 구연되면서 공동의식에 따라서 변이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본풀이가 지역민의 공동체적인 인식을 형성하거나 관습화하는데 서귀당 본풀이인 경우는 서귀리와 동홍리간의 문화적인 문맥을 형성하여 두 지역민들의 감정마저도 관습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효돈 본향당인 ᄌᆞ배낭알당은 신하효리민을 신앙권으로 하는 본향당으로 쇠소깍에 위치해 있다. 쇠소깍 ᄌᆞ배낭(구살잣밤나무)아래 좌정했다고 해서 'ᄌᆞ배낭알당' 이라고도 한다. 당신은 두 신위로 남편신인 조노깃한집 'ᄇᆞᄅᆞ못도' 와 여신이면서 남신의 첩인 '새금상ᄯᅳ님' 이 좌정되어 있다.

이 신들은 생산, 물고, 호적, 유아를 관장하게 된다. 제일(祭日)은 1월 12일, 2월 12일, 11월 14일이다. 신화인 본풀이는 한라영산에서 솟아나신 '백관님' 과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나신 '도원수', 칠오름서 솟아나신 '도병서' 삼위는 예촌본향이고, 보목리 '조노기' 본향은 한로영산 서남목계 백록담서 솟아난 'ᄇᆞᄅᆞ못도' 다.

ᄇᆞᄅᆞ못도 부인은 '신중부인' 인데 하루는 부인을 거느리고 백록담에서 차츰 내려오다가 '제환지' 에(서귀읍 상효리 지명) 와서 보니 칡오름에 청기와와 흑기와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신이 있으니, "어떤 어른이 좌정했는가?" 하고 의문을 삼았다.

ᄇᆞᄅᆞ못도는 부인을 '토평' 에 있는 허좌수 집에 가서 맡겨두고 혼자 청기와 집에가 수작을 하니 한 분은 할로영산 백관님이고 한분은 강남천자 도원수, 마지막 한 분은 칡오름 도병서였다. 세 분이 바둑과 장기를 두고 있어 자신을 소개하여 나이를 헤아리니 조노기 본향이 가장 위였다. 친목화합으로 바둑 장기를 두었는데 예촌 본향이 이겼다. "내가 바둑이 졌으니 어딜로 가서 좌정ᄒᆞ쿠가?" 예촌 본향당은 자신이 이겼으니 위로 가서 좌정하고 조노기는 보목리로 내려와 좌정하게 된다. 이때 마침 예촌 본향당의 '당하니' (매인심방)가 되어 대대손손 위하게 된다.

조노깃당 신이 신중부인이 있는 토평엘 와서 보니 부인에게서 종경내(돼지를 불에 그을렸을 때 단백질이 탄 야릇한 냄새)가 나 부인에게 물었더니 돼지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내장을 먹었다고 대답했다. 남편신은 냄새나고 더럽다고 해 자신과 별거를 선언하게 되어 신중부인은 토평에 좌정하게 된다. 생산, 물고, 호적, 육아에다 수렵(狩獵)까지 관장하게 되며, 제일이 6월 7일, 11월 7일로 일뤠당계(칠일계) 신으로 좌정한다.

한편 부인과 헤어지게 된 남신은 '새금상ᄯᅳ님애기' 인 첩을 얻게 되었다. 남편과 같이 좌정하여 신앙민들을 관장하는 데 여신은 억세고 질투가 심하여 단골들에게 많은 양의 재물을 요구하는 당신

이 되었다.

그런데 서귀포시 보목리에 있는 조노깃당의 전설에는 위와는 달리 외눈배기 섬의 전설이 공유되고 있다. 오랜 옛날에 이 지역 사람들은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했다. 마을에는 일곱 아들을 둔 형제가 고기잡이에 종사했는데,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외눈백이 땅 괴물들이 사는 섬에 표류를 하게 되었다. 날이 저물어 인가를 발견하여 들어가 늙은 노파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노파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피곤하여 벽에 의지하여 잠을 붙이면서 이 집의 분위기와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 눈을 붙이고 있으려고 하자 남자 주인이 들어왔다. 노파는 일곱 놈이 집에 들어와 가두어 두었다고 남자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형제들은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써 보았으나 전혀 열려지지 않았다. 형제는 상투에 꽂을 동곳(상투에 꽂는 비녀의 일종)을 가지고 벽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 얼마안가 구멍을 통해 빠져 나올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 큰 바위 위에 백발 노인이 큰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다. 형제들을 그 노인에게 간청을 했다.

"우리들을 살려주시오" 노인은 큰 바위를 굴려서 그들을 숨겨 주었다.

얼마 있노라니까 외눈박이 남자가 개를 끌고 쫓아 왔다. 영감님! 이 곳을 지나간 일곱 놈을 못 보셨습니까? 웬걸 저쪽으로 방금 지나 갔는 걸. 영감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외눈백이가 돌아가버리자 백발노인은 자초지종을 이들에게서 듣고 난 후 배를 마련해주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말을 해서도 안돼네" 형제들은 이 말을 듣고는 고향 보목리까지 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큰 형이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한마디를 하자 배가 다시 떠나온 섬으로 돌아가 버렸다.

"왜 말을 허수롭게 들으시오"하고 노인은 이들을 나무라며 가상히 여겨 직접 제주바다로 형제들을 데리고 왔다. 형제들은 보목리에서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고 번창하게 살면서 늘 그 노인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절오름 아래 당집을 지어 노인을 모시기로 한 것이다. 그 백발노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이었다.

그 이후는 보목리를 지켜주는 당신으로 조노깃당에 새롭게 모셔 마을 사람들에게 숭앙을 받아오면서 매년 정월 13일과 2월 12일, 동짓달 14일을 는 제일로 정하고 온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번영을 빌고 있다. 영등굿의 영등신은 외방신으로 외눈배기 섬에서 온다고도 한다.

4. 개별 화자의 특성에 따른 변이

개별화자 곧 유능한 창자에 의해 기존의 작품에 흥미를 더하면서 변이시키는 예들이 나타난다. 역사와 인물, 풍수에 대한 소재는 주로 남성창자들의 전가물처럼 이용되었고 조상 숭배와 효를 강조하거나 무속신앙에 대한 거부 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은 주로 민담을 구연하는데, 원형을 그대로 구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을 창안해서 더욱 다양한 소재와 변이형을 구연하여 전승되고 있는 예도 나타난다.[13]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의 구연한 민담 속에는 건강한 웃음과 해학이 잘 나타난다. 죄 없는 세 동무의 범죄를 추궁하다가, 자신의 여러 가지 약점과 치부를 내보이는 재판장을 통해서 서민들의 재치를 표출하고 있는데 '괴상한 세동무, '꾀로 장가든 정승아들, ' 신기한 호랑이 눈썹', '악한 며느리', '사람 잡아 먹는 이야기', '사람이 돼지로 환생한 이야기' 등이 있다. 서민들의 지혜를 주제로 기존에 있던 이야기 속에 더욱 흥미를 가미해서 재미를 더한 이야기들로서 서민들의 삶의 건강성 베어난다.

'괴상한 세 동무'는 지혜로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고 재판장의 약점을 알고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고, '꾀로 장가든 정승아들' 역시 지혜로서 부잣집의 사랑하는 딸을 얻어 장가들었다는 이야기다.

'신기한 호랑이 눈썹'은 보은담의 계열로 볼 수 있으며 처자와 자식을 걱정하는 남편이 호랑이의 도움을 받고 잘 살았다고 전한다.

'악한 며느리'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 시어머니가 아기를 흔들면서 '나무아미타불' 을 외쳤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를 며느리에게 물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는 뒷집의 홀애비인 김서방을 의식해서 '뒷칩이 김서방김서방'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기를 흔들 때마다 '뒷칩이 김서방, 뒷칩 김서방' 하고 노래했다. 아들은 늘 어머니가 김서방을 부르는 소리가 너무 안타까워하던 차에 뒷집의 김서방을 찾아가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말했으나 거절당한다.

그 이후도 어머니는 연자매 팡돌에 앉아서 계속 외치다가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하늘 옥황으로 올라가게 된다. 며느리도 어머니가 간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길가에 나와서 계속 외쳐 대었는데 날이 아주 좋은 날에 날벼락을 쳐서 며느리를 구렁이로 변신하게 하고 지옥에 떨어뜨려 버렸다. 시어머니를 속이고 부모 공양을 잘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벌을 내렸다 것으로 효를 권하고 악을 징치하는 권선징악의 기본적인 사고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사람이 돼지로 환생한 이야기' 에서는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저승에 갔다가 교

13) 제주대학교 국어국문 · 국어교육 ,「學術調査報告書」제7집, 1982.

훈을 얻어서 돌아온 이야기인데 생명을 죽이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이 저승에 가서 깨우침을 얻은 후에 불교를 믿고 도를 게 되었다는 불교 포교적인 색깔이 짙은 이야기다.

5. 의도적인 개작과 변이

의도적인 개작과 변이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변이 형이다. 민속축제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전통속에 내재화 된 민요가 다시 새로운 맛을 지닌 노래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을의 전승민요 생성에 색다른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덕수리는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1980년에 '방앗돌 굴리는 노래'로 대통령상을 받고, 1979년에는 '불무노래'로, 1981년에는 '집줄 놓는 노래'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2006년 47회 전국민속 경연대회에 '곳바구리 물통 파는 놀이'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이처럼 이곳 주민들은 이 지역의 민속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전승 보존과 함께 다시 연희화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전통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에서 열리는 탐라문화제와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전국민속경연대회와 같은 민속축제는 특히 전승민요를 발굴하고 연희화하여 전승하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축제들은 민요의 온전한 전승을 요구받으면서도, 기존의 노래를 바탕으로 다른 새로운 민요를 창조해서 향유하고 즐기면서 변이가 일어난다. 그 결과 덕수리의 독자적인 민속 문화적 특성 외에도 덕수리와 같이 민속 연희를 자주 만들어서 공연했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것은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속 연희를 재구성을 위해 기존에 있는 민요들을 이용하여 연희화, 놀이화하는 것으로, 실제 2006년 제 47회 전국민속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기존에 전승되던 노동요들을 '물통파는놀이' 속에 포함시켜 놀이요로 만들었다. 덕수리 마을 안에는 물통이 6-7곳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곳바구리는 가장 대표적인, 큰 물통인데 그 모습이 마치 꽃바구니처럼 생겼다고 해서 '곳바구리'라고 불렀다. 물통을 파서 물을 모으는 것은 '물'을 구하여 저장하는 일이므로 지역민들이 해야 되는 가장 필수적이며 절실한 일이다.

서로가 땅을 파서 힘을 합쳐서 물통을 만들고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다시 흙과 돌을 이용하여 축조하고 소를 이용해서 흙을 이긴 후에 흙을 골고루 바르고 밑바닥은 달구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다진다.

부르는 노래는 따비를 이용하여 땅을 파는 〈따비질소리〉, 파낸 삼태기나 가래로 흙을 꺼내고 돌로 둑을 축조하는 〈솔기소리〉, 그리고 흙을 이기고, 흙을 바르며 밑바닥을 다지는 〈원달구소리〉, 물

통이 완성되어 그 기쁨을 노래한 〈서우젯소리〉로 구성된다

원시공동체가 물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염원을 의례에 담고, 서로 힘을 합해서 땅을 파고, 물통을 만드는 노동의 신명이 연희와, 축제를 만들었다. 사설 내용에서는 제주 노동요의 고정구들을 이용하여 정연한 사설을 만들었으나 즉흥적이고 현장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14)]

6. 결어

구비문학에서 1차적 구성 요소인 언어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곧 제주사람들에 의해 전해지는 구비문학은 제주어가 올곧이 살아 전승되고 저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화 되어 정착되고 언론 매체의 발달로 구비문학의 전승은 이미 대가 끊긴지 오래되어 제주어의 전승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실재적인 구비 전승은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연된 혹은 인위적인 상황에서 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구연층이 제한되는 점에 착안하여 보존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있는 구연 계층 및 구연자의 구비작품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하고 기존에 조사된 구비문학자료들을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와 같은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 이러한 구비전승, 구비문학, 구비언어 자료들의 정리와 보존 전승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제주어 전승보존은 마치 부스러기와 같아서 언어 체계는 곧 무너지고 그 존속은 불가능하다.

기존에 수집된 구비문학 자료에는 제주사람들의 언어로 표현된 세계관과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구비문학의 전승변이를 살피면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시적 변이와 함께 역사를 반영하며, 공시성에 따른 장르 내부적 변이, 개별 화자에 의한 또는 자연적이지는 않지만 목적성을 띤 의도적인 변이도 나타난다.

우선 지역적 전승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동 유형 전설의 전도적인 분포와 함께 유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립적 시각, 제주민의 한계성 인식과 풍수전설이 곳곳에서 구전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역사적인 사건을 반영하거나 인근 지역의 소재를 차용하기도 하며, 김통정이나 해녀항일에 대한 사실담도 전설화되고 구전되고 있다.

설문대이야기가 신화, 전설, 민담 형식으로 구전되었다는 것은 민중들에게 선호도가 높고 향유층의 광포성을 뜻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장르 내부에서 일어난 변이 현상을 추정가능하고 또한 당신화간에도 지역적인 연계가

14) 국립민속박물관 , 『덕수리민속지』, 2007, 287쪽.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연능력이 뛰어난 화자에 의한 변이는 언어와 문학성을 풍부하게하며 그 흥미를 더하는데, 목적성을 띤 의도적인 개작은 현장감과 언어에 내포된 연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참고문헌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1993.

국립민속박물관 , 『덕수리민속지』, 2007.

金榮振, 『韓國自然信仰硏究』,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5.

손진태, “ 朝鮮 古代의 山神의 性에 就하여”,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이수자,『설화 화자 연구』 박이정, 1998.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제주대학교 국어국문 · 국어교육 ,「學術調査報告書」제7집, 1982.

제주도, 『제주의 민속 Ⅲ』, 1995.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牝牛와 牡牛

고 광 민 (제주대학교)

牝牛와 牡牛 1)

-耕起牛를 중심으로-

고광민(제주대학교)

1. 머리말

제주도에서 牛飼育의 근본목적은 노력사용이었다. 소의 노력사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소의 힘을 빌리어 쟁기로 밭을 가는 耕起牛의 암소와 수소의 차이는 농경 집단, 곧 마을에 따라 다양하였다. 또 암소와 수소의 수적 비율에 따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牛飼育의 방법은 썩 달랐으니, 農耕牛의 암소와 수소 비율, 그리고 그에 따른 牛飼育 방법의 자료 수집은 제주도의 목축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이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이 아니다. 1968年 9月 21日에 제주도에서도 경운기기술교육의 수료식이 최초로 이루어져, 지금은 耕起牛 대신 耕耘機와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으니 말이다.

제주도에 경운기가 보급되기 이전에 楸子島를[2] 제외한 제주도는, 13개의 읍면에 162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나의 마을에는 여러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지는 수도 있었지만, 하나의 행정마을은 공동목장을 共有하는 수가 많았다. 지금의 시점에서 마을마다 耕起牛인 암소와 수소의 비율과 牛飼育 방법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162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그 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農牧으로 생계를 꾸려온 村老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경운기 보급 이전 耕起牛인 암소와 수소의 비율과 牛飼育의 방법을 꾸준하게 見聞하여왔다. 그리고 한 마을 안에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 面談見聞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다. 모두 256명의 村老로부터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제주도 사람들은 1~2년에 한번 이는 초가지붕의 재료인 '새[茅]'를 밭에서 재배하였다. 이런 밭을 두고 '새왓[茅田]'이라고 하였다. '새'도 성장곡선을 그렸다. 그 주기는 10년 안팎이었다. '새왓'의 지력이 떨어져 '새'가 성장을 멈추면, 3년쯤 잡곡농작을 이루어내다가 다시 茅

1)이 원고는 日本・東北藝術工科大學에 있는 東北文化硏究센터의 계간지 『季刊東北學』(第十三号 2007년 秋)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 楸子島는 행정적으로만 제주도이었을 뿐, 문화적으로는 한반도의 附屬島嶼나 다름없으니, 여기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作을 하였다. 茅作에서 農作으로 들어갈 때 '새왓'을 일구는 일은 따비나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겨리쟁기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았다.

둘째, 거의 해마다 農作이 이루어지는 熟田을 일구는 耕起牛인 암소와 수소의 비율을 체크하였다. 만약에 비율의 차이가 드러날 경우, 그 까닭을 다각도로 찾아보았다.

셋째, 한 마을에서는 牛飼育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였다. 암소와 수소의 비율에 따라 牛飼育의 방법이 어떻게 드러나는 지를 가늠하여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암소 또는 수소가 90% 안팎인 경우는 絶大優勢라고 하고, 암소의 絶大優勢는 ○, 그리고 수소의 絶大優勢는 ●으로 하였다.

임소 또는 수소가 70% 안팎인 경우는 優勢라고 하고, 암소의 優勢는 ◎, 그리고 수소의 優勢는 ◉으로 하였다.

암소 또는 수소가 50% 안팎인 경우는 均等이라고 하고, 암소와 수소의 均等은 ◐으로 하였다.

蒐集한 資料 調査對象者 별로 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의 행정마을이 여러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평균하여 암소와 수소의 비율을 算出하였다. 예를 들어 城山邑 三達里는 두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비교적 해변 쪽에 위치한 城山邑 三達2里인 경우는 암소가 80%, 수소가 20%, 그리고 비교적 산간 쪽에 위치한 城山邑 三達1里인 경우는 암소가 70%, 수소가 30%이었다. 이럴 경우 平均의 셈값은 암소가 75%, 수소가 25%이니, 城山邑 三達里는 암소 優勢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蒐集 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濟州島 耕起牛의 牝牡比率 分布圖」를 만들었다(圖1).

圖1「濟州島 耕起牛의 牝牡比率 分布圖」



2. 암소와 수소

암소와 수소는 일정한 훈련을 거쳐야만 耕起牛가 되었다. 생후 2년이 되는 해에 밭갈이를 위한 길들이기가 이루어졌다. 이때의 암소와 수소를 두고 '사릅'이라고 하였다. 耕起牛로의 길들이기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밭갈이 때처럼 소의 목에 멍에를 씌우고, 쟁기 대신 무거운 돌멩이를 매달았다. 이때의 돌멩이를 두고 '곰돌'(또는 '코돌')[3]이라고 하였다. 암소나 수소는 '곰돌'을 끌면서 험한 길을 오르고 내렸다. 험한 길에 박힌 돌멩이와 '곰돌'은 부닥뜨릴 때마다 소리가 요란스러웠다. 이 소리에 놀란 소는 겁을 먹고 줄달음치기도 하였다. 다시 빈 밭으로 가서 '곰돌'을 매달고 며칠 동안 길들이기를 하다가, 드디어 쟁기를 채우고 밭갈이를 익혔다. 처음에는 사람이 소를 끌어 주기도 하였다. 마음보가 좋은 소는 그날로 끌어 주는 일을 그만두는 수도 있었다. 고약한 놈은 쟁기를 끌지 않으려고 드러누워 고집을 피우는 일도 있었다. 이런 놈에게는 화톳불을 피워 놓고 그 불에 달군 쇠토막을 엉덩이에 대어 지짐질을 하는 수도 더러 있었다. 그렇게 해도 일어서지 않으려는 놈에게는 끓는 물을 귓구멍에 부어넣기도 하였다. 이쯤이면 어떤 소라도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수소는 두 가지가 있다. 불알이 있는 소를 두고 '부사리', 그리고 불알을 去勢한 수소를 두고 '중성귀'라고 하였다. 수소의 去勢는 7세 안팎에 이루어지는 수가 많았다. 이쯤의 수소는 힘이 가장 왕성할 때이기 때문이었다. 성질이 사나울 뿐만 아니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말을 잘 안 듣는 쪽으로만 기운을 쏟으려는 수소는 去勢하여 '중성귀'로 만들어 버렸다.

암소와 수소의 耕起牛는 여러 가지 점에서 差異가 있었다. 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암소와 수소의 耕起牛 대비

3) '곰돌'의 무게는 마을에 따라 썩 달랐다. 濟州大學校附屬博物館에는 涯月邑 於音里 姜氏가 소유하였던 '곰돌'(수장번호1615-41)과 舊左邑 松堂里 金氏가 소유하였던 '곰돌'(수장번호1647-41)이 있다. 전자의 무게는 80㎏이었고, 후자의 무게는 25㎏이었다. 그러니 涯月邑 於音里 姜氏의 '곰돌'은 舊左邑 松堂里 金氏의 '곰돌'보다 무려 3배 이상 무거웠던 셈이었다. 이는 두 지역 농경지의 물리적 조건의 차이 때문이었다. 토양의 물리적 조건은 토양과 자갈의 함량이 핵심이다. 제주도 토양의 물리적 조건의 데이터는 자연과학의 영역이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두 지역 농경지의 물리적 조건은, 耕起牛인 암소와 수소의 비율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涯月邑 於音里는 수소 絶大優勢 지역이고, 舊左邑 松堂里는 암소 絶大優勢 지역이었다.

項目	越冬飼料	1日耕起坪數	速度	力	疲勞度
암소	30바리	600坪	急	弱	弱
수소	50바리	750坪	緩	强	强

〈그림 2〉의 「越冬飼料」와 「1日耕起坪數」는, 安德面 德修里 宋榮化씨(남, 1922년생)의 사례를 통하여 들여다보았다. 이 마을의 '섯드리' 지경은 자갈이 많아 암소로의 밭갈이는 힘이 부쳤다. 그러니 이 마을의 耕起牛는 암소와 수소의 비율이 均等하였다. 그러니 송씨는 한평생 耕起牛로 암소와 수소를 거느려보았다. 그리고 소의 먹이가 시들어버린 겨울에는 소를 牛舍 매어두면서 소에게 乾草를 먹였다. 이때의 사료를 '촐' 이라고 하였다. 암소 한 마리는 30바리, 그리고 수소 한 마리는 50바리의 乾草를 먹어야 겨울을 넘길 수 있었다. 乾草가 부족한 집안에서는 고구마줄기와 조짚을 섞어 주는 수도 있었다. 약 800평의 '촐왓' 에서 30바리의 乾草가 생산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30단의 乾草를 두고 한 바리라고 하였다. 乾草는 일정한 밭에서만 생산되었다. 이런 밭을 두고 '촐왓' 이라고 하였다. '촐왓' 은 가장 메마른 땅의 밭이었다. 그리고 耕起牛인 암소가 하루에 600평의 밭을 갈 수 있었다면, 수소는 750평의 밭을 갈 수 있었다.

〈그림 2〉의 「速度」는, 翰林邑 飛揚島里 尹萬先씨(남, 1935년생)의 사례를 통하여 들여다보았다. 飛揚島는 표고 114m인 하나의 오름으로 이루어진 섬이나 다름없다. 섬사람들은 이 오름을 두고 '암메' 라고 하였다. '암메' 는 陰山이라는 말로, 분화구를 가지고 있는 오름이라는 말이다. 이 마을의 農耕地는 오름 斜面에 붙어있는 수가 많았다. 그러니 '암메' 의 斜面에 있는 農耕地를 쟁기로 가는 데는 비교적 速度가 느린 암소가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니 이 마을의 耕起牛는 암소가 絶大優勢하였다.

〈그림 2〉의 「力」은, 城山邑 三達里 康性泰씨(남, 1930년생)의 사례를 통하여 들여다보았다. 이 마을은 濟州島의 동남쪽에 위치하였다. 이 마을 사람들은 '새왓' 은 수소 두 마리로, 그리고 熟田은 암소 한 마리로 밭을 갈았다. 그러니 이 마을의 耕起牛는 암소가 優勢하였다. 강씨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전설을 들려주었다.

漢拏山의 火山이 噴出하는 날, 濟州島에는 西風이 세차가 불었다. 그러니 비교적 무거운 粘質土와 자갈은 濟州島의 西部地域에 쏠렸고, 비교적 가벼운 火山灰土는 濟州島의 東部地域에 쏠렸다. 그러니 濟州島의 東部地域은 火山灰土이면서 자갈함량이 낮았고, 濟州島의 西部地域은 粘質土이면서 자갈함량이 높고 말았다. 耕起牛에 있어서 濟州島의 東部地域은 힘이 약한 암소, 그리고 濟州島의 西部地域은 힘이 좋은 수소가 많았음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림 2〉의 「疲勞」는, 朝天邑 新村里 李起珍씨(남, 1931년생)의 사례를 통하여 들여다보았다. 이 마을에는 '진드르' 라는 전작지대가 있었다. '진드르' 는 제주도에서는 보기가 드문 평야지대이었다. 그래서 이 지대의 밭들은 매우 넓었다. 이 지대에서 'ᄎᆞ남밧'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밭의 넓이는 5천 평이었다. 濟州島 숙전의 평균 넓이가 700평 안팎이었고 보면, 'ᄎᆞ남밧' 은 매우 넓은 편이었다. 그러니 두둑의 길이는 약 100m 안팎으로 매우 길었다. 이런 밭을 일구는 耕起牛의 疲勞度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밭을 가는 耕起牛는 牡牛가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니 이 마을은 耕起牛인 암소와 수소가 均等하였다. 이는 두둑이 긴 밭으로 이루어진 '진드르' 를 거느리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이었다.

암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10여 일 동안 밭가는 일을 이루어낼 수 없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수소를 選好하는 수도 있었다. 또 늙거나 힘이 약한 농부는 암소, 젊고 힘이 찬 農夫는 수소를 選好하는 수도 있었다.

암소는 수소보다 밭을 가는 데 있어서 速度도 느렸고, 힘도 약하였고, 疲勞度도 높았다. 그러나 耕起牛로 암소를 고집하는 까닭은, 암소는 송아지의 生産과 밭갈이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을 두고 '兩面보기' 라고 하였다. 곧 암소는 송아지의 生産과 耕起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이다.

3. 암소와 수소의 비율과 牛飼育

암소와 수소의 비율은 다섯 갈레로 나누어보았다. 또 제주도 162개의 마을은 암소와 수소의 비율에 따라 牛飼育의 방법은 서로 달랐다. 그리고 제주도의 耕起牛 飼育의 1년은[4] 소의 먹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小雪에서부터 이듬해 淸明까지는 牛舍에서 乾草를 먹으며 越冬하였고, 그 이외의 기간은 山野에서 靑草를 먹으며 春夏秋를 넘겼다. 淸明에서부터 여름농사의 播種이 이루어지는 小暑까지의 耕起牛를 두고 '봄쉐' 라고 하였다. 그리고 小暑에서부터 乾草를 收穫하는 秋分까지의 耕起牛를 두고 '여름쉐'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牛飼育은 春期와 夏期에 한해서만 들여다보고자 한다.

1) 암소의 絶大優勢

4) 拙稿(2005년), 「牛飼育の一年」『季刊東北學』第二號 參照.

[사례1] 朝天邑 朝天里 高琮益씨(남, 1935년생)의 사례이다.

〈三郡戶口家間摠册〉(1904년)에 따르면, 이 마을의 煙家는 480戶이었다. 이 마을 숙전의 토양은 완전한 粘質土이거나 火山灰土가 아니었으니, 암소로도 충분히 밭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새왓'을 일구며 生計를 꾸리려는 농부들만이 耕起牛로 수소를 고집하는 수가 더러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니 암소와 수소의 비율은 9:1로 암소가 絶大優勢하였다.

春期의 牛飼育은, 여러 사람이 輪換하며 10두 안팎의 소를 돌보았다. 이를 두고 '번쉐'라고 하였다. '번쉐'는 番牛라는 말이다. 番牛의 對象은 암소인 耕起牛, 또 '중성귀'와 생후 1년 이하의 수소이었다. 그러나 '부사리'인 수소는 休耕田이나 마을 주변의 空閑地에서 줄에 묶어 가꾸었다. 이를 두고 '줄쉐'라고 하였다.

夏期의 牛飼育은 일정한 山野에 풀어내버리는 것이었다. 이를 '放屯'[5]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牧者에게 委託하는 수도 더러 있었다. 耕起牛인 암소, 去勢한 수소, 그리고 생후 1년 이하의 수소는 放屯, 그리고 '부사리'인 수소는 委託飼育하는 수가 많았다. 放屯의 放牧地는 이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약 16㎞ 지점에 있는 '산굼부리오름'(표고 438m)과 그 주변이었다. 소의 주인은 일주일에 한번쯤 放屯의 방목지로 가서 자기네 소의 안부를 직접 확인할 뿐이었다. 그 동안 放屯의 방목지에서는 생식행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소는 朝天邑 橋來里에 委託하는 수가 많았다[6].

[사례2] 翰京面 楮旨里 文元淑씨(남, 1927년생)의 사례이다.

〈三郡戶口家間摠册〉(1904년)에 따르면, 이 마을의 煙家는 220戶이었다. 이 마을 1年2작지대인 熟田의 토양은 粘質土, 그리고 1年1作지대인 木山田의 토양은 火山灰土이었다. 어느 農作地帶이건 암소로 충분히 밭을 갈 수 있었다. 그러니 이 마을의 耕起牛는 수소가 거의 100%에 가깝게 絶大優勢하였다. '새왓'은 따비로 일구었을 뿐이었다.

이 마을은 마을 남쪽에 있는 板橋藪에 116町步의 共同牧場을 거느리고 있었다. 共同牧場은 文道之岳(표고 265m)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해발은 200~250m 안팎이었다. 그 안에는 '강정물'이라는 우마급수장도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공동목장에서 암소와 수소를 개별적으로 飼育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이 마을의 암소와 수소는 立夏에서부터 冬至까지 공동목장에 가두어 방목하였다. 그 동안

---

5) 拙稿(2007),「放屯(濟州島式放牧)について」『季刊東北學』第十號 東北文化硏究센터 參照.

6) 朝天邑 橋來里 사람들이 朝天邑 一帶의 牡牛를 委託받아 飼育하였던 事例는 다음의 글에 紹介한 바 있다.
拙稿(2006),「牛飼育とパリョンについて」『季刊東北學』第九號, 東北文化硏究센터,194-194쪽.

牛主들은 개별적으로 '강정물'에 물을 먹으러 온 소를 띄엄띄엄 확인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공동목장 안에서는 野牛의 방목도 이루어졌으니, 生殖行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2) 암소의 優勢

[사례3] 舊左邑 坪垈里 韓允赫씨(남, 1920년생)의 사례이다.

〈三郡戶口家間摠册〉(1904년)에 따르면, 이 마을의 煙家는 195戶이었다. 이 마을 1年2作 지대인 熟田과 1年1作 지대인 木山田의 토양은 온통 火山灰土뿐이었다. 그러니 암소로 갈 수 없는 경작지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1年1作 지대에 있는 '새왓'만 수소 두 마리를 쟁기에 매어 밭을 일구었을 뿐이었다. 그러니 이 마을의 耕起牛의 암소는 80%, 그리고 수소는 20%로 암소가 優勢한 지역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牛飼育을 함에 있어 암소와 수소를 구분하는 일이 없었다. 淸明에서부터 立冬까지 이웃들끼리 輪換하며 소를 가꾸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5두 안팎의 소를 가꾸었다. 이렇게 가꾸는 소를 두고 '번쉐'라고 하였다. 그리고 밤에는 일정한 곳에 가두었다. 밤에 소를 가두는 곳을 '모장지'라고 하였다. '모장지'는 '牧場地'의 濟州語이다. 牧場地는 17町步로 마을 공동소유의 것이었다. 이튿날의 番은 목장지로 가서 자기가 가꿀 소를 내몰고 여기저기 山野에서 풀을 먹이다가 저녁에 목장지에 담아버리면 그만이었다. 이 마을의 牡牛는 생후 3년 이내에 去勢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牡牛를 두고 '불베어븐쉐'라고 하였다. 암소와 수소가 따로 방목하는 일 없이 混合放牧하였기 때문에 일찍 去勢하여버렸던 것이다. 그러니 生殖行動은 방목하는 동안 去勢하기 바로 직전의 수소가 이루어내었다.

[事例4] 中文面 上猊里 姜元奎씨(남, 1935년생)의 사례이다.

〈三郡戶口家間摠册〉(1904년)에 따르면, 이 마을의 煙家는 175戶이었다. 이 마을 1年2作 지대인 熟田의 토양은 粘質土, 그리고 1年1作 지대인 木山田의 토양은 火山灰土이었다. 이 마을사람들은 마을 동쪽 中文面 穡達里 경내에 있는 '알색달', 그리고 이 마을 아래쪽 中文面 下猊里 경내에 있는 '쉐일레케'라는 1年2作 지대의 농경지를 제법 소유하고 있었다. 이 일대의 농경지에는 자갈이 빼곡하게 널려 있었다. 그러니 쟁기에 암소를 매어서는 밭을 갈 수 없었다. 또 이 마을 1年1作 지대에 있는 '새왓'의 밭갈이는 수소 2두 또는 1두로 이루어내었다. 그러니 이 마을은 암소 優勢 지역이었다.

이 마을에서 春期와 夏期의 牛飼育은 암소와 수소를 분리하여 사육하였다. 春期에는 암소와 수소

를 따로 協同番牧으로 사육하였다. 단 協同番牧의 그룹에는 생후 1년 이하의 수소와 '중성귀' 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부사리' 의 수소는 주인들이 個別飼育하였다. 개별사육하는 동안에는 줄에 묶인 채 가꾸는 수가 많았다.

夏期에는 암소와 수소가 철저하게 분리 사육하였다. 耕起牛인 암소, 去勢한 수소 그리고 생후 1년 이하의 수소는 공동목장에서 사육하였다. 이 마을은 牛步岳(표고 302m) 동쪽에 100町步의 공동목장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때는 牧監 한 사람이 모든 소를 돌보았다. 牧監은 共同牧場의 돌담을 보수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암소들이 공동목장에 있는 동안 生殖行動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암소의 주인들은 돈을 모아 '부사리' 를 賃貸하여 공동목장 안에 풀어놓기도 하였다. '부사리' 한 마리가 50두 안팎의 암소와 교미하며 生殖行動을 벌였다. 그리고 이 마을 수소는 여름동안에 이웃 中文面 中文里 共同牧場에 委託飼育하는 수가 많았다. 이 마을의 共同牧場은 133町步이었는데, 암소와 수소의 목장이 따로 나누어져 있었다.

3) 牝牡의 均等

[사례5] 濟州市 我羅里 金商燮씨(남, 1934년생)의 사례이다.

〈三郡戶口家間摠册〉(1904년)에 따르면, 이 마을의 煙家는 80戶이었다. 이 마을 1年2作 지대인 熟田의 토양은 粘質土, 그리고 1年1作 지대인 木山田의 토양은 火山灰土이었다. 특히 이 마을 '인다라' 일대의 農耕地에는 粘質土와 자갈이 널려 있었으니, 수소로만 밭을 갈 수밖에 없었다. 또 이 마을 1年1作 지대에 있는 '새왓' 은 수소 2두로 밭을 갈았다. 그러니 이 마을의 耕起牛는 암소와 수소가 서로 均等하였다.

이 마을에는 100町步의 共同牧場이 있었다. 공동목장은 암소와 수소의 방목지가 서로 달랐다. 암소 전용의 공동목장을 두고 '암쉐통' , 그리고 수소 전용의 공동목장을 두고 '부렝이통' 이라고 하였다. 공동목장의 방목기간은 立夏에서부터 霜降까지이었다. 암소 공동목장은 牧監을 선정하여 看牧하였다. 암소들이 공동목장에 있는 동안은 生殖行動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의 수소를 두고 '種牛' 라고 하였다. 種牛는 牧監이 책임을 지어 마련하였다. 牧監은 看牧費와 함께 種牛의 값을 牛主들로부터 받았다. 수소 共同牧場은 牛主들이 輪換하며 하루씩 看牧하였다. 근무교대는 아침에 이루어졌다. 그만큼 수소의 看牧이 어려웠던 셈이었다.

[사례6] 翰京面 板浦里 金彰班씨(남, 1933년생)의 사례이다.

〈三郡戶口家間摠册〉(1904년)에 따르면, 이 마을의 煙家는 152戶이었다. 이 마을 1年2作 지대인 熟

田의 토양은 粘質土, 그리고 1年1作 지대인 木山田의 토양은 火山灰土이었다. 木山田에는 비교적 자갈과 암반이 많았다. 이런 밭을 일구는 데는 암소가 안성맞춤이었다. 이런 밭에서는 쟁기의 보습이 자갈과 岩盤에 물리는 수가 많았다. 보습이 물렸을 때는 암소와 수소의 습성은 썩 달랐다. 암소는 동작을 멈추고 살짝 뒷걸음질하려는 습성이 있었으니, 보습을 떼어내기에 좋았다. 그러나 수소는 보습이 물려도 멈추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만 가려는 습성이 있었으니 보습을 떼어내기가 성가셨다. 그러니 이런 밭에서는 암소가 안성맞춤이었다. 또 이 마을 주변의 농경지는 흙이 무거웠다. 그러니 이런 밭에서는 수소로만 밭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흙이 무거운 밭을 두고 '숨튼밧'이라고 하였다. 이런 밭에서는 수소가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니 이 마을의 耕起牛는 암소와 수소가 서로 均等하였다.

이 마을 '부사리'의 牡牛는 마을 주변 山野의 草場에서 개별적으로 줄에 묶인 索牧으로 飼育하거나, 이웃 翰京面 楮旨里에 委託하여 사육하였다. 그러나 암소, 생후 1년 이하와 去勢한 수소는 방목으로 사육하였다. 이 마을 남쪽이면서 板浦岳(표고 93m) 서남쪽에는 제법 드넓은 山野로 이루어졌다. 이곳 山野를 두고 '활삐' 또는 '물한목'이라고 하였다. 그 속에는 '올리못'이라는 우마급수용의 우물도 있었다. 봄, 여름, 가을 방목기간에 牛主들은 매일 아침마다 집에 있는 牛舍에서 소의 줄을 풀어 내몰아버렸다. 이 마을의 소들은 자유롭게 방목지로 가서 풀을 뜯다가 해가 질 무렵에는 스스로 牛舍로 돌아왔다. 牛主들은 소들이 牛舍에서 밤에 먹을 사료를 준비하여두었다. 이때의 사료를 두고 '청촐'이라고 하였다. '청촐'은 青草라는 말이다. 만약에 牛主가 하루라도 青草를 마련하였다가 소에게 주지 않으면, 이튿날 저녁에 소들은 방목지에서 牛舍로 돌아오지 않았다.

4) 牡牛의 優勢

[사례7] 涯月邑 納邑里 邊允燦씨(남, 1924년생), 金榮澤씨(남, 1925년생)의 사례이다.

〈三郡戶口家間摠册〉(1904년)에 따르면, 이 마을의 煙家는 105戶이었다. 이 마을 1年2作 지대인 熟田의 토양은 粘質土, 그리고 1年1作 지대인 木山田의 토양은 火山灰土이었다. 1年 2作 지대 중 '구릉지', '언건이머흘', '동머흘'은 粘質土임과 동시에 자갈이 많았으니, 수소가 아니고서는 밭을 갈 수 없었다. 농경지의 이름에서 '머흘'은 자갈의 뜻을 지닌 濟州語이다. 그러니 이 마을의 耕起牛는 수소가 優勢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春期에 암소와 수소 따로 牛主들이 하루씩 輪換하며 가꾸었다. 암소 사육의 집단을 두고 '암쉐번', 수소 사육의 집단을 두고 '숫쉐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夏期에는 共同牧場에서 放牧하였다. 涯月邑 納邑里의 共同牧場은 發伊岳(표고 725m) 북쪽에 있었다. 공동목장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다. 남쪽의 목장은 수소 방목지, 그리고 북쪽의 목장은 암소 방목지이었다. 암소는 牧監

을 선정하여, 그리고 수소는 牛主들이 하루씩 輪換하며 共同牧場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암소의 방목지에는 自然交尾가 이루어지게 種牛를 풀어놓았다.

[사례8] 中文面 中文里 玄榮順씨(남, 1940년생)의 사례이다.

〈三郡戶口家間摠册〉(1904년)에 따르면, 이 마을의 煙家는 132戶이었다. 이 마을 1年2作 지대인 熟田의 토양은 粘質土, 그리고 1年1作 지대인 木山田의 火山灰土이었다. 1年2作 지대 중 '추승케', '절왓', '싱거물', '너베기'는 粘質土이면서 자갈이 많았으니, 수소가 아니고서는 밭을 갈 수 없었다. 1年1作 지대인 木山田은 암소로도 충분히 밭을 갈 수 있었다. 그러니 이 마을의 耕起牛는 수소가 優勢하였다.

이 마을에는 133町步의 공동목장을 갖추고 있었다. 공동목장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북쪽의 목장은 수소의 목장, 그리고 남쪽의 목장은 암소의 목장이었다. 立夏에서부터 立冬까지 마을에서 선정한 牧監이 목장의 소를 가꾸었다. 암소의 목장에서는 몇 마리의 種牛를 넣어두면서 自然交尾가 이루어졌다.

5) 牡牛 絶大優勢

[사례9] 翰林邑 洙源里 金東駿씨(남, 1932년생)와 夫仕保씨(남, 1933년생)의 사례이다.

〈三郡戶口家間摠册〉(1904년)에 따르면, 이 마을의 煙家는 142戶라고 하였다. 이 마을 1年2作 지대인 熟田의 토양은 粘質土, 또는 자갈이 많은 粘質土로 이루어져 있는 수가 많았다. 그러니 이 마을의 耕起牛는 수소가 100%로 絶大優勢하였다. 去勢한 수소는 힘이 떨어졌으니, 이 마을의 耕起牛인 수소는 去勢도 하지 않은 '부사리'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 마을은 해변에 위치하고 있어 소를 가꾸기에도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니 총30% 안팎의 家戶에서만 耕起牛를 갖추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봄에 耕起牛인 수소의 사육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여름에는 공동목장에서 사육하였다. 이 마을의 공동목장은 翰林邑 今岳里 경내에 있는 汀水岳(표고 469m) 남서쪽에 있었는데, 공동목장의 넓이는 30町步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공동목장의 牛飼育은 가까운 翰林邑 今岳里 사람에게 委託하는 수가 많았다. 翰林邑 今岳里의 梁玉荷씨(남, 1925년생)는 젊은 시절 洙源里 공동목장에서 洙源里 農家들로부터 委託받은 수소를 사육하며 생계를 꾸려왔는데, 그 당시의 경험을 나에게 들려두었다.

30町步의 洙源里 共同牧場에서는 '부사리' 수소 40頭를 가꿀 수 있었다. 牧監은 두 사람이었다.

共同牧場 안에 草幕을 짓고, 草幕에서 宿食하며 40頭의 수소를 飼育하였다. 수소의 목에 5발 길이의 줄을 채우고, 줄의 한쪽 끝에는 말뚝을 매었다. 아침에 말뚝을 옮겨 박았다. 점심에 소의 목줄을 풀고 우물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다른 곳으로 말뚝을 옮겨 박았다. 다시 저녁에 풀이 좋은 곳으로 말뚝을 옮겨 박았다. 하루에 세 번 소의 말뚝을 옮겨 박으며 잘 소를 먹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2개월 동안 수소를 먹인 값으로 一頭當 보리 일곱 말이었다.

[사례10] 涯月邑 下加里 林仁奉씨(남, 1930년생)의 사례이다.

〈三郡戶口家間摠册〉(1904년)에 따르면, 이 마을의 煙家는 55戶이었다. 이 마을 1年2作 지대인 熟田의 토양은 粘質土, 또는 자갈이 많은 粘質土로 이루어져 있는 수가 많았다. 그러니 이 마을의 耕起牛는 수소가 絶大優勢하였다.

봄에는 여러 집이 협동으로 輪換하며 소를 가꾸다가 저녁에는 牛主에게 소를 인계하였다. 그리고 여름농사 파종이 끝나고 나서는 공동목장에서 방목하였다. 이 마을 공동목장은 이웃 마을 涯月邑 上加里 경내에 있는 '무룻도'에 있었다. 공동목장의 넓이는 50町步이었다. 공동목장은 수소 전용목장이었다. 그리고 去勢한 수소와 妊娠한 암소는 수소의 전용목장에도 풀어놓을 수 있었다. 牛主들은 하루에 두 사람씩 아침에 교대하며 소를 看牧하였다.

4. 사례의 분석

지금까지 耕起牛의 비율을 다섯 갈레로 等分하고, 갈레마다 두 개의 사례를 들어보았다. 이를 하나의 圖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圖3).

〈그림 3〉 제주도 암소와 수소의 비율에 따른 牛飼育

事例	마을	耕起牛 牝牡 比率	春期의 牛飼育	夏期의 牛飼育
①朝天邑	朝天里	牝牛 絶大優勢	牝牛/協同番牧	牝牛/放牧
			牡牛/個別索牧	牡牛/委託飼育
②翰京面	楮旨里	牝牛 絶大優勢	牝牡/共同牧場放牧	牝牡/共同牧場放牧
③舊左邑	坪垈里	牝牛 優勢	牝牡/混合番牧	牝牡/混合番牧
④中文面	上猊里	牝牛 優勢	牝牛/協同番牧	牝牛/共同牧場放牧
			牡牛/個別索牧	牡牛/委託飼育
⑤濟州市	我羅里	牝牡 均等	牝牡/共同牧場分離放牧	牝牡/共同牧場分離放牧
⑥翰京面	板浦里	牝牡 均等	牝牛/放牧	牝牛/放牧
			牡牛/個別索牧	牡牛/個別索牧・委託飼育
⑦涯月邑	納邑里	牡牛 優勢	牝牡/分離番牧	牝牡/共同牧場分離放牧
⑧中文面	中文里	牡牛 優勢	牝牡/共同牧場分牧	牝牡/共同牧場分離放牧
⑨翰林邑	洙源里	牡牛 絶大優勢	牡牛/個別索牧	牡牛/共同牧場索牧
⑩涯月邑	下加里	牡牛 絶大優勢	牡牛/協同番牧	牡牛/共同牧場放牧

우선 共同牧場의 구조만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耕起牛가 암소 絶大優勢 지역인 [사례2]의 翰京面 楮旨里의 공동목장은 암소와 수소를 구분하지 않은 공동목장이었다.

耕起牛가 암소 優勢 地域인 [사례4]의 中文面 上猊里의 공동목장은 암소 專用의 共同牧場이었다.

耕起牛가 암소와 수소 均等 지역인 [사례5]의 濟州市 我羅里, 그리고 耕起牛가 수소 優勢 지역인 [사례7]의 涯月邑 納邑里와 「사례8」의 中文面 中文里의 공동목장은 암소와 수소를 分離放牧하는 공동목장이었다.

耕起牛가 수소 絶大優勢 지역인 [사례9]의 翰林邑 洙源里와 [사례10]의 涯月邑 下加里는 수소 전용의 공동목장이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耕起牛가 암소 絶大優勢 또는 優勢 地域은 암소와 수소 混合放牧이 이루어졌던 셈이다. 단 [사례4]의 中文面 上猊里는 예외이었다. 그리고 耕起牛가 암소와 수소 均等 또는 수소 優

勢 또는 絶大優勢 지역에서는 암소와 수소 分牧이 이루어졌던 셈이었다. 단지 去勢한 '중성귀', 생후 1년 이하의 수소, 그리고 妊娠 중인 암소는 分離放牧의 대상이 아니었다.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9 788995 704769 03700
ISBN 978-89-957047-6-9

도서출판 누리